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

과거의 꿈이 말해 주는 현재



2

한 학자가 어느 날 기차에 올랐다. 그는 기차 속에서 그가 읽는 책에 심취되었다. 차장은 그 옆을 지나면서 티켓 제시를 요구했다. 학자가 그의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지만 티켓을 찾을 수 없었다. 몇 번이고 호주머니들을 뒤졌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차장은 친절히 말하기를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나중에 찾으시거든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그런데 학자는 공포에 질려 다시 말했다. 아니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티켓을 찾아야 내가 가는 곳을 알 수 있단 말이오. 이 땅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늘 밤도 묻는다. 이 세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미래는 불확실하다. 사람들은 혼돈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2,600년 전 고대의 한 왕의 꿈은 이 시대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3

(비디오: 10 초) 과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 밤 몇 차례의 꿈을 꾸다고 말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꿈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4

아마 역사를 통틀어, 기록된 모든 꿈 가운데 가장 현저한 꿈은 2,600년 전 어느 날 고대 바벨론의 한 왕이 꾸는 꿈일 것이다. 그 꿈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잘 보존되어 있다.



5

성경 다니엘서 2 장은 그 이야기를 말한다. 느브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는 이 꿈이 비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비로운 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정말 그 꿈은 그런 꿈이었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6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브갓네살 시대로부터 세상 끝 날까지의 세상 역사--특별히 유럽과 중동 지방--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 왕에게 꿈을 주셨다.



7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미래의 될 일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셨다. 바벨론, 세상의 첫 왕국은 위대했고, 부유했고, 알려진 문명화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왕국이었다. 그 왕국은 또한 가장 강력한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다. 이 왕은 그 나라가 열방의 여왕이 될 때 까지 적군들을 하나 하나 모두 진멸하였다.



8

느브갓네살은 그의 통치 2년에 그의 제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역시 다른 제국의 왕들처럼 미래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장면을 주목하시고 미래를 보여 주신 것이다.



9

왕이 이른 아침 이상한 잠에서 깨어 났을 때, 그는 매우 심각했다. 그는 꿈을 꾸었고 분명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꾸는 꿈을 알아내어 해석하기를 원했다.



10

물론 그는 박수와 술객, 점성술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이 왕에게 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이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전에 회집했다. 그들이 들어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11

(본문; 단 2:3) ...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변민하도다 단 2:3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2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또 예언는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꿈을 대충 추측하여 해석할 수 있었지 정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변명을 해댔고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13

(본문: 단 2:4) ...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교만한 군주 앞에 그들의 자만심은 통하지 않았고, 왕은 시간을 벌려던 그 변명들에 실증을 느꼈다. 그래서,



14

(본문: 단 2:5, 6)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



15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16

너희 집으로 거름 터를 삼을 것이요



17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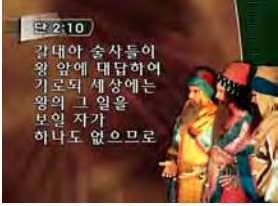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4-6절.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9

다시 그들은 왕에게 그 꿈을 말해 달라고 요청 했다. 이제야 왕은 그들이 거짓 행세를 했음을 알았다. 왕은 그들을 다시 위협했고,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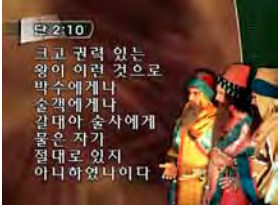


20

단 2:10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본문: 단 2:10, 11)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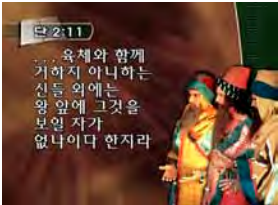


21

단 2:10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22

단 2:11

...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단 2:10, 11



23

성경은 왕이 분노하였고 군사들을 명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했다고 기록한다.



24

불행하게도 다니엘과 세 히브리 친구들은 비록 그들은 왕이 그 박사들에게 꿈에 대해 물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들과 같은 무리로 분류되었다. 병사들이 다니엘을 잡으러 들이 닥쳤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왕에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12-15절).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25

왕은 이 정직한 청년 다니엘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 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였다. 다니엘의 양 어깨에 얼마나 큰 짐이 지워졌는가! 그의 목숨 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의 목숨도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그의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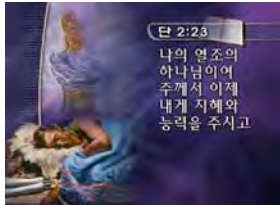
26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셔서 그들과 모든 바벨론 박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얼마나 간곡한 기도의 시간이었겠는가? 네 청년들은 약조한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계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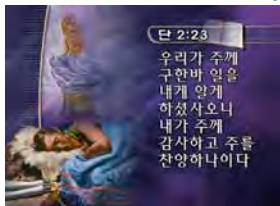
27

성경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날 밤 그에게 꿈 속에서 그 비밀스러운 꿈을 보여 주셨다고 기록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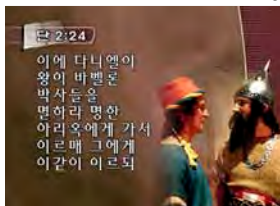
28

(본문: 단 2:23) ...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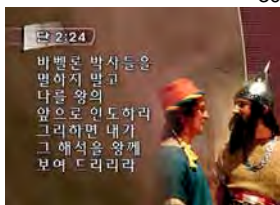
29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23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니엘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달려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30

(본문: 단 2:24)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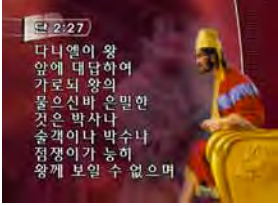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리리라 단 2:24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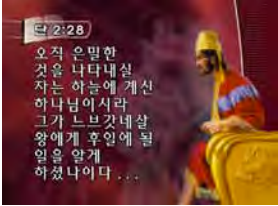
32

다니엘이 왕의 앞에 나왔을 때 느브갓네살은 다니엘이 정말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한 대답을 살펴보자.



33

(본문: 단 2:27, 28)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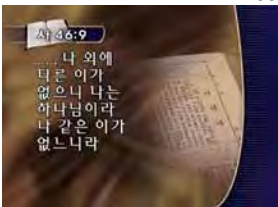
34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브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 . . 27, 2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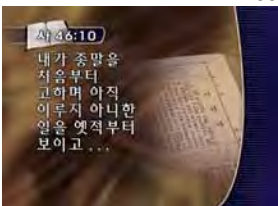
35

다니엘이 이 꿈과 그 해석에 대한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36

(본문: 사 46:9, 10) 다니엘은 분명 사 46:9, 10을 공부 하였음에 틀림없다. . .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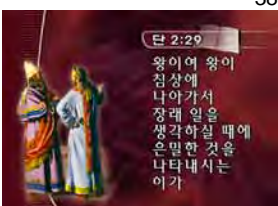
37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 . .



38

이 지혜는 느브갓네살과 또 우리에게 2,600년이 넘는 세계의 긴 역사를 보여 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먼저, 다니엘은 왕이 꾸었던 꿈의 배경을 설명한다.



39

(본문: 단 2:29)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40

장래 일을 알게 하셨사오며 단 2:29



41

(본문: 단 2:31) 다음으로, 다니엘은 꿈을 말한다. 왕이 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42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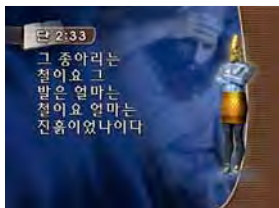
43

(비디오: 9 초) 그 말하는 순간 왕이 놀라 외치는 소리를 그대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래. 바로 그거였어! 두려운 신상! 높이 솟은 신상! 다니엘은 그 꿈을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느브갓네살이 그가 꾸 꿈과 똑같은 것임을 확신하게 했다.



44

(본문: 단 2:32, 33)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45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46

(비디오: 14 초) 느브갓네살이 다니엘이 묘사하는 하나 하나를 들을 때 그것은 놀랍게도 그가 꾸 꿈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머리는 빛나는 정금이였다. 가슴과 팔은 금보단 빛이 덜한 은이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다.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혼합된 상태였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본문: 단 2:34, 35) 또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

47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숩뜨리매

48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숩져

49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50



(비디오: 9 초) 다음으로 왕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돌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신상의 발을 쳐 부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 신상은 겨같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51



(본문: 단 2:35)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단 2:29-35.

52



(비디오: 8 초) 맞아, 다니엘 왕은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않은 한 돌이 날아와 우상을 쳐 부숩고 그 돌은 지구를 짝메운 산이 되었어라고 말했음이 틀림없다. 다니엘이 말한 모든 꿈은 왕이 꿈 그것과 똑 같았다. 그브갓네살 왕이 그가 꿈과 동일한 꿈을 준귀한 젊은 청년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를 상상 할 수 있겠는가?

53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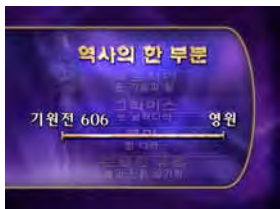
54

왕에게 분명했던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였다. 그 일은 거룩한 근원을 통해서 만이 가능한 것이다.



55

왕은 이제 왜 그 꿈이 그에게 임했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느브갓네살의 꿈은 지구 역사에 세워지고 무너지는 중요한 나라들을 예견해 준 것이었다. 그의 꿈에 제시되었던 왕국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에 특별히 근대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다.



56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탄생 약 600여년 전인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요 장면들을 간략하게 스케치 해 주셨다. 마침내, 다니엘은 그 꿈의 심장부에 들어와 있다.



57

(본문: 단 2:38) 왕을 정면으로 바라 보면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 . .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38절. 바벨론은 순금의 나라, 신상의 머리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얼굴은 만족의 미소를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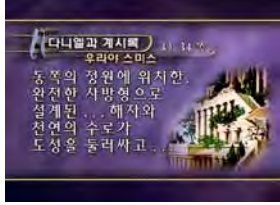
58

바벨론의 군사적 정복과 건축물의 웅장함은 가히 압권이였다. 역사가들은 금아 바벨론 왕국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다.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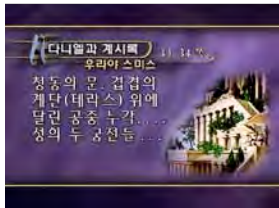
금은 바벨론의 건축물을 장식하는데 풍성하게 사용되었다. 한 역사가가 묘사하는 바벨론 고대 도시에 대해 주목해 보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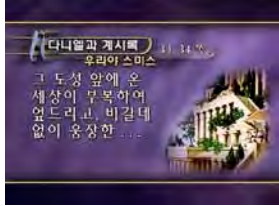
동쪽의 정원에 위치한, 완전한 사방형으로 설계된 . . . 해자와 천연의 수로가 도성을 둘러싸고 . . .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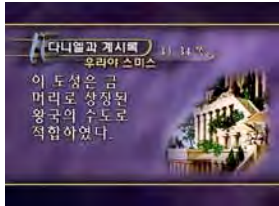
61

청동의 문, 겹겹의 테라스(계단) 위에 달린 공중 누각, ...  
. 성의 두 궁전들 ...



62

그 도성 앞에 온 세상이 부복하여 엎드리고, 비길데 없이  
웅장한 ...



63

이 도성은 금 머리로 상징된 왕국의 수도로 적합하였다.  
우라야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 33, 34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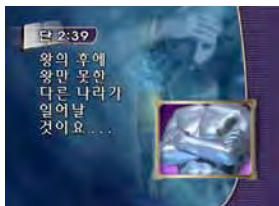
64

바벨론의 전설적인 공중 누각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의 가운데 하나였다.



65

만약 다니엘이 현명한 정치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에 남기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그 꿈의 해석을 거기서 멈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주시는 기별이 있었는데 그 기별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구의 끝날까지를 향한 기별이었다.



66

(본문: 단 2:39) 그래서 다니엘은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왕에게 말한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 단 2:39.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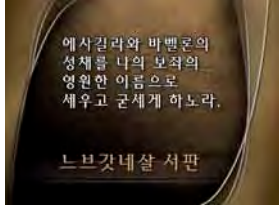
다니엘에게 다음 말을 듣자마자 왕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곧 사라지고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다. 바벨론의 교만한 군주는 다른 어떤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68

사실 고고학자들이 느부갓네살의 말이 적힌 흙토판을 발견하였다.



69

에사길라와 바벨론의 성채를 나의 보좌의 영원한 이름으로 세우고 군세게 하노라.



70

(본문: 단 4:30)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



71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단 4:30. 하지만 하나님은 금나라 바벨론 이후에 다른 권세를 일으키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었는지 본 사람이었다.



72

(비디오: 13 초) 오만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장자 벨사살의 통치 동안 고레스는 메대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침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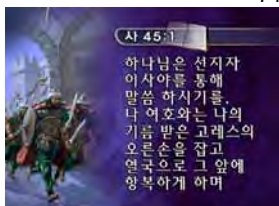
73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금나라 바벨론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74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주목하자. 바벨론 몰락 거의 200년 전에,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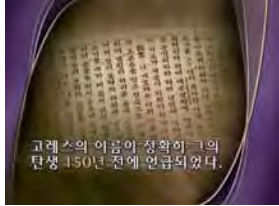
(본문: 사 45:1)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 하시기를, 나 여호와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76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사 45:1.



77

하나님은 더욱이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실 것인지도 말씀 하셨습니다. 메대의 고레스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다.



78

(비디오: 8 초) 고레스는 성벽이 너무 두껍고 높아 그것을 부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도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물을 막아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고 그의 군대로 하여금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도록 강 아래로 내려 보냈다. 그런데 누군가, 부주의인지 아니면 반역을 한 것인지, 내성의 큰 청동 문을 열어 놓고 지키지도 않고 있었다!



79

고레스의 군사들은 성으로 들어갔고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기명으로 술을 마시던 왕과 그의 귀족들을 살해했다. 그 금 기명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갈취하여 온 것들이었다.



80

다니엘은 금나라 바벨론 다음으로 온 가슴과 팔을 상징하는 다른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81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영광스러웠던 바벨론 제국 보다는 확실히 좀 못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 나라는 2세기 동안 중동 지역을 다스렸다. 다니엘은 또 그 은나라가 끝날 것이라 예언한다.



82

(본문: 단 2:39) ... 세째로 또 늦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단 2:39.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분명히 그렇게 되었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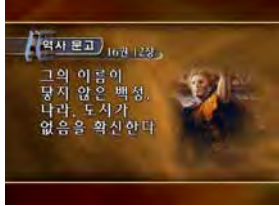
83

금속 신상 예언에서 늦 배와 넓적다리는 비상 젊은 장수 알렉산더에 의 성취되었다. 알렉산더 대제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기원전 331년 아르벨라 전투에서 패배 시켰고 세 번째 제국인 그리이스가 탄생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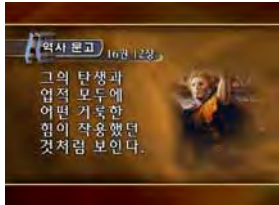
84

25세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는 우리가 아는 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85

걸출한 역사가 아리안은 알렉산더에 대해 그의 이름이 단지 않은 ... 나라와 도시와 백성이 없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86

그의 탄생과 업적 모두에 어떤 거룩 이 작용 던 것처럼 보인다. -역사 서고, 16권 1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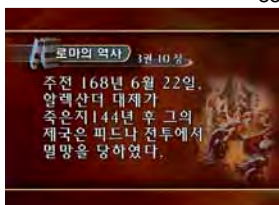
87

정 게도 그리이스 보병들은 느브갓네살의 꿈에 나온 세 번째 금속인 청동 갑옷을 입었다.



88

알렉산더는 그의 33살의 생일 전에 열병으로 사망 다. 알렉산더 사 그의 제국은 약 췌고 결국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뉘었다.



89

주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지 144년 그의 제국은 드나 전투에서 멸망을 당 였다. --로마의 역사, 3권, 10 장.



90

이제 이 고대 왕국들 가운데 가장 심각 나라가 올 차례 다. 그대는 나님이 네 제국이 차례 차례 올 것이라 예언 신 사실을 기억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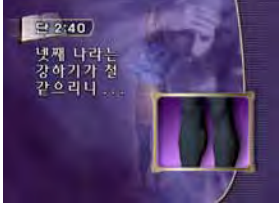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91

실로 철 다리는 네 번째 세계 제국이었던 잔인 파괴 세력을 잘 묘사 준다.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을 왕에게 설명는지 기록 고 있다.



92

(본문: 단 2:40) 넷째 나라는 강 기가 철 같으리니 ... 단 2:40.



93

로마의 왕들(시이저)는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고 모든 사람이 자신들에게 경배 고 복종 라 명 였다. 이 로마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나라에서 두 중요 사건이 발생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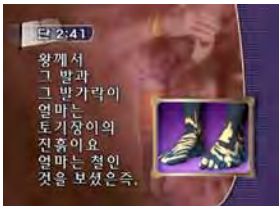
94

1. 예수님이 베들레 에서 탄생 다. 베들레 에 태어난 두 살 이 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명 던 것은 바로 이 로마의 관리였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다.



95

2.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 에 있던 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 셧다. 로마의 관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 가시도록 놔 두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 의 십자가에 못 박 셧고, 로마의 군병들이 그분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그것을 지키기 위 인봉 였었다. 이제 예언의 태가 바뀐다. 이제 로마를 잇는 더 이상의 통일된 세계 제국이 없 다.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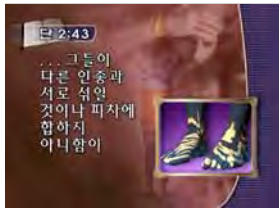
(본문: 단 2:41, 43) 왕께서 그 밭과 그 밭가락이 열마는 토기장이의 진 이요 열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97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98

...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차에 지 아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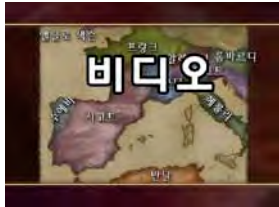
99

철과 진 이 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단 2:41, 43.



100

다른 말로 말 면, 다섯 번째 왕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철의 제국 로마는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101

(비디오: 3 초) 로마는 수 개의 왕국으로 나뉠 것이었다.



102

그 위대 로마 제국의 철 섬유 조직은 거의 600년 동안 세계를 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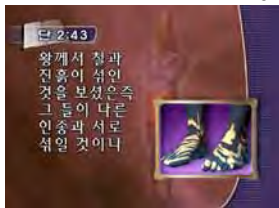
103

사치, 부패 정치,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통 로마는 그의 견고 과 을 서서 잃어 갔고, 351년과 476년 사이엔 이방 부족들이 쉽게 제국을 침공 기 시작 다.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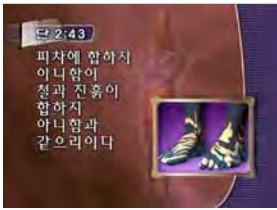
제 아우구스투스 는 위를 당 였고, 로마 제국은 결국 철과 진 이 섞인 밭과 밭가락의 상징처럼 여러 나라로 나 뉘었다.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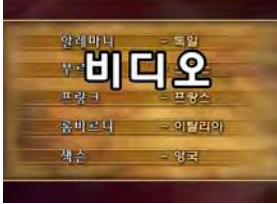
(본문: 단 2:43) 왕께서 철과 진 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06

차에 지 아니 이 철과 진 이 지 아니 과 같 으리이다 단 2:43. 로마에 침공 이민족들은 제국을 나누었다. 이 분열은 철과 진 발을 상징 며 오늘날 유럽 에 존재 는 나라들의 기초가 되었다.



107

(비디오: 6 초) 10 개의 이민족들은 대부분의 자들에 의 아래와 같이 나열된다. 알레마니-독일, 부르군디-스 위스, 랑크- 랑스, 롬바르드-이탈리아, 앵글로 색슨- 영국,



108

(비디오: 6 초) 수에비- 르투갈, 서고트-스페인, 그리고 룰리, 동고트, 반달은 지금 다른 다락에 입되었거나 존재 지 않음.



109

이 나라들이 결코 다시 세계 제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언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110

유럽은 여전 분열된 상태가 될 것이다. 비록 유럽 연 이 생기고 유로 가 생겼다 지라도 그들은 여전 분열 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111

다니엘은 예언 기를 비록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라 였다. 다시 말 면, 그것은 왕족 간에 정략 결 을 의미 다.



112

덴마크의 궁전에 유럽 왕가들의 계보가 있다. 그들 모두는 다 친척 관계였다. 그들은 전쟁을 막고 싶었다. 그런데 그 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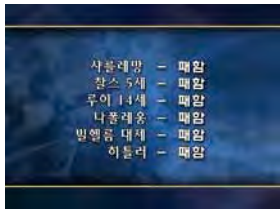
113

그들은 동반자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수 많은 전쟁이 정말 가족들끼리의 싸움이 되었다. 나님은 결코 나가 될 수 없다고 예언 셧다. 그들은 통일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길 원 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철과 진 이 결코 지 아니 과 같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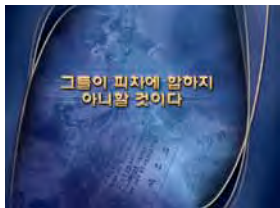
114

유럽을 다시 통일 제국으로 만들려던 수 많은 시도들을 생각 보라. 분열된 유럽을 다시 통 려던 세계 지도자들에 의 이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15

샤를르망-실패, 찰스 5세-실패, 루이 14세-실패, 카이저 빌름-실패, 툴러-실패, 엘바로 유배당 , 1800년대 초 랑스의 용장 나 레옹-실패. 나님은 나 레옹에겐 너무 벽찬 상대였다. 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너무 벽찬 상대였다!



116

나님은 차에 지 아니 과 같으리이라고 말씀 셧다. 이 말은 그 모든 지도자들의 비명에 기록 기에 적절 말이다. 지만 인간은 아직도 여전 유럽 나라들을 묶기 위 여념이 없다. 그러나 나님이 말씀 신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섞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지는 않을 것이다.



117

(비디오: 12 초) 느브갓네살은 이 예언을 듣고 매우 란 음에 틀림없다. 나님은 네 세계 제국의 운명을 예언 셧다. 나님은 로마가 일단의 나라들에 계승된다는 것과, 그들 중 일곱 나라는 오늘 날 유럽의 나라들을 상징 며, 어떤 나라는 강 고, 어떤 나라는 약 지만 모두 분열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 셧다.



118

그 꿈 석이 끝난 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분명 신과 기쁨으로 다니엘은 그 위대 금속 신상 석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 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19

(본문: 단 2:44, 45)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나뉠이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120

...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121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 고 산에서 뜨인 돌이



122

철과 놋과 진 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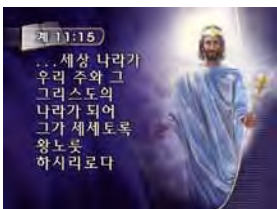
123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단 2:44, 45.



124

다음 단계에 있는 인간 역사의 커다란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람의 손으로 아니 돌로 상 된 그의 왕국의 립이 될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 신 손에 의 세워질 것이며, 그 왕국은 온 지구에 가득 찰 것이다.



125

(본문: 계 11:15) ...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계 11:15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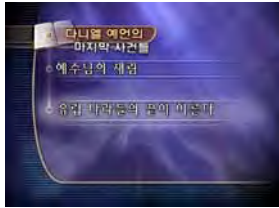
126

다니엘서에 놀랍게 예언된 이 마지막 사건에 대 주 목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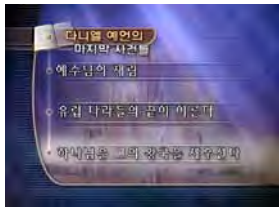
127

예수님의 재림



128

유럽 나라들의 끝이 이른다.



129

나님은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



130

이 왕국은 영원한 것이요



131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름부음 받을 것이다



132

예수님은 영원 나라를 통치 러 지구로 오실 것이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33

다니엘이 그가 받은 엄청난 이상과 놀라운 석을 왕에게 말 기를 마쳤을 때, 왕은 그의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뭇, 지 와 능력을 나타내신 그 나뭇께 대 경배를 나타내기 위 다니엘에게 겸손 무릎을 꿇 었다.



134

(본문: 단 2:47) ... 너 나뭇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 이 은밀 것을 나타내었으니 ... 단 2:47. 진실로 다니엘의 나뭇은 내가 섬기고자 는, 미래를 그의 손아귀에 쥐고 계신 바 로 그 나뭇이시다!.



135

그리스도의 탄생 6세기 전에 느브갓네살의 꿈 속에 나타 난 이 거대 금속 신상을 통 나뭇은 다가올 수 천년 의 비밀들을 드러내셨다!



136

친구여, 이 꿈이 참되고 이 석이 실 다! 세상은 이제 거의 끝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에 올 대단 사건은 영원 나라를 세우려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137

(비디오: 5 초) 금, 은, 동, 철로 상된 나라들은 역사를 거쳐 지나갔다. 이제 다음 영광스러운 사건은 우리 주님이 곧 재림 시는 사건이다!



138

예수님은 자국 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 곧 도래 아름다운 내일을 게 션다. 이 마지막 예언들이 신속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뭇은 그의 영원 나 라를 만들고 계시며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 1 - 어떻게 미래를 아는가?



139

(비디오: 7 초) 우리가 만약 예수님 십자가의 우 강도처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 다면 우리가 구원 받은 무리의 일부가 될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는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이란 것과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구원 받을 요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세상의 구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의 가시 박 이마로부터 얼굴에 르는 붉은 를 보았다. 그의 마음은 용솟음쳤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죄를 고백며 외쳤다.



140

(본문: 눅 23:42)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 실 때에 나를 생각 소서 눅 23:42.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나라가 임 때 그가 낙원에 있겠다는 증을 주셨다.



141

그대 역시 그와 같은 고백을 수 있고, 머지 않아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 실 때 예수님과 께 있겠다는 동일 증을 얻을 수 있다.



142

(본문: 마 25:34) 그 때 그대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 나 오는 초청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 내 아버지께 복 받 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 를 위 여 예비된 나 라를 상속 라 마 25:34



143

이 세상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 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더 큰 신 속에 미래를 맞을 수 있다.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사람의 손으로 지 아니 뜨인 돌이 신상을 쳐 부술 것이다. 이 지구의 나라들은 사라질 것이다. 나님은 그분의 영원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144

그대는 이 나님께 대 신을 가질 수 있다. 그대는 그분의 손에서 안전 게 될 수 있다. 그분은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그분은 오늘 그대를 초청 신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소 신다. 예 주님, 저는 온전 주님을 신뢰 니다. 제 인생을 이 기도와 더불어 주님의 손 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 지 않겠는가?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

두려움 없는 미래를 대함



2

어느 아름다운 여름 날, 아버지와 아홉 살 된 딸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철썩거리며 수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현저한 힘에 의해 조수가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어린 딸이 저 만치 쓸려 나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애를 썼지만 딸을 도저히 붙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를 다시 해안으로 보내 줄 어떤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다. 어서 물에 떠서 수영을 하렴, 두려워 말고, 아빠가 너를 구하러 곧 갈게. 그런 다음 아버지는 보트를 찾았다. 아버지가 보트를 타고 구조 대원들과 함께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의 가슴은 내려 앉았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그 지점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류에 밀려 바다로 떠내려 간 것이었다. 보트는 속력을 내어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린 소녀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아빠가 자신을 구출하러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평화로이 자신을 조류에 맡긴 채 떠 있었다.



3

후에 그녀는 그 무서운 대양에 홀로 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전 그 저 아빠가 내게 말한 대로 했을 뿐인데요? 나는 아빠가 다시 돌아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죠. 그 용감한 어린 소녀의 희망이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위대한 희망은 하늘 아버지께서 침몰하기 직전의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희망이다.



4

(비디오: 10초) 최근 한 유명한 과학자는 이 지구가 결국 다른 1천 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두려운 발표를 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 낸 지구 환경 오염이 지구 세계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5

이 무서운 열풍이 지구와 각 대륙을 돌아 결국 양 극의 빙하를 녹일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 지구가 다른 방법으로 종말을 고할 것이라 예측한다.



6

(비디오: 5초) 어떤 이들은 핵 전쟁으로 이 지구는 자멸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7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구의 인구 폭발로 양식과 자원이 고갈 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8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은 지구에 다가 오는 거대한 운석이나 별들과의 충돌로 지구가 사라질 것이라 말한다.



9

또, 다른 별에서 날아온 어떤 외계인들이 우리를 멸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두려워 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각종 질병이나 죽음, 슬픔을 인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11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쉬운 것이 아니다. 삶은 너무 힘들어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얼른 끝장이 나 버렸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이 고통과 굶주림, 스트레스로 가득한 도가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2

그래. 나의 친구여! 좋은 소식이 있다! 이 세상은 속히 끝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13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알고 싶어 한다. 우리 시대에 마쳐질 것인가? 아니면 천년 혹은 만년 후의 일인가?



14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마쳐질 것인지를 누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세상 종말을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15

하지만 문제는, 예언이 정확하게 진정한 사실로 나타날 선지자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다!



16

(비디오:15초) 그런데 그의 예언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고할 것이며, 그것이 곧 일지 또는 수 천년 후의 일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로 그 분,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이 세계의 끝이 언제 오는지 아시는 분, 그 분에 대해 공부할 때 놀라지 말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의 세계로 이끄신다. 그분은 믿음직한 인도자 이시다. 지구의 끝에 대해 지구를 창조하신 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17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서 로마에 의해 최근 세워진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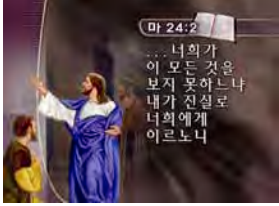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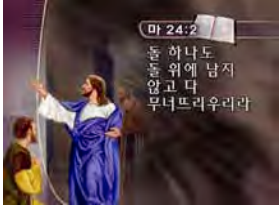
18

그것은 로마 전 제국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의 하나였다. 그 건물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19

(본문: 마 24:2) ...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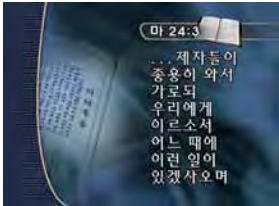
21

그것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건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처참하게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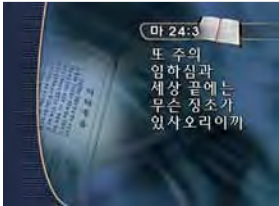
22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감람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우리가 물었을 듯한 질문을 예수께 던진다.



23

(본문: 마 24:3) ...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24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 24:3



25

그대도 느끼다시피, 만약 이 건물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세상의 끝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26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7

하나는,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의 재림을 말한다.



28

(비디오: 6초)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사건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파괴를 말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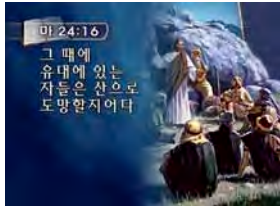
29

(본문: 마 24:15-16)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30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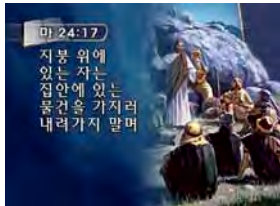
3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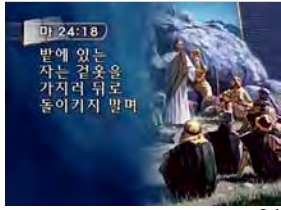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니엘의 경고가 곧 성취될 것임을 상기 시킨다.



33

(본문: 마 24:17-18)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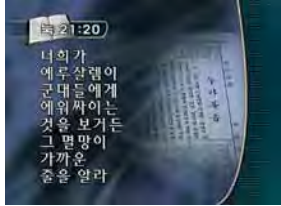
34

밭에 있는 자는 겹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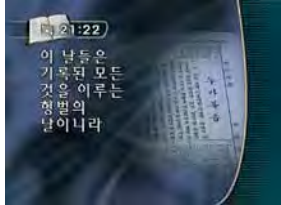
35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제자들에게 도망하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 그 성의 멸망이 임박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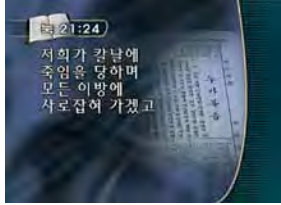
36

(본문: 눅 21: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눅 21:20. 그런 다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적들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말씀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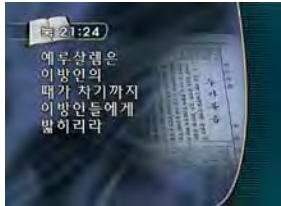
37

(본문: 눅 21:22, 24)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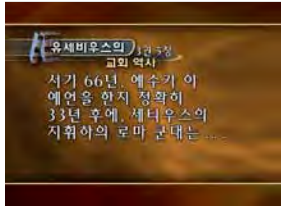
38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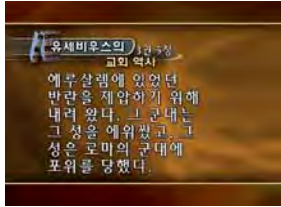
39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밧히리라 마 21:22, 2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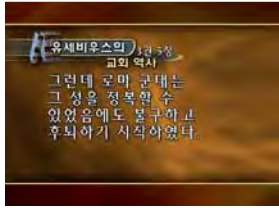
서기 66년, 예수가 이 예언을 한지 정확히 33년 후에, 로마의 시리아 통치자 였던 세티우스의 지휘하의 로마 군대는 ...



41

예루살렘에 있었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내려 왔다. 그 군대는 그 성을 에워쌌고, 그 성은 성난 로마의 군대 앞에 서게 되었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42

그런데 로마 군대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유세비우스의 교회 역사 3권 5장 참조)



43

(비디오: 6초) 예수님의 이 교훈을 따른 자들은 이 때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에서 피할 수 있었고, 다시 쳐들어온 로마 군대에 의한 살육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44

그 끔찍한 살육으로 인해 정확히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서기 66년, 로마 군대의 후퇴 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시대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공부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을 살핀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부주의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 주의하여 살피는 신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45

(비디오: 5초) 그 웅장했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게 된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그 성전을 보존할 것을 명하였다. 하지만 그의 한 병사가 성전 문을 열고 횃불을 던져 버렸다.



46

순식간에 성전은 화염에 휩싸였다.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



47

예루살렘 멸망 4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들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고를 염두에 두고 일어날 일들을 위해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세상 끝이 거의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징조를 주셨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48

우리 시대에 있는 몇 가지 징조들을 살펴보자. 마 24:7절에서 예수께서는



49

(본문: 마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50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 24:7. 20 세기는 인류 역사상 피비린내 나는 세기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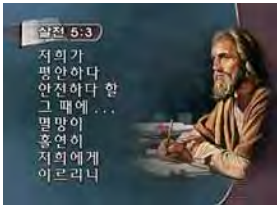
51

(비디오: 20 초) 1차 대전을 통해 2천 만의 사람들이 전쟁의 제물이 되어 죽었다. 2차 대전은 5천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침입과 미움은 끝이 났다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다. 세상은 거의 미친 듯이 보인다. 이것은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다.



52

각국은 평화를 위한 회담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와 준비에 관한 성경의 다른 예언을 보면: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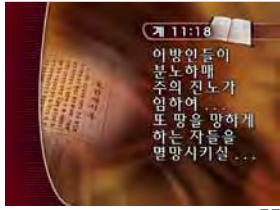
(본문: 살전 5: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 . .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살전 5:3. 우리는 평화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평화는 없다! 모든 이들이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그건 그저 말뿐!



54

성경은 이 지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말하는데, 인간이 지구를 파괴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 한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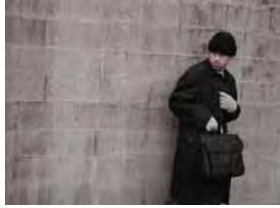
55

(본문: 계 11:18)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계 11:18. 전엔 결코 인간이 지구를 멸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56

핵 폭탄의 발명으로 인해, 인간은 지구 자체를 멸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57

테러 분자들은 한 때 잘 관리되었던 이 핵무기를 사거나 훔칠 방도를 찾고 있다. 그 핵 무기의 핵심 장치가 이미 분실되었고 그것들을 팔거나 사용하기 위한 자들에 손에 들어갔다.



58

좋은 평판을 얻는 한 잡지는, 핵무기를 어떻게 만드는데 대한 정보가 이미 세계 유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정보는 컴퓨터를 클릭하면 얻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다.



59

(비디오: 5초) 누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다가오는 미래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옷 가방 보다도 크지 않은 그것들을 세계 어느 곳에도 가져다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날 그것들 중의 하나가 세계의 주요한 도시를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 있을 것이다.



60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종류의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61

(본문: 마 24:7) ...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62

지구의 도처에 기근이 있다.



63

매년 5천 7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 매해 156,000 명이 죽어 가고 있다.



64

지구에 사는 수 십억의 인구 가운데, 60 %는 영양 실조이며 20 %는 기근으로 죽어 간다. 예수님은 세상 끝의 징조로서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65

(비디오: 5 초) 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식량 생산 보다 과잉이 되면 세계적인 기근과 굶주림, 이로 인한 피부병이 만연할 것이며, 식량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구의 2/3가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데 늘어나는 수십억의 인구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66

(본문: 눅 21:25)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있을 지구의 혼란에 대해 묘사하셨다. ... 땅에서는 민족들이 ... 곤고하리라 눅 21:25



67

예수님은 역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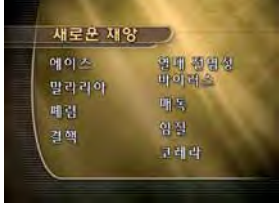
(본문: 눅 21:11)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사전에 의한 역병의 현대적 의미는, 전염병 또는 이상한 질병과 같은 것이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69

현대 의학이 처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많은 역병들이 있다.



70

에이즈, 말라리아, 페럼, 결핵, 열대 전염성 질병, 매독, 임질 그리고 콜레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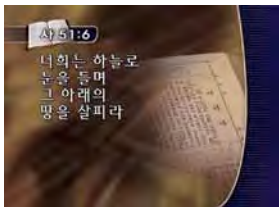
71

세계 보건 기구는 현재 우리가 4 천만 종의 H. I. V.(면역 결핍) 성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것을 멈출 특별한 일이 단행되지 않으면 모든 나라들은 소멸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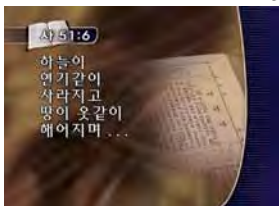
72

이 시대에 발견되는 세상 끝에 관한 또 다른 징조는 환경 오염이다. 성경은 세상이 너무 늘어 갈 것이라 예언 했다. 사 51: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73

(본문: 사 51: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74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하늘과 땅이 멸망을 향해 비틀거리며 가는 것을 어찌 이렇게도 잘 묘사할 수 있으랴!



75

오늘 날 대도시의 하늘은 우리가 숨쉴 때 들이 마셔야만 하는 독한 화학 물질들로 뒤 덮여 있다.



76

많은 대도시엔 오염된 공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비디오: 5 초) 많은 곳에서 물은 이미 그냥 마시기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 많은 위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77



원자 쓰레기를 처리한 것은 오늘 날 참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거대한 원자 핵 공장 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고통 받음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 있다.

78



어디서 우리는 에너지와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것인가? 어디서 식량을 조달할 것인가?

79



(비디오: 6 초)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류는 생존을 위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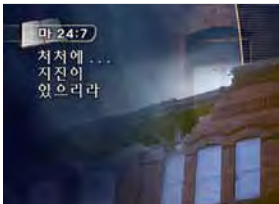
(본문: 눅 21:25) ...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눅 21:25

81



성경은 지진 또한 증가할 것이라 말한다.

82



(본문: 마 24:7) 처처에 ... 지진이 있으리라 마 24:7. 도처에서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83



매 해마다 6,000 번의 현저한 지진이 세계에서 일어난다.

84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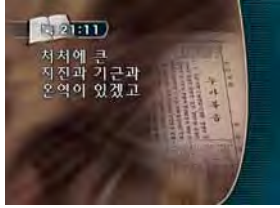
85

(비디오: 10 초) 지난 90년 동안 1백 5십 만 명이 지진으로 참사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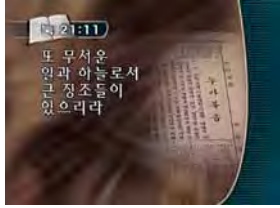
86

가장 최근에, 우리는 한 번의 으르렁 거리는 지진에 20,000 에서 30,000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대들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경험한 지진들을 기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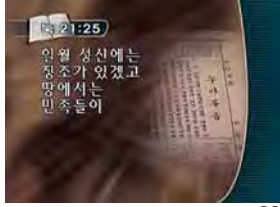
87

(본문: 눅 21:11, 25) 성경은 말하기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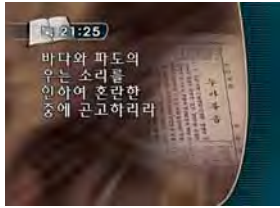
88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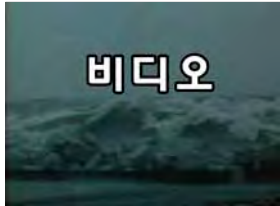
89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90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눅 21:11, 25



91

(비디오: 17 초) 바람과 파도가 우는 소리를 낸다는 말을 주목하라. 온 세계에 걸쳐, 우리는 기상 이변들을 경험한다. 해일을 동반한 태풍들, 토네이도, 허리케인, 화산 폭발, 이 모든 일들은 재산과 목숨에 두려운 위협을 가한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92

성경은 또 다른 징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세말에 있을 도덕적 상태이다. 예수님은 지구 마지막 시대의 상태를 지구 역사상 가장 최악이 가득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셨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두 도시를 멸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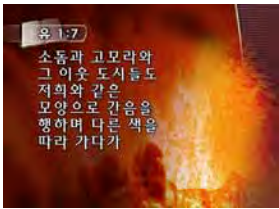
93

(본문: 눅 17:28, 30)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



94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눅 17:28-30



95

(본문: 유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유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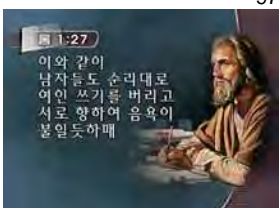
96

바울은 이 도시들의 도덕적 상태를 이렇게 특징지었는데,



97

(본문: 롬 1:26, 27) ... 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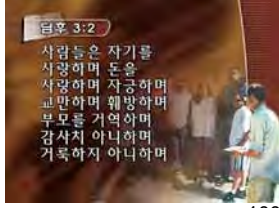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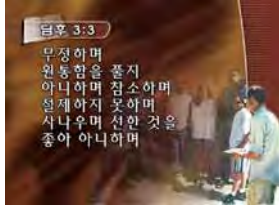
99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 롬 1: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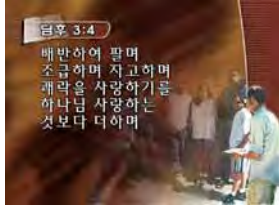
100

(본문: 딤후 3:2-5)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



101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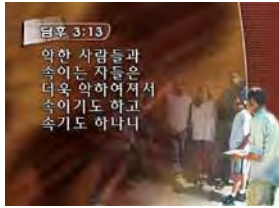
102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103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 딤후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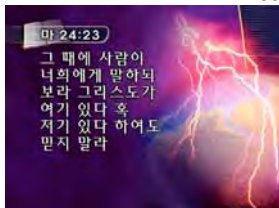
104

(본문: 딤후 3:13) 이 이상 더 심할 수 있는가? 미안하지만 그렇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05

예수님께서 주신 징조들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미하기 위해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다.



106

(본문: 마 24:23-24) 그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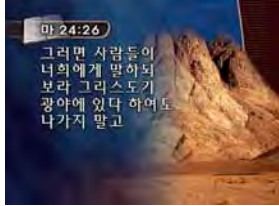
107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108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3-24



109

(본문: 마 24:26)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마 24:26. 나갈 필요가 없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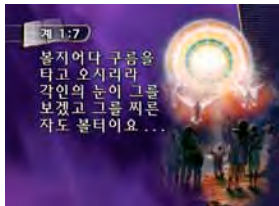
110

(본문: 마 24: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111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27절



112

(본문: 계 1:7) 다시 말씀하시기를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불터이요... 계 1:7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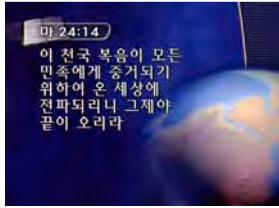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를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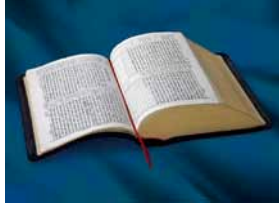
모든 징조들 중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징조들 가운데 오직 이것만이 완전 이루어지지 않았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15

(본문: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16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포를 묘사하고 계심을 발견한다.



117

(본문: 계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118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119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오늘 저녁 집을 갖는 이 순간에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닫는가? 이 집은 모든 족속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언의 한 성취임을 기억하라.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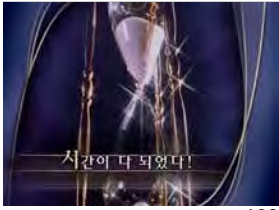
이 복음은 TV와 라디오, 전도, 인터넷, 개인 성경연구, 세계 도처에 있는 통신 과목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곳곳에 선포되고 있다.



121

다니엘은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한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오늘 날, 다니엘서는 그 인봉이 벗겨지고 있다. 과학 세계의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고 있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22

시간이 다 되었다! 노아의 때 세상의 종말을 불러왔던 죄들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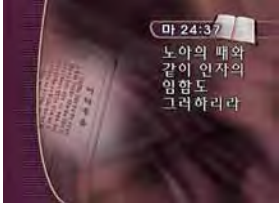
123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로 가늠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열심인 듯 하다. 예수님은 오늘 날 우리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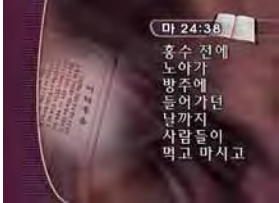
124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업과 일과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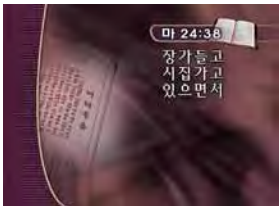
125

(본문: 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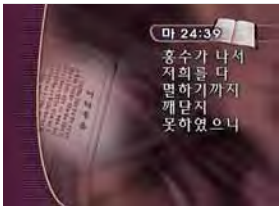
126

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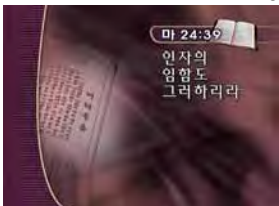
127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128

수가 나서 저희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129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30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 하셨다. 사람들에게 시간의 시간이 많으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



131

지금 미래 시계의 마지막 남은 한 부분이 러 떨어지고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천천 만만의 천사와 함께 별들이 축축하게 어진 하늘을 뚫고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날을 고대하고 계신다.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하늘 집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132

오늘 날 나타나는 징조들을 대하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징조들은 예수님이 초림 하실 때보다 씩 급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징조들을 주신다.



133

(비디오: 7초) 시계가 4천 년을 가리켰을 때 하나님은 더욱이 천사들과 동방박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게 하셨다.



134

(본문: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35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 오시는 재림을 말하기 위해 수 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136

(본문: 마 24:33-34)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37

내가 진실로 너 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이 일이 다 이루어리라 마 24:33, 34



138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분을 실망시킬 것인가? 시간이 늦었다. 멸망의 주는 높이 들려 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139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 는 뉴욕 항구를 출발하여 증기를 뿜어 내며 파나마 운하를 가기 위해 대서양 남쪽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증기선에 이상이 생겼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다른 배가 조난 신호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왔다. 조난을 위해 온 배의 선장이 소리쳐 물었다. 뭐가 잘못 되었지요?고 물었다. 정비 불량인 것 같소. 아침까지 기다립시다! 하는 대답이 들려 왔다. 구조를 하려던 배의 선장은 고장 난 증기선이 가라앉고 있는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다. 그 배의 승객들을 우리 배에 옮겨 태우도록 합시다. 하지만 어둠이 칠 같아 고장 난 증기선의 선장은 그 어둠에 승객을 옮길 모험을 하려들지 않았다. 그래서 응답하기를, 아침까지 기다립시다. 구조를 원하던 선장은 지금 감행 할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선장은 거절했다. 고장 난 증기선의 선원들은 아침을 기다렸다. 배의 난간에서 서서, 그들의 배에서 비춰지는 불빛이 파도에 들거리는 것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시간 그리고 30분이 더 경과한 이 , 배의 불빛이 꺼져 버렸을 때, 그들은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배는 가라 앉았고 모든 승객들도 배와 함께 가라 앉았다.

##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40

기다리는 것은 영원 잃어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이 그대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센트럴 아메리카 의 선장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망서리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왜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지 않는가? 지금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이제 곧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 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 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대의 손을 들고 주여, 당신이 재림 하실 때 내가 당신을 만나기에 준비되길 원하 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는가?

2-그대가 무시 할 수 없는 징조들!



1

불멸의 웃을 입는 날



2

메리는 지쳤다. 매우 바쁜 한 주였다. 그녀의 생활은 연속된 활동의 회오리 바람처럼 여겨졌다. 가게로부터 집으로 차를 몰면서, 그녀는 고속 도로를 지나 그녀의 집으로 가는 좁은 시골 길로 접어들었다.



3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처럼 많은 유성이 밤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 유성 소나기는 하늘에 밝은 빛으로 수를 놓았다.



4

그와 같이 많은 유성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차를 몰았다. 그녀는 즉시 생각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인가! 예수님이 오시는가! 어서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있어야지. 후에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메리는 하늘이 그렇게 밝은 것을 보고 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고 생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5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유성 소나기가 세상 끝의 징조인가?



6

(비디오: 8 초) 어떤 이들은 세상이 핵 전쟁으로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며 지구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것이라 생각한다.



7

다른 이들은 지구의 인구가 폭발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을 것이라 말한다.

### 3 - 대 탈출



8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행성이나 혜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파괴할 것이라 염려한다.



9

(비디오: 8 초) 그러나 성경은 오래 전에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고할 것인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기쁜 소식은, 인류가 전쟁이나 기근, 또는 다른 행성으로 인해 멸망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다.



10

대신에, 성경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고 말한다. 그분은 거의 2000년 전에 떠났던 이 지구로 다시 오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11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상상하고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흥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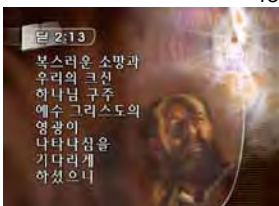
12

예수님은 속 오시며 이 지구의 문제들은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 지구에 넘쳐나는 문제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왕의 재림으로 얼마나 복된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인가!



13

사도 바울이 어둡고 습기찬 감옥에서 그에게 있을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이렇게 적었다.



14

(본문: 딤후 2: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딤후 2:13. 바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도를 위로하는 편지에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상기시킨다.

### 3 - 대 탈출



15

만약 그대의 삶이 어둔 밤처럼 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가? 눈을 들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모든 것을 회복 시키는 복된 소망을 바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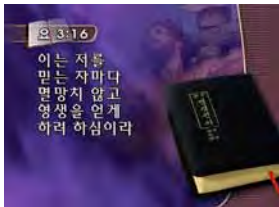
16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매 25절 마다 1절은 이 사건에 관한 언급이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 보다 그분의 재림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다. 신약에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다.



17

(본문: 요 3:16)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절은 요 3:16절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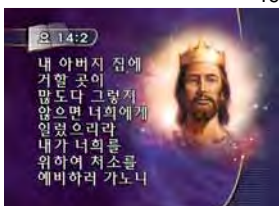
18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아름다운 약속이다.



19

(본문: 요 14:1-3) 너 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0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 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 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21

가서 너 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 3 - 대 탈출



22

너 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 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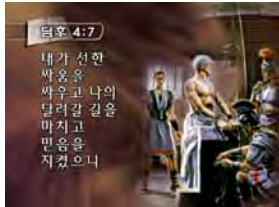
23

수 세기 동안, 실망과 고통,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  
해 왔다.



24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신다는 이 망의 약속은 그들에게 용  
기를 주고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견디도록 하였다. 예수님  
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해  
왔다.



25

(본문: 딤후 4:7, 8) 온갖 역경과 박해를 당했던 사도 바  
울이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내가 선  
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  
니



26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27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라 딤후 4:7, 8.



28

바울은 박해자의 창칼 앞에 당당 설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29

그렇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  
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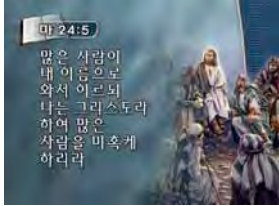
30

제자들이 세상 끝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자세 설명하셨다.



31

(본문: 마 24:4, 5) ...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32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4, 5. 24절에 예수님은 이 주제를 자세 언급한다.



33

(본문: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34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35

만약 거짓과 참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에 미혹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 하셨다. 이 미혹은 어설프게 속이는 미혹이 아니다.



36

마침내 예수님은 너무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될 엄청난 거짓 선지자의 출현까지도 언급하신다. 그대가 알다시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병고치고 초자연적인 일을 비롯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 3 - 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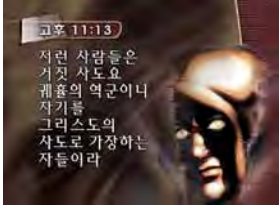
37

성경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들은 결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나시기 전 우리는 반드시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활동을 목격해야만 할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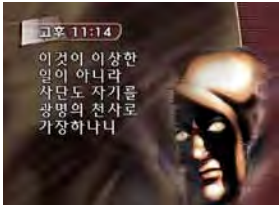
38

사단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한 많은 혼란을 갖게 할 것이다.



39

(본문: 고후 11:13, 14)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환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40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후 11:13, 14. 사단은 자신을 가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출할 것이다.



41

(비디오: 13 초) 여기 저기에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옷을 입을 것이라 여기는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친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한다. 성경을 잘 인용한다. 어떤 이는 매우 지혜 있게 보인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리스도로 지상에 재림 했다는 것을 믿는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닌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런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그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대 눈에 그리스도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는 아마 그대가 기대하는 예수님처럼 말할지 모른다.



42

그는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압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감각 즉,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43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단 하나의 안전한 지침은 성경 밖에 없다.



44

그리스도의 재림에 독특하게 나타날 징조의 몇 가지를 고려해 보자. 이것은 우리를 결코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45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 사건이다.



46

(본문: 마 24: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47

(본문: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 . .



48

거짓 그리스도는 여기 저기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거짓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오심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지 못할 것이다.



49

예수님이 지상 사업을 마치시고 승천할 준비를 끝마치셨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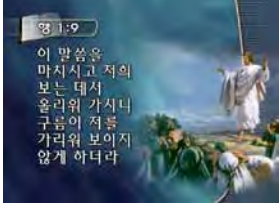
그분은 감람 산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신 다음 하늘로 들림을 받으셨다.

### 3 - 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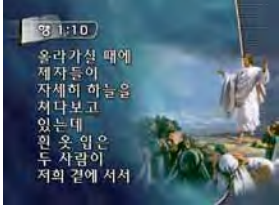
51

이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살펴보자.



52

(본문: 행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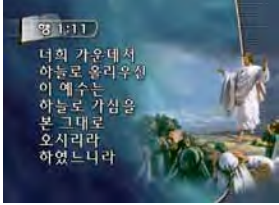
53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 곁에 서서



54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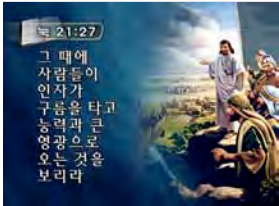
55

너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9-11



56

하늘로부터 온 두 천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 졌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 일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57

(본문: 눅 21: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눅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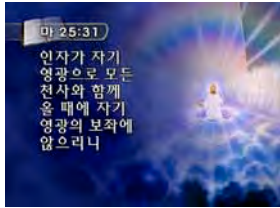
58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말해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름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그대가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이 모방할 수 없는 다른 징조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갑자기 어떤 장소에, 혹은 갑자기 우주선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59

예수님은 쫄쫄 홀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 분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60

(본문: 마 25:31) 예수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하셨다. 마 25:31.



61

(본문: 마 24:31) 왜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가? 여기에 해답을 주신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62

저 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 24:31.



63

그렇다 예수님은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늘을 뒤 덮을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그대는 왜 자신들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지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계된 더 많은 사건들이 있다.



64

그것은 가청적 사건이며 죽은 의인들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사건이다.

### 3 - 대 탈출



(본문: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65



친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살전 4:16.

66



그래서 그대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가청적 사건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이다.

67



무덤이 열리고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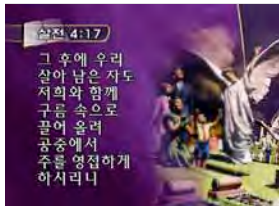
사단이 이런 영광스런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내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겠는가?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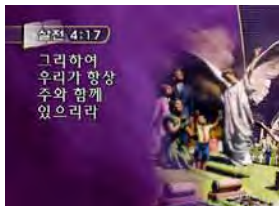
더 좋은 소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 살아 있는 의인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주목해 보라.

70



(본문: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71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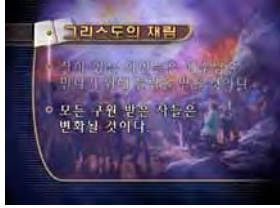
72

### 3 - 대 탈출



73

(비디오: 4 초) 예수님을 신실 따르던 자들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들림을 받는다.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74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시 있을 사건에 대해 더 자세 묘사한다.



75

(본문: 고전 15:51-53)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홀연 다 변화하리니



76

나팔 소리가 나매



77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78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가불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전 15:51-53.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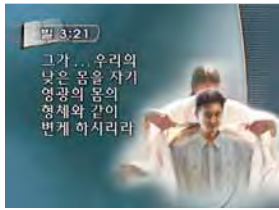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불멸의 선물을 제외한 어떤 선물도 무의미한 것이다.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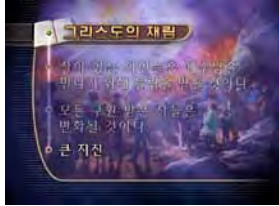
(본문: 빌 3:20, 21) ...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3 - 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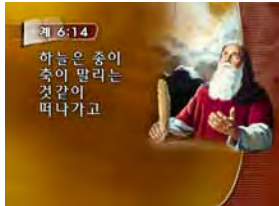
그가 ...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 21. 그리스도와 같은 몸. 질병이나 고통, 아픔이 더 이상 없는 몸. 이보다 더 환영할 만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81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재림은 그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아니다. 이 지구를 흔드는 역사적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주목하라.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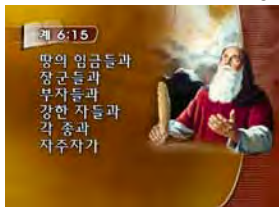
(본문: 계 6:14-17)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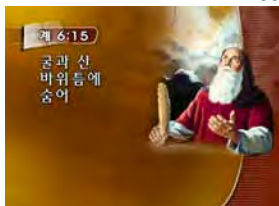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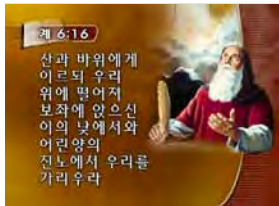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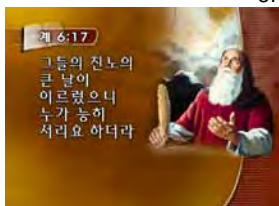
굴과 산 바위에 숨어

86



산과 바위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8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서리요 하더라 계 6:14-17.

88



89

(본문: 계 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90

사람이 땅에 있어 음으로 이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 16:18.



91

이 지진은 지구의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이 같은 지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92

예수님은 그분의 오심이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때라고 경고하셨다. 그분은 또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쾌락에 그들의 삶을 바쁘게 소비한다고 말씀하셨다.



93

(본문: 마 24:30) ...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



94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맞을 최후이다. 그들은 잃어버림을 당하고 본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할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 장면인가! 친구여! 그런 날이 속 실현될 것이다.



95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세상의 보화가 사실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단 한 차례의 지진이면 그 모든 것은 날아갈 것이다.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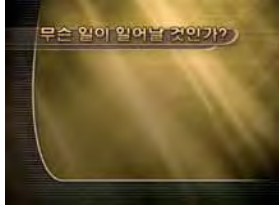
(본문: 눅 21:36) 그러므로 너 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 피하고

### 3 - 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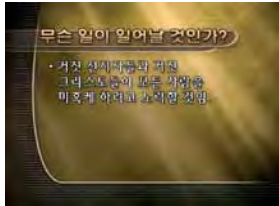
97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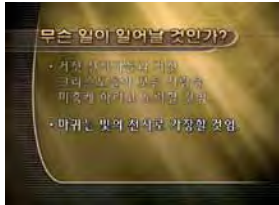
98

우리가 배운 것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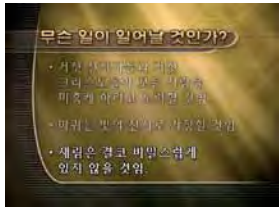
99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모든 사람을 미혹케 하려고 노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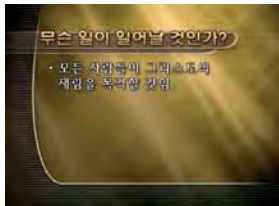
100

\*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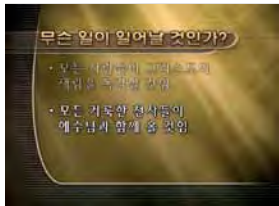
101

\* 재림은 결코 비밀스럽게 있지 않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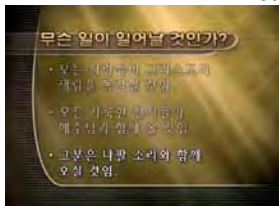
102

\*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할 것임.



103

\*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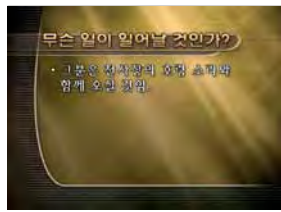


104

\* 그분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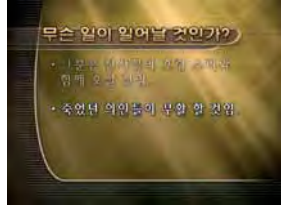


### 3 - 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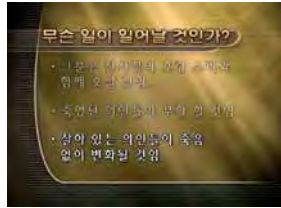
105

\* 그분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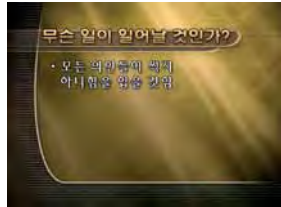
106

\*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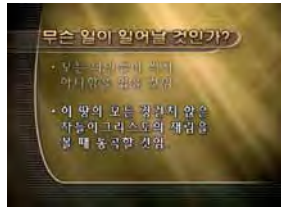
107

\* 살아 있는 의인들이 죽음 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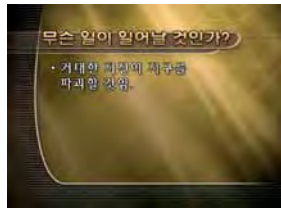
108

\* 모든 의인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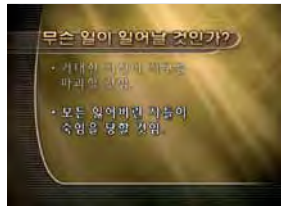
109

\* 이 땅의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때 통곡할 것입니다.



110

\* 거대한 지진이 지구를 파괴할 것입니다.



111

\*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 3 - 대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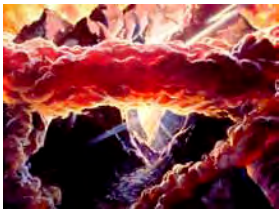
112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 없고, 인간의 글이 다 묘사할 수 없으며, 유한한 자의 마음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들과 화가들이 성경에 묘사된 재림의 광경을 나름대로 묘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들을 그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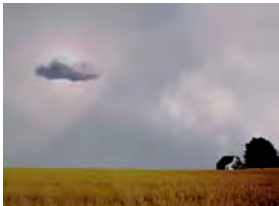
113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아들의 재림하는 날과 시간을 알리는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지구 전체에 펼쳐질 것이다.



1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지구는 그분 앞에 떨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움직여 이탈할 것이다.



115

곧 동쪽 하늘에 작고 검은, 사람의 손바닥 반 만한 구름 한 점이 나타난다.



116

그 구름이 지구로 다가올 때,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지고 영광스러워지며 그 위에 무지개를 동반한 커다란 구름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우주 거민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며, 숨을 죽이고 있다. 이것은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117

하늘은 광선 빛으로 가득차고, 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118

그 영광은 하늘을 뒤덮고 그들이 점점 더 지구로 향해 가까이 올 때, 모든 만민이 오시는 왕을 주목한다. 그분의 이마를 찌르던 가시 면류관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119

지구의 임금들, 부자들과 위대한 자들, 능력자들, 종들과 자유자가 산과 바위에게 일러 그들 위에 떨어져 어린양의 낮에서 그들을 가리우라고 간청할 것이다.



120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이던 자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기를 거절한 자들,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던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일어나 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녹아 내리고, 그들의 무릎은 두려움에 떨며,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121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메시야시다.



122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분을 목격한다.



123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조롱하던 자들은 말을 잃는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비웃고 예수님에게 가서 면류관을 씌우게 했던 오만하던 헤롯도 그 자리에 있다.



124

거기에는 예수님의 입으셨던 자색 옷을 더러운 손으로 제비 뽑던 사람도, 그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짓눌러 씌웠던 사람도, 왕이신 예수님의 반항하지 않는 손에 조롱의 지팡이[왕권을 상징하던 홀을 대신하여]를 쥐어 주던 사람도, 그리고 온갖 모독을 퍼 부었던 사람도 있다.



125

생명을 다스리는 분을 조롱하고 채찍 하던 사람들이 그분의 출현 앞에 피할, 자신을 숨길 곳을 찾을 것이다.

### 3 - 대 탈출



126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자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도 공포와 경악에 질려 바라볼 것이다. 그 때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은 갈보리의 사건을 '상할 것이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외치던 그들이 사단의 손에서 놀아났음을 처절 느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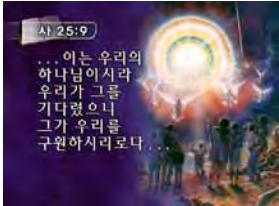
127

만약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 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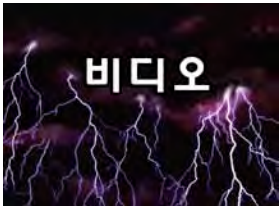
128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이 영광스런 장면을 위한 증인이 되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사단의 기뻐 날뛰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129

(본문: 사 25:9) ...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



130

(비디오: 11 초) 요동치는 지구에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내리치며,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가 잠자는 의인들을 명한다. 하나님은 잠자는 의인들의 무덤을 내려다 보시고 하늘에 손을 펴시며 외치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티끌 가운데 자고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131

온 지구에 죽어 있는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온 지구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큰 대열을 이룰 것이다.



132

죽음으로 인해 갖혀 있던 무덤에서 그들이 나오며 불멸의 옷을 입고 외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썸이 어디 있느냐?' 살아 있는 의인들은 부 한 의인과 연합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모든 질병과 육체적 결함은 무덤에 묻어 버렸다. 오 놀라운 구원! 그토록 오래 고대해 왔고, 그토록 오래 이야기 해 왔던 구원, 그 자리에 서기를 갈망해 왔던, 그러나 결코 온전 이해할 수 없었던 구원이었다.



133

살아 있던 의인들은 '순식간에 연 ' 변 된다.' 그 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 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34

천사들은 선택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 아이들이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그들의 부모의 품에 안기운다.



135

죽음으로 오래 헤어져 있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고,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감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함께 올라간다.



136

그들이 하늘을 향해 갈 때, 천사들은 외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 와여.' 구원 받은 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친다.



137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상장을 부여하며, 귀한 위치를 상징하는 장을 수여하신다. 구원 받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시선이 그 분을 향해 있고 그의 영광을 주목한다.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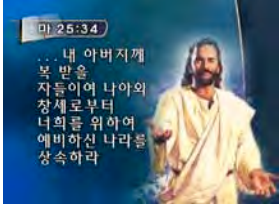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예수께서 친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하신다. 각자가 받은 면류관에는 '새 이름'과 '주님께 성결'이란 글귀가 적혀 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모든 이의 마음에 넘치고, 감사의 찬양이 러 넘친다.

### 3 - 대 탈출



139

예수님은 거룩한 도성의 큰 진주 문을 열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며 인내한 구원 받은 자들을 도성으로 이끄신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궁전과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집을 바라본다. 그런 다음 불완전한 귀로 결코 들어 보지 못한, 어떤 음악 보다 풍성한 소리로 '그대의 투쟁은 종결 되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140

(본문: 마 25:34) ...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 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4.



141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미래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영원 살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영생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상실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오라! 용서를 향해 오라. 자비를 향해 오라. 그대의 죄를 이길 능력을 향해 오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라. 내 왕국에 들어오라.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소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다. 만약 그대가 영원 그분의 왕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자리에서 조용 일어서기 바란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

생명의 신비를 벗긴다.



2

그대가 해변에 산다고 가정해 보자. 어느 날 아침 그대가 일어나 바다가 모래 위를 따라 걷기로 했다. 바다가는 장엄한 광경이다. 태양 빛은 물 위에 넘실넘실 춤추고 파도는 해변에 찰싹거린다.



3

고요한 중에 해변을 따라 걸을 때, 그대는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발견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대가 볼 수 있는 해변의 먼 곳 까지 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없다. 이 발자국은 그대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발자국들은, 비록 그대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누군가 그대 앞서 그 해변을 걸어갔다. 다른 질문하나를 해 보겠다.



4

그대가 야외에 나가 사방을 바라보라.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아마 풀들, 나무들, 언덕과 산들, 꽃들, 시내와 호수, 작은 짐승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5

그리고 그대는 무엇을 밟고 서 있는가? 맞다. 그대는 표면 즉, 지구의 표면에 서 있다.



6

하늘을 보라. 무엇을 볼 수 있는가?



7

낮에는 태양과 하늘과 구름을 볼 것이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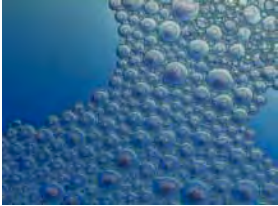
밤에는 수천의 별들이나 달을 볼 것이다.

8



어떻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대는 어떻게 여기 존재 하는가?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9



어떤 이들은 생명이 바다의 단순한 세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 단순한 세포들이 점점 자라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생물이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작은 생물은 몇 백 만년이 지나면서 바다로부터 나와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생물이 되었고 육지에서 그들의 발이 자랐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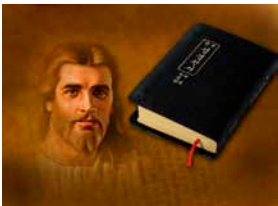
역사를 통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은 우주와 지구,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졌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음을 믿는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조물주는 각각 어떤 존재인가?

11



오늘날 사람들은 부처, 모하메드, 신토, 힌두교의 신들, 그리고 각기 다른 많은 대상들을 경배한다. 이런 신들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 주장한다.

12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오직 한 분만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 선언될 수 있음을 그대는 아는가? 그 하나님은 바로 거룩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3



만약 그대가 한 채의 집을 볼 때, 그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다. 누군가가 그 집을 만들었다고 여길 것이다.

14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5

그대가 길을 볼 때, 그 길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집들과 길들은 이 세상과 사람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사람과 동물, 별들을 볼 때, 누군가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가? 누군가 이 모든 것들을 설계했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만들었다.



16

우리는 만물의 계획자시요 창조자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한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하나님의 책,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자.  
먼저 첫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17

(본문: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창 1:1



18

(본문: 창 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 1:3



19

(본문 2 슬라이드: 창 1: 4, 5)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20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 1: 5  
하나님이 주일의 첫날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이 순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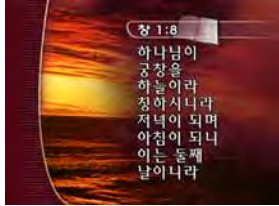
(본문: 창 1:6)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니 창 1:6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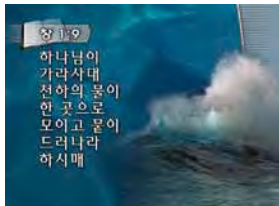
22

(본문: 창 1:7)  
... 그대로 되니라 창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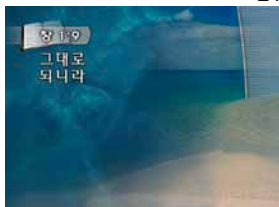
23

(본문 창 1: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 1:8. 둘째 날,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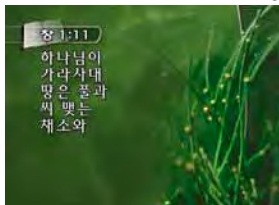
24

(본문 2 슬라이드: 창 1:9)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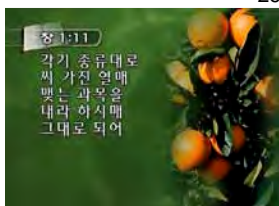
25

그대로 되니라 창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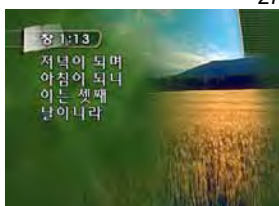
26

(본문 2 슬라이드: 창 1: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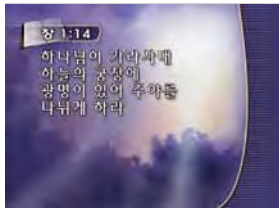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창 1: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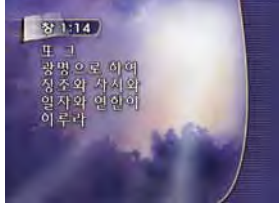
(본문: 창 1: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 1:13.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바다들을 만드시고, 지구 위를 식물들로 채우셨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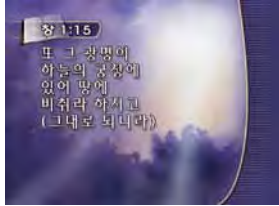
29

(본문 3 슬라이드 창 1 14, 15)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눠게 하라"



30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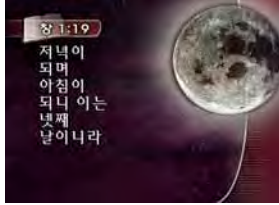
31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창 1:14,15



32

(본문 2 슬라이드 창 1 18, 1 )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 1 1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이 드러나게 하셨고 별들을 또한 창조하셨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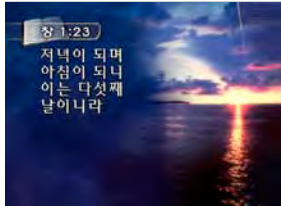
(본문 2 슬라이드 창 1 20)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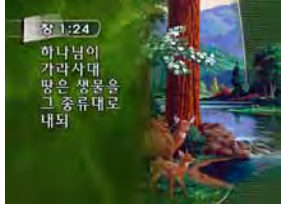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창 1 20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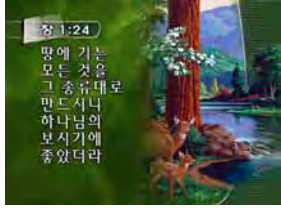
36

(본문 창 1 2 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 1 2 3  
성경에 이르기를,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다른 바다 생물들을 만드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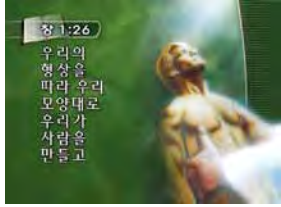
37

(본문 2 슬라이드 창 1 2 4)  
여섯째 날.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해 보인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38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 1 2 4



39

(본문 5 슬라이드 창 1 2 6, 2 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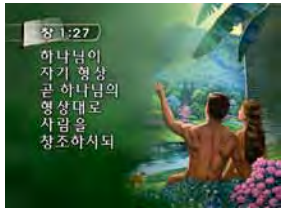
40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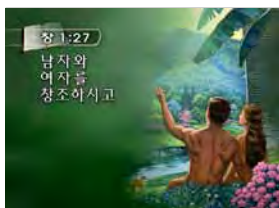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 2 6



42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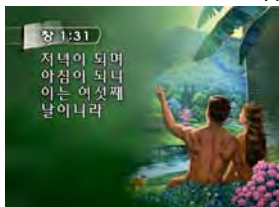
43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44

(본문 2 슬라이드 창 1 31) "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45

"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창 1 31  
여섯째 날,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만드셨다.



46

아담과 하와는 그저 진화하거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의 몸을 디자인 하셨다고 말한다.



47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위대한 기술자이시며, 가장 지혜로운 디자이너시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마쳐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쉼의 안식일로 구분하셨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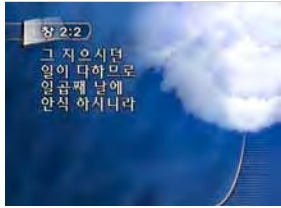
(본문 3 슬라이드 창 2 1, 2)  
"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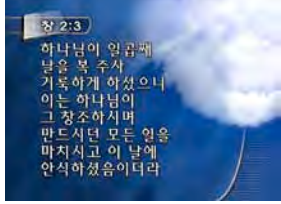
"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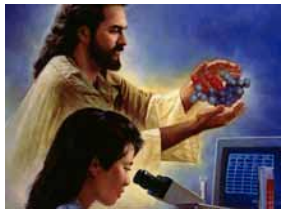
50

"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 창 2 1, 2



51

"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일곱째 날, 쉼의 안식일에 대해 더 이야기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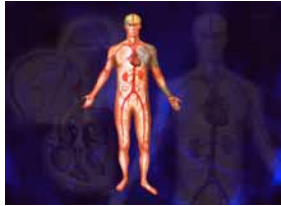
52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53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계획자이시며 창조자이신지 자세히 상고해 보자.



54

인간의 몸은 설계와 설계자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55

몸의 한 부분인 눈을 살펴보자.



56

(비디오 10초)  
지구상에서 가장 최신의 카메라도 이 눈의 각막과 수정체에 비교하면 마치 어린 아이의 장난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 준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57

눈은 빛을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메시지들로 바꾸어 주는데 이것은 이 지구의 가장 발달된 과학 연구소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것이다.

뇌 세포들은 이 메시지들을 '시각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는데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것도 그저 비슷하게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58

인간의 눈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한다.

시편 기자의 글귀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59

(본문 시 13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60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 13 14  
인간의 몸과 정신은 매우 복잡하였고 그것은 오로지 매우 현명한 설계자에 의해서만 설계가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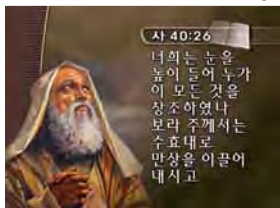
61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우주는 어떤가 우리는 모든 우주의 창조 역시 계획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62

복음 기별자 이사야는 우리 눈을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이 하늘에 이루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63

(본문 2 슬라이드 사 40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64

"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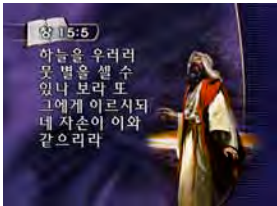
"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  
사 40 26



그대는 하늘 위의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것들이 모두 어디로부터 왔는지 의아해 하며, 그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예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야곱과 유대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세어 보라고 하셨다.



68

(본문 창 15 5)  
" ...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창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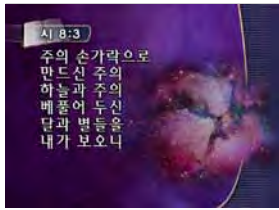
최근에 한 천문학자는 만약 우리가 온 세계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들을 다 셀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가 정확히 그 숫자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에 그대가 해변에 서서 한 바구니의 모래알을 세어 보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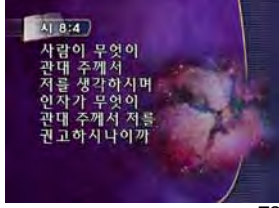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71

(본문 2 슬라이드 시 8 3, 4)  
"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별들을 내가 보오니 "



72

"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



73

(비디오 20초) 그대는 이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우리 자신의 문제들에 정말 실제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



74

(본문 마 10 31)  
"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75

(본문 마 10 30)  
" 너의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 마 10:30.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가!



76

무슨 권리로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직 그분 만을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성경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분 자신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신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분이 창조주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렇지 않은가

77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그는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보았다. 그가 본 것을 주목하라.

78



(본문 4 슬라이드 계 4 10, 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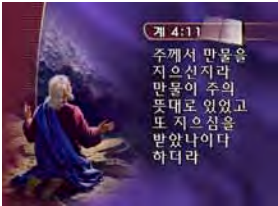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80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81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 4 10, 11

82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동일한 이유인 것이다.

83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84

그는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  
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우리 주변 곳곳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85

(본문 2 슬라이드 롬 1 20)  
"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



86

"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 롬 1 20. 창  
세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라는 증거가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  
다.



87

모래 위에 나타난 발자국들처럼, 우리가 모래 위  
를 지나간 그 사람을 결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엔 누군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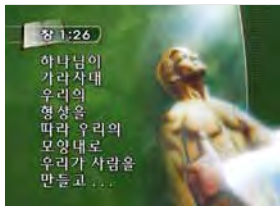
88

그대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은 마치 발자국처  
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어떤 분이 반드시  
계심을 말해 준다.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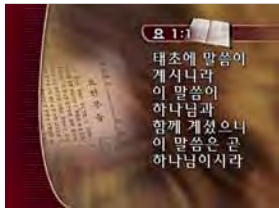
성경이 그분을 부르는 호칭인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창조 사역을 홀로 하지 않으셨다.



90

(본문 창 1 26) "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 . " 요한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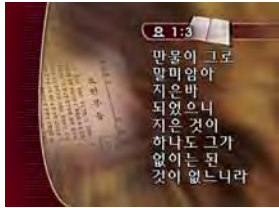
91

(본문 3 슬라이드 요 1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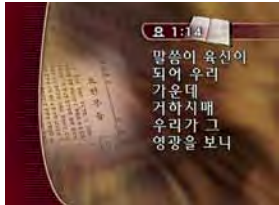
9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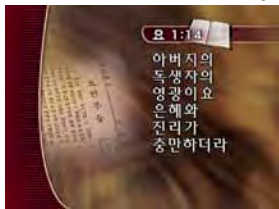
9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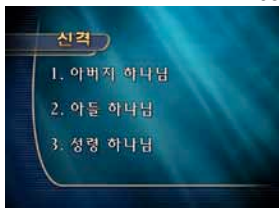
94

(본문 2 슬라이드 요 1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95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 14



96

성경은 우리가 아는 신성에 대해서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성은 이렇게 생각이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신 세 분으로 구성된다.



97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심에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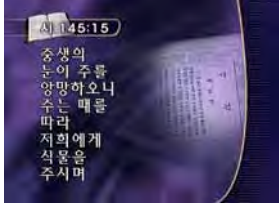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받았고 또 받을 모든 완전하고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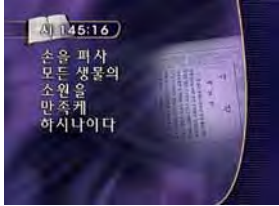
99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가 살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 또한 염두에 두셨다.



100

(본문 시 145 15, 16)  
"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



101

"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 이다 " 시 145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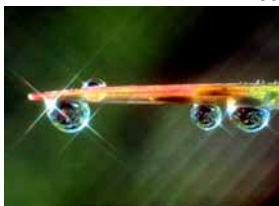
102

피조물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자. 그대가 마시는 물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피라미드 보다 더 오래된, 언덕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103

물은 아마 화학 성분이나 또는 쓰레기로 인해 오염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양에 의해 증발되어 대기로 끌어 올려진다.



104

그리고 그것은 정화되고 다시 사용되며, 비와 이슬 또는 눈의 형태로 지면에 내려온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얼마나 놀라운 물의 순환인가!



105

하늘 즉, 태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 설비이다. 잠시만 생각해 보자.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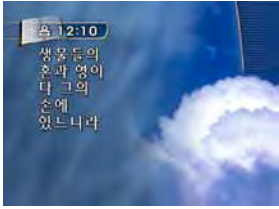
만약 태양이 조금만 더 크든지, 아니면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우리의 태양은 끓어 증발할 것이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07

만약 태양이 조금만 더 작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멀리 있다면 우리의 대기는 얼어 버릴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유지 시키시고 계신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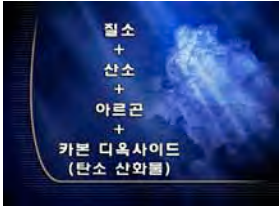
108

(본문 욥 12 10)  
"생물들의 혼과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 12:10"



109

하나님은 우주를 설계하셨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하는 공기의 정확한 비율 공식을 알고 계셨다.



110

하나님은 질소와 산소, 아르곤과 탄소가 대기 중에 혼합되는 정확한 양을 알고 계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될 수 없는 일이다!



111

우리의 자연 세계에서 놀라움은 끝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들을 돌보심에도 한이 없다. 새들의 이동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자연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의 하나이다.



112

어떻게 1온스 보다도 가벼운 새들이 그들이 결코 가 보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천 마일을 날아갈 수 있는가



113

어떻게 물고기는 그들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시냇물을 1, 200마일이나 가로질러 찾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배웠을까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14

누가 꿀벌들이 핀의 머리 보다도 작은 두뇌를 가지고 것처럼 공학적으로 놀라운 벌집을 만들도록 가르치셨을까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배후 지도자는 누구인가 읍은 우리에게 이른다.



115

욥 12: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본문 3 슬라이드 읍 1 2 7)  
"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



116

욥 12: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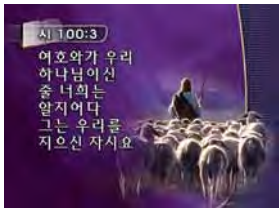


117

욥 12: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 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 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 읍 1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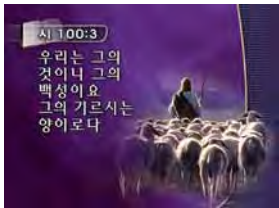
.  
맞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의무와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만물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 그 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118

시 100:3  
여호와 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 는 알지 어 다 그는 우리 를 지으 신 자 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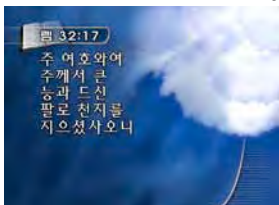
(본문 2 슬라이드 시 1 0 0 3)  
" 여호와 가 우리 하나님 이신 줄 너희 는 알지 어 다 그는 우리 를 지으 신 자 시 요 "



119

시 100:3  
우 리 는 그 의 것이 니 그 의 백 성 이 요 그 의 기 르 시 는 양 이 로 다

" 우 리 는 그 의 것이 니 그 의 백 성 이 요 그 의 기 르 시 는 양 이 로 다 " 시 1 0 0 3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이 필요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으시다.



120

렘 32:17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본문 2 슬라이드 렘 3 2 1 7)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 라고 한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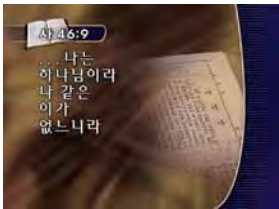
121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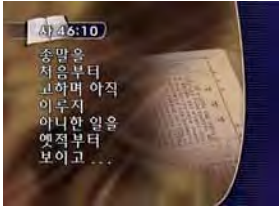
122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과 또 그대 개인의 삶을 지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대를 안심하게 하지 않는가 너무 작아서 은하계의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더욱이 시간을 초월한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신다.



123

(본문 2 슬라이드 사 46 )  
그분은 " . . .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 고 말씀하신다.



124

"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 . " 사 46 10



125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화와 확신은, 하나님이 돌보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최상의 확신이다.



126

(본문 요일 4 8)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예수께서 이르신다.



127

(본문 요 16 27)  
"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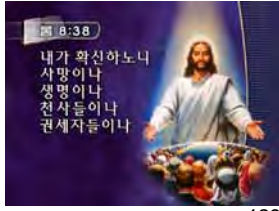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28

(비디오 10초) 것처럼 거대하고 완벽한 우주를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대에게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는가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 부재를 숙고하면 너무도 놀랍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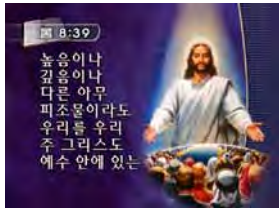
129

(본문 4 슬라이드 롬 8 38, 3 )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130

"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



131

"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



132

"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 롬 8 38, 3



133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 받을 수 없을 때도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가 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든 못생겼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34

본문 렘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135

본문 시  
다윗은 시 절에 대저 여 와는 선하시  
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기록한  
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  
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 순간에 우리와 께  
계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아직 우리  
마음에 여전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이 있는 듯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 설명하신다



136

본문 슬라이드 사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  
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 여기지 않겠느냐



137

그들은 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  
할 것이라



138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



139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 주시길 원하  
셨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 보내신  
말씀과 기별로는 충분치 않았다 사람들은 그 기  
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140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  
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완  
벽한 계시이다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41

본문 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  
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142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의 죄 된 모양을 입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접근하셨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는 상한 심령을 고치고 소경을 고쳐 보게 하셨다



143

그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들의 가정에서  
께 음식을 드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셨다



144

많은 소경을 고쳐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셨다 그는 그의 발길이 닿는 촌락과  
마을마다 생명과 기쁨을 공급 주셨다 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  
었다



145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볼 때 갈바리의 죽음과 그의 상한 심장을 볼  
때 비로소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 적은 부분을 이 하기 시작한다



146

본문 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셨으니



147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 4 - 우연인가 계획인가?



148

우주의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는 능력의 창조주시다 그는 놀라운 공급자시  
다 그는 엄청난 설계자시다 그는 사랑의 아버  
지시다



149

오래 전에 한 작은 소년이 끔찍한 교통 사고를  
당 다 그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으로 송되었  
다 그 소년은 급하게 수 을 야만 다 그  
런데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소년과 같은 액 이었고 수 에 동의 다  
의사는 아버지의 팔로부터 아들의 팔로 직접 수  
을 시작 다 피가 아버지의 팔에서 비닐 관  
을 통 의식이 없는 아들에게로 옮겨질 때 아  
버지는 의사를 쳐다보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말  
다 선생님 만약 필요하다면 제 몸의 피를  
모두 뽑으세요 선생님 내 아들을 위 기꺼이  
내 모든 피를 수 할게요



150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가 창조하신 지구를 내려  
다 보셨다 죄로 잃어버린 바 된 지구를 보셨  
다 그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  
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약 필요하다면 내  
피를 모두 수 하세요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를 살리기 위 내 피의 마지막 한 방울  
까지라도 다 뽑으세요



151

그대는 이와 같은 사랑에 어떻게 등을 돌려댈  
수 있겠는가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만드셨  
다 인류가 범죄 을 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었다 그대는 그 분께 가치 있는 존재  
이다 그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대를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대의 손을  
들어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 문을 엽니  
다 저를 창조 주셔서 감사 니다 날 구원  
주셔서 감사 니다 지금 이순간 제 생명을 당신  
께 드립니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1

그 사본들은 오늘 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스티븐 마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의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의 유언 가운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유언은 이렇다. 사랑하는 스티븐 마쉬에게. 나의 재산과 함께 성경과 성경에 포함된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긴다.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빚을 다 청산하고, 단지 몇 백 달러만 남았다. 그리고 그 돈도 금새 다 써 버렸다. 성경은 그저 다락의 트렁크에 넣어 두었다. 그는 은퇴를 했고 연금에 의지하여 30년 가까이를 가난하게 살았다.



3

(비디오: 9 초) 마침내, 그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의 집에 가기로 결정 했다.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던 중 우연 이모의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마쉬 씨는 성경 책 중간 중간에 흩어져 있는 은행 통장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 은행 잔고를 다 합해 보았을 때 5천 달러는 족 넘었다. 그 돈은 그 당시에 대단 큰 돈이었다. 그는 부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수 십년의 인생을 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넘기는 손 끝에 보화가 있다. 우리의 손 끝에 엄청난 보화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성경은 기록된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 수 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모든 민족, 방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변화시키는, 진귀한 보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심각한 의심을 품는다. 그들은 성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4

베스트 셀러인 성경은 어떤가? 이것은 믿을 만한가?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가? 정말 정확한 책인가? 어떤 이들은 그대에게 성경은 정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책이라 말할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옳은가?



5

대답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그대가 그것을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 영생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그대의 영원한 운명은 그것을 믿고 받아 들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면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대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이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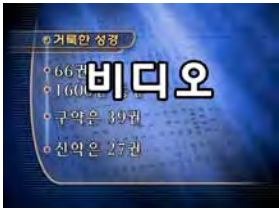
6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의 선지자들과 아들을 보내셔서 전해준 기별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7

그렇다면 이 위대한 책, 성경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살펴 보자.



8

성경은 그저 단순한 한 책이 아니다. 모든 도서관의 책들은 이 한 권에 들어 있다. 성경은 1600 년에 걸쳐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간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씌여졌다. 구약은 39권이며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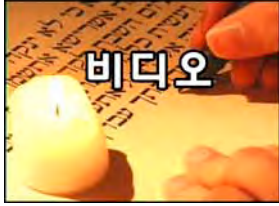
45 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책들을 기록했다. 하지만 책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공통된 근원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설명될 수 없을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다. 성경 기록자들이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성경은 놀랍게 총체적인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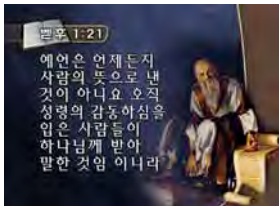
10

그 성경 기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다. 어떤 이들은 어부였고, 어떤 이들은 목자였으며, 어떤 이는 왕, 정부 지도자, 농부들, 설교가, 정치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11

(비디오: 13 초) 그들이 저술한 책들은 서로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일치성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12

(본문: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13

(본문: 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4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5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 17.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쓰여진 문자를 통해 교통하는 이 방법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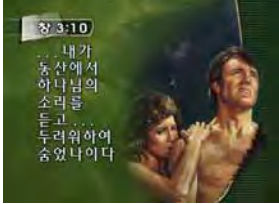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고자 한 어떤 것을 선지자를 통해 글로 쓸 필요가 없었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17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게되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죄를 인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아담은 대답하기를,



18

(본문: 창 3:10) ...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10



19

이제 더 이상 대면하며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나중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로 선택하셨다.



20

(본문: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21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율기서와 우리가 율법서라 부르는 구약의 처음 다섯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은 약 주전 1,500여년 전의 일이다.



22

이 때 이스라엘은 수백만의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문자를 통해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 때 가 바로 상형 문자 대신 알파벳이 발명된 때였다.



23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친 손으로 써 주신 십계명을 읽을 수 있었다. 율법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쓴 책이었다.



24

그러나 여전 의문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똑 같은가? 1947년 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은 기원후 900년 경의 사본들에서 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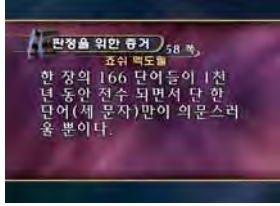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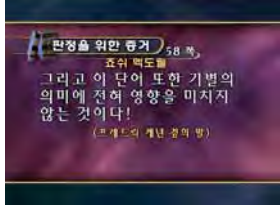
25

이사야서 전체가 기록된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는 기원전 125년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1947년에 이사야서의 가장 오래된 두루마리로 발견될 때까지 사람들은 천 년 동안이나 필사를 거듭해 이사야서를 전해오고 있었다.



26

가장 훌륭한 학자 중의 하나요, 영국 고고학회 회장이었던 프레드릭 케년은 말하기를 한 장의 166 단어들 이 1천 년 동안 전수 되면서 단 한 단어(세 문자)만이 의문스러울 뿐이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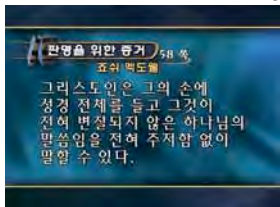
27

그리고 이 단어 또한 기별의 의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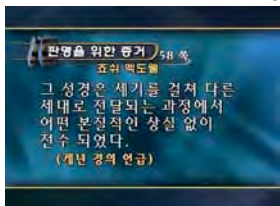
28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29

그리스도인은 그의 손에 성경 전체를 들고 그것이 전혀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혀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다.



30

그 성경은 세기를 걸쳐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본질적인 상실 없이 전수 되었다.



31

케년 경이 일생을 성경은 어떻게 전수 되었으며 그 전달 과정은 성경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증거를 찾는데 보내고 그 후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었다.



32

성경 비판자들은 1세기 전 성경에 의심을 제기 할 만한 몇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비판들은 고고학의 발굴로 말미암아 잠잠해졌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33

19세기 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외하면 지나간 고대에 대한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34

고대 역사는 이상하게 그려진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같은 그림 글자 속에 영원 묻는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어떤 이집트 사람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해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5

그런데 1798년,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집트로 이끌었다. 그는 38,000 명의 군사들과 또 흥미로운 땅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백 명의 예술인들, 언어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을 대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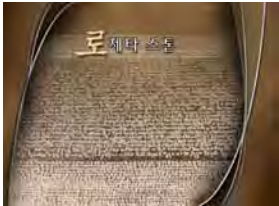
36

어디를 가든 그들은 과거의 유물들 곧, 읽을 수 없는 그림들, 장식된 기념비들과 탑의 벽들을 볼 수 있었다. 나폴레옹과 그의 학자들은 그 그림 문자들이 어떤 비밀스런 기별을 담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37

1년이 지난 1799년, 모든 고고학적 발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유물이 발견 되었다.



38

나폴레옹의 한 병사는 로제타 스톤이라 불리는 122 센티 길이와 76 센티의 넓이로 된 검은 돌을 발굴하였다. 이 돌은 결국 그림 문자의 신비와 오랜 세기 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들을 밝혀 준다.



39

로제타 스톤은 지금 영국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0

로제타의 델타 타운 근처에서 발견된 이 돌판은 고대 신조를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쓴 것인데 그 세 언어는

## 5- 고대 사본의 비밀들



41

상형 문자(그림 문자), 이집트의 민간용 문자, 그리고 헬라어였다. 물론 학자들은 헬라어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형 문자는 그렇지 못했다.



42

그런데, 20년 후인 1822년 진 프란시스코 캄폴리온이란 특출난 프랑스 젊은이가 로제타 스톤에 적 상형문자를 해석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43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방대하고 귀중한 고대 역사는 세계의 학자들에게 공개된 것이다.



44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동안 잊혀졌던 이집트의 역사가 성경을 확증 해준 것이다. 성경이 말한 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는 것이 사실이 되었다!



45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면 할수록 과거 일반인들의 역사적 기록들은 성경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증거하게 되었다.



46

텔 마르둑의 최근 발견은 고고학 세계에 밝은 빛을 던져 주었다. 이 도시는 시리아의 엘바라 불리는데, 한 때는 아주 부유하였고 거의 30만 명이 살던 복잡한 사회였다.



47

사해 사본의 발견으로 이 분야를 공부하던 많은 학자들에게 엄청난 흥미를 더해 주었다. 더욱이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흥미를 주었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48

이 도시 궁전에 인접해 있던 필사 학교에서 14,000 장의 서판과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적어도 주전 230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문서 보관소는 1백 년 이상이나 되는 기간의 에블라 왕국 공식 문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49

어떤 역사가들은 브리인들이 모세의 시대에 문자 기술을 계발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 왔었다. 19세기까지 그것을 입증할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50

그런데 에블라 서판들과 다른 발굴품들은 그 기록이 모세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근대 고고학자들은 모세 시대보다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간 시대의 박물관을 고스란 발굴하였다.



51

그 에블라 서판들은 창조 이야기와 홍수 사건을 담고있다. 또한 이 서판에는 성경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름과 장소가 명시되었는데, 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시내, 더욱이 예루살렘 등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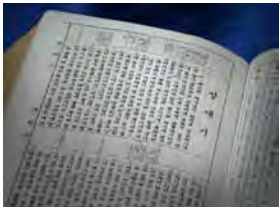
52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두 최악의 도시-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다. 이 서판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성경 이외에 이 두 도시에 대한 언급이 역사적 증거로 결코 제시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두 도시는 그저 알 수 없는 장소라고만 여겨져 왔었다.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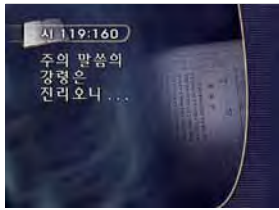
어쨌든 많은 책들이 수정 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발견들은 그 당시의 많은 지질학적 이름들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54

성경 학자들은 이제 창세기가 단지 고대 목자들의 노래나 전설(많은 사람이 생각하는)이상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다. 에블라와 그 외의 발견들은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

# 5- 고대 사본의 비밀들



55

(본문: 시 119:160)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시 119:160



56

(본문: 사 45:19) ...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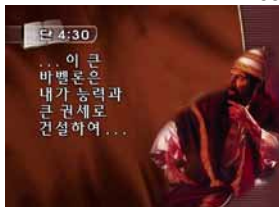
57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고 있다! 오래 동안 죽어 있었던 시민들이 그들의 먼지 구덩이 무덤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진실을 확증하고 있다.



58

19세기까지도 어떤 학자들은 세미라미스 여왕이 바벨론을 세웠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경의 다니엘은 느브갓네살이 세웠다고 말했다.



59

(본문: 단 4:30) ...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큰 권세로 건설하여... 단 4:30. 누가 과연 옳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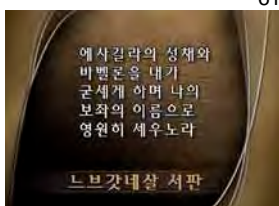
60

1899년 로버트 콜드웨이는 폐허가 된 바벨론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느브갓네살 왕의 인장이 구워진 수 만개의 벽돌들을 도성의 벽과 성전에서 발굴해 냈다.



61

느브갓네살의 업적이 적 설형(뺨기)문자 서판이 또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바벨론에서 발견 되었다.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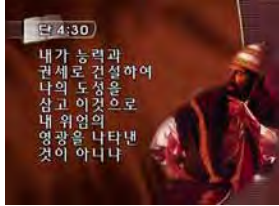
그 위에 왕은 에사길라의 성채와 바벨론을 내가 군세게 하며 나의 보좌의 이름으로 영원 세우노라고 했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본문: 단 4:30) 성경은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 아니더냐는 느브갓네살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다.

63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단 4:30

64



현재 런던에 있는 동인도 하우스의 제명은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느브갓네살의 계획을 여섯 단의 바벨론 문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 기록된 사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

65



세속 역사의 또 다른 의문은 바벨론을 다스렸던 벨사살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파티장의 분벽에 손이 나와 글씨를 썼던 사건을 목격한 왕으로 벨사살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벨사살은 그저 다니엘이 고안한 이름이 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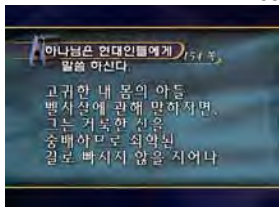
위대했던 느브갓네살의 계승자 나보니더스는 그가 10 년 동안 아라비아의 테마에 머무는 동안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권을 양도하였다.

67



고고학이 발견한 서판들은 그 왕국이 벨사살에게 계승되었음을 말한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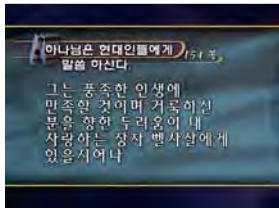
68



고귀한 내 몸의 아들 벨사살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거룩한 신을 숭배하므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을 지어다

69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70

그는 즉 인생에 만족 것이며 거룩 신 분을 두  
 려움이 내 사랑 는 장자 벨사살에게 있을지어다-- 나님  
 은 대인들에게 말씀 신다--154 쪽



71

(본문: 단 12:4) 다니엘의 마지막 장에서 다니엘아 마지  
 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 고 이 글을 봉 라고 말 는  
 것이 미롭지 않는가?



72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며 지식이 더 리라 단 12:4.  
 과 세계만의 지식만 증가 는 것이 아니라 나님의 말  
 씬의 정 성에 대 지식도 증가 것이다.



73

고고 자들에 의 발굴된 벽돌들과 원 들, 서 들과 문  
 서들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 다!



74

성경이 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  
 거는 미래에 대 예언이 정 게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75

(본문: 사 46:9-10) ... 나는 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76

내가 종말을 처음부 고 며 아직 이루지 아니 일을 옛  
 적부 보이고 사 46:9, 1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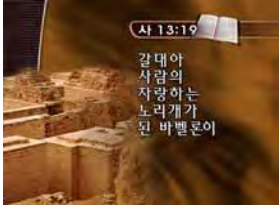
나님은 시간의 커 을 걷어 젓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성경이 단지 단순 책이 아님을 세상에 나 내신  
 다. 성경은 나님의 책이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78

바벨론이 그 과 영광의 최고조에 이르기도 전에 나님의 책은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 하였다.



79

(본문: 사 13:19) 갈대아 사람의 자랑 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80

나님께 멸망 당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사13:19. 성경은 더욱이 이 강력 왕국을 무너뜨릴 세력도 예언 하였다.



81

(본문: 렘 51:11) ... 여 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 사 바벨론을 멸 기로 뜻 시나니 렘 51:11



82

성경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를 이끌 지도자를 이미 그가 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 하며 또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것인지도 예언 하였다.



83

(본문: 사 45:1) 나 여 와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 게 리라 사 45:1. 성경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문자 그대로 성취 되었다.



84

고레스 원 비는 바벨론 에서 발굴되어 대영제국 박물관의 러시아 에 진열되어 있다. 이 점 원 은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을 담고 있다 예언의 세부 것까지 정다.



85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 뿐 아니라 그 미래에 대 서도 언급 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86

(본문: 렘 51:37)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어서 ...  
렘 51:37



87

(본문: 사 13:20-21) 이사야는 바벨론이 ... 그 곳에 거  
곳이 없겠고 ... 라 기록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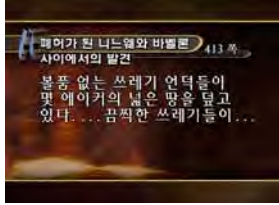
88

오직 짐승들이 거기 앓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 며 ... 사 13: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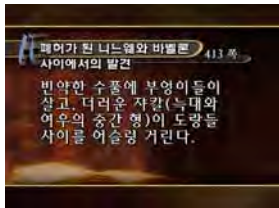
89

오직 나님 만이 미래를 보실 수 있으며 건재 던 바벨론  
의 운명에 대 정 게 예언 수 있으셨다. 가 아  
우스 레야드는 고대 바벨론 유적지를 묘사 다.



90

불 없는 쓰레기 언덕들이 몇 에이커의 넓은 땅을 덮고  
있다. ... 끔찍한 쓰레기들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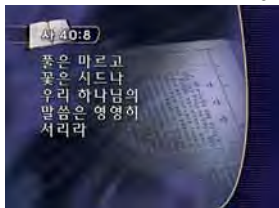
91

빈약 수 에 부엉이들이 살고, 더러운 자갈(늑대와 여우  
의 중간 )이 도랑들 사이를 어슬렁 거린다. 가 된 니  
스웨와 바벨론 사이 에서의 발견.



92

바벨론의 이전 영광은 전 없고 그 이름만이 길거리의  
지 에 남아 있다. 고대 바벨론 에 뒤덮인 광대 언  
덕들이 성경의 영감성과 정 성을 실 증명 다.



93

(본문: 사 40:8) 우리는 예언에 분명 동의 다. 은 마  
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서리라 사  
40:8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94

친구여, 만약 하나님이 고대 왕국들의 몇 세기 전에 그들에 대해 여정하게 예언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쳐질 미래에 대해 정하게 예언 실수 있는 그분의 지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 수 있겠는가?



95

사실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그 커울 것을 수 있는 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미래를 바라봄으로써 지구 위의 인간 생존을 위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결책을 가늠 수 있게 기위이다.



96

성경은 단지 실제 역사 이상이며, 정과 적 사실 이상이며, 성취된 예언 이상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 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97

성경의 주제, 성경의 중심은 19세기 이전에 예루살렘 밖의 거친 언덕에서 있었던 사건에 맞추어져 있으며 그 사건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가져다준다.



98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아닌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분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분인가? 아닌가? 같보리 사건은 상상인가? 사실인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다.



99

성경이 위대 책이라는 주장의 가장 실 증거는 아마 성경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변시키는 능력일 것이다. 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 시기를,



100

(본문: 요 6:39) 너 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 여 증거는 것이로다 요 5:39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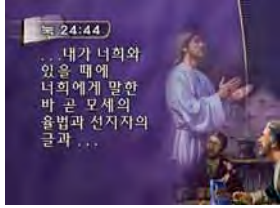
101

예수님은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  
 셧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 면,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사랑의 봉사, 그리고 구속에 대 말  
 다.



102

(본문: 눅 24:44)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셧다. . . . 내가 너 와 있을 때에 너 에게 말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 . . 나를 가르 기록된 모  
 든 것이 이루어져야 리라 말이 이것이라 시고



103

나를 가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리라 말이  
 이것이라 시고 눅 24:44



104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 예언이고, 신약은 그의 인생  
 에 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알다시 , 모든 성  
 경은 하나님이 사랑 시는 이 반역 지구에 내려오신 예  
 수 그리스도에 대 계시이다.



105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라 불리는 이유  
 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  
 나는데, 인생이 바뀌고 성이 변 되며, 약 자가 을  
 얻고, 실망 자가 용기를 얻으며, 죽어 가는 자로 소망을  
 갖게 다. 역사를 , 사람을 변 시 성경의 능력은  
 거듭 거듭 증명되어 왔다. 성난 사람들이 성경의 능력을  
 로운 사람들로 변 다.



106

더럽고 추 사람들이 정결 고 순수 사람들이 되었다.  
 주정뱅이들이 술독에서 구출 되고, 도둑이 도둑질을 그치  
 며, 남의 답을 쳐 보던 생들이 그 일을 그쳤다. 그대는  
 성경의 능력을 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애의 변 를  
 경 수 많은 살인자들이 감옥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107

그대는 이 으로 직 던 사람들이 성경의 놀라운 능력 으로 새 사랑을 경 고 안정된 결 생 을 는 수 많 은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진지 게 읽는 사람은 나님의 책에서 날마다 자신을 변 시 는 능력을 경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매일 성경을 읽는 데 그대의 시간을 자 다면, 친구여, 성경은 그대의 삶도 또 변 시 것이다.



108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 시 기 위 그분의 시간을 사용 셧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이며, 성경의 심이 다.



109

(본문: 요 8:32) 예수님은 사람을 변 시 는 능력이 무 엇인지를 아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 를 자유케 리라.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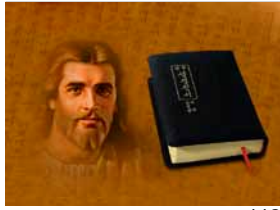
인간이 자유 다는 즉 변 된다는 것은 진리이다. 술주정 뱅이가 순 고 사랑스런 아빠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마 약 남용자가 그 마약으로부 자유케 된다는 것이 사실 이 다. 오늘 날 수 없이 일어나는 속임수들을 보며 우리는 과 연 진리가 무엇이냐?고 외친다.



111

(본문: 요 17:17) 예수님은 대답 신다. ...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성경, 나님의 말씀은 진 리이다. 그 말씀의 능력은 남녀들의 마음을 변 시 수 있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11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꺼이 변하기를 원하는 자들, 기꺼이 성경에 나온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을 변시킬 수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구하며 변됨을 경험했다. 이 성경을 제외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시키고 인생을 변시킬 수 있는 어떤 위대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전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성경은 단지 교에 들고 다니거나 우리의 집에 전시 놓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것은 유용 정보나 충고를 주는 것 이상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시는 말씀을 담고 있다. 성경은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사랑의 지이다. 성경 속에 생존의 비밀, 영원 복과 스런 마음을 갖는 비밀이 있다.



113

(비디오 12 초) 삶을 변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 주겠다. 오래 전, 바운라 불리는 배가 있었다. 1790년, 선장 블리그와 그의 선원들이 잉글랜드를 떠나 노예들의 값싼 음식이었던 빵나무를 서인도에 옮겨 심으려고 출항을 시작한다.



114

(비디오 7 초) 그런데 선장의 잔인한 지도력과 그의 선원들의 대로인 배 안에 동이 일어났고, 그 동을 주도하던 그리스도인 레처는 선장과 18 명의 다른 선원들을 작은 배에 뒀다. 그 작은 배에 워진 선장과 선원들은 선장의 능숙한 항해 능력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로 돌아 가기에 애를 썼다.



115

(비디오 4 초) 바운라 선의 선원들은 에실고, 마침내 그들은 무인도인 카이른 섬에 도착한다.

## 5-고대 사본의 비밀들



116

그들은 바운 를 워 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들이 이 에 있을 때, 블리 는 무리의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몇 명의 본 인을 승선 시 었다. 도를 일으 던 승무원들이 술 만드는 법을 배웠을 때, 많은 문제들이 뒤따랐다. 많은 범죄와 살인이 있었다.



117

(비디오 8 초) 그런데 존 아담스는 궤에 담겨 있던 성경을 찾았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 다. 그는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 를 경 기 시작 다. 그는 그곳 아이들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 있다는 엄청난 책임 의식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는가를 가르치기 시작 다. 섬 전체에 일어난 놀라운 변 가 지나가는 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 고, 영국 정부로,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전역으로 져 나갔다.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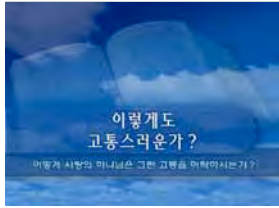
친구여! 성경은 그대의 인생을 또 변 시 수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수 천년 전에 사람들을 감동시 켜서 나님의 말씀을 기록케 던 그 동일 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 시 신다. 마음을 열고 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그리고 단순 믿음으로 이렇게 말 보라. 주님, 주님의 진리를 저에게 보이소서, 제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변 를 주옵소서. 제 인생에 변 가 요 나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 때 이지에서 사랑이시고, 용서 시고, 삶을 변 시 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 나이다.



119

친구여! 성경은 단순 책이 아니다. 이 책의 차이는 그 저자에게 있다. 우리가 이 책의 저자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이다. 왜냐 면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 고 신 는 것이기 때문이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2

가정부인 클라라 앤더슨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매우 온화하고 성실한 여인이다. 어느 날 15년 동안이나 일해 온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그녀는 잠적해 버렸다. 그녀를 고용한 주인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시의 한 사회 봉사 단체는 며칠을 소비한 뒤 기적적으로 그녀를 발견하였다. 클라라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산 은신처에서 단식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다. 극적으로 그녀를 발견한 보고자가 그녀를 인터뷰 했을 때, 그녀는 "죽고 싶어요. 날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했다. "보세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난 그저 이 도시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는 수천 명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나는 가족도, 가까운 친척도, 친구도 없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까이 할, 그래서 이야기 하고 내 마음을 터 놓을 사람이 없어요. 날 죽게 내버려둬요."



3

그대는 어떤가? 그대가 만약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여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선하시다면 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과 슬픈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기근, 홍수, 자연 재해, 전쟁이 있습니까/ "



4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어디에나 심각한 비극들이 매 일과를 차지하고 있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5

(비디오 15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 슬픔들, 그리고 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난관을 인해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라는 말을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가?



6

선과 악의 세력 간에 전개될 대 쟁투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아보자. 그대는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슬픔과 문제들을 세상에 가져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이 심각한 비극들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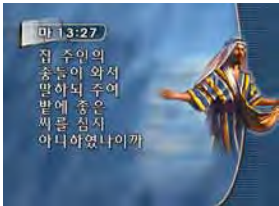
7

성경은 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예수님은 한 농부가 그의 밭에 좋은 씨를 심은 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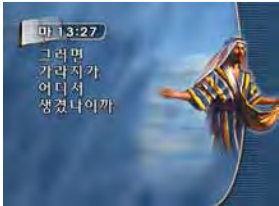
8

그런데 그 작물이 자라나면서 거기에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9

(본문 : 마 13 : 27)  
"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



10

"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 그 종들은 그 잡초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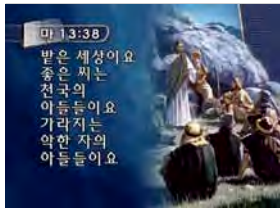


11

(본문 3 슬라이드 : 마 13 : 37-39) "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 . "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2

"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



13

"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 마 13 : 37-39.



14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동안, 이 땅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질병과 슬픔, 죽음과 재난을 가져오는 일을 계속한다.



15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지구에 일어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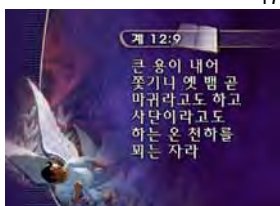
16

(본문 4 슬라이드 : 계 12 : 7) "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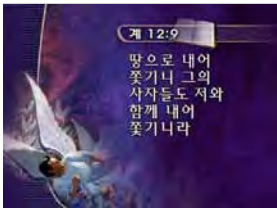
"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



18

"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9

"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 (계 12 : 7)



20

이제 계시록 12장 3, 4절에 있는 이 용, 혹은 마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주목하자.



21

(본문 2 슬라이드 : 계 12 : 3, 4)  
"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



22

"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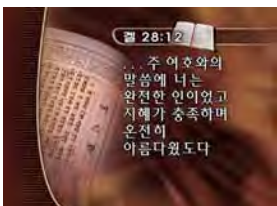
23

"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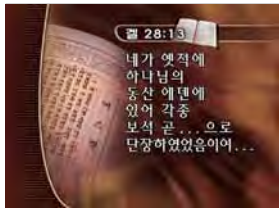
명확하게 하늘 천사의 1 / 3 이 하나님을 대적이 속이는 자의 반역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여기 루스벨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에 대해 더 주목하면, 구약 성경에 그는 두로의 왕이라 묘사 되었는데, 그에 대해 기록하기를.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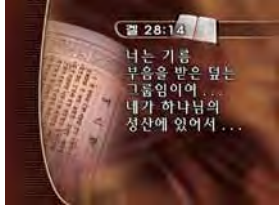
(본문 4 슬라이드 : 겔 28 : 12-14)  
" . . .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26

"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 . . 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 . " 겔 28 : 13.



27

"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 .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 . "



28

" 화광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 겔 28 : 14.



29

루스벨은 아름다운 천사였고, 모든 길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는 스랍으로 덮인 하나님 다음에 위치한 천사였다.



30

루스벨은 하늘에서 고귀한 위치에 있었다. 시은좌 또는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에 각각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한편에 있던 천사가 바로 루스벨이었다.



31

그는 하나님 다음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과 같고자 하였다! 루스벨에게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루스벨에게 이르시기를. . .



32

(본문: 겔 28 : 15)  
"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 겔 28:1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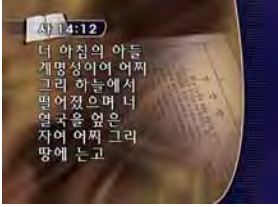
(본문 : 겔 28 : 17)  
"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 . " 겔 28:17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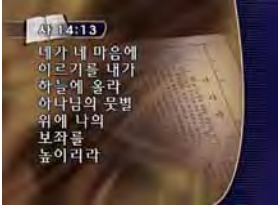
34

이 아름답고 고귀했던 천사는 자아 중심적인 천사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 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경을 탐하였다. 그는 권력에 굶주렸고 우주 통치권을 놓고 그를 창조한 분에게 도전하는 뻔뻔함을 갖게 되었다. 잘 들어 보라.



35

(본문 3 슬라이드 : 사 14 : 12 -14)  
"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



36

"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



37

" . . .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



38

이와 같은 오만한 말들이 루스벨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때, 하늘의 완전한 사랑과 조화는 수백만의 이기적인 조각으로 흩어졌다.



39

루스벨이 다른 천사들에게 그의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점차 그러나 확실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40

마치 박스 속에 있는 부패한 과일처럼, 그의 반역은 하늘의 다른 천사들 사이로 번졌다. 그대는 아마 왜 하나님이 그 즉시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은 루스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을 멸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모든 그의 피조물들은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섬겼을 것이다.



41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아이가 몇이죠? 아 많진 않군요. 그런데 로봇 같은 아이를 원하시나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이를 좋아하겠어요? 당신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목소리를 흉내내어) "예, 엄마, 아침을 먹을게요." "예, 아빠, 방을 치울게요." 라고 하겠죠. 당신은 차갑고, 철같고 기계적인 로봇을 가진 것이죠.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를 갖기를 원하세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42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경배를 드리는 그런 창조물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행복하실 수 있다.



43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도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보스처럼 보이기 위해 이 법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창조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드셨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44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고안된 거리의 신호등과 속도준수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존재 루스벨은 자신이 그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이 우주를 더 잘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45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은 그 스스로 악을 만들었다.



46

(비디오 10 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 혹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은 사단으로 하여금 이 우주를 그의 원하는 방법대로 운행해 보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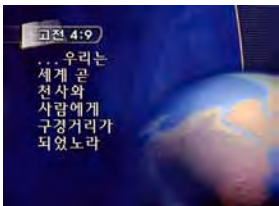
47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다만 그 전쟁은 장소를 옮긴 것 뿐이다! 지구는 선과 악이 싸우는 대쟁투의 현장이 되었다. 지구는 사단이 그의 통치를 시도하고 운행해 가는 곳이다.



48

그런데 왜 하필 지구인가? 왜 우리의 지구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가?



49

(본문 : 고전 4 : 9)  
 ". . .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50

지구가 창조자의 손에서 방금 나올 당시에는 모든 것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화로웠다. 사단도 분명히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가 보기에 돌모로 잡을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새로 태어난, 깨어지기 쉬운 이 지구를 사로잡을 시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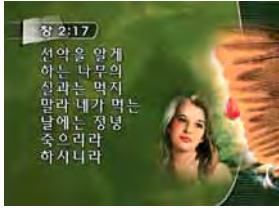
51

인류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비록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혹은 그분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시험 받아야 했고, 그 시험은 한 나무에 집중 되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52

(본문 2 슬라이드 : 창 2 : 16, 17)  
" . . .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



53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창 2 : 16, 17. 이것은 틀림없이 이치에 맞는 요구처럼 보이며 그들은 꽤 확신을 가졌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신 있다고 여김으로 방심할 때 가장 넘어지기 쉽다.



54

그 점이 곧 하와에게 일어났다. 사단은 그녀를 속이기 위해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하였다. 사단은 거의 드러내 놓고 일하지 않는다. 그는 속이기를 잘한다. 그는 조직과, 사람, 또 더 나아가 뱀까지도 이용한다.



55

이것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이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본문 3슬라이드: 엡 6:11-12)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56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57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1, 1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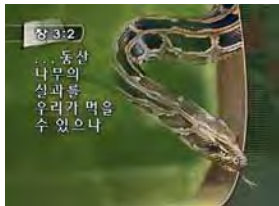
하와는 꾀임을 받았다. 그녀는 뱀에게서 들려온 그 말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뱀을 통하여 말하는 사단은 그녀에게 물었다.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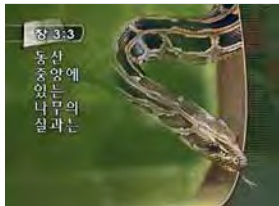
(본문: 창 3:1)  
 ...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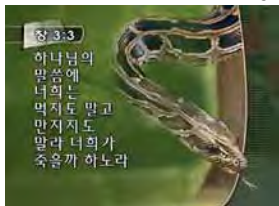
(본문 4슬라이드 창 3:2-4)  
 하와가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61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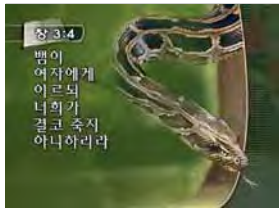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63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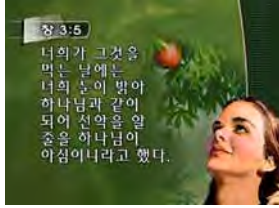
6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2-4



65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녀가 혼돈하고 있을 때, 뱀은 서둘러 말하기를,



66

(본문: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5



67

사단은 제시하기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그분이 어떤 좋은 것은 숨기고 계신다고 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다. 이 말이 이제 하와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 충동적인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다.



68

(본문 2 슬라이드: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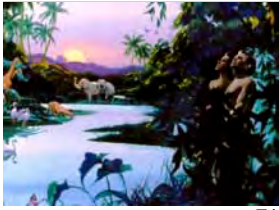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창 3:6



70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그 과일을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71

아담과 하와는 사랑과 충성을 시험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고, 곧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2

사단은 새로 태어난 세계를 납치하였다. 그 때로부터 그는 이 세상의 왕자라 주장했다. 반역한 별의 통치자. 아담과 하와는 그 악한 자의 소리를 들었다.



73

가장 불행한 이 날이 다할 무렵, 하나님은 매일 그리 하셨던 것처럼 서늘한 저녁, 아담과 하와를 찾아 부르셨다. 지금껏 이 시간은 그들이 창조주와 직접 대면하여 걷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날 그들은 도망하여 수풀에 자신을 숨겼다.



74

마침내 아담은 동산의 관목 뒤에서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며 고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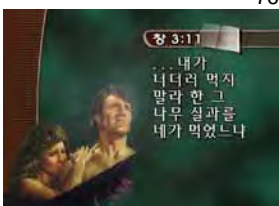
75

(본문: 창 3:10)  
...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1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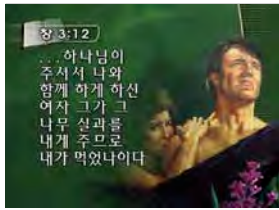
아담은 전에 결코 두려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 하게 만든다.



77

(본문: 창 3:11)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1절. 아담이 대답하되,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78

(본문: 창 3:12)

...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2.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담은 하와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와 함께 그녀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 죄가 완벽한 사랑을 이처럼 갈기 갈기 찢어 놓다니!



79

하와도 역시 비난할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누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하기를,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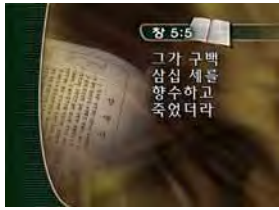
(본문: 창 3:13)

...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3. 하와도 또한 하나님께 비난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말한 것이다.



81

바로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운명에 놓였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 내셨다. 속이는 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82

(본문: 창 5:5)

그가 구백 삼십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 5:5. 그들은 너무 늦게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였다.



83

(본문: 요 8:44)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84

이 세상의 비탄과 파괴를 인해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다. 그러나 이 황폐의 진정한 책임은 사단에게 있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비디오: 10초) 그는 이 지구상에 불 을 가져온 장본인 이며, 죄를 야기시 고, 고 을 들여온 자이다. 예수님은 마귀와, 사람들을 괴롭 는 그의 방법을 드러내신다.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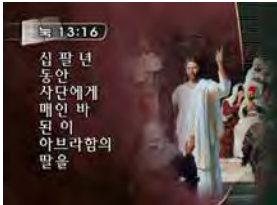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에서 가르치실 때, 교부라져 조금 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주목하셨다. 예수님은 가엾은 그 여인을 만져 고치셨다.

86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일인 안식일에 병고침을 행한 것을 인해 예수님을 비난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는지 주목하자.

87



(본문 2 슬라이드: 눅 13:16) 십 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 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88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눅 13:16

89



예수께서는 사단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사단은 죄의 장본인이다. 사단은 사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죽음 뒤에 있는 사악한 세력이다.

90



아마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 가 등장하는 욥기의 첫 번째 장 보다 더 분명하게 사단의 계락을 나타내 주는 곳은 성경의 다른 곳에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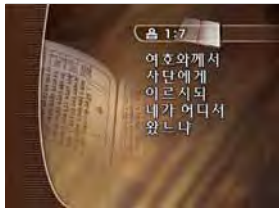
91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분 앞에 등장하는 것은 사단이 타락 한 조금 이 의 일이며, 사단도 그 자리에 왔다. 생각해 보 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과 불청객인 사단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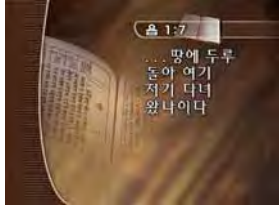
92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93

(본문 2슬라이드: 욥 1:7)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욥 1:7. 다시 말하면, 누가 너를 초대 했느냐? 네가 여기 있을 무슨 권리가 있느냐? 사단은 대답하기를,



94

...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욥 1:7. 사단은 지구의 통치권을 주장했다. 그는 아담의 지위를 점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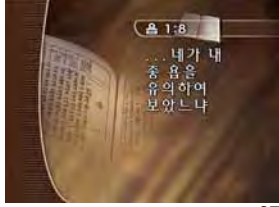
95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합에 참석한 다른 존재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눅 3:38)이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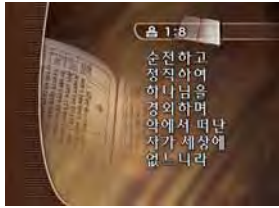
96

아담이 원천적으로 우리 세계의 머리가 된 것같이 그들이 다른 세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가? 하여튼, 지구를 대표한다는 사단의 주장엔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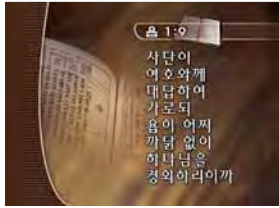
97

(본문 4슬라이드: 욥 1:8, 9, 11) ... 내가 네 종 욥을 의하여 보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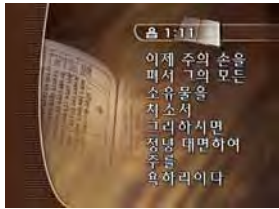
98

손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9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0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욥 1:8, 9, 11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01

얼마나 큰 도전인가?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유익한 것들 때문이라 주장한다.



102

(본문 2슬라이드: 욥 1:1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103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 1:12. 사단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취할 욕망으로 떠났다.



104

곧 욥에겐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스바 사람들이 욥의 가축을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다.



105

두 번째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양치는 종들을 살랐다.



106

그런 다음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욥의 약대를 약탈했다.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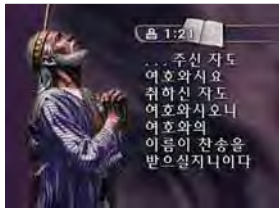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돌풍이 몰려와 욥의 만 아들의 집을 덮쳤고 잔치를 즐기던 모든 욥의 아들이 죽었다.



108

욥!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들을 취하고 모든 문제를 야기 시키시는 줄 알았다. 그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께 대한 욥의 충성은 변함이 없었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욥 1:21  
...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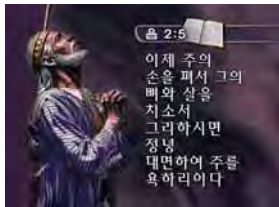
(본문: 욥 1:21) ...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1. 욥은 비록 그의 모든 소유와 자식들을 앗아가 버린 그 재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동일하게 신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욥 2:4  
...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  
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  
울지라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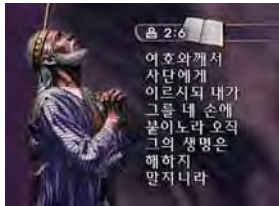
(본문 3 슬라이드: 욥 2:4-6) ...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욥 2: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욥 2:6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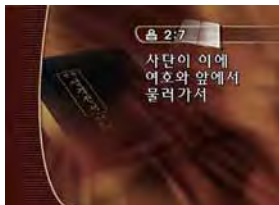
112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 2:4-6



113

시험은 계속 되었다. 그 험난한 시험이 계속될 때 과연 욥은 여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욥 2:7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114

(본문 2슬라이드: 욥 2:7)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 2:7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115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 2:7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16

현대를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적은 부분의 현대라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것이다. 하물며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모두 현대로 덮여 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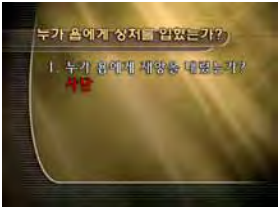
117

사단이 비록 욥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그의 건강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다. 아 얼마나 충직한 신앙인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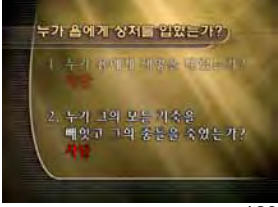
118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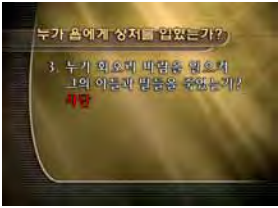
119

누가 욥에게 상처를 입혔는가?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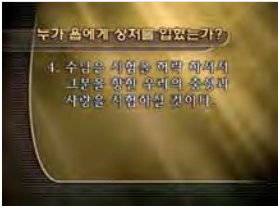
120

누가 그의 모든 가축을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는가?  
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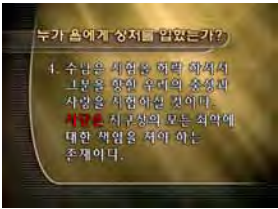
121

누가 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의 아들과 딸들을 죽였는가?  
사단



122

주님은 시험을 허락 하셔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123

사단은 지구상의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24

그대와 나는 우주적인 대 쟁투의 심장부에 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쟁투, 우리는 그 싸움의 방관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싸움에 이미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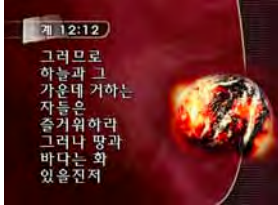
125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실제적인 동에 무방비 상태에 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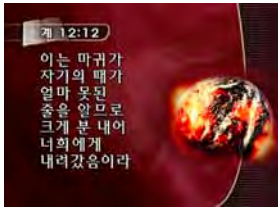
126

계시록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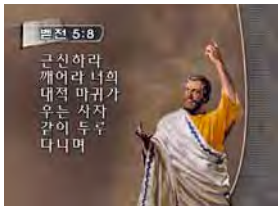
127

(본문 2슬라이드: 계 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있을진저



128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계 12:12.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한다.



129

(본문 2슬라이드: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130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131

그러나 사단이 가장 악랄하게 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재 창조의 계 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귀한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죽게 하시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32

성경은 사단이 사자처럼 으르렁 거린다고 표현한다.



133

사단은 헤롯 왕을 통하여 아이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그는 결국 실패 했다).



134

(비디오: 10초) 사단은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가장하고 세 가지 시험을 들고 광야의 예수님에게 왔다(결국 사단은 실패하였다).



135

사단은 갈보리의 군중 속에서 예수를 패배케 하기 위해 일 하였다(그는 이제 영원 실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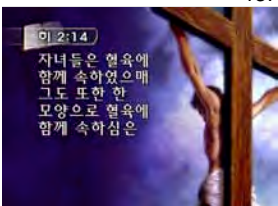
136

비록 갈바리의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아들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대와 나의 운명을 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주셨다. 이것은 승리의 순간이요, 지구 상의 사단에 속박된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의 날이었다.



137

바로 그 날 사단은 비참하게 패하였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모든 죄와 고통을 정복하는 권한을 취하신 것이다. 바울은 2:14절에 말하기를,



138

(본문 2슬라이드: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39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40

사단은 우주의 모든 지적 존재들 앞에서 그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여전 그가 지구를 운영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아는 태풍, 지진, 홍수, 범죄, 질병, 고통 등이다.



141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단의 초자연적인 동으로 인해 그 배가 드러나지 않는다.



142

이 비극들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단의 행위들이다.



143

그대는 아마 그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고난 등을 인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대는 아마 아이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144

성경은 하나님이 그대의 고통, 슬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그분은 곧 죄와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려 오실 것이다.



145

복음은 바로 사단에게 납치 당한 이 둥근 지구가 이제 곧 구출된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을 아는 것은 이 지구가 잘못된 궤도로 간다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승객들을 평온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단을 멸할 계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정한 하나님의 계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성경은 사단에 대해 무엇이랴 말하는지 알아보자: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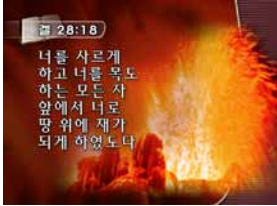
146

(본문 3슬라이드: 겔 28:16, 18) ... 너 덮는 그룹아 ... 내가 ... 멸하였도다



147

...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148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 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겔 28:18. 죄와 고통은 영원 사라질 것이다.



149

친구이신 예수님이 속 오신다! 낮고 천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비웃음 당한 사람이 아니라, 손 바닥으로 내리침을 당하고 거절 당한 자, 십자가에 못 박 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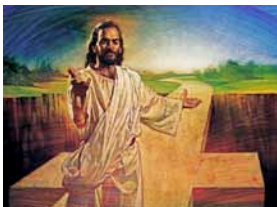
150

그분은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진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151

(비디오 12초)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가? 이미 선은 그어져 있다.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어느 쪽에 충성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152

불안에 떠는 사람들, 외롭고 고통스런 사람들, 범직한 영혼, 그리고 이 반역한 지구에 사는 모든 그의 자녀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랑의 초청을 하고 계신다.

## 6 -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가?



153

(본문: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4

(본문: 요 6:37)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불행과 비극, 실망의 생애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슬픔을 예수님은 이해하신다. 예수님은 그대의 육체가 질병으로 유린되는 아픔 등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고통을 이해하신다.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신다. 그분은 굶주리고 설 곳이 없었던 팔레스틴의 먼지 나는 거리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셨다. 오늘 그 분께로 나아 오라. 예수님은 그대에게 새로운 땅과 용기를 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여기에 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삶의 모든 고통들을 끝내실 것이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사단은 마침내 완전 패배할 것이며, 그분은 그대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복시키시며, 새로 만들어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하지만 결정은 그대가 해야 한다. 그대는 누구를 주로 선택할 것인가? 친구여! 이 결정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지금 예수님을 그대의 왕으로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분은 두 팔을 벌려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오라! 오라! 오라!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제가 이제 갑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1

그는 또한 그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2

두 사람이 기차로 미국을 가로질러 수백 마일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여행이 너무 길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떠오르는 수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정치를 논했다. 어릴 적 경험들, 가족들,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마침내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르렀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



3

그 무더운 여름날 오후 그들의 대화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다. 무신론 자는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왜 너는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지리적인 요건 때문인지? 예수는 다른 위대한 사람과 어떻게 다르지? 예수는 윤리적 교사나 도덕적 철학자 이상의 사람인가? 어떻게 너는 예수를 거룩한 사람으로 믿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그 무더운 오후 열차에서 던져진 무신론자의 몇 가지 질문들은 참으로 그럴 듯한 것이었다. 그의 질문을 받은 기독교인 친구는 대답을 한다.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있으며 그 대답을 이해하는 것은 곧 영생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4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의 공적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그들의 공로를 통해 더 나은 세계로 변화했다.



5

왕들, 대통령들, 종교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과학자와 예술가들은 세상에 그들의 족적을 남겼다. 그들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6

그 모든 사람들에 더 뛰어난 한 분이 있다. 더욱이 역사가 그분의 탄생 전후로 나뉘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시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들었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7

오늘 밤! 나는 그대에게 역사의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소개하려 한다.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그대는 도대체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도덕적 교사 또는 윤리적 철학자였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두 제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역시 궁금해 했다.



8

예수님이 그의 부활하신 일요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다.



9

그는 지난 몇 일 동안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을 드러내셨다.



10

(본문 3 슬라이드: 눅 24:25,27) ...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11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12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 설명하시니라  
눅 24:25, 27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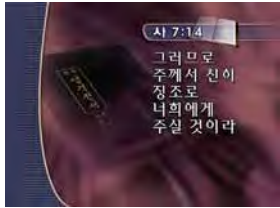
13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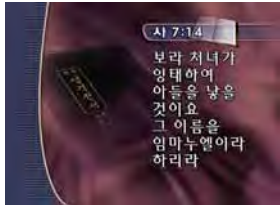
14

그의 신비로운 탄생-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오래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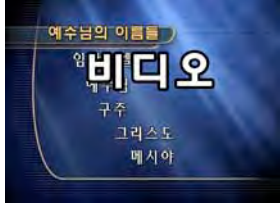
15

(본문 2슬라이드: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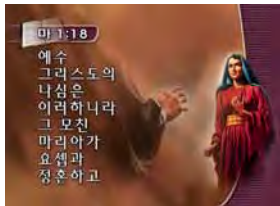
16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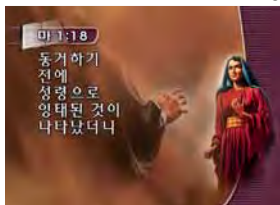
17

(비디오: 5초)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 구속자,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그분이 태어나기 60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천사는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천사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자.



18

(본문 2슬라이드: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19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 1:18



# 7- 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증거들:**  
 크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1. 그의 신비로운 탄생
2. 그의 출생 장소.

그의 출생장소

20

**마 5:2**  
 ... 베들레헬을  
 ...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

(본문: 마 5:2) ... 베들레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 마 5:2. 이미 700년 이전에 예언된 그 정확한 도시 베들레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21

**마 2:1**  
 ...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

(본문: 마 2:1) ...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마 2:1. 신약성경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확인한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 이상이며, 윤리적 교사나 도덕적 철학자 이상의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처녀에게서 잉태하셨고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셨다.

22



성경의 예언은 이미 몇 백년 이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계시하고 있으며, 이 예언들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 죄인의 위치에 서셨으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계획이다.

23



약 2000 여년 전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4



그들은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늘의 별은 새로 탄생하는 왕에 대한 신호가 되었다. 그들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그 분께 경배를 드렸다.

25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26

(본문 2슬라이드: 눅 2:7)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27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눅 2:7



28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의 구유에 눕게 되었다. 그분은 이렇게 가엾게 탄생하셨다.



29

그의 어머니는 매우 온유하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30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처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한다.



31

(본문 3슬라이드: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32

오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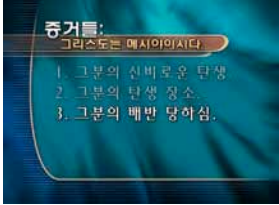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6,7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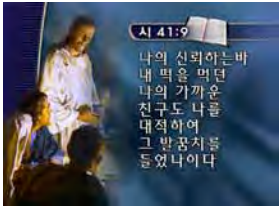
34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셨으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의 생애 최후 24시간 동안, 수 천년 전에 자세 예언된 그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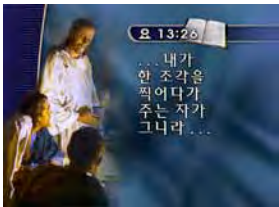
35

한 예로서, 유다에게 배반 당하신 것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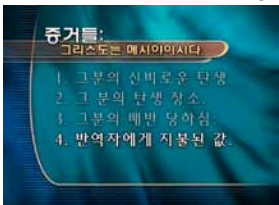
36

(본문: 시 41:9)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누가 그를 배반할 것인지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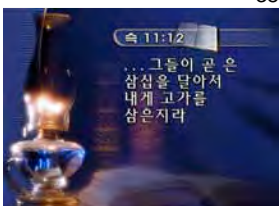
37

...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요 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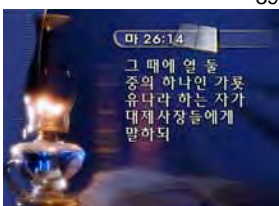
38

배반자에게 치러진 값



39

...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게 고가를 삼은지라  
슥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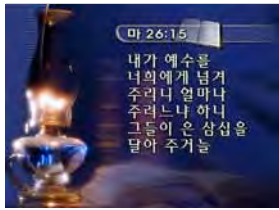


40

(본문 2슬라이드: 마 26:14, 15) 그 때에 열 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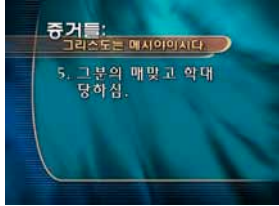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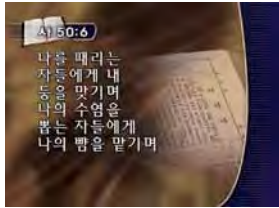
41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 주리니 열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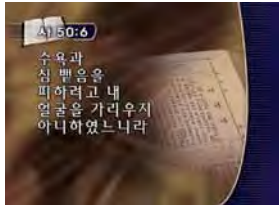
42

그분의 매 맞음과 학대 당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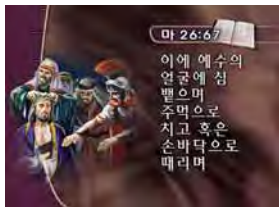
43

(본문 2슬라이드: 사 50: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맞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맞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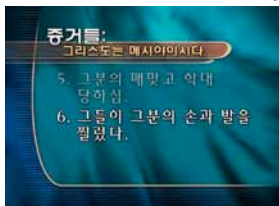
44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 50:6



45

(본문: 마 26: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 26:67



46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을 찢렸다.



47

(본문: 시 22:16) ...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시 22:16.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의 한 제자요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에 대해 언급하기를,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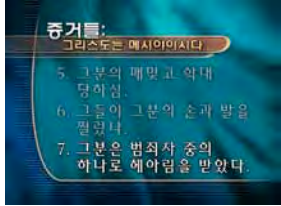
(본문 2슬라이드: 요 20:25) ...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 7- 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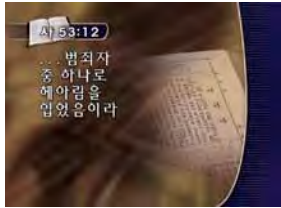
... 내가 ...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 20:25

49



그분은 범죄자 중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주목하자.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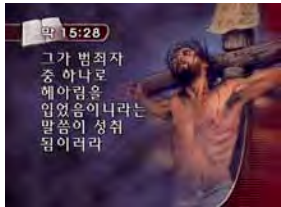
(본문: 사 53:12) ...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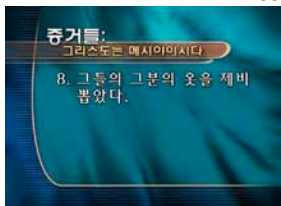
(본문 2슬라이드: 막 15:27, 28)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52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는 말씀이 성취 됨이러라 막 15:27, 28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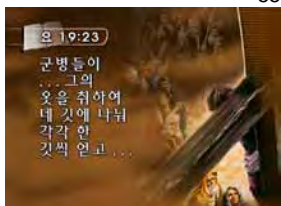
그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다. 다윗 왕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1천년 전에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했다.

54



(본문: 시 22: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 22:18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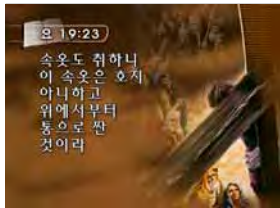


(본문 3슬라이드: 요 19:23, 24) 군병들이 ...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

56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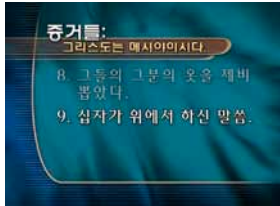
57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58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한 것을 응하게 하려... 요 19:23, 24



59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60

(본문 시 22: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 22:1. 구약의 이 성경 절과 마 27:46절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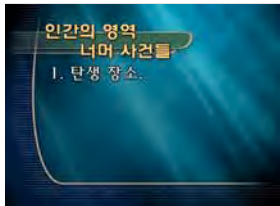
61

(본문: 마 27:46)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 직전인 제 9시 즈음 이 말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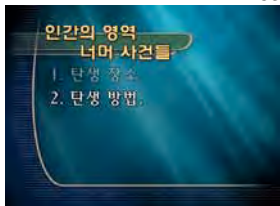
62

많은 예언들은 총체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영역 너머에 있었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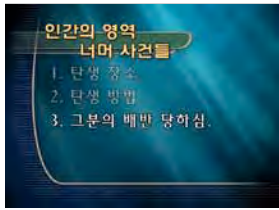
그분은 자신의 탄생 장소를 정하실 수 없으셨음이 틀림없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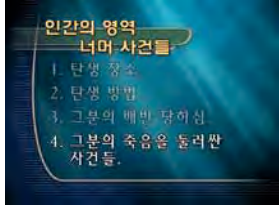
그분의 탄생 방법,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분의 배반 당하심,

65



또는 그분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

66



예수님은 메시야라 선언된 바로 그 분이였다. 그분이 그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매 맞음으로 살이 찢기고, 수족에 못이 박혀 있고, 가시 면류관을 썼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을 때,

67



만약 그분이 그 때 천만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68



그대는 때때로 그대가 진정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대를 돌보신다! 그분은 이미 오래 전 예루살렘 성문 밖, 한 언덕에서 이것을 증명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 사실은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산산이 부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천만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으셨다. 하지만 감사하시게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그대와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다.

69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대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70



예수님은 우리의 죄 된 삶의 자리에서 완전한 생을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성경은 그분의 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71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72

(본문 4슬라이드: 사 53:3-7)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3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74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75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 사 53:3-7

76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양과 같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분은 성경의 다른 많은 곳에서 양으로 언급된다.

계 13:8  
...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

77

(본문 2슬라이드: 계 13:8) ...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

계 5:8  
...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

78

(본문 2슬라이드: 계 5:8, 12) ...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

계 5:12  
...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 합당하도다

79

[말하기를] ...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 합당하도다 계 5: 12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린양 이시다.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본문 2슬라이드: 롬 6:23) 죄의 삶은 사망이요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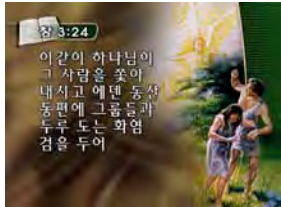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81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분리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안식처였던 에덴에서 몰아 내었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의 활력은 죽을 때까지 서서 감소하게 되었다.

82



(본문 2슬라이드: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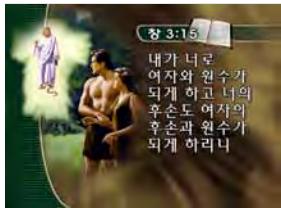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4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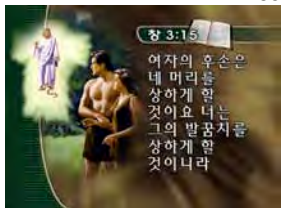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그분의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85



(본문 2슬라이드: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사단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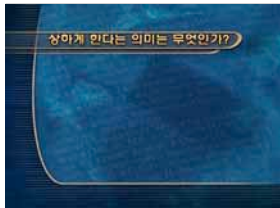


여자의 후손[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사단]은 그[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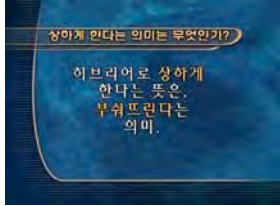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88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89

브리어로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부숩뜨린다는 것을 뜻한다. 머리를 부숩뜨린다는 것은 발꿈치를 부숩뜨린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예수님은 사단에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계획과 그들의 회복을 기억케 하기 위해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90

그것은 그분이 생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만 하였다.



91

성경은 정확 언제 생 제사 제도가 생겼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을 때 하나님은 양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 션다. 그 바로 다음 장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린다.



92

(본문 2슬라이드: 창 4:4, 5)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93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창 4:4



94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 분하여... 창 4:5.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상징하는 양을 제사 제물로 드렸다. 하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 가인의 제물에는 죽음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본문: 9:22) ...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9:22

95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한 성소의 예식을 통해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다. 성소, 또는 속죄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이었다.

96



그 예식들 중의 하나가 유월절 이었다.

97



첫째 달 14일, 백성들은 양을 잡고 그들의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그들이 양의 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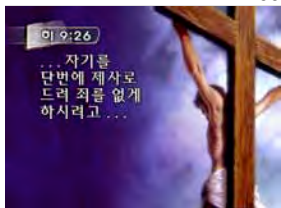
그 날 밤, 천사는 피로 덮인 가정은 지나쳤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장자는 죽게 죽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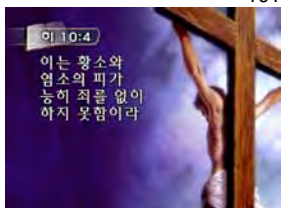
유월절은 오직 양의 피 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죽은 동물들은 죄로부터 깨끗케 할 수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0



(본문: 9:26) ...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 9:26

101



(본문: 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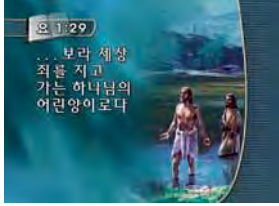
102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103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선언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104

(본문: 요 1:29)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 1:29



105

그 생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어린양인 메시야를 지목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의 수 세기 동안 죽어 간 양의 뿌려진 피는 우리를 위해 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였다.



106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인애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다. 그분의 삶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며 우리의 삶에 을 더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 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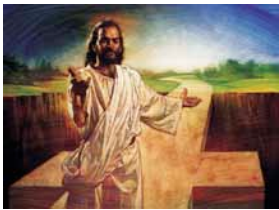
어니스트 샤클레톤이 남극 정복을 위한 탐험을 하던 1914년 어느 날, 그의 배 인듀어런스 가 빙하에 부서졌다. 탐험대원들은 엘리펀트라는 섬에 닿을 때까지 표류를 계속 해야만 했다. 샤클레톤은 대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져온 물자를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캠프를 만들게 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구조하려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금새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가 그 험난한 대양을 가로질러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만 했다. 샤클레톤은 행해를 위해 20피트 짜리 고래잡이 배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자원자들 가운데 6명을 선발하였다. 그들이 남 조지아의 얼어붙은 섬에 있는 노르웨이의 한 고래잡이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친 바다를 가로질러 600 마일이나 항해를 해야만 했다.

## 7-한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108

폭풍의 계절에, 개방된 배 한 척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다. 그러나 샤켈레톤은 그 일을 감행하였다. 4일 동안 그들은 텐트로 덮어 임시 방편으로 만든 곳에 쭈그리고 앉아, 뱃머리는 험한 파도를 향해 고정시키고, 제발 바람이 그들의 작은 배를 찢어 던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보냈다. 그들은 뼈를 에이는 추위, 얼어 버려 버린 침낭, 등 뒤에 내리치는 얼음물 폭풍, 굶주림, 갈증을 견뎌 냈다. 마침내 그들이 항해를 시작한 지 14일, 그들이 거의 사선을 넘나들 때, 그들의 눈에 남 조지아의 절벽이 아른거렸다. 샤켈레톤은 생각했다. 이제 즉시 구조대가 그 길을 따라 남아 있는 대원들을 구조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곤경을 내려다 보시고, 죄의 바다에 둘러 싸인 섬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를 보셨을 때, 자신을 험난한 파도 치는 바다에 던지셨다. 그분은 잔인하고 차디찬, 죄가 광대한 인간 세상에 종의 체를 스스로 취하고 내려 오셨다.



109

이 온 우주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 시키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손을 들고 예수님, 오늘 밤에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는가? 예수여,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저 그대의 손을 들기 바란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

### 불멸의 비밀



2

(비디오: 19 초) 지구가 움직였다. 강력한 진동이 온 시내에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공공 건물들은 붕괴되고 집들은 무너졌다. 병원들, 학교들 그리고 교회들이 파괴되었다. 2001년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지진은 순식간에 거의 3000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 수 천명이 집을 잃은 채 버려졌다. 응급 구조대원들은 밤 낮 설새 없이 희생자를 찾기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난 몇 명을 찾았을 뿐이었다. 4일 동안 건물 더미를 파헤친 뒤 거의 구조 작업을 포기할 즈음 한 구조 대원이 건물 파편 더미 속에 반쯤 묻힌 팔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팔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거의 기겁을 할 뻔 했다. 대원들은 혼신을 다해 파편 더미를 걷어 냈다. 4 시간의 혈투 끝에 그 속에 묻혀 있던 중년의 남자를 구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마침내 살았다. 그는 물과 음식 없이 4일 동안 생존했다. 나중에 병원에서 그는 어떻게 그런 악조건 속에서 견딜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살기를 열망했어요. 공기를 마시기 위해 혈떡 거렸지만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는 어딘가에 도움의 손길이 있을 줄 믿었어요.



3

우리는 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태어났다. 그대와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것을 갖고 태어났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 열망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보다도 강렬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살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으로 함께 결속되어 있다.



4

어떤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데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우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할 때 그렇고 또는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배 위의 사람들을 구할 때 그렇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또 위험한 산 벼락에 달린 등반가를 구출할 때, 지진으로 건물 더미에 묻힌 사람을 구할 때 그렇다.

5



그런데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고--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행하게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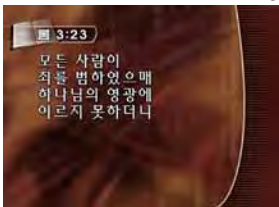
(본문: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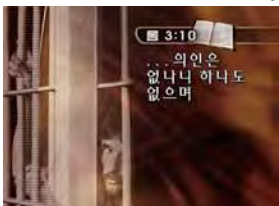
죄는 죽음을 몰고 오는 치명적인 독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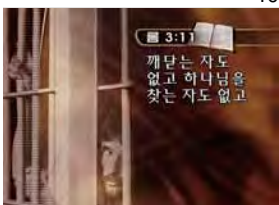
(본문: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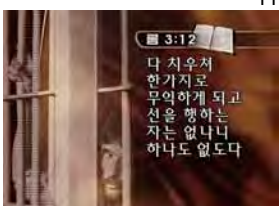
(본문: 롬 3:10-12) ...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0-12

12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3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14

(본문: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15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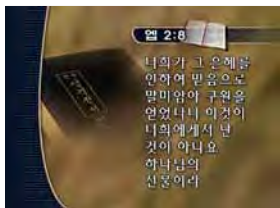
16

죄의 자연적인 결과는 사망이다. 죄에 의한 사망률은 100%이다. 아담은 그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하여 그에게서 탄생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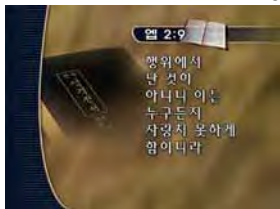
17

우리는 아무 도움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운명에 있다. 누군가 우리를 구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이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18

(본문: 엡 2:8, 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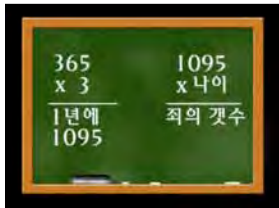


1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 9. 그렇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모든 이기적인 행동, 언어, 또 심지어 생각 속에서도 죄를 짓는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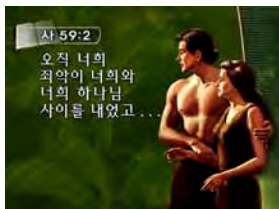
20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죄의 셀 수 없는 횡수를 상상해 보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짓고있는 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이다.



21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결코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한 사람이, 사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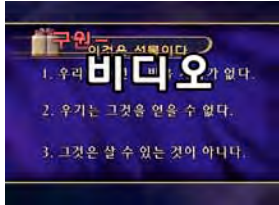
22

(본문: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사 59:2.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이시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죽어 가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 받은 상황에 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그분의 희망적인 기별 없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그 기쁜 소식이 있다!



23

(본문: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24

구원은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로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5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가혹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못이 튀어나온 침대에 앉아 있다.



26

사람들은 체인이나 회초리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멍들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뾰족한 것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기도 하고,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27

또 어떤 이들은 육체 학대 행위를 통해 거룩한 분의 호의를 얻고자 맨발로 뜨거운 석탄 위를 걷는다.



28

다른 이들은 신당을 짓고 거룩하다는 어떤 신상을 모셔 섬김으로 내세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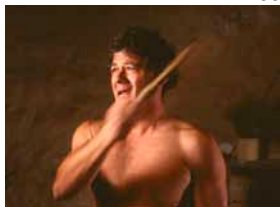
29

어떤 종교인들은 메카 또는 성지들을 순례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30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소유하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애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의 황금률을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인가?



31

인간이 그런 육체적 학대, 정신적 고뇌 또는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와 인간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매수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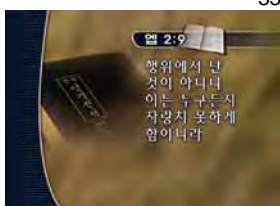
32

우리가 운동을 하여 트로피나 금 메달을 따는 것처럼 영생을 딸 수 있는 것인가?



33

(본문: 엡 2:8, 9)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한다.



34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 9.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35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야 한다. 만약 구원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36

그대의 고용자가 그대의 손에 봉투를 건네주며 그대를 위한 선물이라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37

그런데 만약 거기에 그대가 가불해 간 봉급을 갚으란 명세서가 들어 있다면 그것이 선물인가? 영생은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8

그러나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39

(비디오 12 초) -우주의 끝 자락에 있는 이 지구의 거민들을 주목하시는가? 왜 그분은 이기적이고 반역적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가?



40

(본문: 요일 4:8) 그 대답은 요한 1서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1서 4:8



41

그대들 중의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진 부모일 것이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42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밤낮으로 운다면 아이를 위해 그대가 할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상태를 호전 시키기 위해 그대가 한 일들이 거의 소용없어 보이고, 그래서 친구의 조언을 듣는다. 아이를 안고 거실을 걸어 다니고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 주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의 부모라면 어떤가? 그대는 피곤함을 잊을 것이며 얼마나 오래 동안 아이가 아프든지 그대는 오로지 아이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겠는가?



43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것은 그대가 가없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 아이가 견뎌야 할 고통과 아픔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44

지구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은 죄라는 질병에 걸려 아프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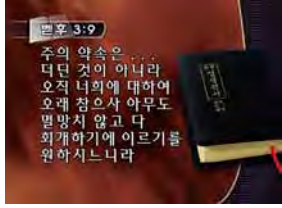
45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46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결코 우리의 반역의 결과인 고통과 죽음에 버려 두지 않으신다.



47

(본문: 벧후 3:9) 주의 약속은 ...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48

그대가 얼마나 선하고 또는 나쁘냐에 상관 없이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시며 그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대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49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분의 율법을 깬다.



50

세상 정부는 율법을 범한 자를 용서 할 수 없고 오래 살도록 관용할 수 없다.



51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훨씬 더 심각한데, 죄는 우리를 돕고 구원할 수 있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놓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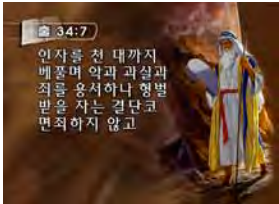
52

비록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시라 할지라도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시내 산에서 그 분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셨다.



53

(본문: 출 34:6) ...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54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출 34:6, 7.



55

그런데 여기 해결책이 없는가?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인가? 방법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으셨다.



56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돌아가실 완벽한 대속물,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한 대속물을 찾으셨다.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이 방법을 이렇게 설명한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57

(본문: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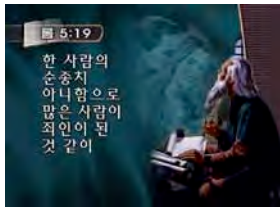
58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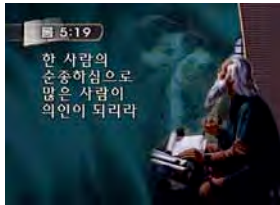
59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동일한 문제들과 시험을 만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지구에 살기 위해 오셨다. 그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인류의 유일하게 무죄한 대속자로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기꺼이 취하고 돌아가심으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셨다.



60

(본문: 롬 5:19)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같이



61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기록한다. 롬 5:19.



62

예수님의 죽음은 화가 난 하나님을 진정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속죄양, 하나님의 어린양이었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비디오

63

(비디오: 25 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모세에 의해 이집트에서 구출된 뒤 시내 산 근처 광야에서 유랑하였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예증인 여러 예식과 상징들을 매일 목격 하였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세워진 여러 봉사를 포함한 사막의 성소는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에 갈보리에서 있을 예수님의 죽음 즉,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용서와 구원의 소망과 확증을 가져 올 참 어린양의 죽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였다.



64

죄인은 희생될 짐승을 이끌고 온다. 그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런 다음 그는 칼을 취하여 그 짐승을 죽이는데, 이것은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그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상징하고, 그 희생 제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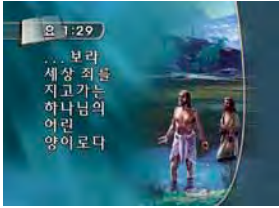
65

끔찍한 장면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약속을 가져 온 갈바리의 십자가는 훨씬 더 끔찍하였다. 어쨌든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은 죄가 죄인 또는 무죄한 희생제물을 죽게 한다는 것을 보이셨다.



66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인간의 편에서 돌아가실 대속적 죽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



67

(본문: 요 1:29) 예수님은 참 희생 제물이셨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러 나아 오실 때 요한은 ...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다. 요 1:29. 그분이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취할 계약을 꾸미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예수님은 매 맞으셨고, 조롱 받으셨으며,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런 형벌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셨다.



68

(본문: 뱀전 2: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뱀전 2:22.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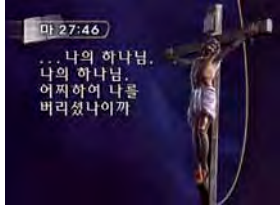
69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기간 동안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다. 이 때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고 대신 예수님을 죽게 했다.



70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죄인들과 동일시 되었다. 그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 시키셨다.



71

(본문: 마 27:46) 그는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마 27:46. 예수님은 죄가 가져온 비참한 분리를 경험하셨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으셨다. 그래서 그의 심장은 파열되었다.



72

(본문: 막 15:31) 군중들은 소리쳤다. ...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막 15:31.



73

그것은 진실이다. 그분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으셨다.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깨어진 율법에 위한 값을 치르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으셨고,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대속물로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74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취급을 대신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해 정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완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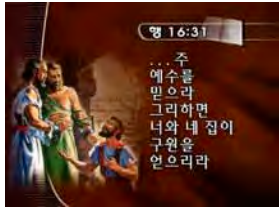
(본문: 엡 2:8)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한다. 엡 2:8. 이 믿음이 구원의 관건이다.

75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을 때 바울은,

76



(본문: 행 16:31)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77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으론 충분치 않다.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그것 이 상이 필요하다.

78



(본문: 약 2:19) 성경은 ...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말한다. 약 2:19.

79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19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상이다. 성경은,

80



(본문: 잠 3:5,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 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81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 라 잠 3:5, 6. 그분을 믿는가? 정말 그분을 믿는가? 그대 의 삶을 그분이 조율하실 수 있게 충분히 맡기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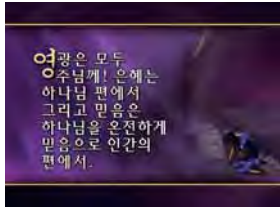
82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83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해 그리스도께서 충분하고 완전한 속죄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84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했다는 자만을 결코 가질 수 없다.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기꺼이 드리는 인간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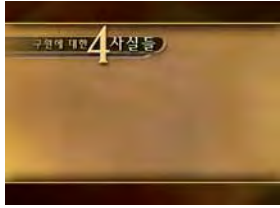
85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은 빌립보의 간수가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던 두려운 밤, 바울과 실라에게 외쳤던 동일한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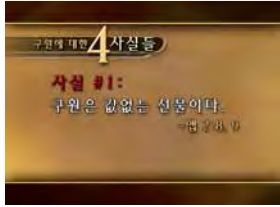
86

(본문: 행 16:30)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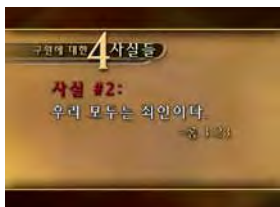
87

구원 받기 위해 그대가 알아야 할 구원에 대한 단지 4 가지 사실이 있다. 단지 4 가지 뿐.



88

(본문: 엡 2:8, 9) 사실 #1: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다. 너 가 그 은 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니 이것이 너 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9. 이제 문제는 왜 구원이 값없는 선물인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값없는 선물인 이유는 우리에게 두 번째 사실을 말해 준다.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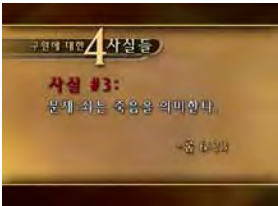
(본문: 롬 3:23) 사실 #2: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롬 3:23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한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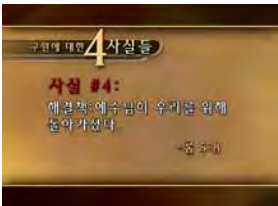
90

이것은 내가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나는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대도 알다시피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만약 구원이 나의 선행에 달려 있다면 나는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어야 하는가, 값없이 내게 주어졌는가 하는 정 한 이유인데,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벌어서 살 수도 없고 살 만한 가치도 내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91

(본문: 롬 6:23) 사실 #3: 문제: 죄는 사망을 의미한다. 롬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값없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것이 구원이 값 없어야 할 이유이다. 그대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문제는 죄인인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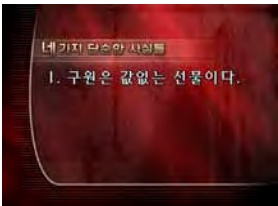
92

(본문: 롬 5:8) 사실 #4: 해결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롬 5:8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아름답지 않은가?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역시 그대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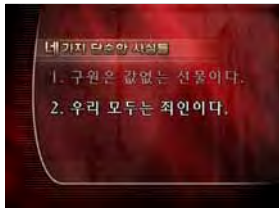
네(4) 가지 단순한 사실들. 다시 복습해 보자.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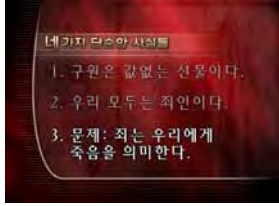
1.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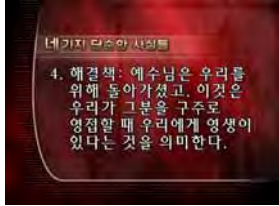
95

2.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96

3. 문제: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97

4. 해결책: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친구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대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값없는 구원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99

이제 그대는 아마 내가 어떻게 그 값없는 선물을 가질 수 있지?라고 물을 것이다.



100

(본문: 계 3:20) 성경은 계 3:20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약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그대의 집 문을 두드리한다면, 그대는 그분을 문밖에 세워 두겠는가? 은 그분을 안으로 모셔 들이겠는가?



101

물론 그대는 문을 열고 그분을 안으로 초청할 것이다. 그대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원하신다. 그분을 안으로 모셔 들여야 한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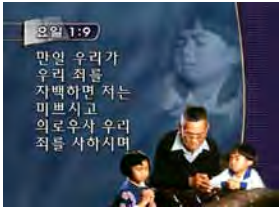
102

그것이 우리가 값없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다. 우리는 단순 예수님 감사 합니다. 제 삶에 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 오십시오,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소서라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 오실 때, 그분을 우리 친구로,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 들이면 된다.



103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 들일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



104

(본문: 요일 1:9)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얻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105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친구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



106

우리가 어디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그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107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으로 몰아내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기록한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08

친구여, 그분이 죄를 사하시면 그는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대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가? 죄가 너무 중하여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을 것이라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요1서 5:10에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분명 기록되었다.



109

(본문: 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110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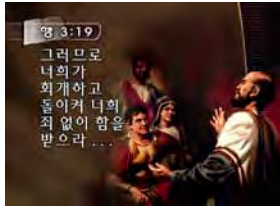
111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일 5:10.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식을 도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분은 그가 하시겠다고 말한 것을 분명 하신다.



112

예수님은 그가 사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을 버려야 한다



113

(본문: 행 3:19) 베드로는 행 3:19절에 그러므로 너 가 개하고 돌이켜 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 고 말한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14

그대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께 나와 구원의 값없는 선물을 받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며 우리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버리시는 것이다. 친구여!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대의 구주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일어나는 일이 더 남아 있다.



115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그분이 사신 삶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도둑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주정뱅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116

(본문: 요 1:12) 요 1:12절을 주목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



117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손아귀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118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119

만약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때 비틀거리며 넘어진다면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 받을 것이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20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며,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신다.



121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에 응답하여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은 죄악에 찬 우리 마음을 깨끗케 하실 것이다.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신다.



122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123

(본문: 요일 5:12, 13)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4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쓴 것은 ...



125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2, 13.



126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하신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선물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의 누구든지 초청을 하신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27

(본문: 요 3:16) ...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아마 그대는 그대가 망 없는 죄인이라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상에서도 승리로 이끄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께는 너무 심각한 상태란 없다. 예수님이 사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죄란 없다!



128

1995년 12월 31일, 뉴욕 시의 능숙한 소방관 존 클렌시는 맨하탄 상습 마약지대에 있는 불타는 빈 아파트에 그의 대원들을 이끌고 들어갔다. 불길이 맹렬히 타고 있을 때, 그 아파트 안에 아직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록 거기에 있음직한 사람이란 방랑자요 마약 중독자이거나 주정뱅이일 것은 매춘부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렌시와 그의 동료들은 불타는 열염에 뛰어들어 사람을 찾아 구출할 것을 결정한다. 빌딩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아마 그 건물을 일시적 거처로 사용하고 있을 방랑자를 찾는데 그들의 목숨이 위험함을 느꼈다. 갑자기 2층 천정이 무너졌고 클렌시를 덮쳤다. 그의 동료들은 불구덩이에서 그를 구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를 끄집어 냈을 때, 이미 때는 늦어 버렸다. 그의 몸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 버렸다. 1995년 마지막 날이 용감한 이 소방관의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다. 그는 아내와 임신 6개월 된 태아와 그들이 세웠던 모든 미래의 계획을 남겨둔 채 떠나 버렸다. 클렌시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채 기꺼이 뛰어들 수 있었다. 그는 불타는 열염의 위험에 있는 사람을 위해 그의 가정의 안녕을 버렸다. 그는 그의 목숨을 버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염 속에 뛰어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죽어 가고 있을 때 구경만하고서 있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이 알려졌을 때, 수사관들은 그 불이 방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건물 안 불길 속에 있던, 방랑자 중의 하나인 에드윈 스미스가 불을 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도 클렌시는 건물에 불을 낸 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그 건물의 방범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표본인가!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29

예수님은 안전한 하늘 집을 버리셨고 불타는 이 지구에 뛰어 드셨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인간이 지은 죄의 염은 그를 송두리째 불살라 버렸다. 우리의 고의적인 선택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의 부정직, 성난 기질, 욕망, 탐심, 간음과 거짓으로 이 세상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오늘 예수님은 그대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증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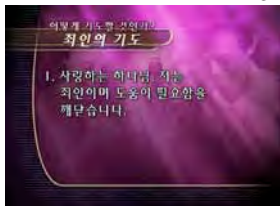
130

그분은 기다리신다. 왜 마음을 열고 그분을 그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가? 그분은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의 마음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이다. 그분은 모두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은 기꺼이 들어 오신다. 친구여!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대의 마음에 모시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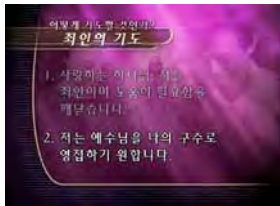
131

나와 함께 이 기도를 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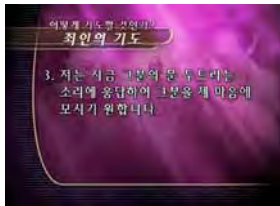
132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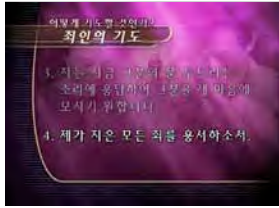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134

저는 그분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여 그분을 지금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 8-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남



135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을 온전 주관 하십시오.



136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깨끗케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1

심판이 놓여 있다.



2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어떤 소송을 심판하던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한 쪽의 소송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다. 처음에는 무죄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이제 죄인인 것처럼 여겨졌다. 처음엔 죄인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젠 무죄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결국 자포자기 하여 그 재판을 포기 하였다. 제임스 1세는 그럴 때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내 마음이 심히 혼란스러워 누가 옳은지 모르겠노라 재판관이 혼란에 빠지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매우 곤란한 것이다.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시고, 온전히 공평하시며 정확한 재판장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재판하시는데 결코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3

(비디오: 4 초)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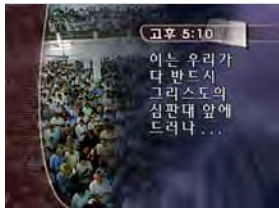
(비디오: 12 초) 더욱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서 소환을 받고 있다. 모든 남 녀들은 그들이 살아온 행위대로 우주의 대 법정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5

(본문: 행 17:31) ...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 행 17:31. 누구도 심판을 비켜 갈 수 없다. 아무도 그 출두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 분명히 말한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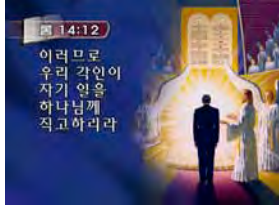
(본문: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고후 5:10.

6



우리가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싫든 좋든, 그리스도인 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없다. 하늘 법정에서 호출 되면 반드시 서야 한다. 왜? 바울이 그 해답을 준다.

7



(본문: 롬 14: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롬 14: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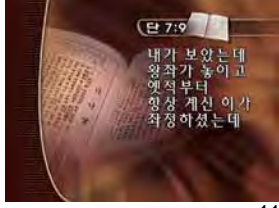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결정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인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상소할 법정이 하늘에는 없기 때문이다.

9



(비디오: 15 초) 그러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반드시 조사하는 심의 과정이 있다. 성경을 펴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조사 과정을 살펴보자.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한다.

10



(본문: 단 7:9, 10)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11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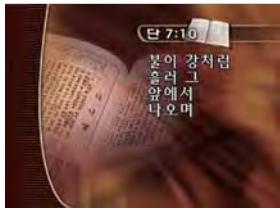
12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

13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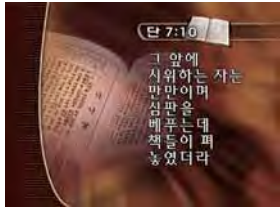
14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15

수증하는 자는 천천이요



16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9, 10.



17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위에는 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둘러섰다고 기록한다. 이제 다니엘이 어떤 이상을 또 보았는지 살펴보자.



18

(본문: 단 7: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19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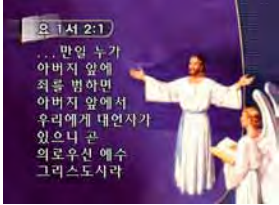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21

하나님의 아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있는 모습이 나온다. 지구의 법정과 얼마나 유사한가! 거기에는 재판관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신다. 그런데 증인이 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찰한 거룩한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 재판관 앞에 예수님 즉, 모든 이들의 변호인인 예수님이 서 계신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22

(본문: 요1서 2:1) ... 만일 누가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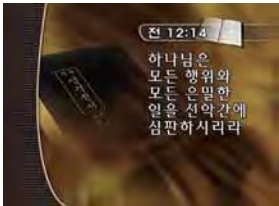
23

(비디오: 5 초) 그대는 말할 것이다. 글썄, 모든 사람이 거기 서긴 서겠지만 누가 선고를 받겠어! 어떤 면에선 그 말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더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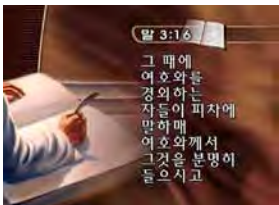
24

(본문: 단 7:10) ...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단 7:10. 이 책들은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든 생애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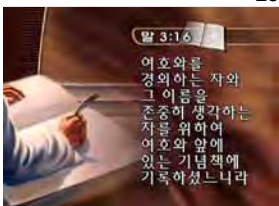
25

(본문: 전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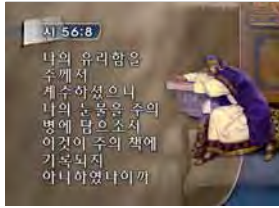
(본문: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27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용기의 말, 친절 한 행동을 다 기록하신다. 다윗왕은 이 기록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28

(본문: 시 56: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또한 그대의 삶에 있는 절망의 슬픔도 아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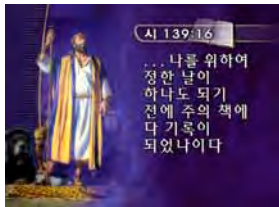
29

(본문: 시 139:1, 3, 16) 여호와여 주께서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30

...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31

...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 139:1, 3, 16.



32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떤 면에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시다. 하지만 그것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온 우주를 위한 것인데, 모든 경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명백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33

모든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선물, 영원한 삶을 놓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34

(본문: 전 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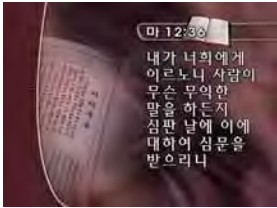
35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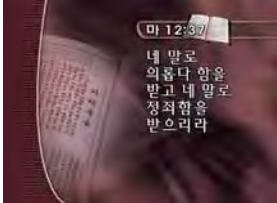
36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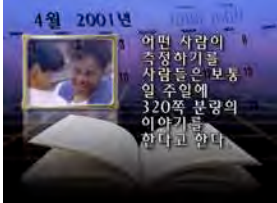
37

(본문: 마 12:36, 37)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8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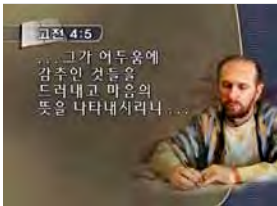
39

어떤 사람이 측정하기를 사람들은 보통 일 주일에 320쪽 분량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60년 이면 3000권 이상의 책을 쓰는 것이다.



40

그대가 말한 것을 기록한 책들은 심판 날에 어떤 판결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런데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 뒤에 숨은 동기에 있다.



41

(본문: 고전 4:5) ...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 고전 4:5.



42

그 날에는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다. 인간은 친구나 가족을 속일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감찰하신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43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둘 중의 한 편에서 있을 것이다. 과거의 모든 실패에 대한 기록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록들이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물론 그것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공언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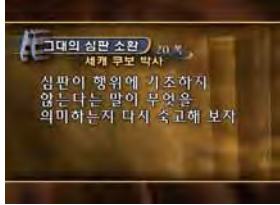
44

(본문: 마 16:27)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는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는 결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단지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졌음을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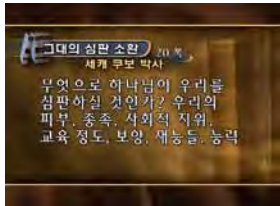
45

이제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다. 세개 쿠보 박사는 최근 이렇게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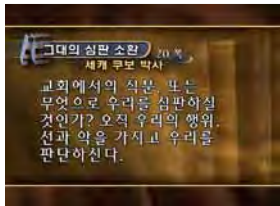
46

심판이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숙고해 보자



47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우리의 피부, 종족,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모양, 재능들, 능력



48

교회에서의 직분, 또는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오직 우리의 행위,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대의 심판 소환, 20 쪽.



49

(비디오: 8 초)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동기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한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본문: 전 12:13, 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50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51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하시리라 전 12:13, 14.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의 행위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측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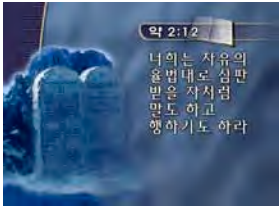
지구의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 심의 과정은 그가 범죄를 했는가 또는 그가 범법하였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단지 법을 어겼을 때만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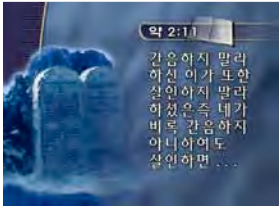
하나님의 심판에는 법 혹은 표준이 있는데, 어떤 법이 심판에 쓰일 것인지 야고보는 분명히 말한다.

54



(본문: 약 2: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약 2:12.

55



(본문: 약 2:11) 앞 절에서 야고보는 두 계명을 언급한다.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 명백하게 하나님의 10계명은 인간의 삶을 심판할 자유의 법이라 불린다.

56



(비디오: 4 초) 심판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 있을 것인가에 따라 단순히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는가?

57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58

십계명에 표현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가?



59

이민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하여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며, 그 나라의 법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비디오

60

(비디오: 10 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 왕국의 시민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하늘 나라 정부의 법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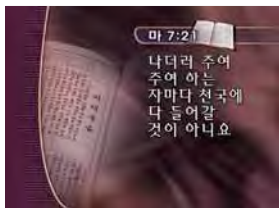
61

하지만 모든 이민자들이 그들의 맹세한 대로 다 행하고 있지는 않다. 어떤 이들은 그 시민권에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민권을 받은 후에 그들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증명되었을 때, 그들의 시민권은 취소되고 그는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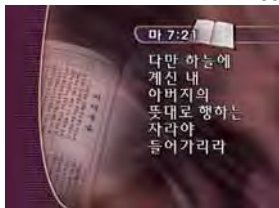
62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맹세대로 다 살고 있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의롭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실히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우리 자신에 접목시켜야 한다.



63

(본문: 마 7:21)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64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선과 악,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모든 대쟁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관한 것이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65

그리고 율법은 품성의 문자화된 표준이다. 마지막 심판에 그것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66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늘 법정이 지금 개정 중이라는 것이다. 사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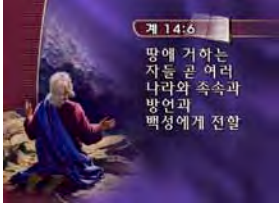
67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책에서, 요한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와 초청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68

(본문: 계 14:6, 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69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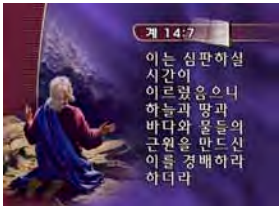
70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1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72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 7.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73

그대는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기별이 아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발견할 것이다.



74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두 번째 기별은 마지막 때에 존재할 거짓 종교 제도에서 나오라는 기별이다. 세상을 향한 이 마지막 기별의 최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 13장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75

(본문: 계 14:9, 10) ...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76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 14:9, 10.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다음에 이어지는 14, 15절을 주목하자.



77

(본문: 계 14:14, 15)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자가 앉았는데



78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79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80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81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다 계 14: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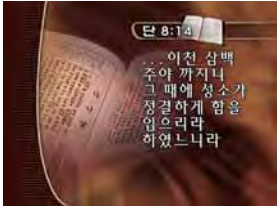
82

지구의 추수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그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의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이 다 준비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이 주제를 더 깊이 고찰해야 한다. 그대는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83

다니엘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에 그것을 푸는 열쇠가 있다.



84

(본문: 단 8:14) ... 이전 삼백 주야 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단 8:14.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예언이다.



85

(본문: 겔 4:6) 예언에서 하루는 일 년임을 알았다. ... 일 일이 일 년이니라 겔 4:6. 그래서 2300주야는 곧 2300년을 나타낸다.



86

이 2300 년은 다니엘 7, 8, 9장에 나오는 총체적인 예언의 큰 부분임을 나타낸다.



87

이 예언은 우리 주님의 침례와 십자가의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정확히 언제 시작 될지도 제시한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88

이 2300주야 혹은 2300년 기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 경제를 회복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열망했고 그들의 도시를 다시 중건하길 원했다.



89

마침내 기원전 457년 왕은 오래 동안 기다렸던 칙령을 내렸다. 이것이 곧 서기 1844년 보다 2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주제로 돌아가자. 2300 주야 혹은 2300년 후에 성소가 정결함을 받는다고 했다. 1844년 까지를 대략 살펴 보았다. 그런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0

성경은 1844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 되었음을 말한다. 그대는 물을 것이다. 심판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의 끝에 있을 성소의 정결함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91

성소의 정결이란 무엇인가? 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경은 두 성소 즉, 하늘 성소와 지상의 성소를 묘사한다.



92

고대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매일 그들의 희생을 성전에 가져왔다.



93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양의 생명을 취함으로 미래에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다.



94

오늘 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치에서 죄를 다 갚으시므로 돌아가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95

그런데 갈바리 이전 사람들은 바라볼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보아야 했다. 그래서 무죄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 그들은 후에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용서를 가능케 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표시하였다.



96

그러면 그들의 죄는 상징적으로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대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취하여 지성소 앞의 휘장에 뿌림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97

그런 다음 매년 하루를 대 속죄일 또는 성소의 정결이라 정하여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었다.



98

대 속죄일 10일 전에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고백으로 그들의 삶을 점검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다.



99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 .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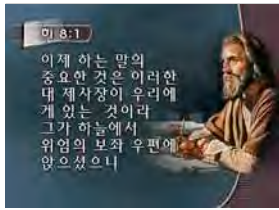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레 16:30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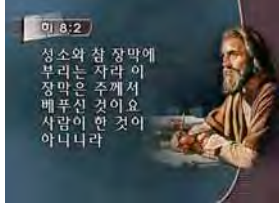
히브리서는 지상 성소와 그 봉사는, 예수님이 대 제사장으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일하시는 하늘 성소 봉사의 표상임을 분명히 한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102

(본문: 히 8:1, 2)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03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 8:1, 2.



104

(본문: 히 9:11, 12, 24) 다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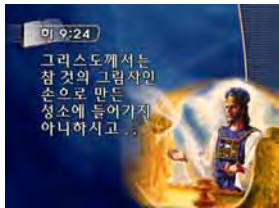
105

...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6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7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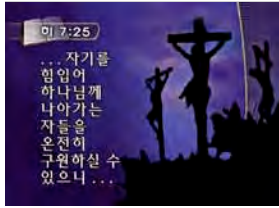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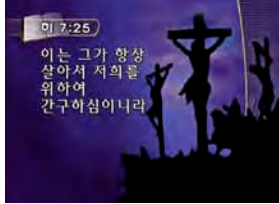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11, 12, 24. 예수님의 갈보리 희생은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110

(본문: 히 7:25) ... 자기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



111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참 장막 혹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지구에 있는 성소의 모든 것은 구속의 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표상한다. 죽어 간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일 년에 한 차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재판장 직분을 수행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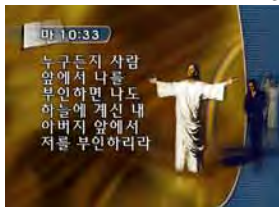
112

(본문: 마 10:32, 33) 심판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



113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114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 10:32, 33.



115

그대는 심판대 앞에 홀로 설 필요가 없다. 만약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대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서게 될 것이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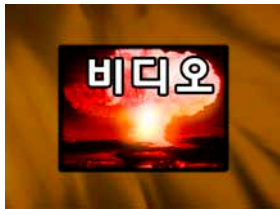
116

우리의 기록은 단지 우리 구주를 사랑한 것만 드러낼 것이며 그분의 완전한 생애를 우리의 것으로 보증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 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 된 죄를 덮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117

(본문: 요 1서 1:7) ...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요 1서 1:7



118

(비디오: 13 초)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다. 재림 전 심판이 1844년 이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



119

(비디오: 계속) 이 심판은 의심할 것 없이 지구에서 죽은 첫 번째 의인이었던 아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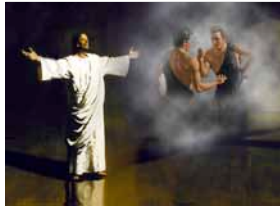
120

(본문: 벰전 4: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벰전 4:17.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121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아벨의 심판을 목도 할 수 있다. 그의 송사가 법정에서 상정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생애를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을 영접한 기록을 보신다.



122

성경에 기록된 아벨의 마지막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보증이 되신다. 그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123

예수님이 아벨의 변호자가 되셔서 그분의 피 묻은, 못 박힌 손을 내밀며 나의 피, 아버지여, 제가 아벨의 빛을 갠 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천천의 천사들이 즐거워 할 것이다. 아벨의 이름을 생명책에 보존할 지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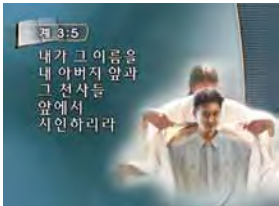
124

(본문: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125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126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계 3:5



127

의심할 것 없이 유다의 이름이 하늘 법정에 호명 되었을 것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결국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생애가 예수님께 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다.



128

그가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을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을 도모하였다. 그런 다음,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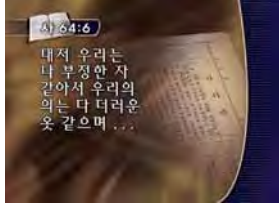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다. 더욱이 최후의 만찬의 날 그분은 더러운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어루만지길 원하셨다.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유다의 변호자로 그 옆에서 계시기를 바라셨다.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130

그러나 유다는 얼굴을 돌렸다. 유다의 이름을 회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우리의 의는 심판의 날 아무 효염이 없을 것이다.



131

(본문: 사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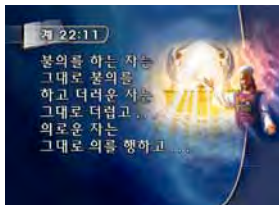
132

단지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에 첫째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변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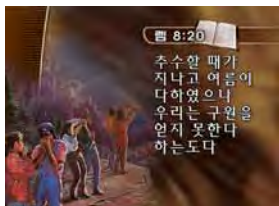
133

시간이 별로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 속죄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것만이 하늘 법정을 위해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곧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그리고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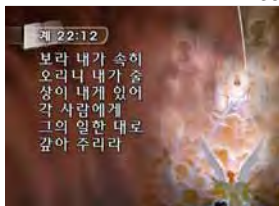
134

(본문: 계 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계 22:11. 그 때, 인간에게 오래 동안 주어졌던 자비와 용서는 거두어질 것이다.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슬픈 단어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옹호자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 되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135

(본문: 렘 8:20)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렘 8:20.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 하실 것이다.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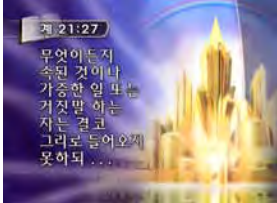
(본문: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 9- 확신으로 심판을 대함



137

친구여,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그대의 변호자가 되시길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의 갈보리 희생을 그대의 것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대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래서 다 사하시길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신다. 요한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한다.



138

(본문: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139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계 21:27



140

지금 그대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겠는가? 그대가 영광의 나라에 있게 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는가? 심판의 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모든 것이 우주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기록되었다. 그대의 모든 죄가 보혈의 피로 덮혀지길 원하는가? 그대는 그리스도가 한 발 나오시면서 이 사람은 제 것입니다. 제가 그 죄를 사했습니다. 제가 그 빛을 갠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제 피로 덮였습니다. 그 죄들을 영원히 지워 버리십시오라고 선언하시길 원하는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앞에서 계신다. 그대의 구주로서 계신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오라. 그대의 온 생애를 그 분께 드리라. 그대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라. 주님, 제 생애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

정말 차이가 있는가?



2

온 세상에서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대는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증가는 놀랄 만큼 빠르다.



3

한 사람이 어느날 경찰 본부에 매우 격앙되어 찾아 왔다.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부수고 여러 가지를 도둑질 해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강도의 모습을 언뜻 보았기에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호소 했다. 그래서 경찰은 그에게 상습범 목록을 그에게 보이며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고르도록 했다.



4

그런데 갑자기 그 현상 수배자 목록을 제시하던 경관은 소리쳤다. 바로 너다! 바로 네가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다 도둑을 맞아 그 도둑을 잡기 위해 경찰서에 갔던 바로 그 사람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었던 것이다. 세상에 범죄는 이토록 넘쳐난다.



5

범죄와 폭력은 어디에나 있다. 그대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 일터에서, 공장에서, 동네에서, 도시에서 범죄는 일어난다.



6

어떤 나라에서는 도둑질과 혁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행되기도 한다. 도시는 안전하지 않다. 유괴, 비행기 납치, 폭탄 테러, 강간, 강도질, 정부의 부패 상황들은 세계 도처에서 보고 되고 있다. 왜 범죄는 이렇게 증가하는가? 무법천지가 된 이 현상의 배후는 무엇인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7

서구화되고 더 발달된 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나타난다. 비관하고 혼돈한 젊은 세대들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 어른들을 부르신다. 자녀들은 그들 사회에 편만한 행동들을 쉽게 모방한다. 누가 그들의 영적인 모본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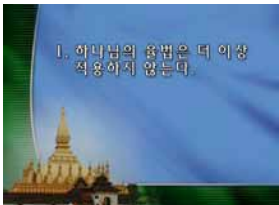
8

아버지들은 사업에서 속임수를 쓴다. 어머니들은 낙태 공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속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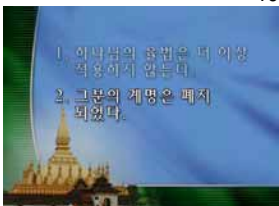
9

그런데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 보고 있다. 깨어진 가정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만약 부모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여 생활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보일 것인가? 단언하건대 부모는 결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도덕적인 생활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원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10

그런데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표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11

그분이 선포하신 율법이 폐지 되었다고 말한다.



12

또는 그것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13

또는 그것들은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4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한다. 그래서 사회는 결손 가정이 넘쳐 나고, 무절제한 아이들, 폭력 범죄가 넘쳐 난다.



15

(본문: 호 8:7)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16

그런데 의문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한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도 많은 실수가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7

(본문: 잠 16:25)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상기 시킨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18

(본문: 딤후 4:3, 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19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20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딤후 4:3, 4.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21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표준을 없앴다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을 없애면 혼란이 뒤따른다.



22

만약 모든 교통 신호와 표지판을 없앤다면 어떤 혼란이 야기되겠는가?



23

규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24

오래 전에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유한 세상을 위한 원칙을 주셨다. 만약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범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 지구상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25

(본문: 출 20:2)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 20: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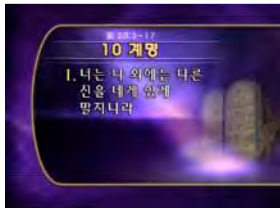
(비디오: 6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원을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분으로 드러내신다. 그분은 그들 앞에 있던 홍해를 가르든 바로 그 분이셨다. 그분은 그들의 보호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돌본다.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27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와 안전 가운데 살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셨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28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반포하신 10계명을 살펴보자.  
(본문: 출 20장의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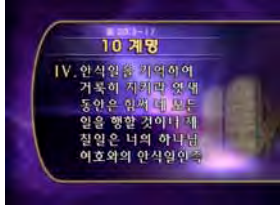
29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 . .



30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 .



3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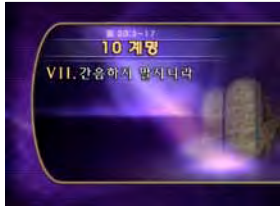
32

네 부모를 공경하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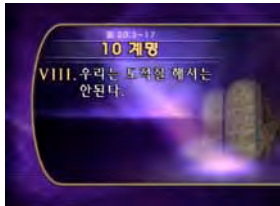
33

살인하지 말지니라



34

간음하지 말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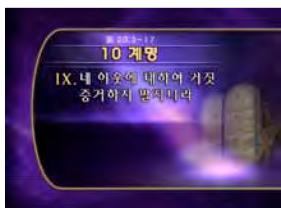


3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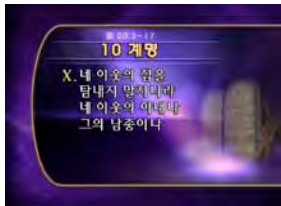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탐과 거짓이 생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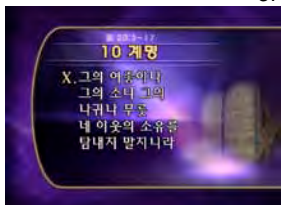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36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 . .

37



. . .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 20:3-1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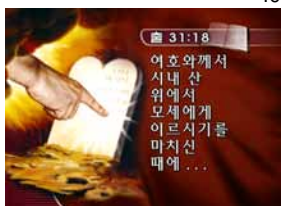
(비디오: 10 초)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그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지켜야 하였다.

39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잊기를 잘하는 사람들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그분의 친필로 돌에 기록하여 주셨다.

40



(본문: 출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 . .

41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42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 31:18.

43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44

비록 하나님이 기록된 율법을 처음으로 반포한 것이라 할 지라도 그분의 이 율법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시내 산에 이르기 오래 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변할 수 없는 이 선의 표준은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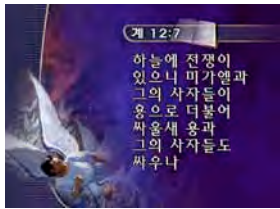
45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통치함을 받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심지어는 그것에 반역할 선택권을 부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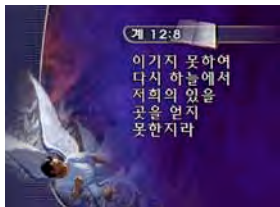
46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선택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반역은 그들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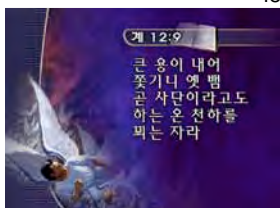
47

(본문: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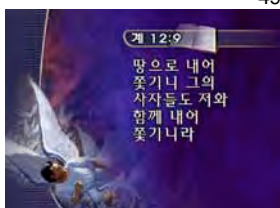
4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4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50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 12:7-9.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율법에 충성을 다하고자 선택한 천사들이 있었다.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51

(본문: 시 103:20) 능력이 있어 여호와께 찬양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03:20.



52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은 뒤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53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열납지 않아 가인이 화를 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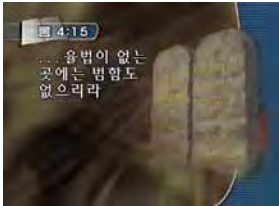
54

(본문: 창 4:6, 7) ...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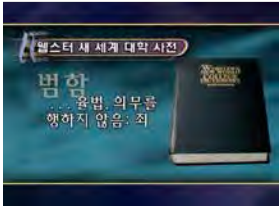
55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 창 4:6, 7.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에도 효력이 있었다.



56

(본문: 롬 4:15) ...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으리라 롬 4:15.



57

웹스터 새 세계 대학 사전은 이렇게 정의 한다. 범함---- 율법,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 죄 ...



58

아브라함은 시내 산에서 율법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순종하였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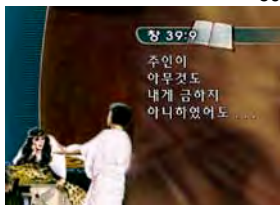
59

(본문: 창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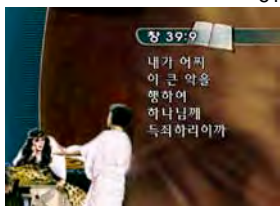
60

물론 시내산 오래 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61

(본문: 창 39:9) 나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



62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창 39:9



63

요셉은 간음이 죄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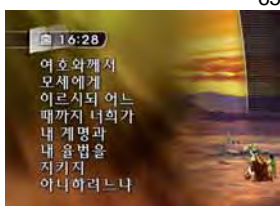
64

(비디오: 4 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만 이집트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



65

출애굽 후에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기 몇 주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갔기 때문이었다.



66

(본문: 출 16:28, 3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그러므로 백성이 제 칠일에 안식하니라 출 16:30.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네 번째 계명이 시내산 전에 인식되었다.

67



하나님의 율법은 우주에 대한 옳고 그름의 영원한 표준이다.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 놀랄 따름이다.

68



(본문: 고전 14:33, 40)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는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 .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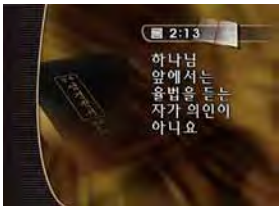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33,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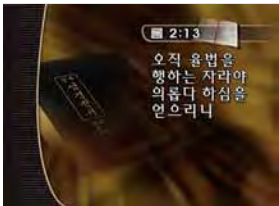
법률 없이 존재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없이 행복과 안전과 조화를 기대할 수 없다. 자연 그 자체는 법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도 규칙이 없이는 게임을 할 수 없다.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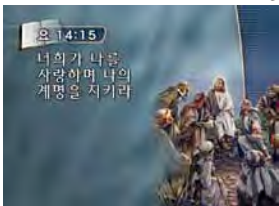
(본문: 롬 2:13)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72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롬 2:13. 그대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율법에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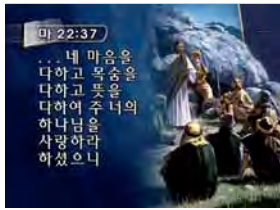
73



(본문: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 14:15. 예수님은 사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랑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 기초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74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75

(본문: 마 22:37-40)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76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77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78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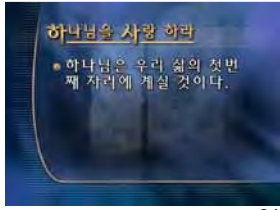
79

만약 우리가 진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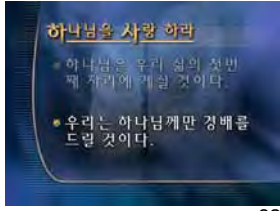
80

우리가 첫 네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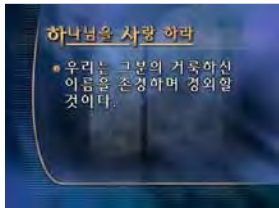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실 것이다.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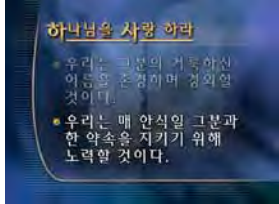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것이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83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경하며 경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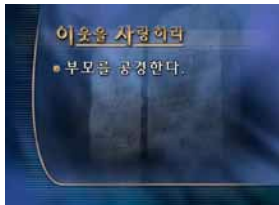
84

우리는 매 안식일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5

만약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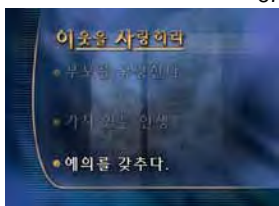
86

부모를 공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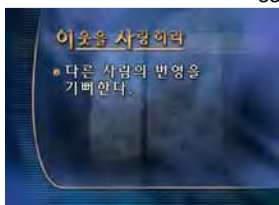
87

가치 있는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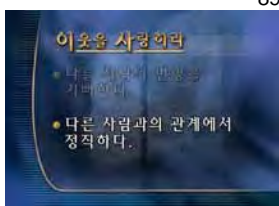
88

예의를 갖추다.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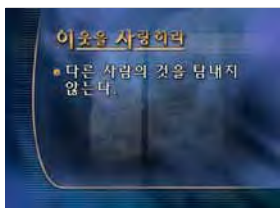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변영을 기뻐한다.



90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91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92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3천 5백만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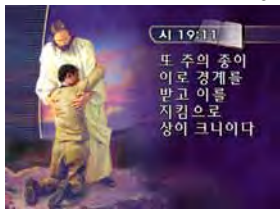
93

그런데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모든 규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단지 하나님만이 그런 법을 제정하실 수 있다. 성경은 이같이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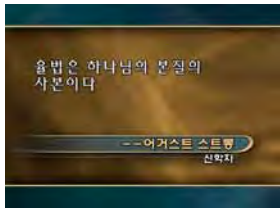
94

(본문: 시 19:7) 여호와와 그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시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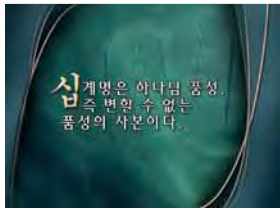
95

(본문: 시 19:11)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 19:11



96

성경 학자인 어거스트 스트롱은 율법은 하나님의 본질의 사본이라고 말한다.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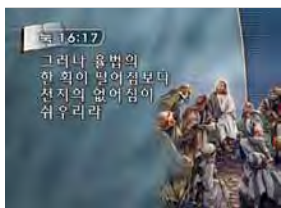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십계명은 하나님 품성, 즉 변할 수 없는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한다.



98

그대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완전한 법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본문: 눅 16:17)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진실로 진리이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눅 16:1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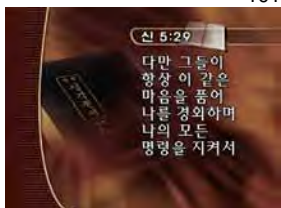
그런데 그대는 나는 항상 십계명이 내 행복을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가두어 놓은 듯 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율법을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수단이나 인간의 행복을 억제할 목적으로 주지 않으셨다.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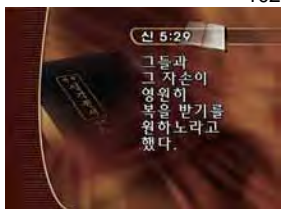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죄책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주셨다. 그분은 그의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디서나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셨다.

101



(본문: 신 5:29)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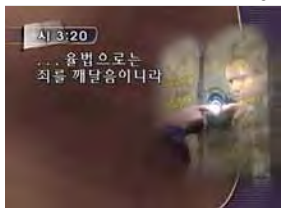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신 5:29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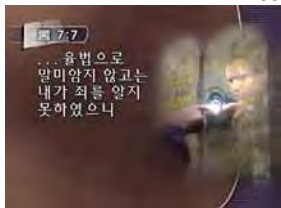
길이나 다리에 가드레일을 만들어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을 만드셨다.

104



(본문: 롬 3:20)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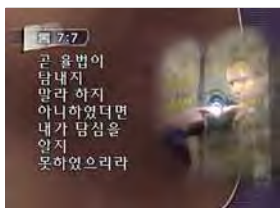
105



(본문: 롬 7:7) 바울은 ...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한다.

106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07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롬 7:7.



108

옛날에 한 못난 공주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공주는 늘 신하들에게 늘 아름답다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그녀가 아름다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어느 날 그 궁전에 먼 나라 상인이 들러 거울을 팔았다. 그 공주는 실제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는 거울을 던져 깨 버렸다.



109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 볼 때, 그 공주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110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범하고 깨 부순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거나 나아지진 않는다.



111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그것은 우리를 죄책감 없는 참다운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112

율법이 우리가 그 죄를 이기거나 죄책감을 제거할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행하는 많은 선행이 과거의 우리 죄를 씻게 하진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율법을 범한 결과로 이르러 오는 죽음의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입는가?



113

에덴 동산의 바로 문 앞에서 하나님은 불순종이 가져 온 죽음을 대신해 무고한 대속물이 죽는 제도를 보여 주셨다. 양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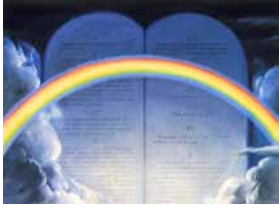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14

이것은 범해진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담에게 이해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양은 인간의 형벌을 대신 지셨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셨다.



115

그대가 알듯이, 율법은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116

(본문: 갈 3:21)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고 묻는다..



117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 3:21. 용서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118

(본문: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질 수 없다.



119

(본문: 엡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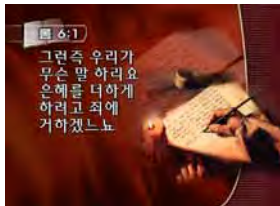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21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불손종의 생활은 결국 자유의 생활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122

(본문: 롬 6:1,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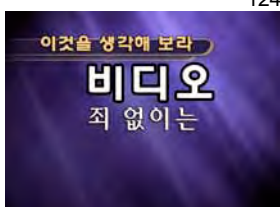
123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롬 6:1,2.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고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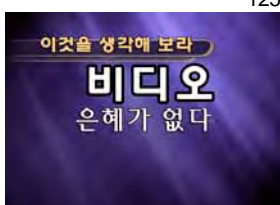
124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잠시만 생각해 보자. 만약 율법이 없다면 거기에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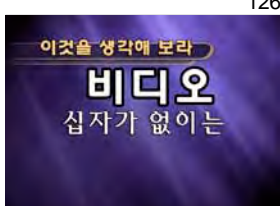
125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이다.



126

만약 은혜가 필요 없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도 필요 없다.



127

만약 십자가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주도 필요치 않다. 만약 그대가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대는 죄, 은혜, 십자가, 그리고 구주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다.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28

만약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수가



129

용서를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율법도 마찬가지다.



130

그가 사형에서 사함을 받았기에 더욱더 조심히 율법을 준수하며 살 것이다.



131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주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또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하셨기 때문이다.



132

(본문: 히 8:10) ...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라 ... 히 8:10.



133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쉽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라고 택하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셨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하셨다.



134

(비디오: 8 초)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35

(본문: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요 15:10



136

(본문: 요 14:15)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줄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137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대한 가장 큰 예는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아래, 춥고 어두운 밤에 있었던 한 사건에 있었다. 예수님이 얼굴엔 피 맺힌 땀방울이 흘렀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138

(본문: 마 26:39) ...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죄악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인가? 인류의 운명은 이 저울에 달려 있었다.



139

이 갈릴리의 젊은이는 삶에 대한 갈망을 뒤로 하고 갈보리에서 죽을 것인가? 그분은 이마의 땀을 닦으며 죄인은 그의 죄의 결과를 자신이 받을 것이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



140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41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즉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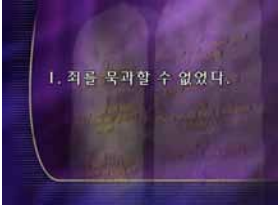
142

갈보리 언덕 위의 낮고 거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율법을 기꺼이 충족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값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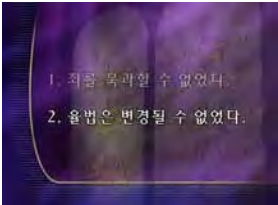
143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졌거나 변경되었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다. 갈보리는 필요하지 않았다.



144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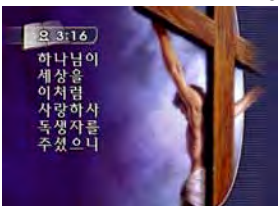
145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변경할 수 없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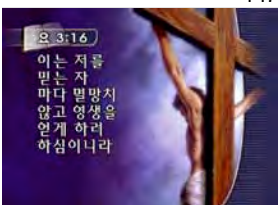
146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은 구주가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그분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한량 없는 사랑에 감사하라!



147

(본문: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48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149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춘 사람들, 그래서 하늘 도성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묘사한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50

(본문: 계 14:12)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151

(본문: 계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152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추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묘사이다.



153

예수님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요한에게 주어 기록한 이 위대한 예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남은 자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신다.



154

(본문: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155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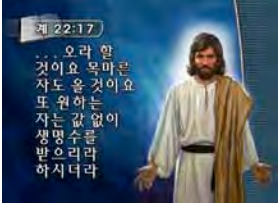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57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경외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려 한다. 그들은 그분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낸다. 그들은 그분의 뜻이 그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그분을 기꺼이 따르기로 선택한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힘 주시길 원하신다.



158

(본문: 계 22:17) ...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계 22:17.



159

한 전도자가 큰 도시의 주변에 있는 한 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의 아주머니는 나는 성경이나 기독교에 결코 관심이 없어요라고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남편이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니 어느 저녁에 다시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군요라고 했다. 그 전도자는 토요일 저녁에 다시 방문을 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이었기에 그 여인의 남편은 그날 친구들과 호텔에서 게임을 즐겼다. 전도자를 만난 이 남자는 나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이 성경을 내 가방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보! 어디에 내 성경이 있죠? 오랫동안 성경을 찾았지만 성경은 찾지 못하고 기도 책만 찾을 수 있었다.



160

그런데 술이 문제고, 게임도 문제였고, 거기에 그는 엄청난 애연가였다. 여기에 몇 가지 습관을 합쳐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엔 커다란 골이 있었다. 그녀는 집을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한 상태에 있었다. 모든 것은 불행하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 집에 전도자가 방문한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남자의 마음에 생겼다. 더 이상 술이 문제가 아니었다. 전도자는 다음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성경 공부는 시작되었다.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61

몇 주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과 갈바리의 십자가에 대한 강한 인상이 삶에 의미를 던져 주고 있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그 가정의 또 다른 필요를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나와 상담을 해주시겠소?라고 남자가 말했다.



162

그런 다음 그 남자는 솔직히 슬픈 지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활동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은 시절은 통제 되기 힘든 상태에 빠졌다. 또 다른 탕자가 탄생하여 먼 길을 떠난 것이었다. 교회는 곧 잊혀졌다. 성경은 무시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게으른 자의 입에 오르내리는 분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선생님, 지난 몇 주 동안 내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다라고 말하며 그의 반쯤 탄 담배를 벽난로에 던져 넣으며 나에게 이젠 담배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끊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내 아내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을 버렸고, 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을 했어요. 나는 놀랐죠. 그리고 한 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녀는 내게 웃음을 보였어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가 월요일 저녁 성경 연구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 10-어떻게 참과 거짓이 생겼는가?



163

그 전도자가 말했다. 전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성경 말씀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고후 5:17절을 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남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오늘 그대의 삶 또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며 그분의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대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시다. 과거에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분은 그대에게 힘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 그대여 주저하여 물러 서지 말라.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그대를 그분의 집으로 초청하신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예, 예수님 내가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단순히 무릎을 꿇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단지 예수님만 생각하기 바란다. 오 주님 내가 갑니다. 내가 지금 갑니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

그대의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2

강의를 하기 위해 가는 도시에 늦게 도착한 토마스 혁슬리라는 생물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마차에 급히 올라탔다. 그리고 그 마부에게 다그쳤다. 빨리 빨리 가장 빨리!



3

마차는 세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내를 지나 시골 길을 달리게 되었다. 신경이 잔뜩 곤두선 그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 다음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런데 여보시오! 지금 어디로 달리고 있는 거요? 마부가 대답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저 빨리 달리라는 말씀에 전력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오늘날 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그들은 바쁜 일이 너무도 많다. 언제나 바삐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5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책 계 14:7절에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 호소하시는 이유이다.



6

(본문: 계 14:7)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7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7. 그대가 사는 도시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를 가지고 어떤 장소를 찾으려 하는데, 만약 지도가 잘못되어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8

누구를 경배하라고 하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한다. 만물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9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대가 성경을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연 누가 옳은가?



10

(비디오: 6 초)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진화되었다고 믿는다. 수 십억 년 전에 우리는 단세포에서 바다 동물로, 그리고 육지 동물로,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든 만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즉,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한다.



11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상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매 주마다 그분이 우리를, 세계와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어떤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가? 만약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대의 영원한 운명은 그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그대가 성경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좌우한다.



12

사실, 그분은 창조주일의 끝에 매 주마다 상기시키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세상은 우리를 상기시키는 그것을 잊어 버렸다.



13

(비디오: 15 초) 그리고 그 상기시키는 것 없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달에 보내기도 한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4

또한 이 우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우주 공간을 관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 보도록 하자.



15

왜 이 주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하는가? 그것은 가장 중대한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주에 오직 지구에만 인류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되었고 왜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연구가 계속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곧 우리 앞에 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온 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16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 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 주를 기억하라. 너희가 나를 알게 하려고 한 표징을 주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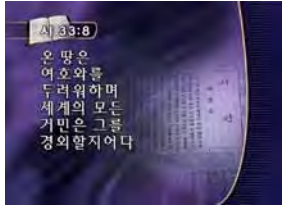
17

(비디오: 5 초) 오늘날 진화론은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진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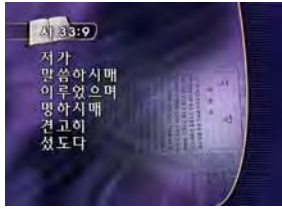
18

그런데 어떤 이는 물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징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창조 주간의 매일 매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공부한 것을 기억하는가?



19

(본문: 시 33:8, 9) 창조는 놀라웠다. 어떻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빨리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해답을 준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20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시 33:8, 9.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21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여진 것이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든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22

(본문: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 2:1.



23

6일 동안 창조주는 세상을 있게 하셨고, 그곳에 숲들과 나무들, 꽃과 시냇물을 두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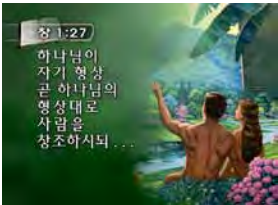
24

그는 햇빛과 장관을 이루는 일몰, 그리고 저녁을 아름답게 수 놓는 달을 만드셨다.



25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두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위대한가! 창조자의 형상을 닮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



26

(본문: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 창 1:27.



27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소개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 그분은 그가하기를 원하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계셨다. 창조 주일의 마지막날에 대한 성경의 언급에 주목하라.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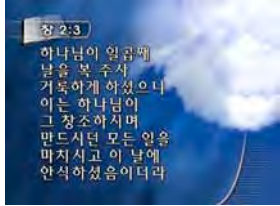
28

(본문: 창 2:2-4)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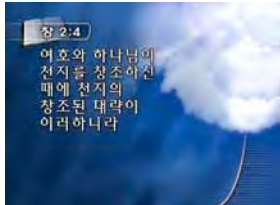
29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30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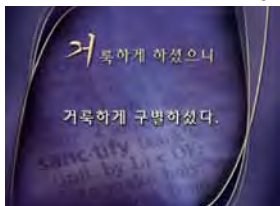
31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 2:2-4.



32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을 만드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분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33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구분해 놓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다른 모든 날로부터 구분해 놓으셨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날로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이 다른 날과 다른 날이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아마 이 예화는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이다.



34

결혼 예식에서 신부는 한 남자를 위해 구별된다. 오늘이 그대의 결혼식이라 가정해 보자. 그대는 매우 상기되어 있을 것이다. 그대는 오래 동안 이 날을 기다려 왔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35

여섯 자매가 더 있는 그대의 신부를 상상해 보자. 결혼 예식동안 한 여인은 한 남자와 혼약을 맺는다. 그녀는 이제 구별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곱 중에 하나가 아니다. 결혼한 그 남편을 위해 온전히 구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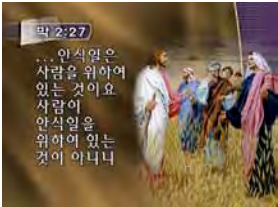
36

그런데 결혼한 다음, 그대의 한 처제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 일곱은 같아요. 우리 중 어떤 다른 사람도 형부를 소유할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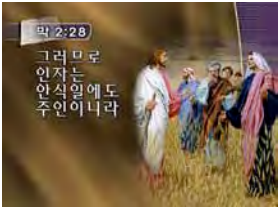
37

결에 계신 다른 여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의 신앙은 그대를 위해 구분되었는가? 확실히 그렇다! 남편으로서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신부는 선택되었고, 구별 되었으며, 나만을 위해 구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날들에서 24 시간을 취하시고 또 특별히 그 날을 자신을 위해 구별하셨다. 안식일은 복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구별된 거룩한 날은 바로 일곱째 날이다.



38

(본문: 막 2:27, 28) 예수님은 말씀 하신다.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39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7, 28.



40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진화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케 하신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매 주마다 창조주와 또 그 분이 만드신 인간이 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매 주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었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41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하실 때도 인간이 그 날을 기억하라고 쓰셨다. 4 번째 계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중앙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 하셨다. 왜냐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다 만드셨기 때문이다.



42

만약 안식일이 계속 창조의 기념일로 지켜져 왔더라면 진화론자들은 없었을 것이며, 비관하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근원과 그들이 창조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상기 해야만 했다. 죄가 이 땅에 증가하면서 인간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 버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였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43

(비디오: 10 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 푹 젖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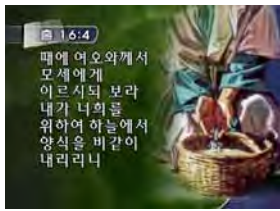
44

(비디오: 7 초)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하시고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광야에서, 그분은 안식일에 관해 백성들이하기를 원했던 두 가지를 보여 주셨다.



45

(비디오: 10 초)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한 분이심을 기억하길 바라셨다. 그들은 음식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이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것은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이적과 자비에 감사치 않았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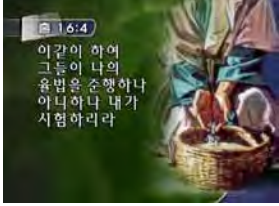
(본문: 출 16:4, 5)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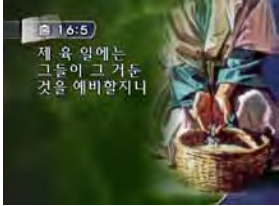
47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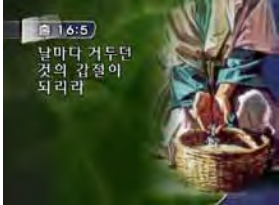
48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 16:4.



49

제 육 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50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출 16:5.



51

(본문: 출 16: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52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출 16:6.



53

(비디오: 16 초) 만나는 밤에 이슬처럼 내렸다. 이슬이 마른 아침 만나는 온통 지면을 덮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가 사라지는 오전까지 그것을 주워 모았다. 그러나 여섯째 날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주목하자.



54

(본문: 출 16:21, 22)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출 16:21  
해가 뜨겁게 쏘이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해가 뜨겁게 쏘이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55



출 16:22  
제 육 일에는 각 사람이 감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제 육 일에는 각 사람이 감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56



출 16:22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57



출 16: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본문: 출 16: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58



출 16:23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 16:21-23.

59



출 16:25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본문: 출 16:25, 26)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60



출 16:26  
육 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육 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5, 26절.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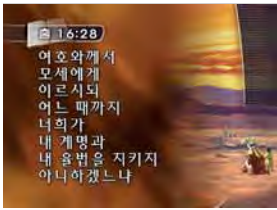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주목하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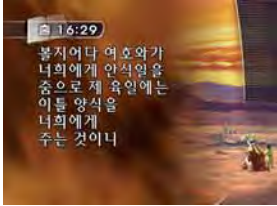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63

(본문: 출 16:28-3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64

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65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 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66

그러므로 백성이 제 칠일에 안식하니라 출 16: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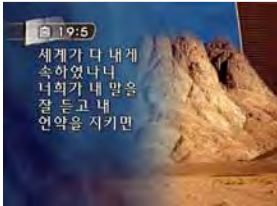
67

안식일은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산에 이르기 전부터 창조의 기념으로 제정되었고 그들에 의해 준수되었다.



68

출애굽 여행 3개월 쯤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 백성을 모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백성에게 전할 기별을 주셨다.



69

(본문: 출 19:5, 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70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71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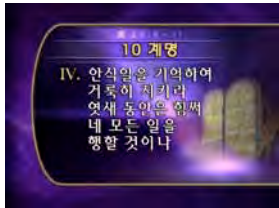
72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 19: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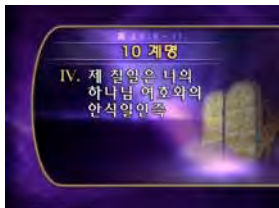
73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은혜로운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은 만약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면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계명들 중의 하나는 그들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결코 잊지 않게 할 것으로 주어졌다. 이 계명은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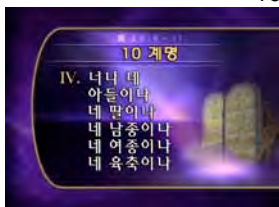
74

(본문: 출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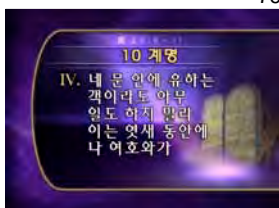
75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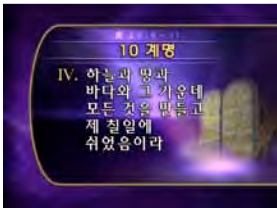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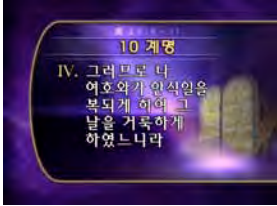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78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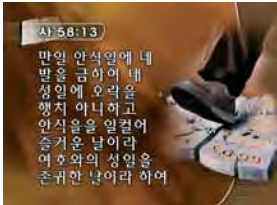
79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80

안식일은 열 계명의 중심에 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것은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있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많은 복을 내리신다는 약속을 주셨다.



81

(본문: 사 58:13, 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82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83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면



84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58:13, 14. 만약 인간이 이 기념의 날을 기억한다면 그가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미 없고, 정체성에 위기를 느끼는 삶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진화론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85

(비디오: 8 초) 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었다.



86

그리고 오래 전부터 나무 가지와 돌들로 된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이 온 근원을 그 시야에서 잊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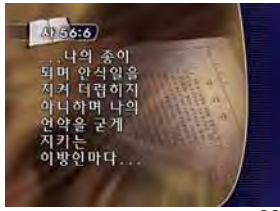
87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던 시대에는 안식일 준수가 부활 되었다. 이사야는 결코 하나님이 안식일을 유대인에게만 한정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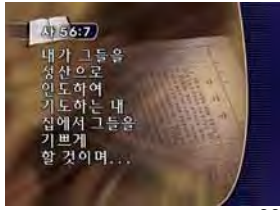
88

안식일은 결코 유대인 한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복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89

(본문: 사 56:6, 7) 그분은 어디에, 누구에게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초청하신다. . . .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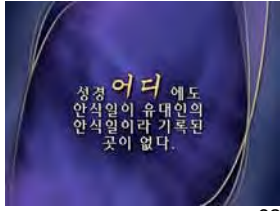
90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 . .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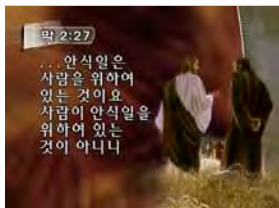
. . .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 56:6, 7.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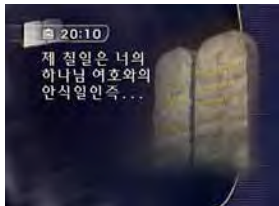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 기록된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 날이 모든 인류의 날임을 분명히 말씀 하셨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본문: 막 2:27)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막 2:27.

93



(본문: 출 20:10) 그리고 하나님은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 라고 말씀하신다. 출 20:10.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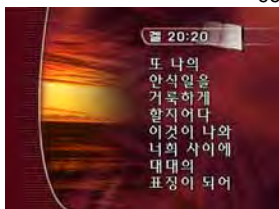
(본문: 마 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 12:8.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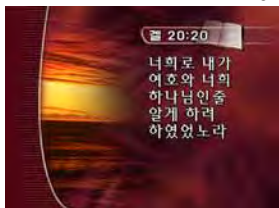
(본문: 계 1:10)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날을 ... 주의 날에 ...라고 부른다. 계 1:10. 안식일은 창조와 창조주를 기념하는 것 이상의 날이다. 그 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징의 날이다.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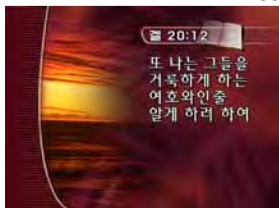
(겔 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어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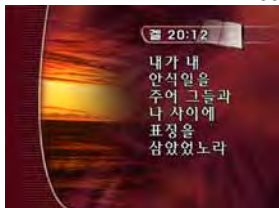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려 하였었노라 겔 20:20. 창조주간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죄 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동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창조주는 또한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98



(본문: 겔 20:12)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99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겔 20:12.

100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01

(비디오: 12 초) 안식일은 지구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제정된 것이었고, 이 지구에서 죄가 완전히 도말 된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102

(본문: 사 66:22, 2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같이



103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104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105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사 66:22, 23.



106

(비디오: 6 초)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들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경외하는 날로 기념할 것이다. 안식일은 새 하늘에서 다시 기념될 것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날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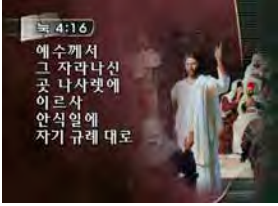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일에 대해 어떤 의문점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면 될 것이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08

누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준수 하셨다고 기록한다.



109

(본문: 눅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110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11

웹스터 사전은 안식일을 이렇게 말한다.



112

한 주의 일곱째 날(토요일)-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second college edition.



113

만약 이 날이 아담과 모세 사이에 바뀌었거나 잊혀졌다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쓰실 때 그것을 명시했을 것이다.



114

(비디오: 11 초) 만약 그 날이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 기록을 바로 잡았을 것이다.



115

(비디오: 9 초) 만약 안식일이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변경되었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남겼을 것이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16

(비디오: 9 초) 안식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일곱째 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117

(비디오: 19 초) 쉼의 날, 안식일의 정체성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당시엔 결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었다. 단지 그 논쟁점은 어떻게 그 날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었다. 랍비들은 안식일 준수를 아주 어렵고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요구들을 삭제하고 참 안식일 준수의 의미를 보여 주셨다.



118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고치는 것을 고소하였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119

(본문: 마 12:12) ...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 12:12.



120

(비디오: 18 초) 성경은 예수님이 봉사하고 고치셨다고 말한다. 안식일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날이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으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 제자들이 수행한 일이었다.



121

(비디오: 11 초) 안식일 준수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분을 따르던 자들에 의해 나타내 보여졌다. 이 위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안식하였고, 안식일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의 몸에 향품 붓는 일을 연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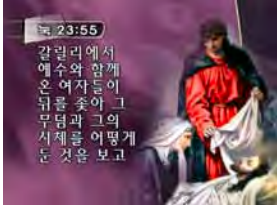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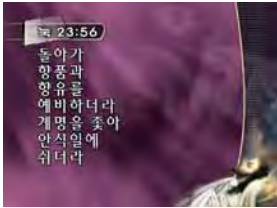
122

(본문: 눅 23:54-56)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123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124

돌아가 그 과 유를 예비 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눅 23:54-56.



125

(비디오: 8 초) 안식일 전날 예수께 있던 그들은 소망은 산산 조각이 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 하였다. 그들의 꿈과 소망은 어둔 무덤에 장사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돌아가신 몸에 붓기를 원 하였다.



126

(본문: 눅 24:1) 안식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물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눅 24:1.



127

이 사건이 벌어진 3일을 살펴 보자.



128

1.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심, 여자들이 과 예물을 예비 .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29

2. 요일(안식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심, 제자들도 안식 .



130

3. 일요일(주일 중 첫째 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심! 여인들이 붓기 위 예수께 갔음. 예수님의 죽음과 관여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31

(본문: 요 19:30) 예수님이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다. 요 19:30.



132

그의 구속 사역은 완성되었다. 그는 안식일이 지나도록 무덤에서 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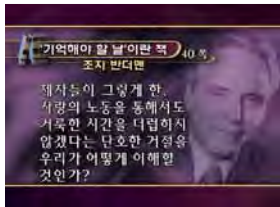
133

(비디오: 6 초) 그리고 일요일에 부셨다. 그 날이 첫째 날이다.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날에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안식일에 느끼는 박동은 창조와 연관되어 있고, 시내 산에 연관되어 있으며, 마침내 갈보리까지 연관된다.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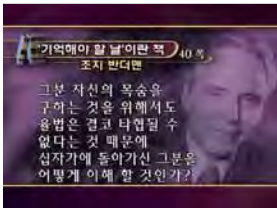
그렇다. 그것은 일 주일 중에 어느 날을 우리가 기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지 반더맨이란 기독교인 저술가는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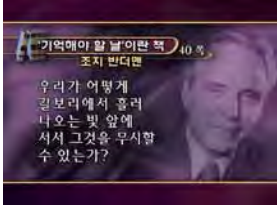
제자들이 그렇게 , 사랑의 노동을 서도 거룩 시간을 더럽 지 않겠다는 단 거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 것인가?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36

그분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도 율법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137

우리가 어떻게 갈보리에서 나오는 빛 앞에 서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가? 기념야 날, 40 쪽



138

창조자는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잊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신 바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여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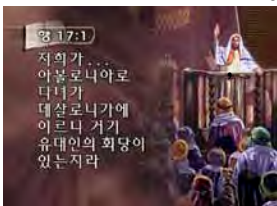
139

(본문: 마 24:20)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 24:20.



140

(비디오: 6 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0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을 것을 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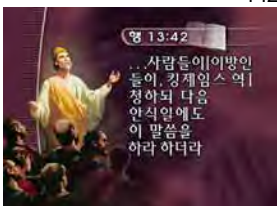
141

(본문: 행 17:1, 2)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부흥에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있음을 기록한다. 저희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4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행 17:1, 2. 다른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이방인들이 와서 요청했다.



143

(본문: 행 13:42, 44) ...사람들이[이방인들이]청하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여 모이니 13:4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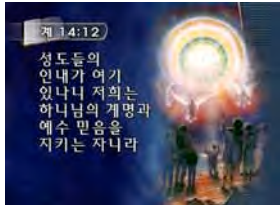
145

실제로 사도 전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갖는 84 회 집회를 기록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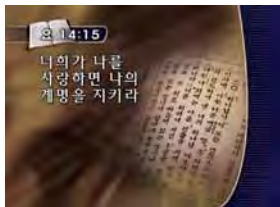
146

안식일은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하는 사람들에게 관 묘사로 계속된 계시록까지 금실처럼 연결되어 있고 있다.



147

(본문: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148

(본문: 요 14:15)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 신다. 요 14:15. 그리고 계명 중의 나는 안식일을 기억 라고 우리에게 말 다.



149

만약 우리가 매 주일의 일곱째 날 안식일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와 지구를 창조 였는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150

만약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지 아닌지 결코 의심 지 않을 것이다.



151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의심 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 11-더 만족스럽게 창조됨.



152

그대에게 기억 라고 신 동일 예수님이 오늘 밤 그분의 손, 갈보리에서 그대를 위 십자가에 못 박 그 손을 내밀고 조용 부르신다. 나를 따르라.



153

그대는 이제 그대를 창조 신 분을 따르겠는가? 그대를 위 만든 안식일을 기억 라는 그분의 계명에 그대는 순종하겠는가? 이제부 매 안식일 그분을 경배하겠는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창조주 나님께 경배던 모본을 따르겠는가?



154

안식일은 단지 우리가 경배 는 날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을 따르겠는가 는 것이다. 그것은 아담과 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에게 있었던 동일 문제이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 여 거룩 지키라는 모세에게 주어진, 나님의 계명에 대 순종에 관 것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구약의 믿음의 거성들이 지켰던 동일 날의 예배에 관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의 기록에 의 , 계명을 지키는 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백성의 일부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 문제이다. 그대는 예수님, 제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대를 첫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상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 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게 기를 원 다면 우리가 기도 때 그대의 손을 들기 바란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 그대는 속지 말라

1



2

미신은 그것이 오래 동안 존재하게 될 때 진리처럼 여겨진다. 거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기원 전 약 350여년 전,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미의 다리가 여섯 개라고 정의했다. 다음 거의 20세기 동안 모든 사람들은 거미의 다리가 6개라고 믿었다. 그 어떤 사람도 의심하여 세어 보려고 하지 않았다. 누가 그 위대한 철학자의 말에 도전한단 말인가? 그런데 라마르크라는 뛰어난 생물학자이자 자연과학자가 태어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미의 다리를 세었다. 거미 다리가 몇 개였을지 맞춰 보라. 정확하게 8개 였다. 수십 세기 동안 진리처럼 가르쳐져 왔던 미신은 라마르크가 그것을 세어 봄으로 인해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3

기독교에 오랜 세기 동안 내려온 종교적인 미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한 거미 다리가 6개 혹은 8개인지에 관한 것 보다 훨씬 중요한 미신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가? 수백 만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라 믿으며 일주일의 첫째 날을 예배일로 삼고있다. 지난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임을 알았다. 이것은 마치 교과서에서 2000여년 동안이나 거미의 다리는 6개라고 가르쳐 왔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었다. 그대가 이 집회에 계속 참석하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이냐 말씀하셨는지를 대단히 알고 싶어한다. 그대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엔 관심이 없다. 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심이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견한 것을 복습해 보자.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4

(비디오: 8 초) 우리는 하나님이 매 주마다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며,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기억하고 예배할 날임을 알았다. 우리는 안식일이 단지 어떤 한 날이 아님을 알았다. 안식일이 이 세상 끝날 까지 지켜져야 하고 하늘에서도 우리가 창조주와 함께 이 날을 준수 할 것임을 배웠다.



5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다.



6

더우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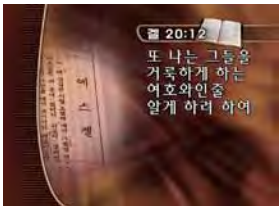
7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구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그 분께 예배를 드린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날짜를 바꾸셨는가? 누가 그 날을 바꾸었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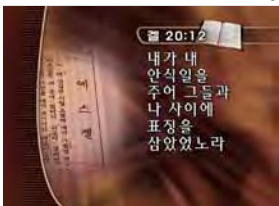
8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표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배웠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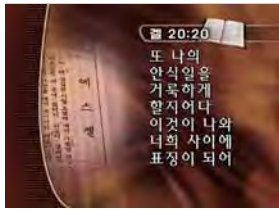
(본문: 겔 20:12, 20)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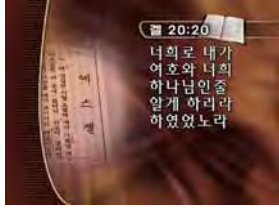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11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12

너희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13

(비디오: 4 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되는 이 경배의 날, 쉼의 날을 바꾸었다고 하는 곳이 없다.



14

(비디오: 10 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기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이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던 창조사역을 끝마쳤을 때 그분은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15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 첫 창조주일로부터 세상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다.



16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그분의 율법을 쓰실 때도 안식일 계명은 율법의 중앙에 두셨다.



17

(비디오: 5 초) 이 계명은 인간이 단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18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분이 옛세 동안 지구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한다.



19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계명들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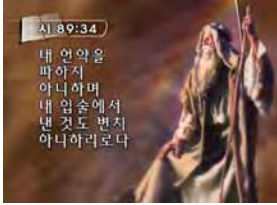
20

(본문: 신 4: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21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 4:2. 하나님은 또한 말씀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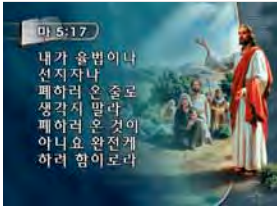
22

(본문: 시 89:34)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시 8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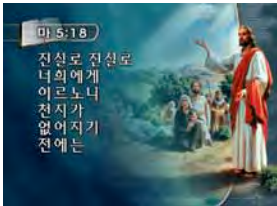
23

예수님 자신도 시내 산에서 주신 바로 그 율법에 대한 동일한 선언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감람 산에서 설교하실 때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24

(본문: 마 5:17-19)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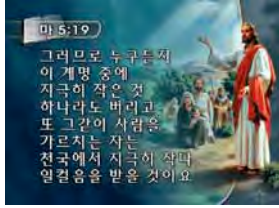


마 5:18

율법의 일 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6

율법의 일 점 일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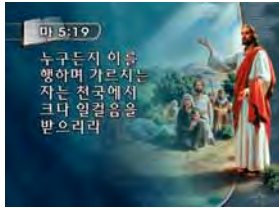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 5:19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8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7-19.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의 백성에게 주실 때, 어떤 사람도 그분의 거룩하신 입술을 통해 나온 계명이 변경되거나 개정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29

예수님 자신도 세상 역사의 첫번째 주에 그와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는 모본을 보여주셨다.



눅 4:16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30

(본문: 눅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눅 4:16

예수께서 그곳 자라나신 나사렛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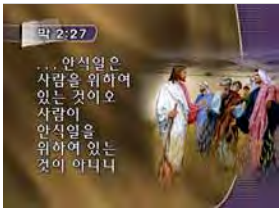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눅 4:1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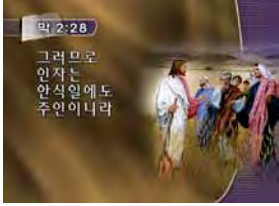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33

(본문: 막 2:27, 28) ...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34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7, 28.



예수님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먼 미래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36

(본문: 마 24:20) 우리는 이 요청을 마 24:20절에서 발견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야 할 것을 언급하신다.



38

서기 70년 로마에 의한 멸망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함을 알고 계셨다.



40

정통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 3,500년 이상이나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린다. 그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여전히 토요일 즉,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예배의 날로 기념한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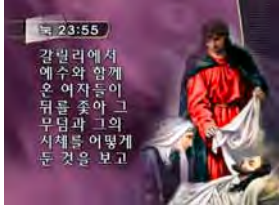
41

비록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지식의 근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날이 일곱째 날인지 또는 안식일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볼 때, 누가 복음은 그 주말의 사건을 잘 정리해 준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성경은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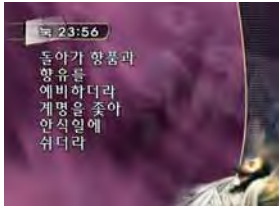
42

(본문: 눅 23:54-56; 24:1)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43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44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45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46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눅 23:54-56; 24:1



47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날인 수난 일이라 불리는 금요일을 기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일요일을 부활절로 기념한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48

성경은 그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의 날을 안식일이라 말한다. . . . 계명을 좇아 . . .



49

(비디오: 4 초) 누가가 십자가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글을 기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일요일을 일주일의 첫째 날이라 지칭한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부른다. 성경적 기록은 분명하게 이 두 날을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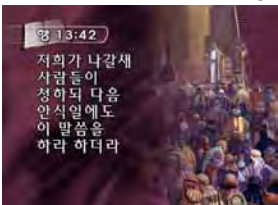
50

사실, 사도들은 십자가 이후 오래 동안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계속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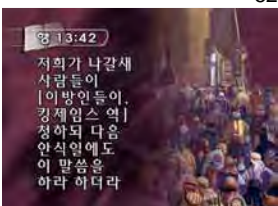
51

(본문: 행 13:14, 42, 44) 성경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안디옥을 방문하여 . . .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까 라고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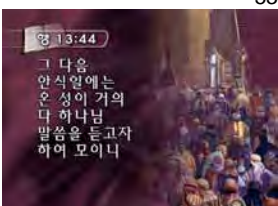
52

행 13:14.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53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킹제임스 역]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5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하여 모이니 행 13:42, 44.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규례였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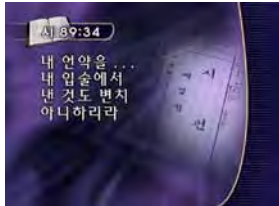
55

(본문: 행 18: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행 18:4. 이 성경적 사실로부터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이 예배일을 바꾸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것이다. 성경에는 계명이 변경되었다는 기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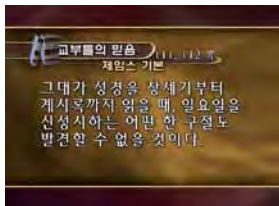
56

신약의 어떤 기자도 안식일의 변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 날이 변경되었다면 신약의 매 책의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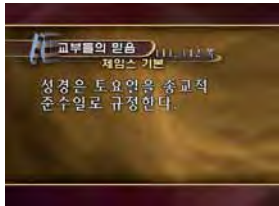
57

(본문: 시 89:34) 내 언약을...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시 89:34.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며 어느 누구도 그분의 율법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요일을 지키는 다양한 교파의 많은 학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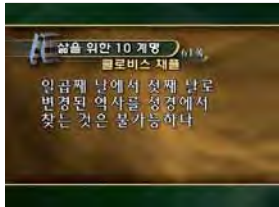
58

제임스 기본은 그대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어떤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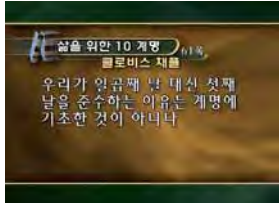
59

성경은 토요일을 종교적 준수일로 규정한다. 교부들의 믿음, 111, 112.



60

감리교인인 클로비스 채플은 동일하게 지적하기를 우리가 일곱째 날 대신 첫째 날을 준수하는 이유는 계명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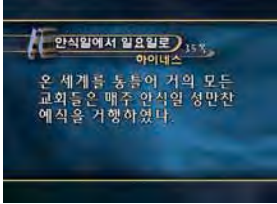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된 역사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을 위한 10계명, 61쪽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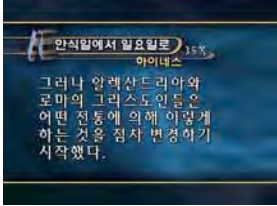
62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결코 다른 어떤 날을 준수했다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교훈한 어떤 기록이 성경엔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일요일이 준수되기 시작되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63

우리는 5세기 역사가를 통해 온 세계를 통틀어 거의 모든 교회들은 매주 안식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64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통에 의해 이렇게 하는 것을 점차 변경하기 시작했다. 교회 역사-하이네스의 '안식일에서 일요일로'에서 인용.



65

다른 역사가들은 중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근대에 이르러서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이것이 행해졌다고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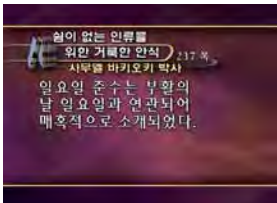
66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서기 70년과 135년 사이 점점 날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기록한다. 이 기간은 로마인들에 의해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은 두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침략이 있었던 기간이었다.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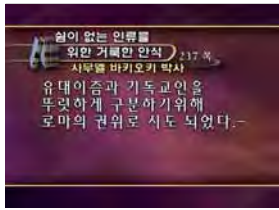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으로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유대인을 향한 로마인들의 잔혹한 박해는 반 유대주의 문학을 가져왔고, 로마 전 제국을 통하여 강한 반 유대주의 감정을 도출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동일한 부류로 분류되는 것에 점차 민감함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안식일을 준수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무[안식일 준수, 역사 주]에 점차 등한히 하게 되었다.



68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유대주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69

일요일 준수는 부활의 날 일요일과 연관되어 매혹적으로 소개되었다. 상게서, 237 쪽



70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분리시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박해가 가장 혹독한 곳 중심부에 있었다.



71

(비디오: 7 초) 이교주의로부터 개종한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경멸 받던 안식일 준수를 부끄러워 했던 것은 특히 이해할 만하다.



72

(본문: 롬 11:13)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말하는지는 매우 흥미롭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롬 11:13.



73

이제 막 이교주의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구별해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안식일 준수가 제대로 확립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74

그런데 왜 일주일 중 다른 어떤 날보다 일요일이 선택되었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다.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은 매우 오래 동안 태양의 날로서 일요일을 준수한 태양 숭배자들이었다.



75

로마 황제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태양 신이라 표현하였다. 그래서 동전과 건물에 태양의 문양을 새겨 넣었고 그것들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이교주의와 타협하였을 때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을 발견하였을 것이라 믿는다. 몇몇 이교 습관을 도용함으로써 이방인들은 쉽게 기독교에 개종하고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게도 매우 이로운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한 거대한 종교로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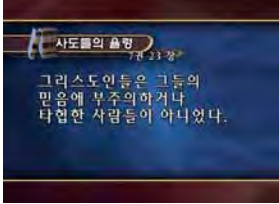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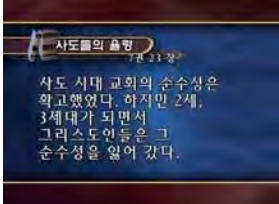
수 세기 동안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라 휴일로 기념되었다. 그런데 거룩한 날과 휴일 모두 거룩한 날들로 지켜졌었다.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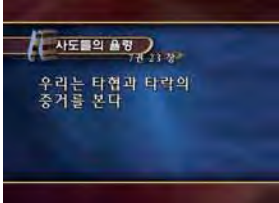
우리는 사도들의 율령집 23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에 부주의하거나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구절을 읽는다.

77



사도 시대 교회의 순수성은 확고했었다. 하지만 2세, 3세대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수성을 잃어 갔다.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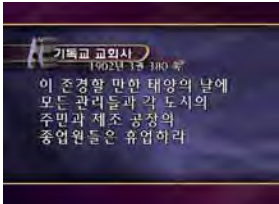
우리는 타협과 타락의 증거를 본다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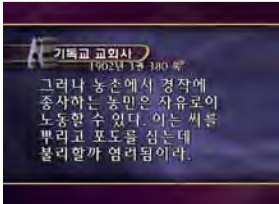
타협을 위한 이 법령은 서기 321년 3월 7일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제정된 첫 번째 시민 일요일 휴업령으로 기틀을 놓았다.

80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관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81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기독교 교회 역사, 1902년 3권 380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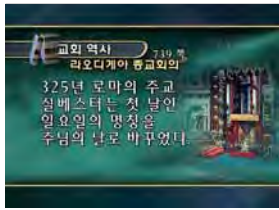
82



일요일 준수가 기독교의 심장부에 들어오게 된 그 다음 단계는 로마 교회의 라오디게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이다. 이것은 일요일 준수에 관한 첫 번째 종교적인 법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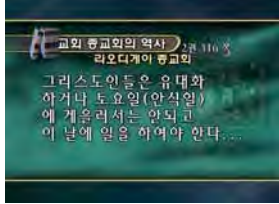
83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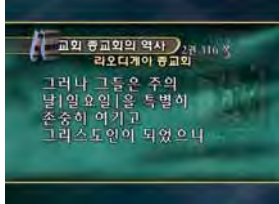
84

325년 로마의 주교 실베스터는 첫 날인 일요일의 명칭을 주님의 날로 바꾸었다. 교회 역사, 739 쪽. 364년에 열린 다른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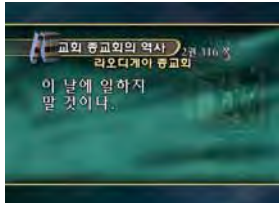
85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하거나 토요일(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되고 이 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86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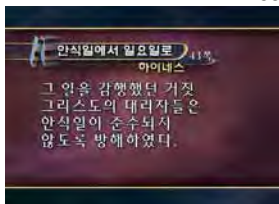
87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교회 종교 회의의 역사, 2권 316 쪽



8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6세기 경까지도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다.



89

그 일을 감행했던 거짓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안식일이 준수 되지 않도록 방해하였다. -일요일 휴업령, 하이네의 책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43쪽에 인용.



90

(비디오: 7 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교리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정말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 그저 전통인지는 구분하기 힘들었다.



91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가르친 참 진리에 대해 알기까지는 실로 많은 세기가 흐른 뒤였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92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들에게 의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의식과 전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93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된다고 외쳤다.



94

허스와 제롬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화형에 처함을 입으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기초 하였다.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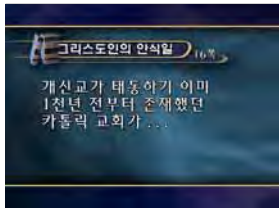
6세기가 지났을 때, 안식일 진리는 거의 잊혀져 갔고 전통의 덩굴에 파묻혀 버렸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그들은 각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에는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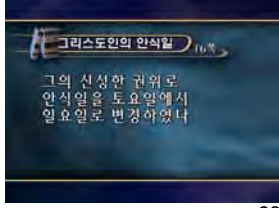
때로 사람들은 의심 없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인다. 오래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 미신을 깨기 위해 도전하였다. 그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닌 태양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그 이론을 가장 크게 반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줄 아는가? 그들은 곧 교회 지도자들, 즉 종교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불완전한 과학적 토대에 놓여진 오랜 전통을 파헤친 것 뿐이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진리를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오래 동안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안식일이 변경되었는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도록 이끈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저자가 공언하는 놀라운 언급을 들어 보라.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97

개신교가 태동하기 이미 1천년 전부터 존재했던 카톨릭 교회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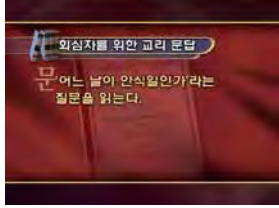
98

그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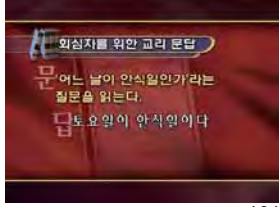
99

카톨릭 교회의 회심자를 위한 교리 문답서에서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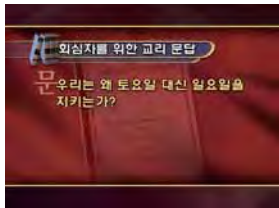
100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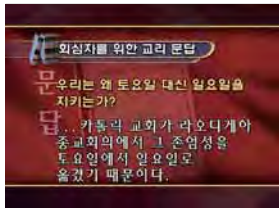
101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102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103

. . .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104

왜 카톨릭 교회가 그들 자의에 의해 안식일을 변경했을까?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그 대답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권위를 둔다는 점에서 이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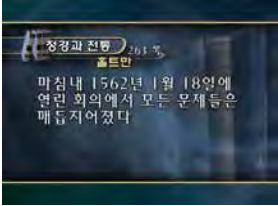
105

종교 개혁의 초기에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전통에 권위를 더 크게 주는 것이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기초로 삼았고 카톨릭 교회에 존재했던 수 많은 전통에 기초한 제도에 도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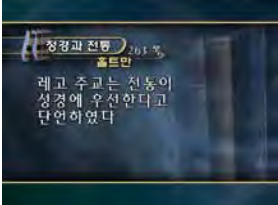
106

트렌트 종교회의는 카톨릭 교회가 전통과 성경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분수령이었다.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홀트만의 언급을 주목해 보자.



107

마침내 1562년 1월 18일에 열린 회의에서 모든 문제들은 매듭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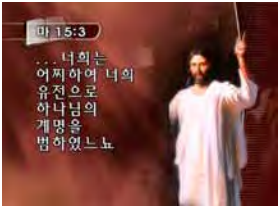
108

레고 주교는 전통이 성경에 우선한다고 단언하였다 성경과 전통, 263 쪽. 성경은 교회의 전통이 교회 원칙의 토대라는 사상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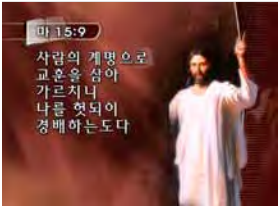
109

그대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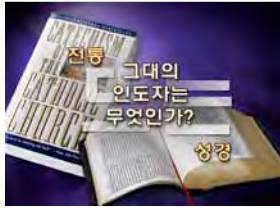
(본문: 마 15:3, 9) ...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111

그분은 덧붙이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다. 마 15:3, 9.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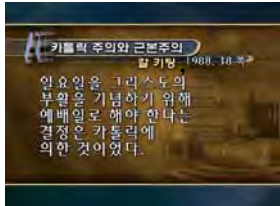
112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엄밀히 어떤 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의 주인인가 아니면 어떤 조직의 전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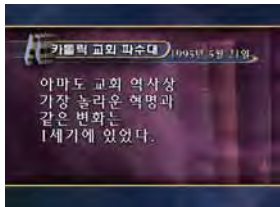
113

우리는 신뢰할 만한 학자들의 역사적인 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 변경에 대한 근대의 언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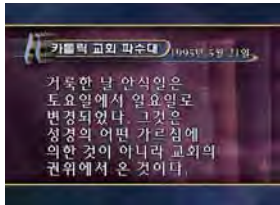
114

우리는 이와 같은 언급을 발견 다.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부을 기념 기위 예배일로 야 다는 결정은 카릭에 의 것이었다. 칼 키 , 카 리크주의와 근본주의, 1988, 3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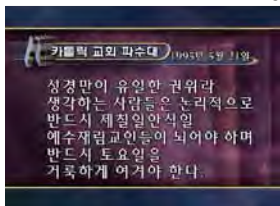
115

또 다른 언급은 카 리크 교 수대, 1995년 5월 21일자 에 나 난 것을 다시 생각해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명과 같은 변 는 1세기에 있었 다라고 말 다.



116

거룩 날 안식일은 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의 것이 아니라 교 의 권위에서 온 것이다.



117

성경만이 유일 권위라 생각 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되어야 며 반드시 요일을 거룩 게 여겨야 다.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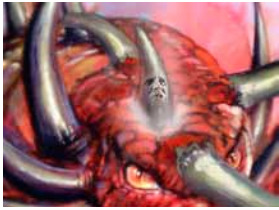
다니엘 7장에, 나님은 작은 뿔을 다니엘에게 계시 셧 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119

(본문: 단 7:25) ... 때와 법을 변경코자 것이며 ...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코자 시도 이 땅의 종교적인 세력을 분명 예견 고 있다. 십계명 가운데 유일 게 계명, 안식일 계명만이 때에 관 계명이다.



120

로마 교 는 이것을 변경시켰지만 하나님은 여전 그가 늘과 땅을 만드실 때와 동일 시며 그가 에덴에서 만드신 제도를 변경 지 않으셨다. 사실 이 예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창조주를 경배 도록 촉구 다. 왜냐 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 실 유일 분이시기 때문이다.



121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시 그분을 영접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 주어졌다. 이 초청에 응답 고 준비될 백성들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122

(본문: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 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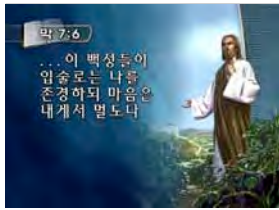
여기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 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것은 말 요도 없 는 것이다.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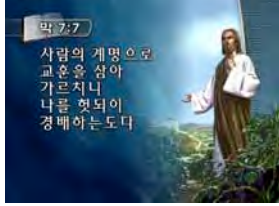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 날인 안식일을 지키므로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기억 길 요구 신다. 그분의 요구에 응 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분께 순종 는 것을 의미 다. 만약 사람이 인간이 고안 일요일을 지킨다면 그는 결국 인간의 전 에 순종 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 을 때, 그것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 에 대 여 이렇게 말씀 신다.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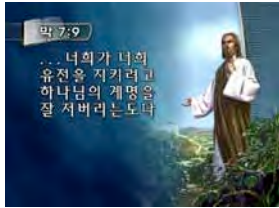
125

(본문: 막 7:6, 7) ...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26

사람의 계명으로 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경배하는도다 막 7: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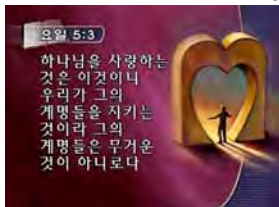
127

(본문: 막 7:9) ... 너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128

(본문: 막 7:6) 예수님은 ...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알다시피, 그것은 정말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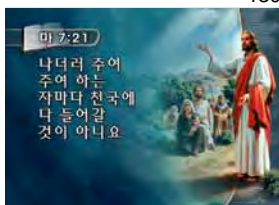
129

(본문: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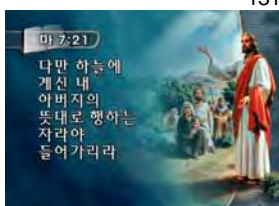
130

예수님은 어느 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이든지 나쁜 열매이든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131

(본문: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132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 12-미신에 속임을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



133

그것은 분명 사실이다. 나님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아실 것이다. 단지 말로만 나님께 속 다고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 신 것을 는 사람이 나님께 속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늘 나라에 기꺼이 초청 을 받을 것이다.



134

만약 그대가 그분을 사랑 다면 그분이 그대의 생애를 주관 도록 라. 그리 면 그대가 그분의 뜻을 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를 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 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을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135

우리가 매주 그 별 날을 나를 창조 하나님을 기억 여 드리며 그 분께 더욱더 나아가는 일에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의 생 은 너무 바쁘다. 모두가 다 겹겹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야 일이 너무 많고 그것을 야 시간은 없다.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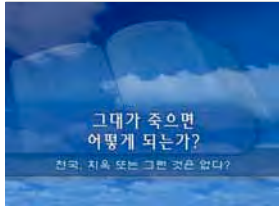
이런 서두름, 스 레스, 그리고 바쁜 중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일주일 중 루를 그 모든 것들로부 떠나 쉬라고 초청 신다. 그분은 그 날을 그분과 께 보낼 것 을 요청 신다. 그분을 경배 고, 그분과 대 고, 성경 말씀을 말 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초청 신다. 일주일 중 루 동안 우리를 만드신 분과 교제 고 그분을 생각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권인가?



137

그대여 분명 게 다시 정리 보자. 에는 진리가 있고 다른 에는 전 이 있다. 에는 성경이 있고 다른 에는 인간의 가르침이 있다. 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다른 에는 인간의 원칙이 있다. 에는 안식일이 있고 다른 에는 일요일이 있다. 이것은 단지 날에 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는 문제이다. 이것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는 문제이다. 그대는 이 순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 을 따르기 보다는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그대의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 때 마음 속으로 그대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 기 바란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

천국, 지옥 또는 그런 것이 있는가?



2

1956년 벨기에 사람 콩고는 지긋지긋한 시민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 칼슨 박사의 병원은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많은 병원 직원들은 살해 되었다. 불행하게 칼슨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가 살해 되지 수 일이 지난 뒤 그의 시신이 발견 되었을 때, 그의 호주머니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페이지엔 칼슨 박사가 기록한 낱자와 함께 있는 글귀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살해 되기 이틀 전에 쓴 것이었는데, 그는 한 단어를 썼다. 평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의 평화, 죽음을 앞에 둔 평화. 칼슨 박사에게 그 같은 평화를 준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3

만약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런 믿을 수 없는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많은 대답할 수 없는 의문들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 혹은 지옥은 있는가? 그대는 육체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몸에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어떤 세상에서 다시 사는 것일까?



4

죽음의 고통은 너무 괴로운 것이어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주 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만 찾으면 그들과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을 찾으려 한다.



5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제임스 반 프라흐 같은 사람은 소위 영매를 말한다. 그의 책은 '하늘과의 대화: 사후에 관한 영매의 메시지'는 레리 킹 쇼(Larry King Show)에 선 보인 이후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갈망하고 죽음에 직면한 인간은 평화를 얻고자 소망한다.

6



(비디오: 5 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이랴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는가?

7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8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의 친구들은 그의 몸을 장사 지냈는데 성경은 그 곳을 요셉의 새 무덤이라 기록한다.

9



로마 관리 빌라도는 경비병을 보내어 그 굴로 된 무덤 앞에 돌을 굴러 막고 인을 쳤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가져 갈 수 없도록 단단히 지켰다.

10



그런데 일요일 아침 일찍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광명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불렀다.

11



부활하신 구주는 살아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군사들은 천사들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처럼 넘어졌다.

12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3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 뒤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로마인들의 인식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써, 초기 교회에 커다란 힘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이제껏 알고 있던 것은 무덤이란 깊고 어두워 어느 누구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최고의 기별이 있었던 것이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최후의 끝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젠가 다시 살 것이었다!



14

로마시의 지하 카타콤은 죽음에 관한 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의 다른 관점을 잘 보여 준다. 이방인들의 무덤엔 소망 없는 글귀의 비석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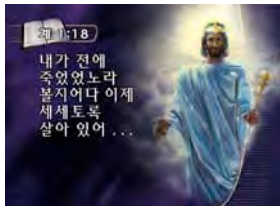
15

영원히 안녕이란 글귀는 영원한 슬픔을 전해 준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비석을 살펴보자.



16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혹은 아침까지 안녕. 그들의 무덤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부활의 날을 갈망하는 글귀로 적혀 있다.



17

(본문: 계 1:18)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 . .



18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 1:18.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알기 전까지 죽음에 대한 어떤 진실한 소망도 없었다.



19

고전 15장에서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설교를 한다. 그는 분명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없을 것이라 말한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20

(본문: 고전 15:16-18)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도 없었을 터이요



21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2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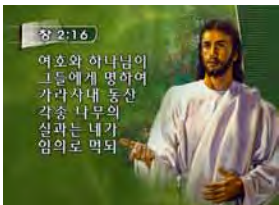
23

바울이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이 죽음에 관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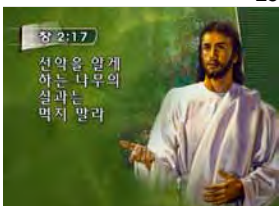
24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은 결코 그분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보았고, 성경은 창 1:22에서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는 죽음과 슬픔, 아픔이 지구상에 없었다. 아마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한 말씀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25

(본문: 창 2:16, 17)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락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26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27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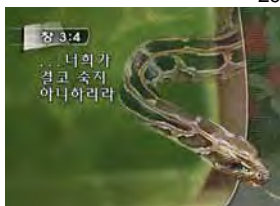
28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그렇게 행복한 내용이 아니다. 그 슬픈 이야기는 창 3장에 기록되었다.



29

뱀으로 가장한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였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뱀에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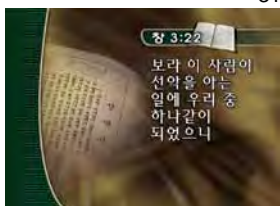
30

(본문: 창 3:4) ...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사단은 말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다. 하와는 사단을 믿기로 선택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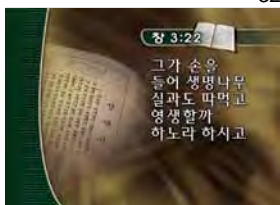
31

하나님은 그 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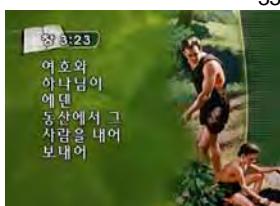
32

(본문: 창 3:22, 23)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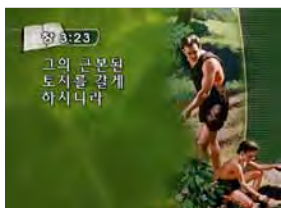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34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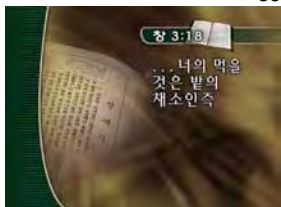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 3:22, 2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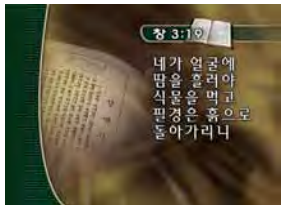
죽음이 인간에게 엄습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생명 나무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때문이었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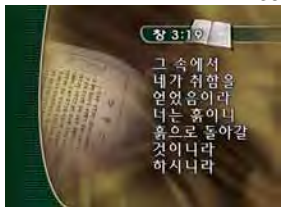
(본문: 창 3:18,19) 하나님은 이때 아담에게 말씀하신다. ...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37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38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3:18, 1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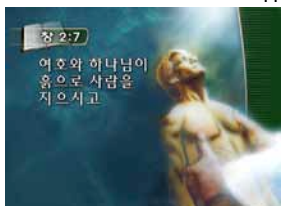
여기서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그분과 우리가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다.

40



성경은 인간이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광경을 주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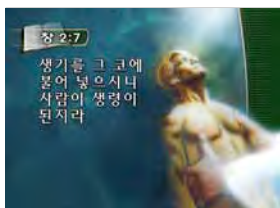
41



(본문: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42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43

생기를 그 코에 붙여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7



44

하나님은 지구의 요소를 취하셔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단지 생명이 없는 몸에 불과했다. 그 몸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을 넣어 주어야 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어 주었다고 기록한다. 그래서 사람은 산 존재 곧 생령이 되었다.



45

(비디오: 3 초) 우리는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다. 몸 + 숨 = 생령(산 존재)



46

(비디오: 3 초) 죽음을 위한 공식도 얻을 수 있다. 생령(산 존재) - 숨 = 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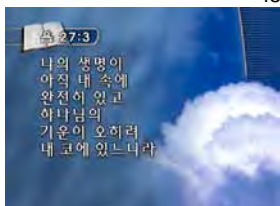
47

(본문: 전 12:7) 지혜자가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48

인간에 죽음에 관하여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인 욥 기서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49

(본문: 욥 27:3)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 27:3.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는 언급에 주목하라.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50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51

(본문: 시 146:3, 4)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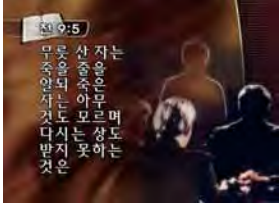
52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 146:3, 4.



53

솔로몬 왕은 다시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기록한다.



54

(본문: 전 9:5)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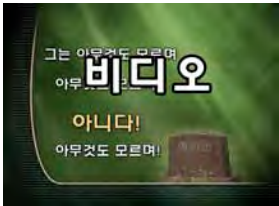
55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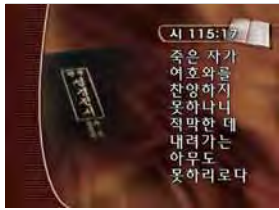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 전 9:5, 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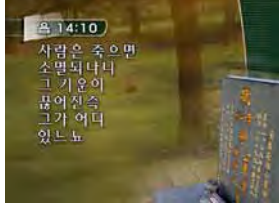
(비디오: 5 초) 그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것은 시편 기자가 간직하고 있는 사상이었다. 죽은자는 결코 하늘에서 찬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물을 것이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58

(본문: 시 115:17) 다투는 분명하게 말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 115:17.



59

(본문: 욥 14:10, 12, 13)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60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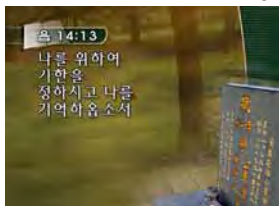
61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62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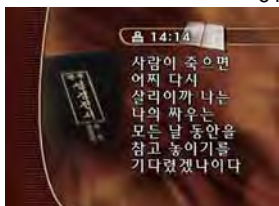
63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 14:10, 12, 13.



6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간이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 부활의 날까지 일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살펴보자.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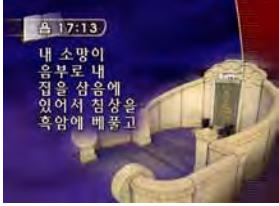
(본문: 욥 14:14, 15)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나이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욥 14:14, 15.

66



(본문: 욥 17:13)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욥 17:13, 킹제임스 역.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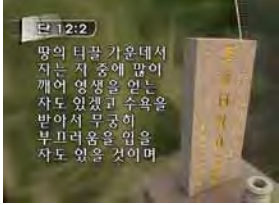
죽음은 잠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라. 다른 성경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이다.

68



(본문: 시 13:3) 다윗은 적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시라 응답하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한다. 시 13:3.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살기를 원했다!

69



(본문: 단 12:2) 다니엘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언급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단 12:2.

7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편안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맞는 죽음이다. 사람이 죽으면 조용히 쉬는 것이다. 거기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 성경이 잠을 죽음이라 묘사한 것에 의문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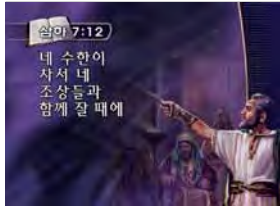
71



나단 선지자는 다윗왕의 죽음이 가까왔을 때 왕에게 말했다.

72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73

(본문: 삼하 7: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잠 때에 삼하 7:12.



74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잠에 묘사하셨다.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똑같은 묘사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자.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은 자주 방문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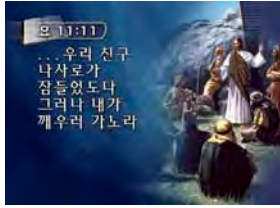
75

(본문: 요 11:5) 성경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한다. 요 11:5.



76

어느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요단 강을 걷고 있을 때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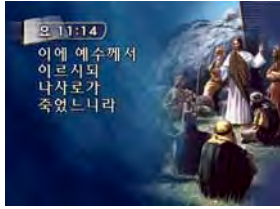
77

(본문: 요 11:11, 12, 14, 15) ...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78

제자들은 기뻐다. 그리고 말하기를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냐 다라고 했다.



79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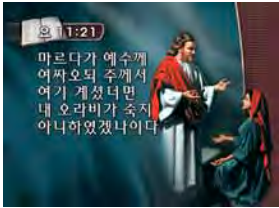
80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요 11: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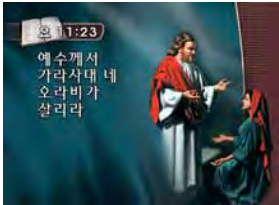
81

그들은 그 길로 베다니로 갔다. 그들이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달려와 그들을 맞았다.



82

(본문: 요 11:21, 23, 24)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21.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계획이 있으셨다.



8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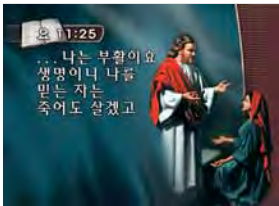
84

...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 11:23-24. 마르다는 세상의 끝날에 예수께서 그의 오라비를 부활 시키실 것을 확신하였다.



85

그러나 예수님은 감동적인 사건을 보여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86

(본문: 요 11:25)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다. 요 11:25.



87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88

(본문: 요 11:35) 예수님이 우시다니! 그분은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것이 아니었다. 나사로는 곧 부활 시킬 것이었다.



89

예수님은 세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했던 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생각하며 우셨다.



90

예수님은 바위로 된 문을 열라 명하셨다.



91

돌이 굴러졌다.



92

(본문: 요 11:39) ...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요 11:39.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시는 것을 나흘이나 지체 하셨다. 이 지체는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날짜였다.



93

그러나 돌을 굴러 내고 예수께서는 소리 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94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명시한 것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나사로만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것이란 얘기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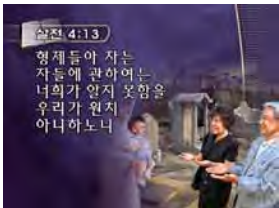
95

베다니의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날이었겠는가? 뭘 듯이 기쁜 날이었을 것이다. 친구들이여 베다니의 그 날을 상상해 보라.



96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이 땅에 재현될 엄청난 사건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 때 부활한 수 많은 무리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참으로 행복한 기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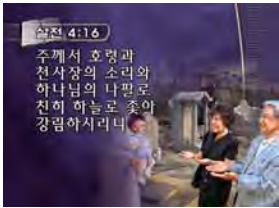
97

(본문: 살전 4:13, 16)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98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살전 4:13.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에 대해 말씀하신다.



99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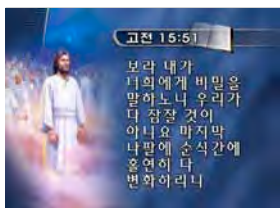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6.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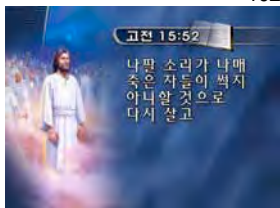
바울은 예수님 재림 시에 있을 일을 자세히 묘사한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02

(본문: 고전 15:51-5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103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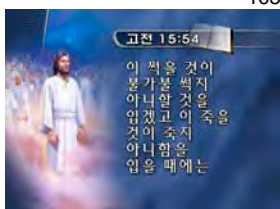
104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전 15:51, 52. 그런 다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언급한다.



105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106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107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108

...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53-55.



109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날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10

(본문: 요 5:28, 29)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111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112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 29.



113

잠시 생각해 보자.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이나 하늘에 간다면 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필요하겠는가? 왜 예수님은 본인이 재림하신다는 이 언급을 하셨겠는가?



114

(본문: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115

이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잠을 잔다. 그들은 모든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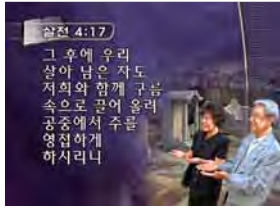


116

그분은 무엇 때문에 재림하시는가? 그분은 그분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재 결합시키기 위해 오신다. 예수님은 또한 그 당시에 그분을 신실히 따랐던 자들을 영접하려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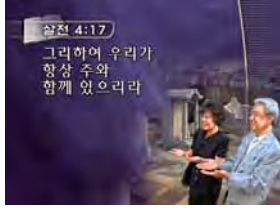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17

(본문: 살전 4:17) 그 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 와  
 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게 시  
 리니



118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119

모든 구원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 된  
 모습을 목격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 생명을 부여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주와 께 영원 살 것이다.



120

어떤 사람은 십자가 상의 강도에게 약속은 그럼 무엇을  
 의미 는가? 고 물을 것이다.



121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구원을 약속 주신 그 강도에  
 대 성경의 진정 가르침을 살 보자.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고 그분은 악 죄인과 동일시 되었다.



122

마가 복음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  
 나가 만약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가졌다면 자신을 구 고  
 그들도 구 라고 예수님을 멸시 다고 기록 다. 그런데  
 의 강도는 자신을 구원 줄 것을 간청 다고 기록  
 다.



123

(본문: 눅 23:42, 43)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  
 실 때에 나를 기억 하소서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니라 눅 23:42, 43.



125

그 약속을 다시 번 살 보자. 그래 친구여 오늘, 지금 그대는 신을 가질 것이다.



126

비록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셨다 지라도 그 분은 무덤에 머물러 일요일까지 기다리셨다.



127

(본문: 눅 23:43) (비디오: 5 초) 죽어 가는 강도에게 얼마나 신 있는 약속이었을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모든 것은 어두웠고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약속 하였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말 하니,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 것이다.



128

어떤 이는 예수님이 강도에게 신 약속은 곧 바로 낙원에 간다는 것이라 주장 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즉시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129

성경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 혀 있다고 말 다.



130

일요일 아침,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 나셨다. 그녀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 다. 그런데 그분은 그녀를 만 류 다. 왜냐 면 아직 그가 늘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 20:17  
...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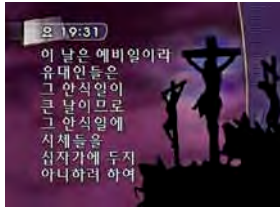
131

(본문: 요 20:17) ...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날을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런데 ...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 신다. 요 20:17. 예수님을 결국 금요일에 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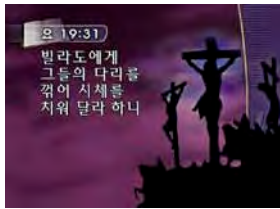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에게 강도 역시 금요일에 낙원에 올라가지 않았음을 분명 다.



요 19:31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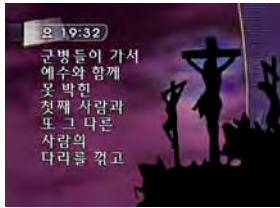
(본문: 요 19:31-33)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요 19:31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꿰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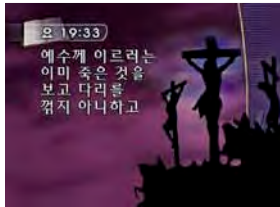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꿰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요 19:31



요 19: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꿰고

135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꿰고



요 19: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꿰지 아니하고

136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꿰지 아니하고 요 19:31-33



137

여기서 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꿰었으므로 그들이 도망지 못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38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분은 정말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도 금요일에 낙원에 가지 않았다.



139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 기꺼이 값을 치르셨다.



140

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 선물은 바로 죽음을 이긴 영원 생명이다! 모든 다른 선물들은 영생이란 선물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대가 구 다면 이것 역시 그대의 것이다!



141

그래서 영생을 위 이 선 은 그대가 어떤 선 보다 위대 것이다. 그대의 영생이 그대의 선 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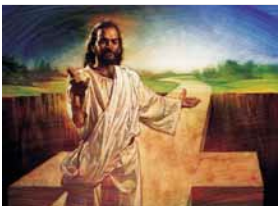
142

이 값없이 주어지는 영원 생명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값은? 단지 마음을 드리는 것 뿐이다. 마음을 정결케 고 변 시키라. 교만으로 가득찬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라.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놓으셨다. 그분이 셔야 일은 더 이상 없다.



143

그대가 원 기만 면 이 영원 생명은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다.



144

그분은 살아나셨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가졌다.

#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45

어느 전도 집 가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에서 열렸다. 젊은이가 깊이 상심된 마음으로 그 집 에 참석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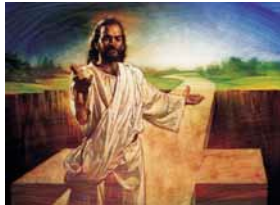
146

그 집 장소는 시의 공동 묘지 옆에 있었다. 집 가 열리 는 장소에 들어서기 전, 이 젊은이는 천천 그 묘지를 여 왔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 의문을 가졌다. 그 는 오래 동안 용서와 마음의 를 갈망 다. 죽음에 관 생각 을 때, 그는 영생에 대 신을 얻기를 원 다.



147

그런데 그날 밤 전도 의 주제는 죽음 너머의 소망에 관 것이었다. 이 젊은이는 그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갔다. 바로 그 날 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 였다. 바로 그 날 밤 그의 모든 인생은 살아 계신 예수님에 의 변 되었다. 바로 그 날 밤 가 그의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망과 용기가 솟아 났다.



148

그대 역시 이 청년이 가졌던 를 소유 수 있다. 그 망도, 그 죽음을 넘어선 영생에 대 신도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대가 이 신을 원 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 때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란다.

13-그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1

산 자가 죽은 자와 이야기 할 수 있는가?



2

사람이 죽으면 영이 되어 살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는가? 죽은 영혼이 돌아와 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 죽음이란 그저 몸만 죽은 것이고 영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인가?



3

소위 말하는 무당이나, 영매들은 우리가 죽음으로 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가?



4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산 사람을 사로잡아 그들의 몸을 이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가?



5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살펴 본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다루려고 한다.



6

이것은 너무 심각하여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린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7

해답은 역시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있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8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갖는 아픔을 이해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신다. 그분은 우리가 슬픔에 처한 그 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 관해, 부활과 영생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찾기 위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무엇이 라 말씀하셨든지 간에 나는 그것에 내 모든 신뢰를 다 바칠 것이다.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9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그분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감싸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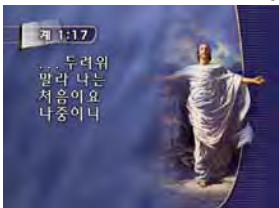


10

요 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본문: 요 11:35)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요 11:35. 그분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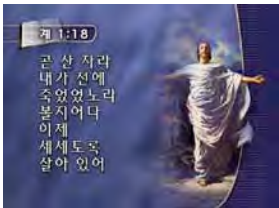


11

계 1:17

...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본문: 계 1:17, 18) ...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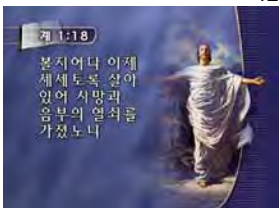


12

계 1:18

곤 산 지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곤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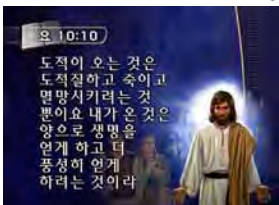


13

계 1:18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 1:17, 18.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자이시다.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



14

요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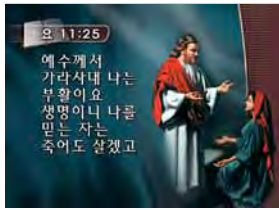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예수님은 새 생명을 영원히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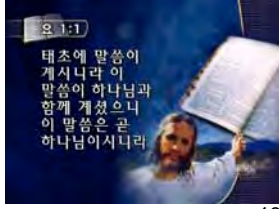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요 11: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5

(본문: 요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생명에 대해 이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지구의 생명을 다 만드셨기 때문이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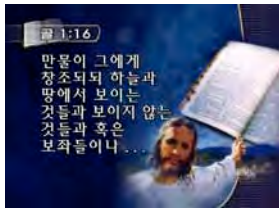
(본문: 요 1:1, 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7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 3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18

(본문: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 골 1:1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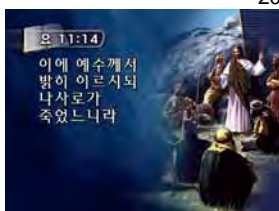
이 집회 동안에 배운 특별한 한 사항을 다시 복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죽음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생명의 다른 형태의 연속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다.



요 11:11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20

(본문: 요 11:11) 그분의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르가 잠들었도다라고 하셨다. 요 11:11. 그분이 나사르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잠들었도다 이것은 성경에서 죽음에 관한 가장 근접한 비교이다.



요 11: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르가 죽었느니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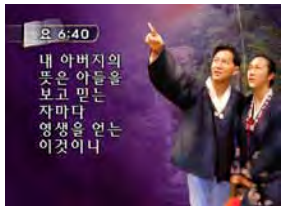
(본문: 요 11:14) 그의 제자들이 잘못 이해할 것을 우려해,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르가 죽었느니라 요 11:14. 나사르는 다른 어떤 형태로 다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22

그는 죽었다.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날까지 결코 생명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그리고 미래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도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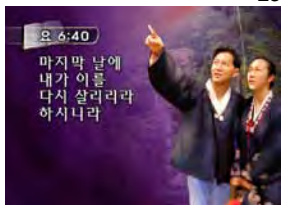


23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본문: 요 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24

요 6:40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6:40



25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은 기대와 감격으로 벅차 올랐다.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분이 오실 때 엄청난 빛이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비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분은 재림하시는가?



26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본문: 요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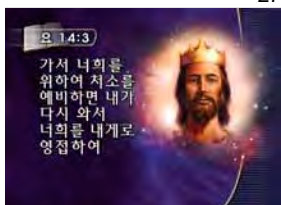


27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28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29

요 14:3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30

예수님은 그 장엄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셨다.



31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본문: 마 24:30, 31)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32

마 24:30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3

마 24:31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34

마 24:31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 24: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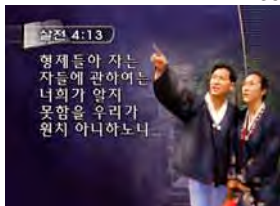
35

왜 나팔소리가 나며 왜 천사들이 오는가?



36

죽음의 잠을 자는 선택된 자들을 깨우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로 이끌기 전, 그들을 모으기 위함이다.



37

살전 4: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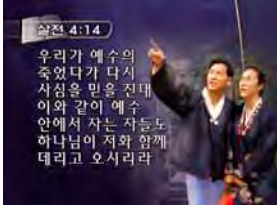
(본문: 살전 4:13-18)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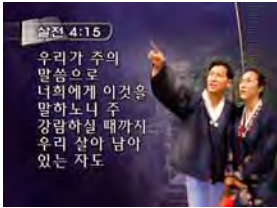
38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9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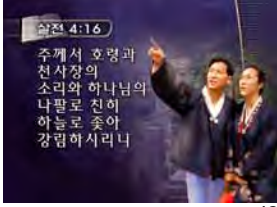
40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41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42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43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4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45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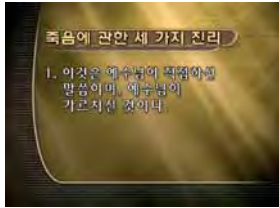
46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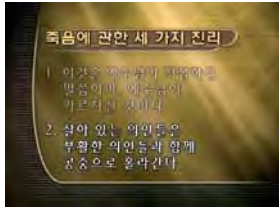
47

여기에 표현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주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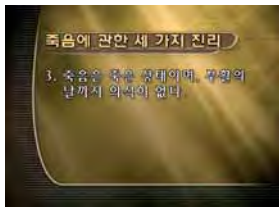
48

1.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책이다.



49

2. 예수님의 재림 때 여전히 살아 있는 의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 올려 주를 영접한다. 살아 있는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 하늘에 있지 못하며, 반면에 죽어 있던 의인들도 그들이 죽자마자 하나씩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다.



50

3. 잠자다라는 말은 부활 전에 죽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데 예수님과 바울이 동시에 사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이 의식이 있는 생명의 상태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 죽음에는 의식이 없다. 의식은 마음이 하는 기능이다. 죽음은 마음의 기능을 멈춘 상태이다.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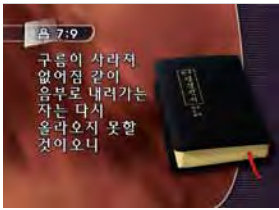
(본문: 전 9:5)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전 9:5



52

죽은 자가 얼마나 안다고 했는가?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산 자와 결코 교통을 할 수 없다.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 14- 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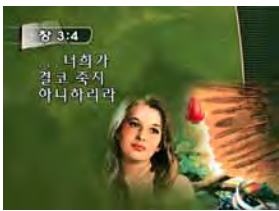
(본문: 욥 7:9, 10) 성경은 죽은 사람의 상태를 무의식 상태라 가르친다. 욥은 이렇게 말한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 오니 욥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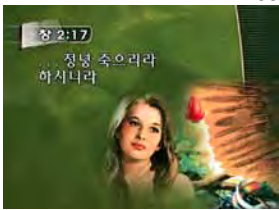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욥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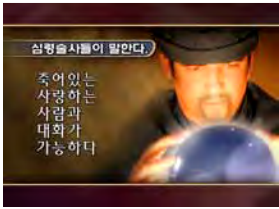
그 믿음은 사단에게서 왔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하와를 속였고, 결국 영원한 생명과 에덴의 집을 잃게 만들었다. 사단은 뱀을 매개체로 해서 그 뱀을 통해 말함으로 하와와 더불어 강신술 집회를 연 것이다. 사단은 속이는 자들의 우두머리이다.



(본문: 창 3:9) 그녀는 사단의 말을 믿었다. ...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



(본문: 창 2:17) 이 거짓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었다. ...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7.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령술사들은 (세계 수 천의 심령술사, 영매 들이 반복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죽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 정말 그런가? 이것이 가능한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결코 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왜 할 수 없는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음의 무의식적인 잠을 자고 있다. 만약 그대가 영혼과 교통 할 수 있다고 느끼고 또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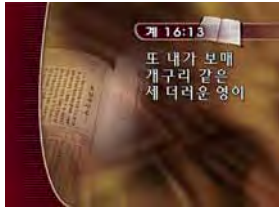
60

만약 죽은 사람이 의식이 없다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그 영은 누구란 말인가?



61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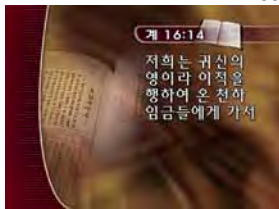
62

(본문: 계 16:13, 14)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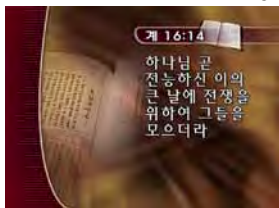
63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64

저희는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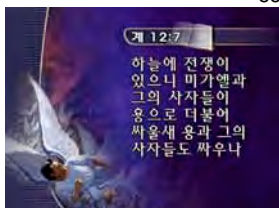
65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16:13, 1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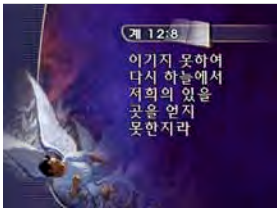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계시하고 있다.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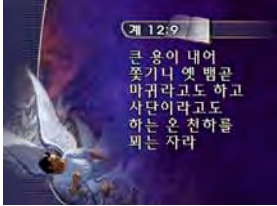
(본문: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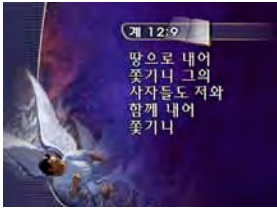
6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지라



6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70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계 12:7-9



71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친구여!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영으로 무엇을 하든 이것은 그대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보다 가장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시 반복하건대, 그대를 속이는 것이며 그래서 그대를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그대의 영원한 구원을 상실케 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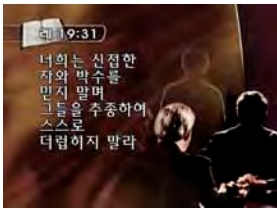
72

사단은 그대의 머리 끝을 서게 만들 것이며, 척추 위에서 아래 까지 전율을 느끼게 할 수도, 그대가 영을 가까이에 대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 만약 그대가 죽은 사람이 여전히 영혼으로 살아 있다고 믿는다면 그대는 속임을 받을 수 있고, 급기야 잃어버림을 당할 가능성에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73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영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계신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과 대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금지하고 계신다. 영과 교통하려는 사람에게 대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해 보자.



74

(본문: 레 19:31) 레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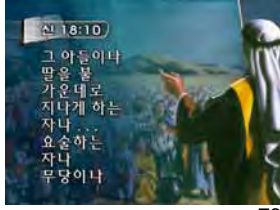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75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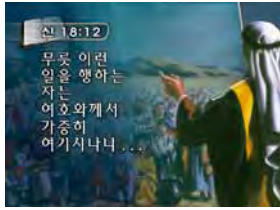
76

(본문: 신 18:10-12)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 아들이나 딸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77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78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 신 18:10-12, 킹제임스 역.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접행위와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 할 것을 아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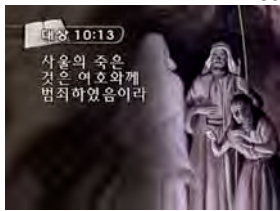
79

(본문: 출 22: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출 22:1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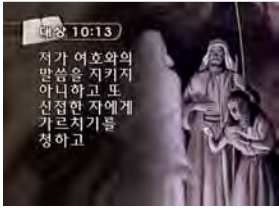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한 경험은 죽은 사람과 교통하려는 어리석은 시도였다.



81

(본문: 대상 10:13)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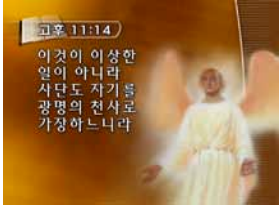
82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대상 10:13



83

사단은 예수님의 모습까지라도 흉내 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84

(본문: 고후 11: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고후 11:14



85

그대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에 죽었던 사람과 똑같이 보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성경은 그것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는 거짓 가장이라 말한다.



86

그들은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도 변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선한 사람들도,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운 만남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속임을 받는 등, 그들 역시 사단의 울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87

그런데 성경은 더 심각한 것을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으로도 가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 심각한 경고를 주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88

(본문: 마 24:4, 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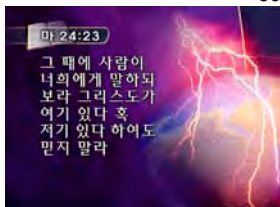
89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 24:4, 5.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90

예수님은 같은 설교에서 동일한 경고를 반복하셨다.



91

(본문: 마 24:23-25)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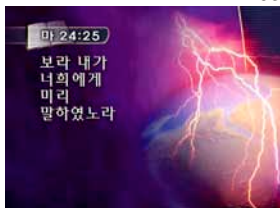
9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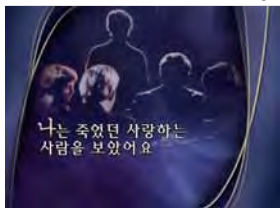
93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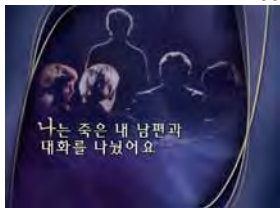
94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 24:23-2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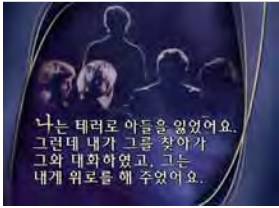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는 그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96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죽은 내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 14- 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97

또 다른 사람은, 테러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찾아가 그와 대화하였고, 그는 내게 위로를 해 주었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는가? 죽음은 잠자는 것이며 영이 있다는 것은 택하신 자도 미혹케 하려는 속임수라고 말씀하셨다. 수 백만의 사람들이 속고 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 자신의 감정, 경험을 더 믿기 때문이다.



98

그런데 왜 택하신 자들은 미혹되지 않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 감정,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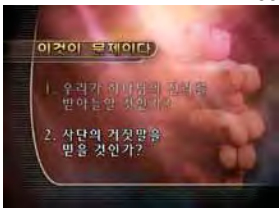
99

이것이 문제이다.



100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101

또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102

성경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확고히 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이미 만연한 엄청난 속임의 물결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아야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감정과 경험과 나타남도 허락해서는 안된다.



103

아마 그대는 어떤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살아나서 죽음의 순간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에 의아해 할 것이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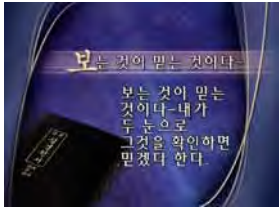
104

그리고 그들이 병원 침대에 죽어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증언하고, 이런 기록이 심심찮게 들려 오는 것을 의아해 할 것이다.



105

또는 그들이 밝은 빛 또는 예수님이나 그들을 데리러 온 천사들을 보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다른 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기도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속임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



106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내가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속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10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보다 우리의 감정, 경험, 느낌으로 치명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이 난무하여 죽음에 대한 수 많은 거짓된 이론들이 존재한다.



108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예로 들어 보자. 수 백만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소와 뱀 등과 같은 동물로 태어난다고하는 그들의 혼한 믿음인 것이다.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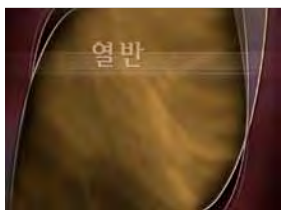
또는 다른 사람 즉, 부자, 왕, 혹은 가난한 자, 거지, 맹인, 장애인,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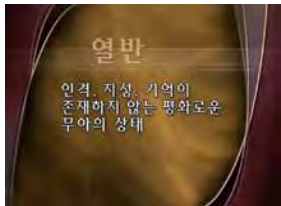
힌두교는 계속 반복되는 생명의 윤회를 가르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런 반복이 끝도 없이 계속 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그것에 미혹된다. 이 사상에는 인간에 의한 어떤 통제도, 선택 하는 것도, 결정의 어떤 자유도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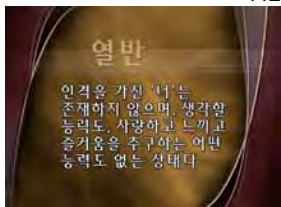
인격, 선택, 즐거움, 우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인간은 결국 열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111



인격, 지성,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무아의 상태

112



인격을 가진 '너'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각할 능력도, 사랑하고 느끼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다

113



한 방울의 물이 대양에 흡수되어 정체성을 완전히 잃듯이 자아는 우주에 흡수된다.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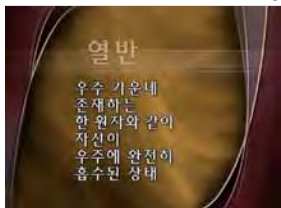
불교도 비슷하다. 그런데 부처는 이 윤회의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올바른 업을 통하면 끝없는 반복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115



그 가르침은 계속되어, 의지를 조절하는 잠재의식을 통해, 사람은 욕망을 완벽하게 없애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116



이런 상태에 몸과 마음이 이르면 그는 열반 즉,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한 원자와 같이 자신이 우주에 완전히 흡수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117



이 두 큰 종교는,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며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는다.

118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발리 섬

119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는 '바롱 댄스'를 목격할 수 있다.



120

그 바롱은 큰 뺨은 달걀처럼 보이는 전통 의상을 입었는데, 구부러진, 그러나 날카롭고 치명적인 단도 칼로 무장한 여섯 명을 상대하여 싸움을 벌인다. 그 여섯 사람은 그 지방의 어떤 마약을 복용한 상태이다.



121

바롱은 그들에게 돌진하고, 그들은 후퇴한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돌고 남자들은 그 뒤를 따른다. 칼이 공중에 난무하고 그를 잘라 쓰러뜨리려 한다.



122

바롱은 멈추고 다시 돌아 남자들을 향한다. 그들은 멈춘다. 바롱이 한 발자국 전진한다. 그 남자들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다. 이것이 반복된다. 시간이 가고, 계속 반복되어 마침내 6 사람이 자제력을 잃고 광란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된다. 실수로 그 단도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날아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박히거나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 마을에서 온 다른 남자들이 그 광분한 사람들을 땅에 메어 치고, 물을 퍼 붓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머리를 털고 일어나 그들의 오두막을 향해 가고, 바롱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종교적인 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믿는 믿음을 표현한 가무이다. 바롱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섯 남자는 마귀를 상징한다. 힌두교의 교리에 의하면, 선과 악 사이에는 영원한 싸움이 있다. 그런데 승자가 없다. 항상 밀고 당기는 싸움만이 존재한다.



123

이 믿음은, 역사는 순환되며 끝없이 반복되어 계속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마침내 악을 진멸하고 온 지구에 의와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없다.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12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대도 그렇지 않은가? 그가 제공한 엄청난 소망을 생각해 보라! 악은 패배할 것이다. 역사는 순환되지 않는다. 역사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참된 백성을 위해, 죄없고, 질병, 전쟁, 기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



125

(본문: 계 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126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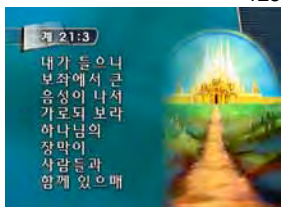
127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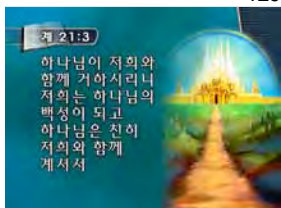
128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29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130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131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132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니라 계 21:1-4.



133

예수님을 지금 선택하고 거듭나지 않겠는가? 죽고 나면 너무 늦는다. 죽으면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는 끝 없는 반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



134

(본문: 뱀전 1:3, 4) 찬송 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135

그 많으신 긍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심으로 말미암아



136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37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138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뱀전 1:3, 4.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139

그대는 영원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  
이 오늘 그대에게 말씀 시려는 것이다.



140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것이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본문: 요일 5:11, 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나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41

요일 5: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  
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1, 12.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어떻게 그것을 신 수 있는가? 나의 말씀  
은 수정처럼 선명 게 말씀 셧다.



142

요일 5:13

내가 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  
에게 이것을 쓴 것은

(본문: 요일 5:13) 내가 나  
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  
에게 이것을 쓴 것은



143

요일 5:13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 로 여금 너 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려 이라  
요일 5:13. 모든 사람이 반드시 대답 야 질문은 예수  
님이 내 안에 있는가? 는 것이다. 이 순간 그대는 예수님  
을 모실 수 있다.



144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본문: 계 3:20) 그분은 이렇게 말씀 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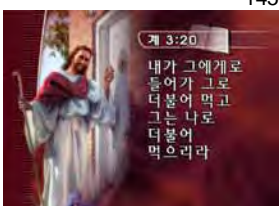


145

계 3:20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146

계 3:20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147

이 순간 단지 그대의 마음 문을 열기만 라. 예수님을 그  
대의 마음에 모시라.

14-죽음 너머에서부터 온 음성

# 15-시간을 돌려 놓자



1

어떻게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2

고대에 세워진 포르투갈 한 수도원이 있는 높은 절벽 꼭대기는 지중해의 에머랄드 빛 바다를 내려다 보는 좋은 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거기서 보는 장면은 숨이 멈출 정도로 정말 멋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이였다. 거기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이 많은 수도승이 끌어 올리는 도르래의 바구니에 의지하여 올라가는 것 밖에 없다.



3

어느 날 한 인솔자와 관광객이 그 수도원 꼭대기에서 구경을 다 마치고 내려 가려는 참이었다. 그들이 바구니에 들어가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관광객이 기겁을 하며 물었다. 얼마나 자주 이 줄을 갈아주죠?



4

걱정하지 마세요. 인솔자는 안심하라는 듯이 말했다. 끊어질 때마다 그것을 교체 하니깐요.



5

이 이야기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맡기고 산다. 그들은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건강을 잃는다. 상한 건강은 끊어진 밧줄처럼 교체 할 수도 없다. 건강은 우연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 자연의 법칙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6

그대는 좋지 않은 건강을 간직할 것인가? 사람들은 연간 수 조원을 의료비로 지출한다. 질병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어떤 것 보다 재정을 많이 낭비하게 만든다. 좋은 건강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다. 죽어 가는 암 환자나 에이즈 환자들에게 물어 보라.

# 15- 시간을 돌려 놓자



7

백혈병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관절염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물어 보라. 좋은 건강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좋은 건강을 잃을 때까지 결코 감사하지 않는 축복일 것이다.



8

엘리자벳 1세는 죽어 가는 병상에서 그녀를 위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 모든 재산으로 단 1분을 살 수 있다면...이라 말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그런데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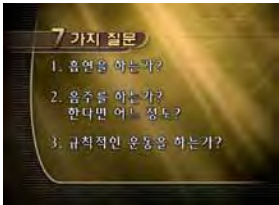
9

UCLA 대학의 브레슬로우 박사는 9년의 기간에 걸친 긴 연구를 했다. 그는 7000명에게 건강 습관에 관한 7가지를 질문 했고, 건강 습관을 잘 이행하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하며 관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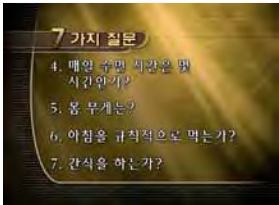
10

그가 물은 7 가지 질문은 아래와 같다.



11

1. 흡연을 하는가? 2. 음주를 하는가? 한다면 얼마나?  
3.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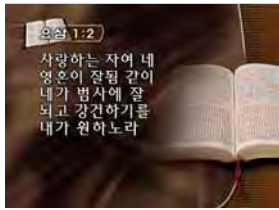
4. 매일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 5. 몸무게는? 6.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가? 7. 간식을 하는가?  
그런데 이 일곱 가지 건강 습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11.5년을 더 살았다.



13

그대가 11.5년을 더 산다면 어떻게겠는가? 이것은 주의 깊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놀란다.

# 15-시간을 돌려 농자



14

(본문: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삼 1:2



15

(본문: 요 10:10)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 10:10



16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과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누리길 원하신다.



17

어떻게 좋은 건강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규칙을 주셨고 지침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



18

수 십년 동안 정통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은 의료 학자들의 관심이 되었다. 암 치사율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현저 낮고 큰 질병에 있어서도 낮은 발병 율을 보였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명적인 상태에 빠뜨리는 질병에 면역성이 강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것일까?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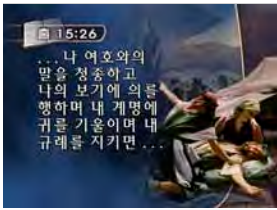
유대인들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과 같은 음식 습관을 가지면 암 발병 율, 다른 질병 발병 율이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다. 그런데 그들만이 가진 독특한 건강 습관, 영양, 생활 양식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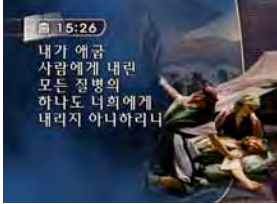
(비디오: 10 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했을 때, 그분은 건강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칙과 원칙을 상기 시키셨다. 좋은 건강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신 다음, 하나님은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단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

# 15- 시간을 돌려 놓자



21

(본문: 출 15:26) ...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



22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23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 15:26.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다.



24

(본문: 출 23: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25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출 23:25. 그대는 중요한 요점을 깨달았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면, 질병의 영향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정보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26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27

(본문: 시 105:37) ...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 105편 37. 아마 오늘 우리가 가진 질병들이 이집트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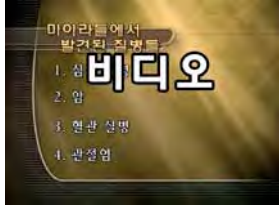
1975년 일단의 학자들이 영국의 맨체스터 의대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부검을 위해 소집되었다. 그 부검의 대상은 기원 전 19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의 한 미이라였다.

# 15-시간을 돌려 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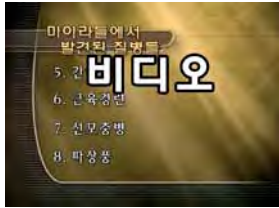
29

(비디오: 1 초)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그 고대 이집트인은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0

(비디오: 6 초) 심장 병, 암, 관절염, 혈관 질병,



31

(비디오: 6 초) 간염, 근육경련, 선모충, 파상풍 등.



32

비록 모세 당시 이집트가 교육과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였지만, 의학적 지식과 치료는 아프리카의 오지와 별 다름이 없었다.



33

모세가 태어나기 얼마전인 기원 전 1552년, 파피루스 에벨스라는 한 유명한 의학 서적이 기술되었다. 이 책은 질병과 감염, 사고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이 담겨 있다.



34

나무 조각이 살에 깊이 박. 상처를 위해서는 벌레의 피로 문지르고 상처 위에 말의 대변을 붙이라는 것이다. 뱀에 물린 경우는 마시는 물을 우상에 붓게 했다.



35

머리가 빠지는 것? 머리가 빠져 나가는 것을 위한 치료는 말굽, 야자나무 꽃, 개 똥뽀를 기름에 끓인 것을 바른다는 것이다.



# 15- 시간을 돌려 농자



36

성경은 이집트의 이 모든 지혜를 모세가 다 배웠다고 말한다(행 7:22). 그의 기록은 공중 위생, 격리, 개인 위생, 영양에 관한 수 많은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집트의 파피루스 에벨스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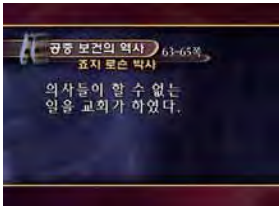
37

흑사병과 나병은 중세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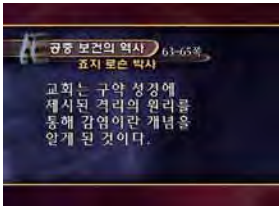
38

이 경우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가 가르친 공중 건강의 원칙은 강하게 적용되었다. 이 재앙의 기간 동안 의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수 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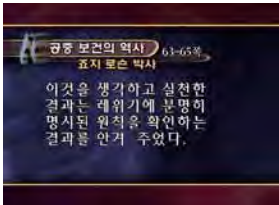
39

쥘리 로슨은 이렇게 기록했다.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였다.



40

교회는 구약 성경에 제시된 격리의 원리를 통해 감염이란 개념을 알게 된 것이다.



41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한 결과는 레위기에 분명 명시된 원칙을 확인하는 결과를 안겨 주었다. 쥘리 로슨 박사, 공중 보건의 역사, 63-65 쪽.



42

이런 성경의 원칙을 두고서 이것을 적용되기까지 이런 재앙들을 통해 6천 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 15-시간을 돌려 농자



43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설계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가장 최상으로 증진시키고 질병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몸을 허락하셨다.



44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최고의 상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45

한 젊은이가 그가 몇 년 동안 모은 저금을 들여 번쩍이는 새 차를 샀다.



46

그는 자동차의 설명서를 함께 받았다. 그 설명서는 새로운 차를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47

그것은 매우 비싼 차였고, 그래서 그대는 그 새 차의 주인은 틀림 없이 사용 설명서를 읽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얼마나 신속 속도를 90km까지 올릴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다. 몇 초 내에 그 속도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얼마나 빨리 정지하는가! 그는 타이어의 '끼익'하는 소리를 즐겼다.



48

그는 오일과 냉각수, 타이어 공기를 점검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고 귀찮았다. 그는 그런 단순한 노동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가 원하는 곳에 운전만 하고 가면 그만이었다. 특별 그의 번쩍이는 차가 빠르게 지나갈 때 쳐다보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길 따름이었다.

## 15-시간을 돌려 놓자



49

그대는 나머지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는 머지 않아 수리가 필요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육체를 이 젊은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명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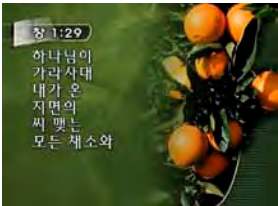
50

한번의 병원 출입으로 일생을 날려 버릴 수도 있다.



51

에덴 동산, 창조의 동산으로 돌아가 보는 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건강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완전한 식생활 방법을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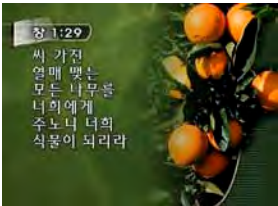


52

창 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본문: 창 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53

창 1:29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 1:2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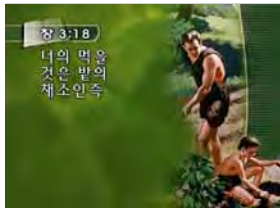
현대어로 이것들을 과일, 곡식, 견과류라 말한다.



55

이것이 그들의 음식이었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식생활 방법에 통해 영원한 젊음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 15-시간을 돌려 농자



56

(본문: 창 3:18)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 3:18. 과일과 곡식, 견과류는 대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총체적인 식사였다. 정말 그랬겠는가? 정말 그랬다.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근본 식생활을 충실 따랐을 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숙고해 보라.



57

(본문: 창 5:27)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므두셀라였다. 그는 구백 육십 구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 5:27



58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년을 살았고, 그의 손자는 239, 증손자는 175년을 살았다. 다윗 왕은 인간의 수명을 70세로 이야기 하였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는가?



59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대 홍수 이후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거의 1년 이상이나 방주에서 지낸 뒤 음식은 고갈되었다. 땅엔 먹을 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육식을 허용하였다. 모든 식물과 동물이 식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 하셨다.



60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짐승을 몇 마리씩 방주에 태울 것인지 지시하셨다.



61

(본문: 창 7: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6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 15- 시간을 돌려 농자



63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또는 부정  
한 짐승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다.



64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  
을 때, 그는 그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분명한 원칙을 주  
셨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가를 구분하셨  
다.



65

(본문: 신 14:6)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66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신 14:6. 그  
지침은 아주 단순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단지 두 가지 사항이다. 1) 굽이 갈라지고, 2) 되새김질을  
하고.



67

(비디오: 14 초) 4-6절에 의하면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사슴, 염소, 들 염소, 영양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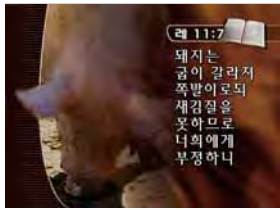
68

(비디오: 10 초) 일반적으로 식용되는 부정한 짐승은, 7-  
8절에 의하면, 낙타, 토끼, 돼지, 오소리 등이다. 두 가지  
구분을 기억하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면 이것은  
음식으로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있음을 명심하라.



69

예를 들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다. 하지만 새김질을 못하  
니 이것은 부정하다. 성경은 돼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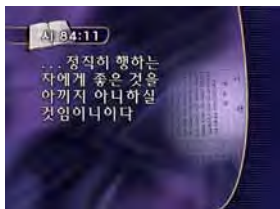
70

(본문: 레 11:7, 8) 돼지는 굵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71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 11:7, 8.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지구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것도 유익한 것을 감추어 금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건강에 유익한 것,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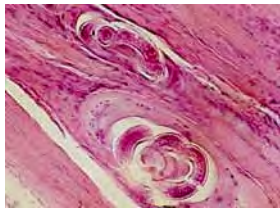
72

(본문: 시 84:11) ...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8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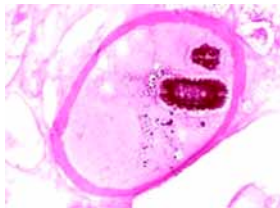
73

돼지는 온갖 것을 다 청소한다. 쓰레기를 포함한 음식물이 일단 돼지에게 섭취되면 금새 소화되어 단 몇 시간 내에 그의 살이 된다. 반면에 소는 복잡한 소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는 음식을 섭취한 뒤 48시간이 지나야만 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는 더 복잡한 배출 체계를 갖추고 있어, 몸에 들어온 많은 이물질들을 배출 할 수 있다.



74

돼지는 기생충들에 쉽게 감염된다. 그래서 감염된 돼지를 사람이 먹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기생충은 내장을 타고 내려오며 벽에 붙어 번식한다.



75

이 기생충들은 혈관에 파고 들고 다른 조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들을 유발시킨다. 이 질병은 종종 관절염이나 식중독으로 오인된다.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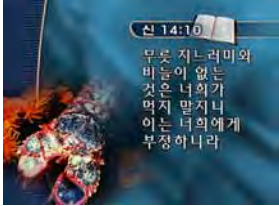
모세 시대의 미이라를 해부한 학자들은 그 미이라가 오늘날에 기승을 부리는 기생충들에 감염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또한 물고기를 위한 지침도 마련하셨다.

# 15- 시간을 돌려 농자



77

(본문: 신 14:9, 10)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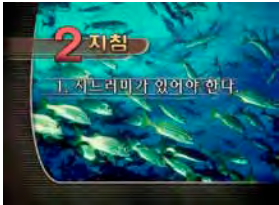
78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신 14: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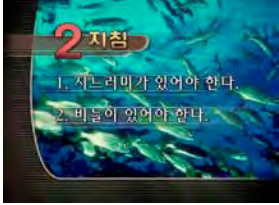
79

분명하다. 여기도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로 명시된다.



80

1)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



81

2) 비늘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먹는 물고기 중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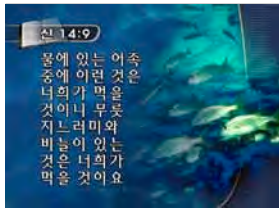
로마 린다 대학의 브루스 홀스티드 박사는 군인들에게 공급할 적합한 어족류를 찾기 위해 그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인간의 몸에 적합하고 해로운가 하는 것이었다.



83

선원이나 또는 한 지역에 고립되어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때로 어떤 물고기가 해롭지 않은지 알 필요가 있다. 홀스티드 박사가 연구를 다 마쳤을 때, 육군과 해군을 포함한 미 군대의 음식으로 적합한 어족류는 이미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15-시간을 돌려 농자



84

(본문: 신 14:9) 1)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되는지 잘 알고 계셨다.



85

그대는 새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을 것이다. 성경은 이문제도 중요하게 취급하셨다.



86

(본문: 신 14:11, 12)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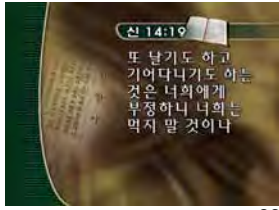
87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 신 14:11, 12.



88

(비디오: 14 초)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열하신다. 독수리, 솔개, 어응, 매, 새매, 까마귀, 타조, 다호마스, 갈매기, 학, 부엉이, 올빼미 등등.



89

(본문: 신 14:19)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19절



90

(본문: 레 3:17)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 하신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91

너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 3:17



## 15- 시간을 돌려 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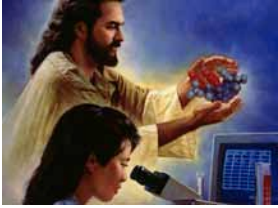
92

정통 유대인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 머리를 땅으로 두어 피를 쏟아 낸다. 그리고 그 고기를 소금물에 담궈 남은 피를 다 빼낸다.



93

지방은 잘라 내어 먹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피와 지방 섭취의 금지를 하나님이 주신 그저 의식적인 금기 사항으로만 여겼다.



94

하지만 근대 연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임을 밝혀 냈다.



95

피는 불순물, 바이러스 등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질병들이 피를 통해 감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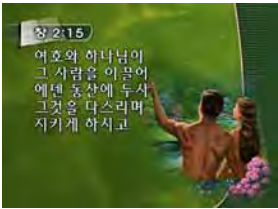
96

우리는 일상적인 식품과 육류에 들어 있는 고 지방이 콜레스테롤치를 현저히 높여 주며 이것은 심장병, 혈관계의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된다. 최상의 것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침만 충실히 따른다면 질병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다.



97

건강을 위한 운동.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용한 운동과 활동을 위한 노동을 주셨다고 기록한다.



98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 2:15

# 15-시간을 돌려 놓자



99

운동은 인간을 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운동하지 않는 몸은 퇴화한다.



100

운동은 근육 상태와 혈액 순환을 증진시킨다.



101

폐는 점점 더 원활해지고, 적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102

심장은 매 박동마다 더 원활하게,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한다. 산소를 포함한 에너지는 신체의 모든 조건을 증진시키는 조직에 전달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일의 양을 증가시켰고 더 많은 육체 노동을 요구하셨다.



103

(본문: 창 3:19)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창 3:19. 하나님은 역시 땅을 저주하셨고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게 하셨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 18절



104

하나님은 인간에게 운동이 필요함을 아셨고, 인간은 그의 몸을 위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은 악마의 소행이다라고 말한다.



105

(본문: 출 20:9) 하나님은 옛세 동안은 썬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9)라고 말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옛세 동안 일한다면 그들은 너무 피곤하여 다른 사소하게 다투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 15- 시간을 돌려 놓자



106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몸을 돌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식할 때 이해가 가능하다.



107

(본문: 고전 6:19, 20)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108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109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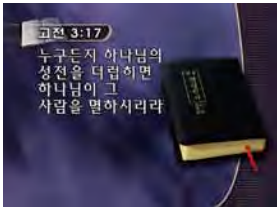
110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의해 그분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아들의 희생이었다. 인간은 것처럼 무한한 값으로 구속되었기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111

(본문: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몸을 파괴하는 어떤 것도 피해야 한다.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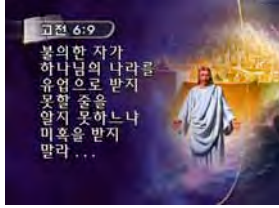
(본문: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 15-시간을 돌려 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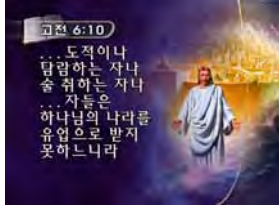
113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고전 3:17. 아마 그대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지 궁금할지 모른다. 바울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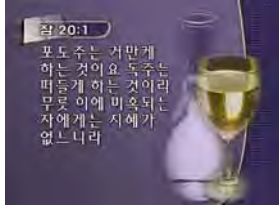
114

(본문: 고전 6:9, 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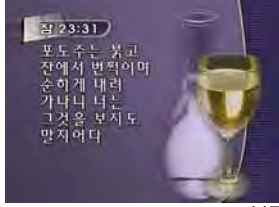
115

...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전 6:9,10. 성경은 부도덕과 탐하는 것도 자기 몸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으로 나열한다.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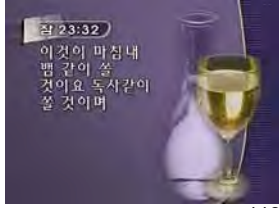
116

(본문: 잠 20:1)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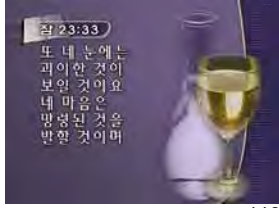
117

(본문: 잠 23:31-33) 다시 이렇게 말한다. 포도주는 불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 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118

이것이 마침내 뱀 같이 쏘는 것이요 독사같이 쏘는 것이며



119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잠 23:31-33.



120

술 중독은 건강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15- 시간을 돌려 놓자



121

또한 강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이나 치명적 상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술로 인한 것이다.



122

술은 비타민이 몸에서 유용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술 속에 함유된 당분은 몸의 면역체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123

술은 비만을 일으키고 사람의 수명을 적어도 12년 정도 단축시킨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10명 중의 한 사람은 결국 술 주정뱅이가 된다는 것이다.



124

최근 연구는 많은 뇌 세포가 부모나 그 이상의 조상이 마신 술의 영향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이다.



125

그리고 임신중의 어머니가 술을 마신 경우 그 태어난 아이는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큰 죄로 여긴다.



126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써야 한다. 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케 한다.



127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라도,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병이 준 해움을 피하였다.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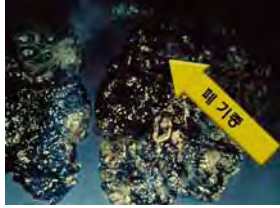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며, 죽음을 맛보기까지, 그의 마음을 혼란 시키는 어떤 것도 허락지 않으셨다.

# 15-시간을 돌려 놓자



129

다른 여러 일반적인 습관들도 좋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흡연가는 금연자보다 폐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1000 %나 높으며, 심장병 사망은 103%에 해당한다.



130

그리고 매년 미국에서 55,000명 이상이 폐기종 환자로 판정을 받는다. 동맥 경화에 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131

지방질 축적과 동맥의 축소는 피를 몸 전체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압축된 혈관엔 소량의 피만을 공급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시킨다.



132

흡연을 하는 사람은 역시 질병의 최 전방에 노출되는데 그것은 흡연시 산소가 뇌에 전달되는 양이 급격히 줄기 때문이다.



133

임산부가 흡연을 하면 태아의 혈관 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출산 시 사망하는 아이의 경우, 엄마가 흡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27%가 더 높다.



134

흡연은 미국에서만 매 해 5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불러온다.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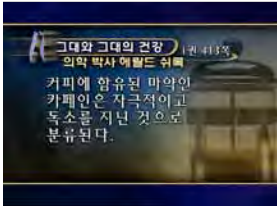
(본문: 출 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출 20:13.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 흡연, 술로 인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가?



136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일반적인 살인 도구는 칼, 포크, 그리고 숟가락 즉, 그들의 먹는 것이라 했다. 아마 여기에 컵과 병 즉, 음주를 포함시켜야 한다.

# 15- 시간을 돌려 놓자



137

커피에 함유된 마약인 카페인은 자극적이고 독소를 지닌 것으로 분류된다. 헤랄드 쉬록, 그대와 그대의 건강, 1권 413쪽



138

차와 콜라 역시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 모든 음료는 심장 질환과 관련되어 있고, 암, 방광염등을 일으킨다.



139

마약, 그대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매 몇 시간마다 홀로 어딘가로 들어가 혈관에 카페인 성분 등을 주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중독자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수 많은 사람들이 커피와 콜라를 마시며 사실은 마약 주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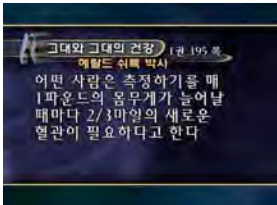
140

진정한 절제의 의미는 해로운 것을 피하고 이로운 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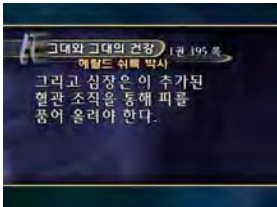
141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어 버린다. 과식은 역시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시킨다.



142

어떤 사람은 측정하기를 매 1파운드의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2/3마일의 새로운 혈관이 필요하다고 한다



143

그리고 심장은 이 추가된 혈관 조직을 통해 피를 품어 올려야 한다. 헤랄드 쉬록 박사, 그대와 그대의 건강, 1권 395 쪽.

# 15-시간을 돌려 놓자



144

그러므로 비만인 사람의 심장, 폐 등은 항상 과로를 해야 한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16가지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145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잘 유지하고 가장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책임 있고, 도덕적이고, 즐거운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분은 우리가 활력 있고 넉넉한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훈에 충실한가에 달려 있다.



146

휴식과 여유. 예수님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셨다. 사람들과 더불어 고된 하루를 보낸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47

(본문: 막 6: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막 6:31. 예수님은 우리의 일과 휴식, 여유 있는 삶에 균형이 있기를 바라신다.



148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잊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149

바쁜 일정으로부터 그대의 시간을 내는 것은 한가한 사막에서만 있을 법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큰 나무들이 있고 깊은 골짜기에 호수가 있는, 그래서 그대의 흥분된 가슴을 식혀 줄 어떤 조용한 장소를 찾기를 원할 것이다.



150

하지만 어떤 곳이든, 혼란한 군중들, 시끄러운 도시와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만약 그대가 조금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공을 거둔 것이다.



## 15- 시간을 돌려 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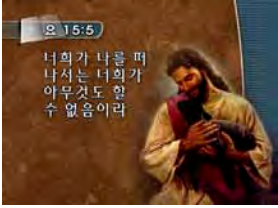
151

나님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늘을 맛보기를 원 신다. 나님은 그대가 새로 만들어질 늘에서 살 준비를 갖추기를 원 신다. 그 때는 영원 이 지구에 질병으로 인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152

그것 참 좋겠는데.라고 말 것이다. 나도 그곳에 있고 싶어, 지만 내가 극복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이 있단 말야.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나님은 그대 로 그 모든 것을 이루라고 기대 지 않는다.



153

(본문: 요 15:5) 사실 예수님은 너 가 나를 떠나서는 너 가 아무것도 수 없음이라 요 15:5. 우리의 으로 는 이 모든 습관들을 다 극복 수 없다. 우리 주님이 저기 서 계신다. 우리를 돕기 위 기다리신다. 바울은 그 비밀 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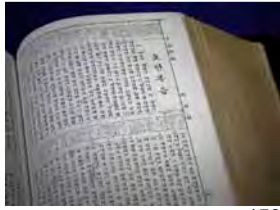
154

(본문: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수 있느니라 빌 4:13.



155

여인이 오늘 이와 같은 전도 에 참석 였다. 그 목사 님이 그녀를 방문 여 그녀가 다시 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 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 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전 연을 고 있거든요. 목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물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습관을 극복 길 바라신다고 믿나요? 예 그래요. 지만 전 그렇게 수 없어요. 전 너 무 연약 거든요. 그는 말 다. 성경 절을 께 읽을까요? 그리고 그는 성경 요일 5:14절을 다. 그를 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 면 들으심이라. 메리 아주머니, 당신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신 시나요? 아니요라고 대답 다. 좋아요. 왜냐 면 성경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 니다. 누구 안에서 담대 을 얻는다고 말 니 까? 예수님 안에서요라고 대답 다.



156

그는 또 다른 성경 절을 읽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담배 끊은 것을 기지 말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메리를 다시 물었다. 이것을 성경에 적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성경에 이것을 적어도 될까요? 아니오, 난 성경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말기를, 당신이 담배를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 십니까?.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녀는 대답 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약속 신을 신 시겠지요? 예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더 물어도 될까요? 언제 당신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 내에? 은 달, 은 3달 내 입니까? 그는 성경을 고요 1:12절을 고 읽었다. 영접 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계속 서 말 다. 오늘 이제 당신이 예수님에 대 신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뜻대로 구 것을 분명 우리에게 락 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담배를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구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7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당신도 건강 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영원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라. 그대의 손을 잡기 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1

그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비디오: 10 초) 1992년 3월, 한 전도회가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열렸다. 그 전도회 기간의 어느 하루 저녁 집회가 끝난 뒤 전도회 강사는 작은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세차게 열렸다.



3

거칠게 보이는, 수염이 덩수룩한 젊은 남자가 그 문에 들어섰다. 그는 확신에 찬 얼굴로 강사에게 접근 했고 그 강사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강사의 통역자가 그 가운데 서 있었다. 즉시 그 남자는 그의 팔을 흔들면서 러시아 말을 해 대기 시작했다. 통역자는 이 사람이 모스크바의 악명 높은 범죄단의 일원이라 설명했다. 그는 28회나 감옥에 갇힌 흉악범이었다. 죄악으로 가득 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그는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 강사는 조용히 요 1서 1:9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말씀을 인용하였다. 그는 그 흉악한 사람에게 십자가 우편 강도, 십가자가에서 구원 얻은 그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 흉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날 우리에게 동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 사실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확신 있게 말했다.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 내렸고 그 젊은 러시아의 악명 높은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다.



4

약 1년이 지난 후, 그 전도 강사는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새로 조직된 교회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노래하는 무리들 가운데 1년 전에 회심하였던 그 범죄자를 발견하였다.



5

그 회심한 사람의 얼굴엔 내적 평안이 스며 있었다. 그 사람은 행복을 발산하고 있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성경의 방법대로 침례를 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침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증거 한다. 침례는 변화된 인생을 말한다.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변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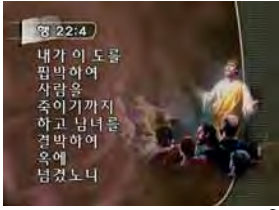
6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예루살렘에서 제일가는 스승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사울은 유대 종교에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 종교의 수호를 위해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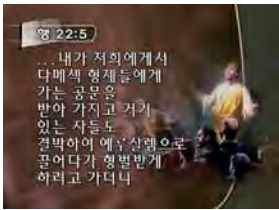
7

하지만 사울은 그의 회심 이후에 이렇게 말한다.



8

(본문: 행 22:4, 5)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9

...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행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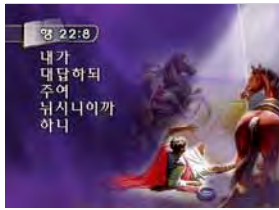
10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한 빛이 비쳐 내렸고 그를 땅에 쓸어 뜨렸다.



11

(본문: 행 22:7, 8) ...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행 22:8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한 소리가 들렸다.

12



행 22:8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3



행 22:10  
...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락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14



행 22:10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5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16



3일 동안 사울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핍박을 생각하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이라 고소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짓 증언, 거짓된 고소는 결국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를 대항한 거짓 증언과 고소였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울이 당한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사울은 이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이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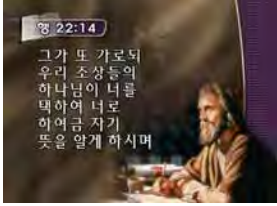
그는 3일 동안 완전한 암흑 가운데 보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18

# 16-새 출발



19



20



21



22



23



24



25

(본문: 행 22:13-15) ...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  
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  
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행 22:13-15.

(본문: 행 22:16)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는  
왜 주저 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행 22:16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영원히 죄사함 받은 방  
법이였다. 침례는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  
미하였다. 바울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가 자행한 일들을  
침례를 통해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하심이 필요함을 알았다.



26

그가 침례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박해자에서 그의 일생을 다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였다.



27

그대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 적이 있었는가? 그대의 모든 지난 과거의 과오를 말끔히 씻고자 소망해 본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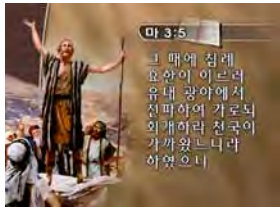
28

(비디오: 8 초)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의 침례 예식을 제정하셨다. 회개하고 물속에 침례를 받는 것 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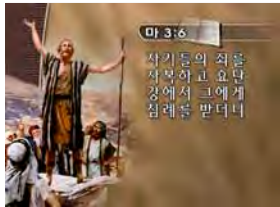
29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기별을 외치던 침례 요한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요단 강으로 향하던 모든 길은 요한의 기별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30

(본문: 마 3:5, 6) 그 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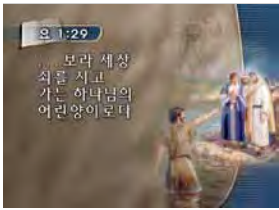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마 3:5, 6.



32

목수 일을 하던 목공소의 문을 닫고,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한 예수님은 요단 강을 향해 떠났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설교를 멈추었다.

# 16-새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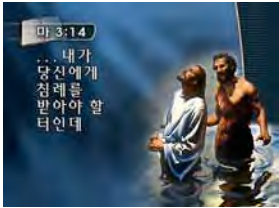
(본문: 요 1:29)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 1:29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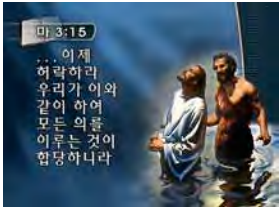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참 어린 양을 알아 보았다. 예수님이 그에게 침례 베풀 것을 요청하였을 때 그는 주저하였다.

34



(본문: 마 3:14) ...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마 3:1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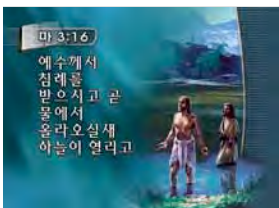
(본문: 마 3:15) ...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 3:15. 요한은 예수님이 회개할 어떤 죄도 없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보여 줄 필요도 없음을 보셨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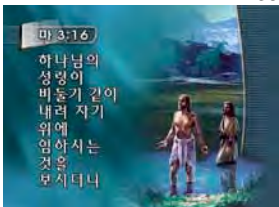
예수님은 그러나 침례 받기를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본을 남기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 강에 깊이 잠겨 침례의 문자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37



(본문: 마 3:16, 17) 성경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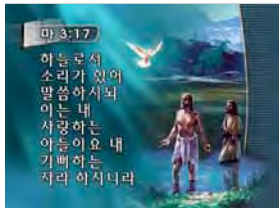
38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39





40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17. 비둘기의 날개 위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용기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 전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41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 요단의 진흙 독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그분을 자신의 아들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소개하였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분의 모든 공생애의 시작을 알렸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42

(본문: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43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행 10:38. 예수님 자신은 침례를 베풀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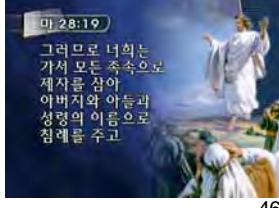
44

(본문: 요 4:1, 2)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 보다 많다 하는 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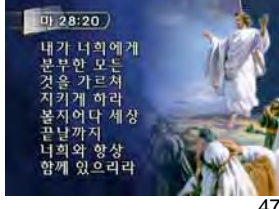
45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 4:2.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의 기록을 살펴 보자.



46

(본문: 마 28: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47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 20.

## 16-새 출발



48

아마 그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침례를 주었을까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49

(본문: 엡 4:5)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중의 하나인 바울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라고 말한다. 엡 4:5.



50

십자가 이후에 침례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사도 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에 관한 이야기이다.



51

빌립이 가자로 향하는 먼지 나는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이집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다녀 가는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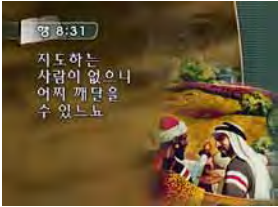
52

이제 그 내시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다. 빌립은 달려가 그 남자를 보고 물었다.



53

(본문: 행 8:30, 31) 그 국고 맡은 자는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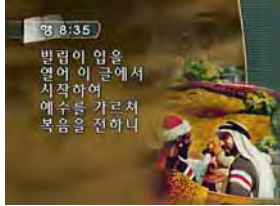
54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55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오르게 했다. 빌립은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음을 발견했다. 내시는 빌립에게 그 해석을 청했고 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삶과 메시아의 십자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었다.



56

행 8:35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

(본문: 행 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행 8:35.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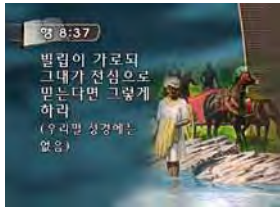
그 병거에서 이루어진 성경 연구가 어떠 했겠는가?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침례의 상징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르쳤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을 만났을 때 이디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하였다고 기록하기 때문이다.



58

행 8:36  
...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실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본문: 행 8:36, 38) ...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행 8:36.



59

행 8:37  
빌립이 가로되 그대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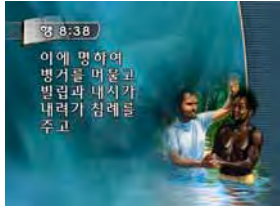
빌립이 가로되 그대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우리말 성경에는 없음)



60

행 8:37  
그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37절이 없음)

그가 대답하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우리말 성경에는 37절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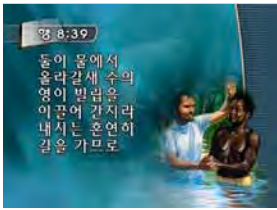


61

행 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내려가 침례를 주고

(본문: 행 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내려가 침례를 주고 행 8:38.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물속에 잠그는 침례를 베풀었다.

# 16-새 출발



(본문: 행 8: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62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행 8:39.

63



이것이 바로 옛 삶을 묻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분명하게 잠기는 침례 예식은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침례의 모습이였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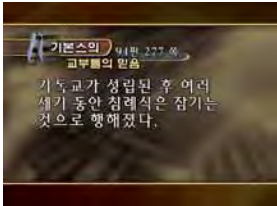
사실 신약 성경에는 다른 침례 방법이 묘사된 곳이 없다. 여기 1세기 빌립보에 있던 교회에 침례 탕이 있었던 사진이 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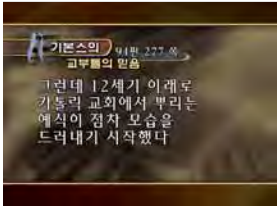
이 두 그림 모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했음을 암시하는데 이런 예식은 12세기와 13세기까지 계속 되었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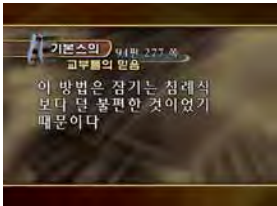
기본스는 기독교가 성립된 후 여러 세기 동안 침례식은 잠기는 것으로 행해졌다고 전한다.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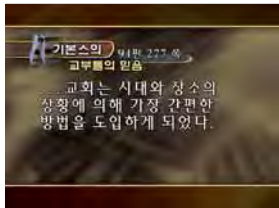
그런데 12세기 이래로 카톨릭 교회에서 뿌리는 예식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8



이 방법은 잠기는 침례식 보다 덜 불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69



70

... 교회는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의해 가장 간편한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교부들의 믿음, 94판, 277쪽.



71

오늘날 많은 관광객들이 터키의 에베소 성지에 위치한 페허가 된 성 요한의 교회를 방문한다. 이 교회는 제자 요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흥미 있는 것은 침례 탕이다. 특별히 그 모양인데, 12피트 넓이와 4피트 깊이로 되어 있고 양 쪽으로 계단을 만들어 오르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72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사의 사탑이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피사 성당 앞에 위치한 종탑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73

성당과 사탑을 따라 침례탕이 있었는데 둥글게 된 건물 안쪽에 있었다.



74

20피트 넓이에 4피트 깊이인 이 침례 탕은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13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침례는 잠기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75

유럽에는 이런 거대한 침례탕을 가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다. 4세기부터 14세기 까지 지어진 66개의 침례탕이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었다.



76

침례 의식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침례를 받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77



(본문: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78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79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들어가려면 물로써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로써 거듭 난다는 것은 후에 침례를 나타낸다.

80



예수님은 단지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막 16: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신다.

81



(본문: 막 16:16)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막 16:16.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그대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고, 그대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82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이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빌립에게 내시가 침례를 받기 위해 요청할 때 빌립은,

83



(본문: 행 8:37) 그대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 행 8:37(우리말 성경에는 없음).

84



85

(본문: 마 28:19)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두 번째 단계를 주셨는데, ... 너희는 가서 ... 모든 족속을 가르쳐 [킹제임스 역] ... 침례를 주고 ... 라고 하셨다. 마 28:19. 여기 번역에 의하면 가르치는 것이 침례에 선행한다.



86

(본문: 마 28:20) 예수님은 침례 후보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87

다시 말하면, 거룩한 침례 예식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들을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란 교리에 대한 지식 이상인 것이다.



88

(본문: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 28:19.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는 예수님이 동의하실 수 없는 어떤 것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89

세 번째 단계는 개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90

(본문: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행 3:19.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 죄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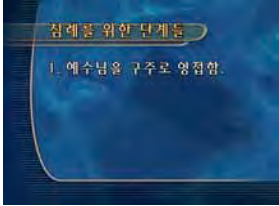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접촉될 때에만 가능하다.

# 16-새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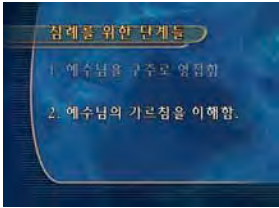
92

침례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들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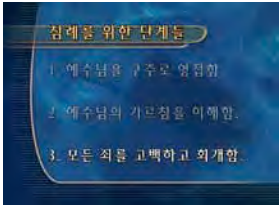
93

1.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94

2. 침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95

3.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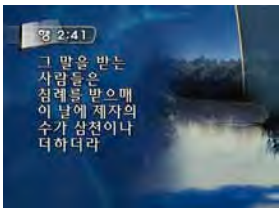
96

아마 그대는 더 나은 삶을 향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침례를 준비하는 이 세 단계를 따름으로 인해 그대는 진실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대는 변화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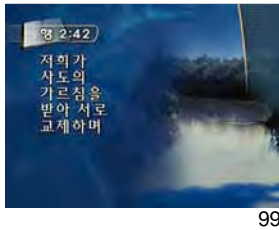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라고 묻는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 가르친다. 오순절에 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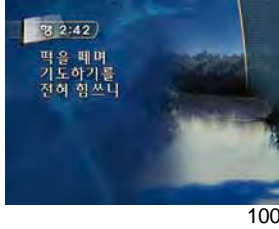
98

(본문: 행 2:41, 42)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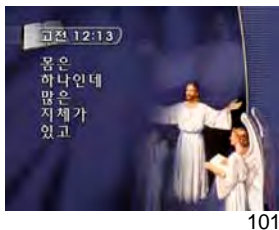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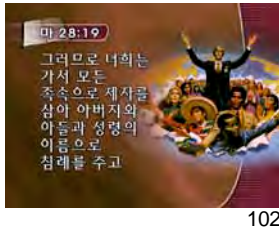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쓰니 (행 2:41, 42). 이 구절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행전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본문: 고전 12:13) 고전 12:13절에서 설명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라고 한다. 28절은 그 몸은 바로 교회임을 분명히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갈망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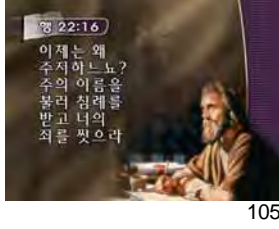
(본문: 마 28:19, 20)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8:19,20. 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밤 예수님은 그대가 그대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의 성경을 믿고 지키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기를 호소하신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대에게도 새 삶을 주실 것이다.



(본문: 행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행 22:16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107

요 3:2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본문: 요 3:2) ...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108

요 3:2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2.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정확히 아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2.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정확히 아셨다.



109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문: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10

요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111

요 3: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본문: 요 3: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112

요 3:4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요 3:4.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요 3:4.



113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본문: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114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여기에 예수님은 침례를 통한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 사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115

니고데모는 의심할 것 없이 자존심 강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사실로 인해 하늘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116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에 의해 상징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온전한 변화를 옷 입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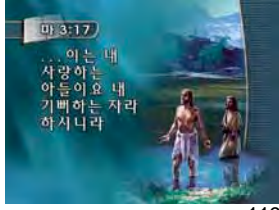
117

이 침례 예식이 바로 아버지께 의해 주어지고 아들에 의해 성취된 거룩한 희생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이다.



118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의 시작이다.



119

(본문: 마 3:17) 그리스도의 침례 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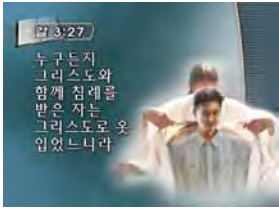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옴과 동시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 16-새 출발



121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렸다. 그와같이 침례를 받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예식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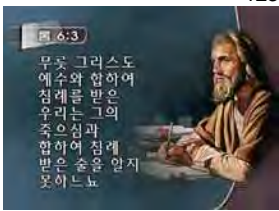
122

(본문: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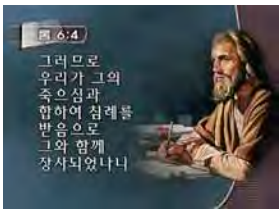
123

(비디오: 10 초)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침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3 가지 위대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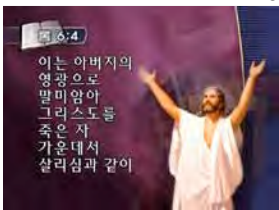
124

(본문: 롬 6:3, 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롬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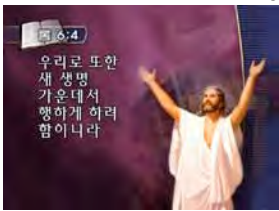
125

그런 다음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126

(본문: 롬 6:4)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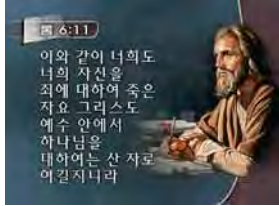
127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4 절. 침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128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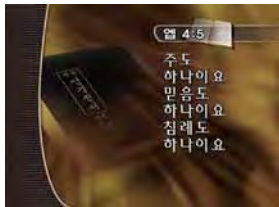
129

(본문: 롬 6:11) 바울은 계속해서 이른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대는 이제 왜 침례가 그리스도인 삶의 아름다운 한 부분인지 알겠는가?



130

이것은 마치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결혼 예식과 같다. 결혼은 그들이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결합 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131

(본문: 엡 4:5)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엡 4:5. 그런데 오늘날 침례에 대한 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본다.



132

어떤 교회는 뿌리는 예식을, 어떤 교회는 붓는 예식을, 어떤 교회는 잠그는 예식을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침례도 하나이요'라는 말과 일치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예식이 옳은 것이며 언제부터 이 예식에 혼란을 가져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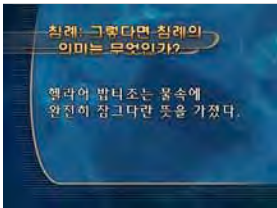
133

우리는 단 한가지 질문만 가지면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34

성경은 요한이 요단 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한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는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분은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



헬라어 침례의 의미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135



한번은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꿈에서 본 마케도니아 사람의 초청을 받아 빌립보에 갔다.

136



그들은 설교를 통해 빌립보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137



폭도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생명은 위협을 느꼈다. 그 폭도들은 두 사람의 옷을 찢었고 관원들은 그들을 때렸다.

138



그들은 도저히 도망할 수 없이 착고에 채여 감옥에 수감되었다.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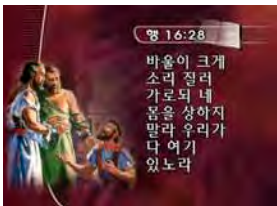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며 문들이 열렸고 착고가 벗어졌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달려왔고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두 죄수가 도망한 줄로 확신하였다.

140



그는 칼을 빼어 자살을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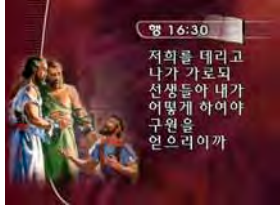
(본문: 행 16: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행 16:28)

142



143

간수는 놀랐다.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다. 간수는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달려가 불을 켜고 무릎을 꿇어 부복하였다.



행 16:30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144

(본문: 행 16:30, 31)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행 16: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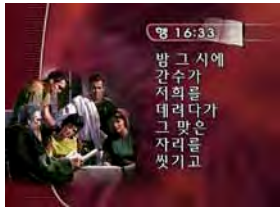
145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46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는 그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겼다.



행 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147

(본문: 행 16: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행 16:33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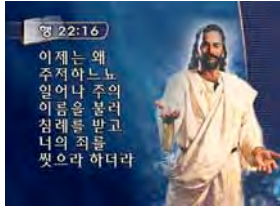
148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행 16:33.



149

친구들이여, 만약 그대가 전에 침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잠기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이 모본을 통해 남기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동일한 질문과 초청이 그대에게 주어졌다.



행 22:16  
이제는 왜 주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50

(본문: 행 22:16) 이제는 왜 주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행 22:16.



151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대가 침례를 위해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는 그대를 인해 기뻐하노라는 동일한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대가 침례를 받을 때, 그대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면에서 침례는 결혼식과 같다. 결혼을 하기 전,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빠진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 사랑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결혼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이다. 침례도 이와 동일하다. 침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침례는 가족과 친구와 교회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는 공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공적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과거는 상징적으로 장사 지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는 갔다. 장사 지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저한다. 그들은 다시 옛 생활로 회귀한다. 침례는 그대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분은 그대에게 용서를 제공하신다.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을 주신다. 지금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침례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였다면 단상 앞으로 나오길 요청한다. 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기도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길 요청한다. 기도하기 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길 원한다. 예수님, 나는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라. 단 앞으로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 주저 하지 말라. 앞으로 나오라. 앞으로 나오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한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

이 땅의 가장 큰 기만



2

(비디오: 19 초) 역사상 가장 큰 사기 가운데 하나는 1960년대 말에 있었다. 데이빗 스테인이란 한 비상한 프랑스 청년이 고대 걸작을 400점 이상이나 위조해 그렸다. 피카소, 샤갈, 르느와르, 반 고흐, 그 밖의 작품을 위조해 그린 것이다. 그는 그것이 진짜처럼 하기 위해 그들의 서명까지 똑 같이 위조 했다. 그것들은 진품과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 같았다. 그 작품들은 믿을 만 하다고 평가 되었다.



3

(비디오: 9초) 오늘날 그 400점 중 110점이 발견되었고, 가짜로 판명 되었다. 스테인은 1972년에 체포되어 프랑스 파리의 상심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는 다시 1980년에 석방 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스테인은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의 서명을 사용한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 먹었다.



4

(비디오: 12 초) 오늘날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요 강연자가 되었다. 그의 강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그는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었을까? 가짜를 찾아내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아마 동의할 것이다. 스테인은 늘 '가짜는 정말 전문가라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강의 했다. 그런데 아무리 가짜를 잘 만드는 사람이라도 사단에 비하면 소위 새 밭의 피이다.



5

(비디오: 7 초) 사단은 속이고, 모조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력 혹은 기관을 통해 일한다. 만약 사단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배후에서 일한다.



6

진리와 오류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결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것이 수 천 년 동안 일해 온 방법이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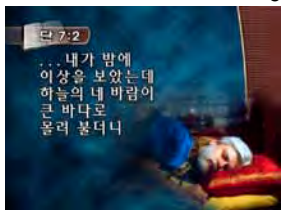
7

하나님은 우리를 이 대 기만자의 횡포에 그냥 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 모든 기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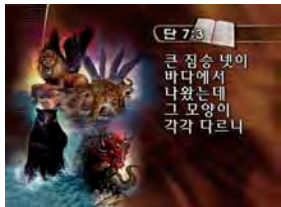
8

성경은 다니엘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들의 꿈을 꾸었다고 기록한다.



9

(본문: 단 7:2, 3) ...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10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단 7: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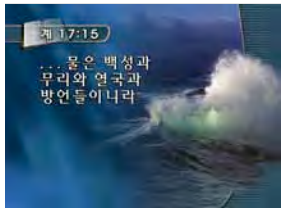
11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 오다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12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예언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준다. 먼저, 이 꿈에서 물이 나온다.



13

(본문: 계 17:15) ...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같은 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짐승들이 상징하는 것은



14

(본문: 계 7:17, 23)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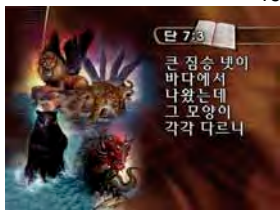
15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단 7:17, 23.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짐승들은 왕 또는 왕국이라 말한다.



16

인구가 많은 곳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어떤 나라들을 말한 것이었다. 단 7:3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묘사를 살펴보자.



17

(본문: 단 7: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18

(본문: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단 7:4



19

(본문: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20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단 7:5



21

(본문: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단 7:6



22

(본문: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 강하며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23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는 밧로 밧았으며



24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단 7:7.



25

이 모든 짐승들은 보통 짐승들이 아님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이상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한 특성을 가진 짐승들이다.



26

다니엘이 네 짐승을 회상하고 있을 때, 그 느브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것을 기억하였음에 틀림 없다. 왕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이 두 꿈은 고대 세계를 다스렸던 4나라와 연관된 것이었다.



27

(비디오: 6 초)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제국들.



28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나라들은 끝이 나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29

다시 이 짐승들로 돌아가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지 자세해보자.



30

(본문: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단 7:4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31



이 첫 번째 왕국, 바벨론을 상징하기 위하여 짐승의 왕인 사자(금속 신상에서는 금 머리)보다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32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 나라를 표현하기 위하여 자주 사자를 사용하였다. 고고학자들은 폐허가 된 바벨론에서 날개 달린 사자의 문양을 많이 발견하였다.

33



사자가 과 정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브갓네살 왕의 군대는 세계를 무섭게 정복하였다. 바벨론이 세계를 신속 정복하고 다스린 것은 독수리의 날개에 상징되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하게 사용하신 상징을 주목해 보자.

34



렘 4: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니

(본문: 렘 4: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니

35



렘 4:7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렘 4:7

36



그 교만하고 위풍 당당했던 바벨론 왕은 그의 나라가 영원 하길 바랬다. 그는 다른 나라가 그의 나라를 이을 것이란 이상에 불쾌함을 느꼈고 그가 지은 건물의 벽돌들에 영원 할 지어다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37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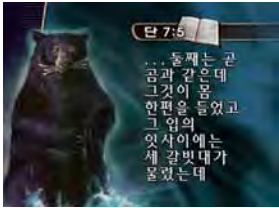
(비디오: 4 초)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바벨론 왕국은 (금속 신상의 금 머리, 다니엘의 꿈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 그 영광을 다하였다.

38



(비디오: 3 초) 곰으로 상징된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이 동일한 나라는 금속 신상에서 팔장을 끼고 있는 은으로 상징되었다. 다니엘이 곰에 관한 꿈을 꾸고 이렇게 말했다.

39



(본문: 단 7:5) ... 둘째는 곧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40



다니엘은 그 곰의 잇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려 있다고 말했는데, 성경은 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다.

41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그 세 갈빗대는,

42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라 믿으며 이 왕국들은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나라들이다.

43



페르시아 제국은 2 세기 동안 다스렸는데 바벨론 보단 못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다른 나라가 일어났다.

44



(본문: 단 7:6) ...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45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46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단 7:6.



47

곰의 움직임은 표범의 움직임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맞서 막아낼 방도가 없었다.



48

(비디오: 4 초) 느브갓네살의 꿈에서 늦 배는 세 번째 왕국인 그리스를 상징했고, 다니엘의 꿈에서는 표범을 상징했다.



49

네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속한 정복을 의미한다. 그는 기원 전 331년 알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정복하고, 12년이 채 가지 전에 그 당시 세계를 모두 정복하였다. 표범의 4 머리는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뉠 것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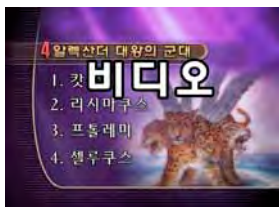
50

(본문: 단 8:22) ...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 단 8:22.



51

역사는 그리스 제국이 정확 4 나라로 나뉘었다고 적고 있다. 알렉산더가 아벨라 전투 후 7년이 지난 3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런데 그를 장사 지내기도 전에 시작된 권력 싸움이 그의 친척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 후에는 그의 군대 장군들에게로 이어졌다. 마침내 알렉산더의 나라는 네 장수에 의해 나뉘어 졌다.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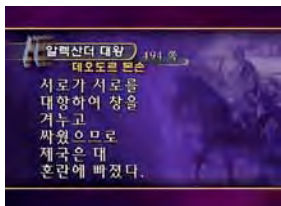
(비디오: 9 초) 이제 표범, 혹은 그리스는 마침내 네 머리를 가진 것이다. 캣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그리고 셀루쿠스.

# 17- 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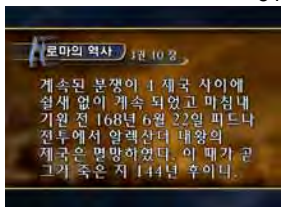
53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각각의 머리는 서로 으뜸이 되려 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이스 제국에서 발생되었다. 알렉산더의 4 장수들은 서로 그 제국을 차지하려 하였다.



54

서로가 서로를 대항하여 상을 겨누고 싸웠으므로 제국은 대 혼란에 빠졌다. --알렉산더 대왕, 494 쪽.



55

계속된 분쟁이 4 제국 사이에 쉬새 없이 계속 되었고 마침내 기원전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멸망하였다. 이 때가 곧 그가 죽은 지 144년 후이다.--로마의 역사, 3권 10장.



56

그런데 그리이스 제국을 무너뜨린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어떤 나라인가?



57

천사는 넷째 짐승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했다. 이 짐승은 엄청난 을 상징하고 있음이 틀림 없으며 그 강한 철 이는 모든 것을 부숩뜨렸다. 그것은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였다.



58

이 상징은 로마 제국에 안성 맞춤이다.



59

로마는 모든 이전 나라들보다 잔인하게 세상을 짓밟았다. 로마는 모든 나라들, 백성들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노예로 삼았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60

(비디오: 4 초) 이 무서운 짐승은 철 이를 가졌다. 이것은 금속 신상의 네 번째 부분, 철로 된 두 다리와 일맥 상통한다. 다니엘은 무서운 이 짐승에 주목하고 특별 그 머리의 10 뿔을 주시한다.



61

(본문: 단 7:8) 내가 그 뿔을 유심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62

내가 그 뿔을 유심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킹제임스 역



63

(본문: 단 7:24)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뿌리까지 뽑혔으며 단 7:24



64

(비디오: 4 초) 의심할 것 없이 흠과 철로 상징된 금속 신상의 열 발가락은 로마의 분열로 야기된 10 나라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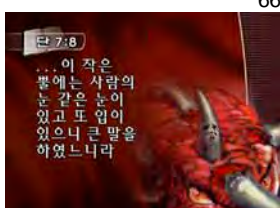
65

서기 476년 북 유럽의 야만족이 로마를 침공했다. 그리고 로마는 열 개로 나뉘어졌고 여전 일곱 개는 남아 있다.



66

그런데 다니엘의 흥미를 끈 것은 10 뿔 가운데서 자라난 한 다른 작은 뿔이었다. 이것은 먼저 있던 3 뿔을 뿌리 채 뽑아 버렸다.



67

(본문: 단 7:8) ...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으니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단 7:8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이 작은 별이 다니엘을 혼란스럽게 했다.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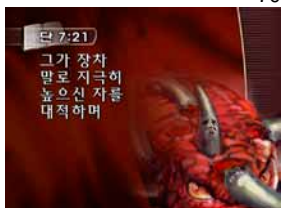
(본문: 단 7: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69



왜 이 작은 별의 모습은 다니엘을 번민케 했는가?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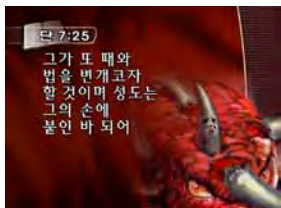
(본문: 단 7:21, 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71



또 지극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72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73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74



다니엘은 이 예언이 세상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

75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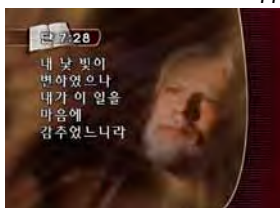
76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억압할 것이었다. 명백하게 이것은 박해의 세력을 의미했다. 사단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여 박해하고자 사용되는 이나 권세를 말한다.



77

(본문: 단 7:28) ... 나 다니엘은 중심이 변민하였으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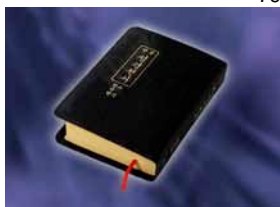
78

내 낮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단 7:28, 신 국제 역



79

이 작은 뿔은 누구인가?



80

작은 뿔에 관한 성경의 묘사를 더 살펴보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확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 혹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묘사했다.



81

(본문: 단 7:7) ...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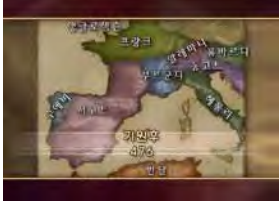
(본문: 단 7:24) 다니엘은 열 뿔을 일어날 열 왕이라 말한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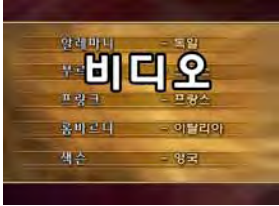
83

네 번째 나라가 멸망한 뒤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로마 제국의 땅에서 10 개의 작은 나라들이 생길 것을 말한다. 역사는 다니엘의 이 예언을 확증해 준다.



84

역사가들은 로마의 분열이 서기 476년에 끝이 났다고 말한다.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엘리오트에 의하면 서기 351-476년에 야만족들이 로마에 침범했다고 기록한다.



85

(비디오: 20 초) 아래 목록은 그 당시 게르만 족의 이름과 오늘날의 이름을 정렬한 것이다. 알레마니-독일, 부르군디-스위스, 프랑크-프랑스, 색슨-영국, 롬바르디-이탈리아, 수에비-포르투갈, 서고트-스페인, 그리고 헤룰리, 동고트, 반달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86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열 뿔이 있는 것을 보았다. 예언에 의하면, 작은 뿔은 그 10 뿔 이후에 또는 로마의 분열된 땅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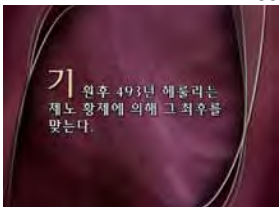
87

(본문: 단 7: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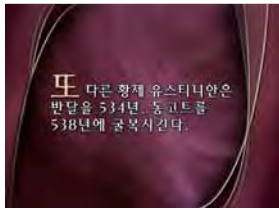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 시킬 것이며 단 7:24.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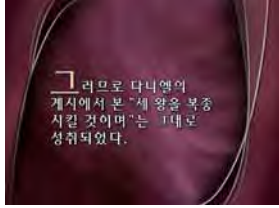
기원후 493년 헤룰리는 제노 황제에 의해 그 최후를 맞는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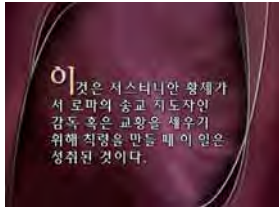
90

또 다른 황제 유스티니안은 반달을 534년, 동고트를 538년에 굴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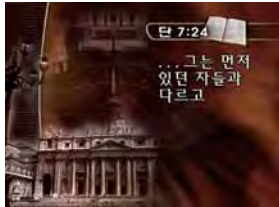
91

그러므로 다니엘의 계시에서 본 세 왕을 복종 시킨 것이며는 그대로 성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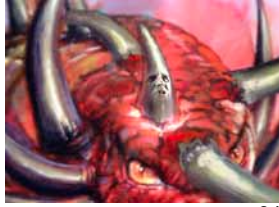
92

저스티니안 황제가 서 로마의 종교 지도자인 감독 혹은 교황을 세우기 위해 칙령을 만들 때 이 일은 성취된 것이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다른 왕국과는 다르다고 예언하였다.



93

(본문: 단 7:24) ...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94

다른 왕국은 정치적인 세력이다. 그러나 이 작은 뿔은 정치 조직에 영향을 주던 교회였다.



95

예언가의 손은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던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즉, 로마 교회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적하고 있다.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나열한다.



96

(본문: 단 7: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단 7:21.



97

(본문: 단 7:25) ...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 25절.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98

중세 시대의 교회는 정말 박해에 연류되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다. 십자군 전쟁, 왈덴스인들 박해, 30년 전쟁, 종교 재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99

순교자들의 타오르는 화형대는 모두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불의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발견한다.



100

(본문: 단 7:25) ...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 단 7:25. 교황권은 중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변경코자 했는가?



101

그렇다 그들은 십계명을 그들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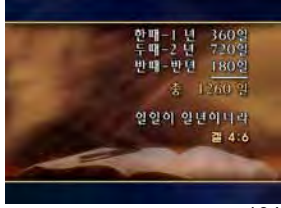
102

우리가 공부할, 세력에 대한 마지막 특징으로 제시된 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 정확한 기간에 대한 것이다.



103

(본문: 단 7:25)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단 7:25. 여기서 성경의 더 많은 상징들을 본다.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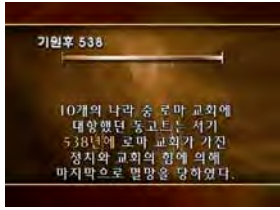
한 때는 1년을, 두 때는 2년 혹은 720일(한 달은 30일)을 나타낸다. 반 때는 반년 혹은 180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1년 360일에 720일, 그리고 180일은 1260 일이 된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05

(본문: 겔 4:6) 에스겔에 의하면 예언에 있어서 하루는 1년을 나타낸다. ... 일 일이 일 년이니라 겔 4:6. 그러므로 예언상의 일 일은 1년이며,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게 한 기간은 곧 1260년이 된다. 역사는 이 기간을 정확하게 입증한다.



106

10개의 나라 중 로마 교회에 대항했던 동고트는 서기 538년에 로마 교회가 가진 정치와 교회의 황에 의해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였다.



107

이 일이 있는지 정확 1260년 후인 1798년에 로마 교회의 정치적 은 나폴레옹 군대의 벨티어 장군에 의해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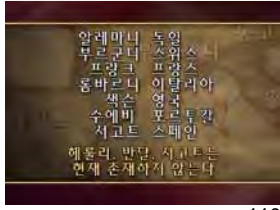
108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공부 할 때 이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나올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이 특징들을 살펴 보자.



109

1. 이 작은 뿔은 로마가 붕괴한 뒤 열 나라로 분열된 서 유럽 가운데서 나온다. 단 7:8



110

2. 이 작은 뿔은 전에 있던 세 뿔을 뽑는다. 이 세 뿔은 세 왕국인데 그것은 헤롤리, 서고트, 반달이다. 이 세 나라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둘 수 없는 아리안 신조를 가진 자들이었다. 단 7:8.



111

3. 예언은 이 작은 뿔은 다른 뿔들이 성립된 이후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단 7:20. 이것은 이 왕국이 서기 476년 이후에 성립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12

4. 이 세력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동시에 종교적인 왕국이다. 단 7:24.



113

(본문: 단 7:21, 25) 5. 이 작은 뿔은 성도를 괴롭게 한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단 7:21, 25.



114

(본문: 단 7:25) 6. 이 세력은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력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단 7:25.



115

(본문: 단 7:25) 7. 예언은 이 세력이 1260년 동안 군림할 것이라 말한다. 성경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던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말한다. 단 7:25.



116

그대는 이 예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 어떤 세력임을 분명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로마 교회이다.



117

이제 다니엘의 이 엄청난 예언의 마지막 절정으로 들어가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행복한 결말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18

다니엘이 이상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종교적인 주도권 쟁탈을 보고 있을 때



119

그의 주목은 갑자기 지구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20

(본문: 단 7:9, 10)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앉으셨는데



121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122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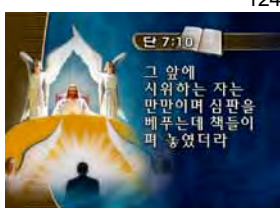
123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124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125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9, 10.



126

다니엘은 옛적부터 상계신 나뉘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127

(본문: 단 7:22) 다니엘이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주목자. 예적부터 상계신 자가 와서... 단 7:22. 이제 재판정은 심판을 베풀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28

(본문: 단 7:10) 옛적부터 상 계신 자가 와서 ... 단 7:10. 다니엘은 늘에서 벌어드는, 하나님이 성도를 괴롭게 그 작은 불을 심판 시는 장면을 보았다. 다니엘은 그 심판의 결과를 또 보았다.



129

(본문: 단 7:26) 그러나 이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130

끝까지 멸망 것이요 단 7:26



131

다니엘은 하나님이 작정 시고 심판이 준비된 뒤 아주 특별 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다.



132

(본문: 단 7:13)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늘 구름을 타고 와서



133

옛적부터 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단 7:13.



134

인자 같은 이라고 표 된 영원 심판대 앞에 선 이 사람은 누구인가?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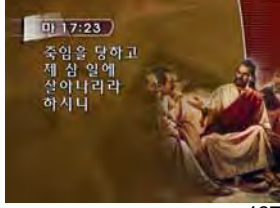
예수님은 이 단어를 신약에서 40 이상이나 사용 신다. 놀라는 그의 제자들을 여,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36

(본문: 마 17:22, 23) ...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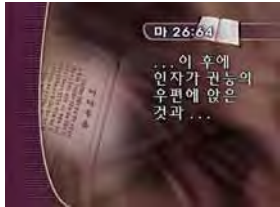
137

죽임을 당 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마 17:22, 23. 예수님을 배반 유다는 예수께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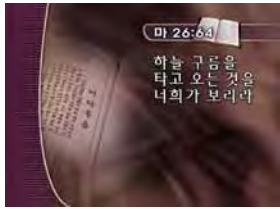
138

(본문: 눅 22:48) ...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눅 22:48, 신 국제 역. 그러나 가장 저 선언은 예수님을 재판 던 대제사장에 의 주어진 것이었다.



139

(본문: 마 26:64) ... 이 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



140

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 가 보리라 마 26:64. 실 수 이 없는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라 지칭 고 있다.



141

예수님은 그분을 개인의 옹 자로 받아들인 모든 죄인의 변 인으로 오신다. 그분은 우리의 변 사로서 결코 법정 에서 패소 이 없을 것이다. 성경 본문은 책들이 펼쳐졌다고 말 다.



142

(본문: 단 7:10) ...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단 7:10 단.



143

이 책들은 악 동이든 선 동이든 인간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 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 들, 그리고 우리가 그 기 를 취급 모든 것들 을 포 고 있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44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 면 나님 앞에 펼쳐질 재판은 반드시 승소 것이다. 예수님, 우리 구주께서 죽음을 통 우리가 범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145

우리의 동을 기록 모든 것들이 펼쳐질 그 날,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는 우리의 죄를 대신 것이며, 나님이 유일 게 주목 실 것은 우리의 죄 된 기록 대신 그리스도의 없는 생애일 것이다.



146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 신 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마 다니엘은 그 작은 불에 관 , 마침내 그 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 지대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147

결국 모든 권세는 인자에게 돌아가고 영원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148

(본문: 단 7: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149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 는 자로 그를 섬기게 었 으니



150

그 권세는 영원 권세라 옮기지 아니 것이요



151

그 나라는 폐 지 아니 것이니라 단 7:14. 다니엘은 이 나라에 대 더 좋은 소식을 전 다.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단 7: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 열국의 위세가  
지극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이리니  
단 7:27. 나  
님의 백성, 그의 성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 나라를  
상속 것이다.

152

(본문: 단 7: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 열국의 위세가 지극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이리니 단 7:27. 나님의 백성, 그의 성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 나라를 상속 것이다.



단 7:18  
지극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단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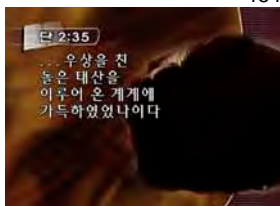
153

(본문: 단 7:18) 지극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 고 영원 고 영원 리라 단 7:18.



154

이 예언은 느브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사람의 손으로 지아니 고 신상의 발에 날아와 떨어지는 뜨인 돌과 평 을 이루는 것이다.



단 2:35  
...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나이다  
단 2:35.

155

(본문: 단 2:35) ...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하였나이다 단 2:35.



156

다니엘의 짐승에 관 이상에서 나님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 실 날까지의 역사를 요약 놓으셨다.



157

오늘날 우리는 철과 진 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와 그 거민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러가고 있다. 신속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통 우리에게 주시고자 는 기별이다.



158

성경의 이 짧은 두 장에 세계의 역사를 얼마나 잘 요약는가? 생각 보라. 그토록 오래 전 그날 밤 다니엘에게 주신 꿈은 지구에 사는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159

그대가 알다시 예루살렘은 파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이 방법으로 다니엘에게 말씀 셧다. 내가 아직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 . . .

## 17-어떻게 가짜를 찾아 내는가?



160

왕들은 오고 갔다. 제국들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결코 지구에 사는 나의 백성, 그들을 나의 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것이 바로 잡 것이다 라고 말씀 신다. 친구여, 이 땅의 왕들과 왕국들은 오고 갔다. 신상과 짐승의 이중 예언을 통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 되었다. 예수님은 곧 심판 러 다시 오신다. 아담과 와가 잃어버린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찾기 위 오실 것이다.



161

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의 자녀들이 그 왕국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 바라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 준비되길 간절 바라신다. 그 영광스런 날을 위 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 자.



1

어떻게 짐승의 표를 피할 것인가?



2

위대한 날, 최고의 날, 퍼레이드와 왕궁의 악단이 함께한 특별한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느브갓네살 왕은 기뻐하였다.



3

모든 광대한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을 초청하였다. 이 날은 그가 살아 있는 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었다.



4

얼마 전, 그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거대한 금속상을 보았다.



5

그는 결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에게 그 꿈을 다시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었다. 느브갓네살은 아무 것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6

결국, 그의 나라는 곧 금 머리였다. 그의 왕국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 위대한 나라 바벨론과 느브갓네살 왕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였다.



7

그는 명하여 금 신상을 만들라고 했다.



8

이 신상은 단지 머리만이 아니라 온 몸이 온통 금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찬란한 신상을 세웠는지 궁금해 했다. 이것을 세우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길 염원했던 느브갓네살 왕이었다.

# 18-영원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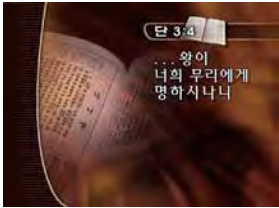
이 날 수 천의 중요한 귀빈들이 느브갓네살이 세운 이 금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 하였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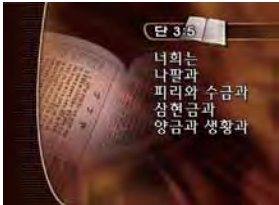
갑자기 트럼펫 소리가 나며 군중들을 잠잠케 한 다음 왕의 대변인이 소리쳤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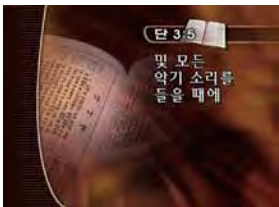
(본문: 단 3:4-6) 단 3:4-6 ...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11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12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13



엎드리어 느브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14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15



즉시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단 3:4-6.

16



# 18-영원한 표



17

음악 소리가 나매 모든 백성이 그 신상에게 절하였다. 거의 모든 백성이 그랬다.



18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기로 선택하고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이 곧 왕에게 전달 되었다.



19

비디오

(비디오: 3 초) 그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 앞에 끌어오라 명령하였다.



20

비디오

(비디오: 3 초) 왕이 세 히브리 청년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곧 알아 보았다. 그들은 많은 재능과 지혜를 갖춘 특별한 젊은이들이었다.



21

비디오

(비디오: 2 초) 과거에 그는 그들에게 많은 중요한 국사를 맡겼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직한 신하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말한다.



22

단 3: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소리를  
듣거든...

(본문: 단 3:15)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소리를 듣거든...



23

단 3:15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 18-영원한 표



24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단 3:15. 만약 왕이 한 번 법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으면 백성들 앞에 체면이 아니었다.



25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오르는 풀무 불을 보았다. 왕의 의도는 의심할 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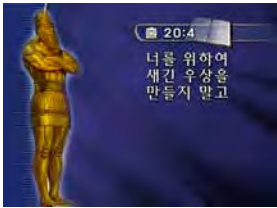
26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는가? 그대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번만 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란 말인가? 그들의 목숨은 건져야 할 텐데.... 왕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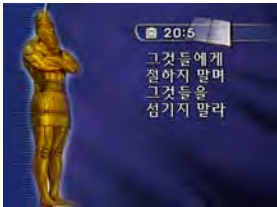
27

하지만 그들의 마음엔 이런 생각들이 결코 스쳐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계명의 하나는 이렇게 명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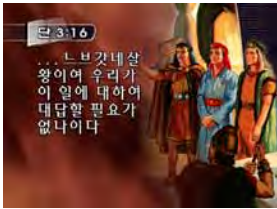
28

(본문: 출 20:4, 5)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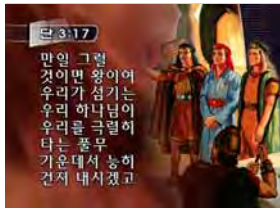
2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4, 5. 조용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그들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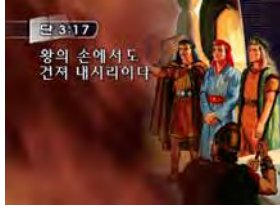
30

(본문: 단 3:16-18) ... 느브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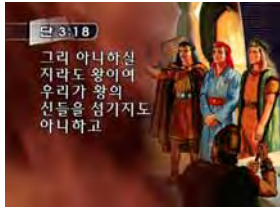
31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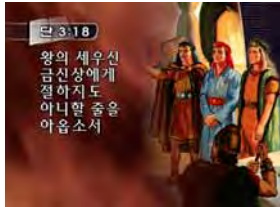
32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33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34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6-18. 나머지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다. 왕은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라 명한다.



35

그런 다음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불에 넣으라 명한다. 불이 심히 뜨거워 세 젊은이들을 붙잡았던 군병들이 타 죽고 말았다.



36

그런데 풀무불 앞을 거닐던 왕이 갑자기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왜냐하면 그 속에 네 사람이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37

우리 주님께서 그 불 가운데 뛰어 드신 것이었다. 그분은 불속의 세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 18-영원한 표



38

느브갓네살 왕은 그 청년들을 불에서 건져 내라 명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고의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거대한 금 신상은 잊혀졌다. 이 세 젊은이들이 경험한 이 날의 놀라운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인의 입에 오르 내렸다.



39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 내셨다! 신실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었는가! 머지 않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 청년들이 맞게 된 그런 극한 선택을 우리도 해야 할 때가 올 것인가?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40

그대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겠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정말 곤란하다.



41

성경 예언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그 마지막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배에 관한 것이란 사실을 아는가?



42

세 히브리 청년들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이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것이다.



43

바벨론의 강력한 왕 느브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보여 주신 신상의 모조품인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절하게 했다. 그 진정한 눈점은 경배에 있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두 번째 계명은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신을 경배할 것인가를 놓고 충성을 시험할 것이다.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다. 환란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이다. 교회와 정치의 연합에 대한 불복종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정치가 서로 연합할 것이라 예언한다. 그 연합의 중심에는 경배 문제가 있다.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이 계명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충성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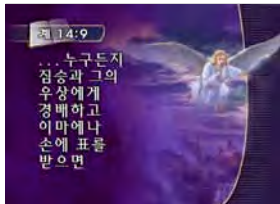
44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기별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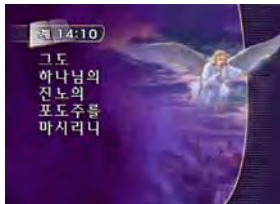
45

(본문: 계 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 13:9.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긴박한 이 기별을 들어야 한다!



46

(본문: 계 14:9, 10) ...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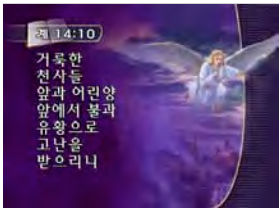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48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 18-영원한 표



49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 14:9, 10.



50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자신이 짐승의 표에 관련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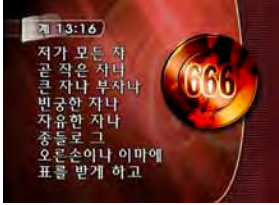
51

성경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거민들은 두 무리로 나뉠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충성을 다하는 무리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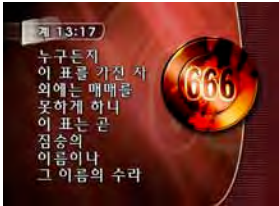
52

짐승과 그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위협을 당할 것이다. 이 위협은 세 히브리 청년들이 당했던 그 극심한 위기와 같을 것이다.



53

(본문: 계 13:16,17)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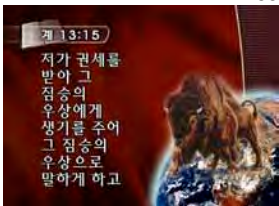
54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55

결국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56

(본문: 계 13:15) 계시록의 두 번째 짐승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57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 13:15



58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서 어떤 것도 사거나 팔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당신을 죽일 것이다.



59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만약 네가 짐승에게 경배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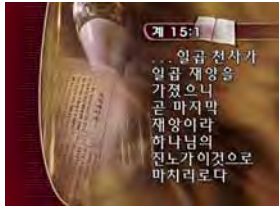
60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 보다는도 곤란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계시록은 그 해답을 준다.



61

(본문: 계 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62

...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 15: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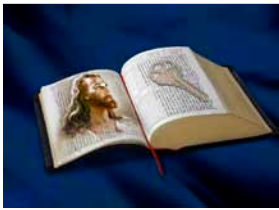
일곱 재앙 중 마지막 세 재앙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 확실히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고는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64

그렇기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 18-영원한 표



65

그분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 예언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 아무도 준비 없이 다가오는 위기를 맞을 필요가 없다. 이 짐승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66

성경을 다시 펴고 이 짐승의 세력에 대해 알아보자.



67

(본문: 계 13:1-8)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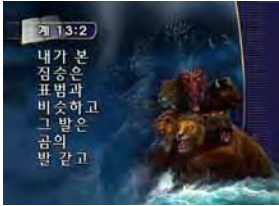
68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69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70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71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72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1, 2



7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74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75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76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77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78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79

또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 13:3-5.

# 18-영원한 표



80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휘방하되



81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휘방하더라



82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83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4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85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계 13:6-8



86

이 예언을 하나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다시 예언적 상징을 사용하신다.



87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다니엘 7장에서 짐승은 나라나 권세를 상징한다고 배웠다. 여기 계시록에서 참으로 이상한, 다니엘서에 등장한 모든 짐승이 다 복합된 짐승을 발견한다. 결코 그런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니엘서에 등장한 네 짐승을 다시 복습하는 것은 이 복합된 계시록의 짐승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88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였는가?--바벨론



89

곰은? 메데--페르시아



90

표범은 무엇을 상징하였는가?-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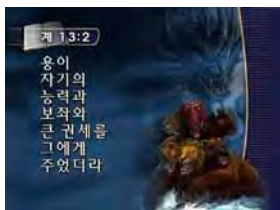
91

열 뿔 가진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



92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이 네 세계 제국을 계승하는 세력임이 분명하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상에 오직 한 세력만이 이 복합 짐승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성경과 세계 역사는 이 짐승의 신원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한다. 요한은 이 짐승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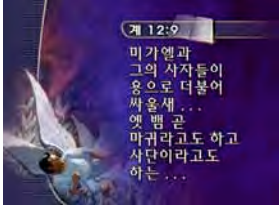
(본문: 계 13:2)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2. 여기서 용은 사단을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18-영원한 표



(본문: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94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

95



물론 사단은 결코 이 예언의 나라들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일하고 속이되 숨어서 한다. 다른 세력과 나라와 백성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계시록은 사단과 교회의 거대한 대 쟁투를 계시한다.

96



(본문: 계 12:3-5)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97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98



...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99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100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101



102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계 12:3-5



103

이 남자 아이는 누구인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용, 곧 마귀는 세상 권세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사단은 어떤 나라를 통해 그분을 죽이려 했는가?



104

세속 역사를 뒤 돌아 보면, 이교 로마를 발견한다. 이 이교 로마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105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자라고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명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이었다.



106

로마 관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였다.



107

로마 군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분의 무덤을 돌로 막은 뒤 인을 쳤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교 로마를 이용하였다.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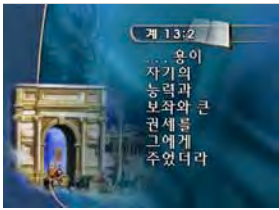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였고 예언대로 하늘에 올라 가셨다. 그대는 성경 예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109

성경은 이 이교 로마가 짐승에게 힘과 권좌를 줄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 18-영원한 표



110

(본문: 계 13:2) 이교 로마는 이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권세를 받았는가?



111

오랜 세기 동안 로마 교회는 로마 시의 소유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콘스탄틴의 기부라는 명칭의 문서를 제시 하였다. 이 문서는, 후에 위조문으로 드러났지만, 서 로마의 정치와 교회를 다스리는 권리가 교회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교황을 나라와 왕으로 정당화 시키는데 그 근본을 가지고 있다.



112

서기 300년 콘스탄틴은 그 나라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고 그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13

콘스탄틴이 로마를 떠날 때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그의 자리를 양도해 주고 떠났다. 로마교회의 감독은 교회의 머리 뿐만 아니라 왕의 권세도 누리게 된 것이다. 교회와 정치의 연합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114

바티칸 시는 로마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 도시는 옛 로마 제국의 안방이나 다름없었다.



115

로마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적인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세속 정치까지도 좌우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바티칸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116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이 예언이 조직이나 그 조직의 신학 체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예언은 결코 개개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17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예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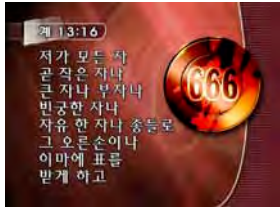
118

계 13장의 이 짐승의 표와 그 권세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단 7장의 작은 뿔로 상징된 세력과 동일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119

선지자 요한은 이 짐승의 세력은 현저하게 구분되는 한 표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120

(본문: 계 13:16, 17)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21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 13:16, 17.



12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표는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는 반역의 표요 불순종의 표임이 분명하다. 성경은 분명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다른 무리들을 언급한다.



123

(본문: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 18-영원한 표



124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다가오는 큰 싸움의 쟁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다른 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그의 명령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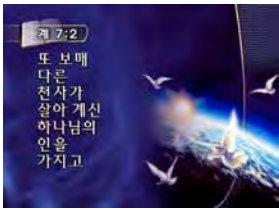
125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표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표는 하나님의 표, 곧 안식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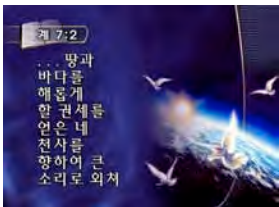
126

이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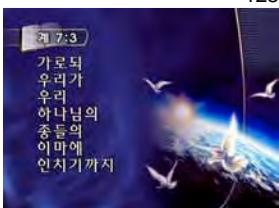
127

(본문: 계 7:2, 3)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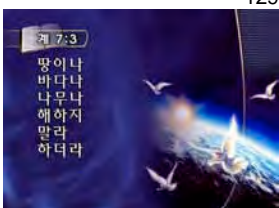
128

...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129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30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2, 3





131

나는 그 인 맞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쟁점은 하나님의 표인가? 짐승의 표인가? 이다. 하나님의 인인가? 모조된 인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 또는 표를 발견할 때, 짐승의 힘을 상징하는 그 모조 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132

(본문: 겔 20:12)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133

(본문: 출 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34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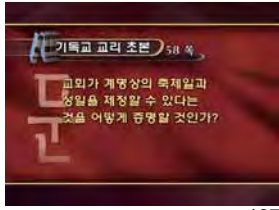
135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와 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 31:13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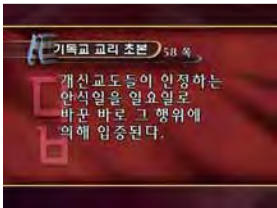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분의 인 또는 권위의 표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짐승의 인 또는 그의 권위의 표는 무엇인가?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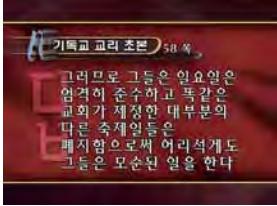
다음 인용문은 카톨릭 교회 책에서 온 것이다. 질문: 교회가 계명상의 축제일을 제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무슨 방도가 있는가?

# 18-영원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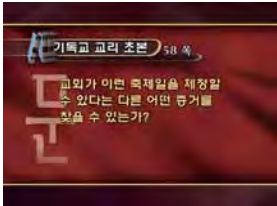
138

답: 개신교도들이 인정 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바로 그 위에 의 입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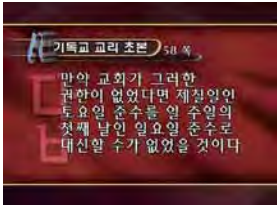
139

그러므로 그들은 일요일은 엄격 준수 고 똑같은 교가 제정 대부분의 다른 축제일들은 폐지 으로서 어리 석게도 그들은 모순된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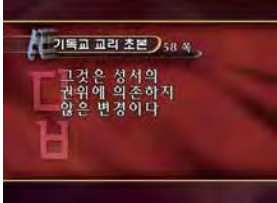
140

문: 교 가 이런 축제일을 제정 권 이 있다는 다른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141

답: 만약 교 가 그러 권 이 없었다면 제정일인 토요일을 일 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로 대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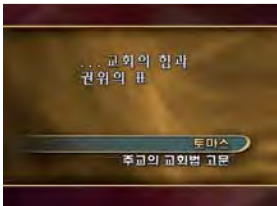
142

그것은 성서의 권위에 의존 지 않은 변경이다 -기독교 교리 초약, 리 투버빌리, 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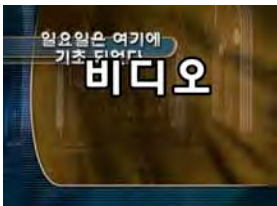
143

카톨릭의 증언에 따르면 일요일은 로마 교 권위의 표이다. 그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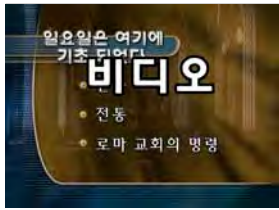
144

그들은 그 안식일 변경을 교 의 능력과 권위의 표라 부른다(주교의 종교법 고문인 토마스가 기본스에게 보낸 편지, 1895년 10월 28일). 로마 교 는 개신교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지 답 라고 도전 다.



145

(비디오: 2 초) 성경의 안식일이 그 다음날인 안식일로 변경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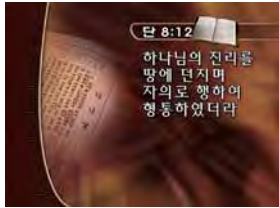
146

(비디오: 5 초) 로마의 관습, 전통, 그리고 로마교 에 의 것이다.



147

(본문: 단 7:25) 다니엘은 이 짐승의 권세가 ... 때와 법을 변경코자 것이며 ...라 예언 었다. 단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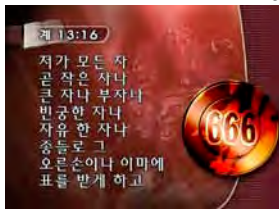
148

(본문: 단 8:12) 그는 또 예언 기를 이 세력이 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여 통 겠다고 었다. 단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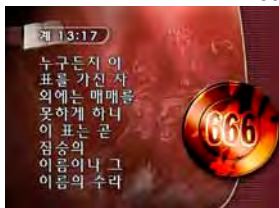
149

요 은 예언 기를 사단은 모든 사람이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 것이라 다.



150

(본문: 계 13:16, 17)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 자나 자유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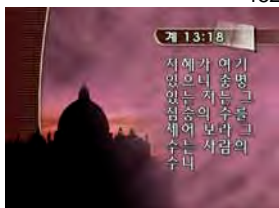
151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게 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6, 17.



152

이 세력이 예언을 다 성취 기 위 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 려고 정치적인 을 빌리게 될 것이다.



153

(본문: 계 13:18) 지 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 18-영원한 표



154

육백 육십 육이니라 계 13:18



155

짐승의 수락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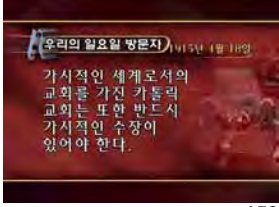
156

카톨릭 교 가 대답을 준다. 라틴어는 카톨릭 교 의 공식 언어이다. 교 , 카톨릭의 이론에 의 면 이 사람은 모든 교 의 상징이다.



157

그 교 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나는 비카리우스 리 데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158

가시적인 세계로서의 교 를 가진 카톨릭 교 는 또 반드시 가시적인 수장이 있어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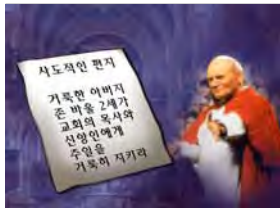
159

(비디오: 9 초) 라틴 문자는 숫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비카리우스 리 데이를 쉽게 숫자로 계산 수 있다. Vicarius Filii Dei. Vicarius 5, 1, 100, 0, 0, 1, 5, 0 = 112. Filii 0, 1, 50, 1, 1=53. Dei 500, 0, 1 =501 = 666. 이것을 인 그 표에 대 또 다른 증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 교 가 바로 계 13장이 말 는 짐승의 세력 이라는 것이다.



160

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예언을 공부 면서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나님의 말씀을 거역 고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요구 받을 날이 속 오 고 있다는 것이다.



161

최근 교 바오로 2세는 전 세계의 교 와 교 지도자들에게 주일을 식과 예배의 날로 성수 라는 교서를 발표 였다. 이 교서는 성경의 안식일 보다는 일요일을 준수 것을 분명 의도 고 있지 않은가?



162

더욱이 그 발표문에서 교 은 그들이 일요일 업을 법령 으로 제정 것을 위 노력 야 다고 강조 다. 친근 소리가 아닌가? 예언 그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163

이런 질문이 가능 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미 짐승의 표 를 가졌는가? 아니다. 어떤 개인도 아직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나뉘는 모든 교 에 진실된 신자들을 가지 고 계신다.



164

짐승의 표가 법으로 강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 을 준수 으로 나뉘는 법에 순종 것인가? 아니면 일 요일을 지키므로 짐승을 따를 것인가? 결정 야 것이 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심각 시 에 처 것이다. 나뉘는께 순종 것 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순종 것인가? 이것은 단지 날에 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 인가?에 관 것이다.



165

(본문: 롬 6:16) 너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 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 느냐



166

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167

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롬 6:16

# 18-영원한 표



168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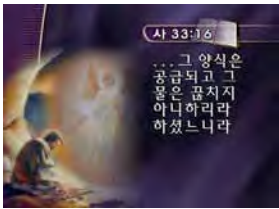
169

처음엔 방 요, 다음은 사 선고이다. 일곱 재앙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그대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 것인지 깨닫겠는가? 왜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지 알겠는가? 왜 지금 나님을 선택 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 는지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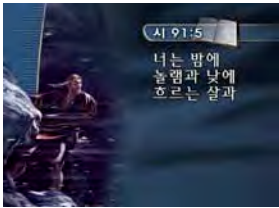
170

그런데 나님과 그분의 인을 받기로 선택 사람들을 위 좋은 소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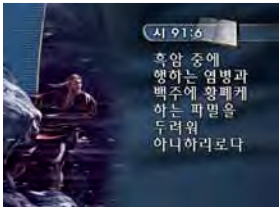
171

(본문: 사 33:16) 그들은 매매를 지 못 것이다. 지 만 나님은 이렇게 말씀 신다. ...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 리라 셧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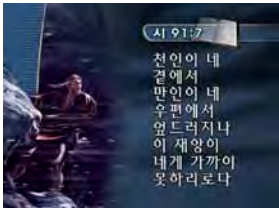
172

(본문: 시 91:5-8) 지구에 부여될 재앙에 대 여는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르는 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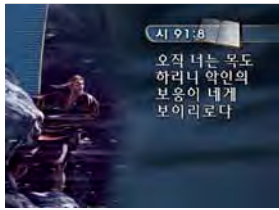
173

암 중에 는 염병과 백주에 폐케 는 파멸을 두려 워 아니 리로다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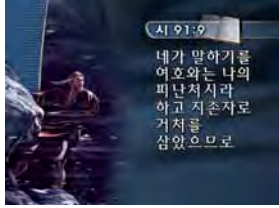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옆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 리로다



시 91:8  
오직 너는 목도  
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 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시 91:5-8. 아직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전 궁금  
다면,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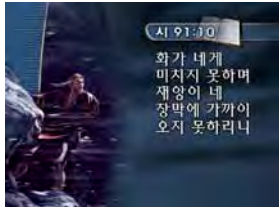
175



시 91:9  
네가 말하기를 여  
호와와는 나의 난  
처시라 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본문: 시 91:9-11)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난  
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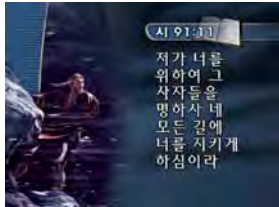
176



시 91: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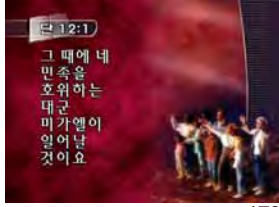
177



시 91: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  
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심이라 시 91:9-11. 나  
님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심이라 시 91:9-11. 나님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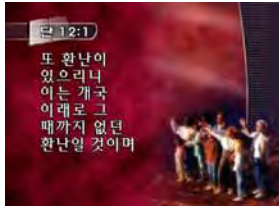
178



단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위  
하는 대군 미가  
엘이 일어날 것이요

(본문: 단 12:1) 그 때에 네 민족을 위하는 대군 미가  
엘이 일어날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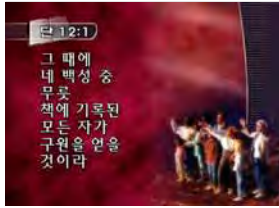
179



단 12:1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180



단 12:1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  
을 것이라 단 12:1. 요 은 짐승을 이기고 승리를 얻는  
자들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  
을 것이라 단 12:1. 요 은 짐승을 이기고 승리를 얻는  
자들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181



계 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본문: 계 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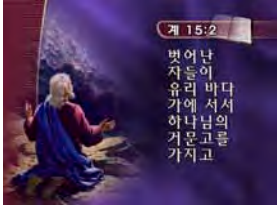
182

# 18-영원한 표



183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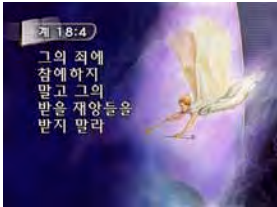
184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2. 더욱이 지금도 나님은 그분의 참 백성들에게 거짓 유사 종교의 체계에서 나와 온전 나님을 따르라고 소 고 계신다.



185

(본문: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186

그의 죄에 참여 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4



187

이것은 나님을 따르기로 선택 자들이 치러야 값이다. 용감 세 브리 청년들을 기억 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나님을 믿음에 치의 도 남기지 않았다.



188

성령을 통 여 나님은 이 시간 그대에게 말씀 신다. 그분은 죽어 가는 이 땅을 아들의 재림을 위 준비시키고 자 신다. 온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속 본 으로 이끌기 위 오실 것이다. 오늘 밤 브리 청년들이 그랬 던 것처럼 나님 앞에 그대를 온전 드리지 않겠는가?



# 19-분명한 투자



1

그대의 재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2

예수님은 돈을 다루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신 38가지 비유 가운데 16가지가 돈과 소유를 다루는 것이었다. 사복음서 매 10 구절 가운데 하나, 또는 총 288절은 돈과 우리의 소유에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신 구약 성경에는 기도에 관하여는 500절, 믿음에 관하여 500절, 그런데 돈에 관하여는 2,000구절이나 있다. 돈은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음에 틀림없다. 그분은 우리가 재정에 관한 염려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 믿기를 원하신다.



3

많은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걱정, 어떻게 이자를 갚으며 공과금을 낼 것인지 등등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다.



4

그들이 은퇴를 하고서도 오래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들이 너무 나이가 들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안정된 상태를 좋아한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 안정이란 것을 도대체 찾을 수 있는가?



5

하나님은 그대와 내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6

(본문: 마 6:31, 32)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19-분명한 투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1, 32.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영원한 보장을 살펴보자.

7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자

8



창조주의 손에서 탄생된 지구는 아름답고, 영화롭고, 완전하여 형용할 수조차 없었다.

9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은 눈길이 가는 어디에나 느껴진다. 우아한 일출은 오직 아슬아슬 넘어가는 일몰로만 견줄 수 있었다.

10



평화로운 호수는 산 사이에 등지를 틀고 있었다.

11



색색의 우아한 꽃들과 꽃이 핀 넝쿨들은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였다.

12



나무들은 먹음직한 갖가지 열매로 뒤덮여 있었다.

13



노래하는 새들은 공중을 날며 아름다운 노래를 하였다. 동물들은 풀밭을 뛰어 놀며 한가히 거닐었다. 호수와 강들은 아름다운 색깔의 고기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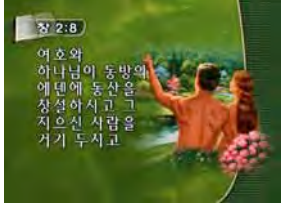
14

# 19-분명한 투자



15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드신 완전한 세계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



16

(본문: 창 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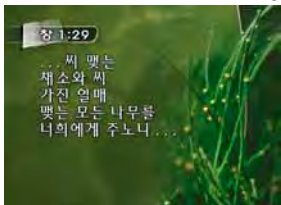
17

생각해 보라! 어디든지 새로 태어난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설계하셨다.



18

세상의 가장 아름답다는 어떤 집도 에덴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신 놀라운 음식도 설명해 주셨다.



19

(본문: 창 1:29) ...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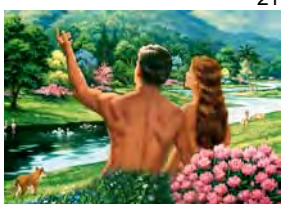
20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 1:29



21

아담과 하와는 그 집과 정원을 세들 필요도 없었고, 세금에 대한 염려도 없었고, 열쇠를 채울 필요도, 야수의 위험도, 병원도, 약국도 필요가 없었다.



22

그들은 이 완전한 건강과 끝없는 젊음, 무한한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나누기를 바라셨다.

# 19-분명한 투자



23

(본문: 창 1:28)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창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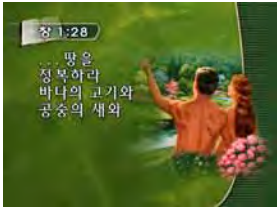
24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였다.



25

지구상에 있었던 하나의 크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계획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이 즐거이 수행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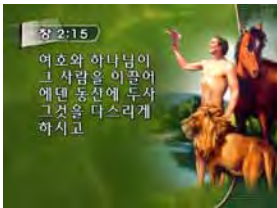
26

(본문: 창 1:28)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라고 말씀하셨다.



27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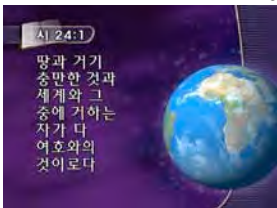
28

(본문: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 1:28; 2:1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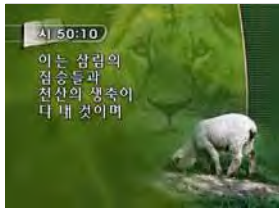
모든 만물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운영하는 관리자이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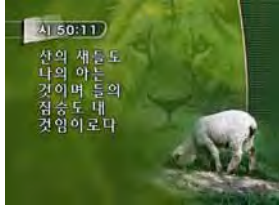
(본문: 시 24:1)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 24:1

# 19-분명한 투자



31

(본문: 시 50:10,11)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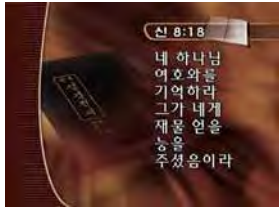
32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시 50:10, 11.



33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것은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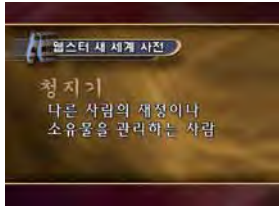
34

(본문: 신 8: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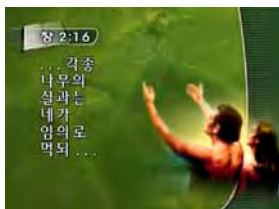
35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 8:18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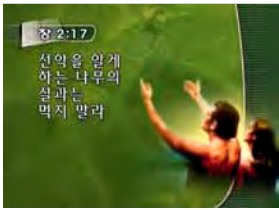
웹스터 새 세계 사전은 청지기 혹은 관리자를 다른 사람의 재성이나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오늘날 청지기 관계에 들어가면, 그는 그에게 기대하는 주인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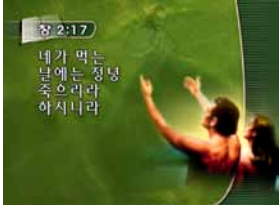
(본문: 창 2:16, 17) ...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

# 19-분명한 투자



38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39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6, 17.



40

(비디오: 20 초)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나무의 실과는 금지 되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충실한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께 신실히 충성을 다하였다면, 그들은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단순한 이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아름다운 집, 불멸, 사랑, 행복, 안전, 깨끗한 양심,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 등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41

그들은 충성을 다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이 모든 일에 깊이 만족한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단, 지구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었던 바로 그 반역한 천사였다.



42

결국 사단의 통치권은 오랜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다.



43

사단의 계획은 그가 그렇게 쉽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 의해 쉽게 드러났다.

# 19-분명한 투자



44

(본문: 마 4:8, 9)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갔다.



45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46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 4:8, 9



47

사단은 이 세상 왕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굴복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사단이 주겠다고 제시했던 그 모든 것은 그가 줄 수 있는 그의 소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속임을 통해 이 지구를 갈취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부와 영광을 바꾸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지 않았다.



48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은 갈보리에서 영원히 인쳐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단은 패배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49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인간 가족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로 인해 가능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는 그분의 것이다.



50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시이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청지기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19-분명한 투자



(본문: 고전 4:2)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51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맡은 청지기이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최상의 것은 바로 이 생명 자체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52



(본문: 행 17:24, 25)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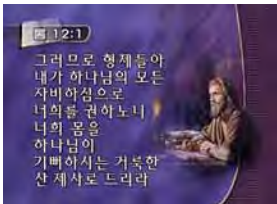
... 이는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행 17:24, 25.

54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왔으며, 하나님이 유지하신다. 모든 심장 박동, 모든 호흡, 우리 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55



(본문: 롬 12:1)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56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 12:1. 산 제사의 의미는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는 것, 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인도 하심에 모든 것을 굴복하는 것이다.

57



(본문: 행 10:38)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라고 기록 되셨다. 행 10:38.

58





59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헌신의 봉사를 따라야 한다.



60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단지 물질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들이다. 어떤 이는 시간은 인생을 만드는 재료이다라고 말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61

(본문: 시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62

(비디오: 6 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남녀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그 부여 받은 똑 같은 시간을 어떤 것으로든 가득 채울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다.



63

하나님은 우리가 현명하게 우리의 시간을 쓸 것이라 기대 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특별한 시간인 안식일을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날로 구별할 것을 기대하신다.



64

우리의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안식일은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휴식을 누리고, 약속을 재 확인하는 날로 삼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한 주 동안의 노동, 시장 보는 것, 그리고 세상 적인 일 등에서 벗어나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기억하라고 우리를 초청 하신다.



65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청지기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한 청지기라고? 난 어떤 재능도 없는데라고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른다.

# 19-분명한 투자



66

오늘 날 이 달란트란 말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좋은 옷을 만들고, 글을 잘 쓰는 작가를 의미한다.



67

이것들은 분명히 달란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생명, 시간, 재능, 소유에 관한 모든 것들이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분은 자아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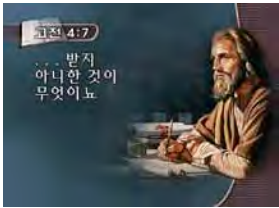
68

(본문: 행 10:38)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 행 10:38. 우리들은 대부분 단지 두루 다니시며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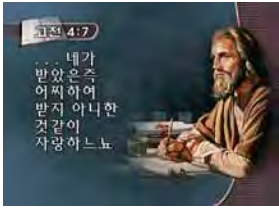
69

우리의 재능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70

(본문: 고전 4:7) 바울은 이렇게 적는다. ...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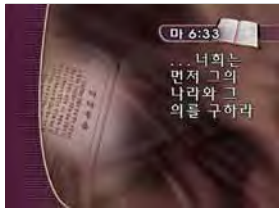
...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뇨 고전 4:7



72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대한 청지기이다.

# 19-분명한 투자



73

(본문: 마 6:33)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졌음을 발견한다.



74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 드림과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복의 일부를 그 분께 돌려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다.



75

(비디오: 11 초) 어느 날 소돔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적들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되었고 적에게 빼앗겼던 재물도 찾게 되었다.



76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도착했을 때, 왕은 나와 그를 맞았다. 왕은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재물은 취하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취하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다.



77

(본문: 창 14:20) 아브라함은 ...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창 14:20



78

아브라함은 롯을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

## 19-분명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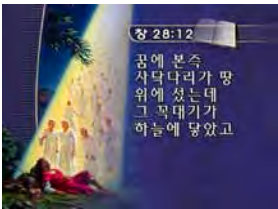
79

150년 뒤, 아브라함의 손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 분노한 그의 형제에게서 도망할 때, 야곱은 외롭고 두려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염원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의 것을 도둑질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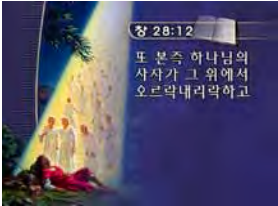
그런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다. 그리고 땅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81

장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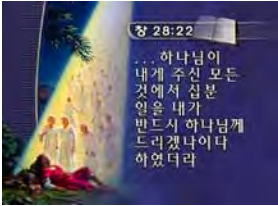
(본문: 창 28:12, 2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82

장 28:12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창 28:12. 야곱이 눈을 떴을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과 보호와 인도 하심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되었다.



83

장 28:22  
...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하나님께 받드시 하리라 하였더라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그는 이렇게 감사의 약속을 한다. . . .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받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



84

다윗 왕은 동일한 감사를 느낄 때 이렇게 고백하였다.



85

(본문: 시 116:12)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 116:12.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가족, 건강,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인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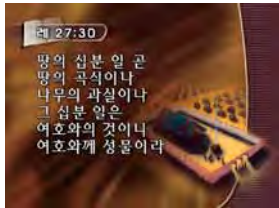
86

야곱은 그가 누린 축복의 십일조를 그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렸다.



87

십일조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은 레위기 서에 처음 등장한다.



88

(본문: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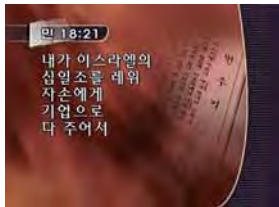
89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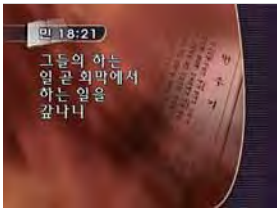
우리가 십일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십일조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91

(본문: 민 18:21) 민수기는 이것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한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 19-분명한 투자



92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1



93

성경을 통하여 십일조는 늘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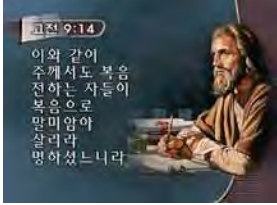
94

(본문: 고전 9:13, 14)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95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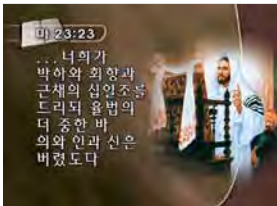
96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전 9:13, 14.



97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에 대한 편협적이고 좁은 마음을 질책함과 동시에 십일조 제도를 강조하셨다.



98

(본문: 마 23:23) ...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99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 23:23



100

아마 그대는 어떻게 그대의 수입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반신반의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를 확신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101

한 주가 지난 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증거 한다. 그들은 90%를 가지고 살았지만 생활은 훨씬 운택해 졌음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 관리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



102

어떤 사람은 십일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나요?라고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축복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나요?



103

정직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솔직 부담스럽지만 겨우 드리는 짐이란 친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십일조를 정직 구분 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지만 에 그는 그의 가계에 놀라운 변 가 생긴 것을 발견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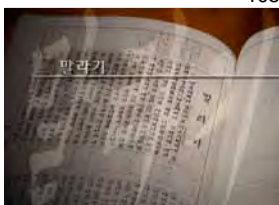
104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실 것이란 확신이 있고 기꺼이 십일조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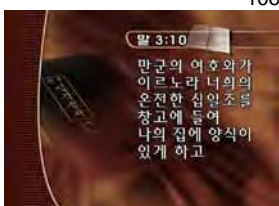
105

에드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일주일 중 가장 바쁜 날인 안식일에 문을 닫는데까지 믿음의 진보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6일 동안 넘치도록 보상을 받았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지키셨다.



106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라기에 약속된 축복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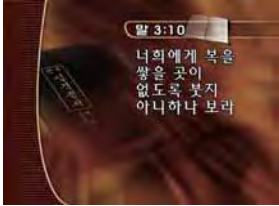
(본문: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 19-분명한 투자



108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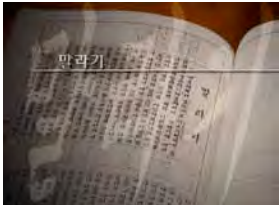
109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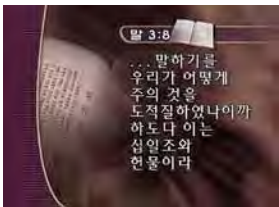
110

하나님은 모든 십일조는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것을 돌려 드림으로, 하나님을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경외하여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시험 받는 방편으로 이 제도를 허락하셨다.



111

우리가 만일 그렇게하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엄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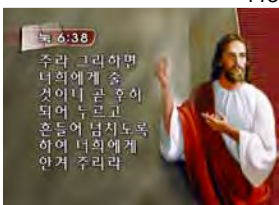
112

(본문: 말 3:8) ...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8



113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는 풍성, 이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 이외의 헌금을 드린다. 헌금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너그러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114

(본문: 눅 6:38) 성경에는 헌물에 대한 지침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눅 6:38.



115

그분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라고 말씀하신다.



# 19-분명한 투자



116

아마 그대는, 하나님이 모든 것 즉, 은과 금, 가축, 땅을 다 가지신 분이라면 왜 재정이 필요한가 하고 물을 것이다. 십일조 제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다.



117

그분은 결코 교회가 복권이나 빙고 게임, 혹은 경마들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길 원치 아니하신다.



118

각자는 그가 받은 수입에 준하여 십일조를 드린다.



119

만약 당신이 100만원을 번다면,



120

10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121

만약 1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122

만원에 돌려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공평한 방법인가?

# 19-분명한 투자



123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받는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며,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들을 버리게 된다.



124

다른 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축복을 나눈다면 우리의 사랑과 동정심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묘사하는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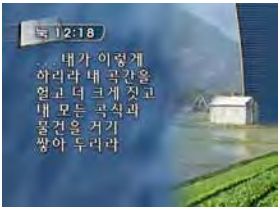
125

여기에 가장 미로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근면하고 부지런한 한 농부가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다. 곡식은 너무 많고 그의 공간은 너무 작았다. 그 곡식은 가득 찼다. 그런데 아직 거둘 것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고민이 생겼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줘야 하는가? 하지만 그 곡식은 그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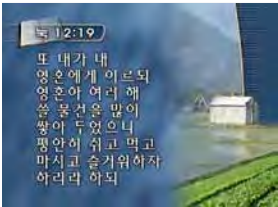
126

그가 만약 머리를 쓰고 잘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그 마을에서 제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한 자기 자신에게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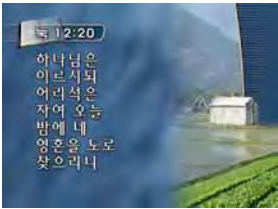
127

(본문: 눅 12:18-21) ...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28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눅 12:18, 1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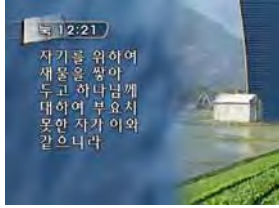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 19-분명한 투자



130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3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눅 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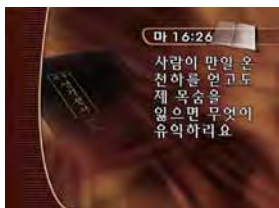
132

이 부자 농부는 그의 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창조주요 그의 직분은 청지기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



133

(본문: 마 6:21)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다. 왜냐하면 만약 이 재물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재물들이 오 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고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케 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4

(본문: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26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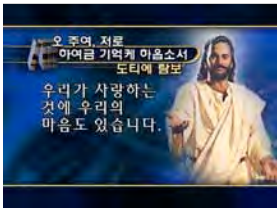
현대인들의 문제는 그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며 그의 일과가 너무 바빠서 그의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는지 금새 잊거나 그것을 늘 상고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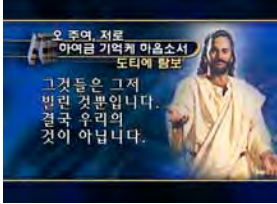
(비디오: 6 초) 그를 죄에서 구원키 위해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지를 쉽게 망각한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시간과 재능, 물질을 통해 경외하기를 거절한다. 모든 사람은 매일 매일 다음의 이 말을 상고해야 한다.

## 19-분명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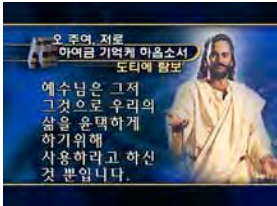
137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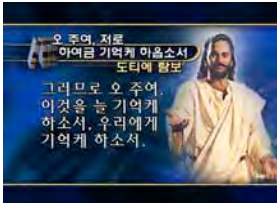
138

그것들은 그저 빌린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39

예수님은 그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운택하게 하기위해 사용하라고 하신 것 뿐입니다.



140

그러므로 오 주여, 이것을 늘 기억케 하소서, 우리에게 기억케 하소서 (도티에 람보의 글 오 주여, 저로 하여금 기억케 하소서에서 인용한 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건강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모든 호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는 음식,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주님, 저는 제가 가진 재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하기를 원한다면 그대의 손을 들기 바란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고대 그리스에 살던, 진리를 찾는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노인을 찾았다. 그리고 물었다. 선생이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저를 그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현명한 노인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도시를 지나 바닷가로 갔다. 노인은 물 속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슴 깊이 다다랐을 때, 노인은 그의 손을 머리에 올리라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젊은이를 물 속에 쳐 박았다. 세 번이나 그 젊은이는 숨을 쉬기 위해 나왔고, 세 번이나 노인은 다시 그 젊은이의 머리를 다시 물 속에 쳐 박았다. 젊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전 진리를 찾고 싶단 말이에요! 현명한 노인이 대답한다. 네가 물 속에서 숨쉬고 싶다는 열정으로 찾으려면 진리를 만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서 숨기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본문: 렘 29: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려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3.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전혀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 잠재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어떤 것을 갈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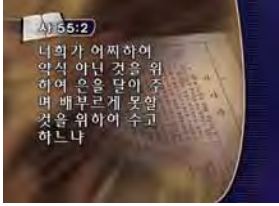
그래서 끊임없는 지루함 속에, 빈 공간을 채우려는 열망으로 명성, 부, 마약, 알콜, 소유, 여가 활동을 찾으며, 결국 그것을 성취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없음을 깨닫는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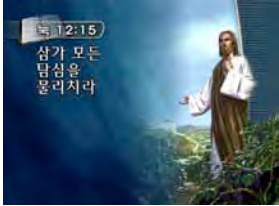
그러나 곧, 외로이 뜬 눈으로 보내는 밤, 옛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떠오른다.

6



(본문: 사 55: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 55:2. 예수님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이라는 것을 이해 하셨다.

7



(본문: 눅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눅 12:15

8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지 않은 어떤 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것은 오늘 날만 그런 것은 아니다.

9



에덴에서 그들의 선택을 한 이후로, 단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느꼈다.

10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11



(본문: 신 8: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 . .

12



. . .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13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4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15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빈곤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하나님을 찾으시라



16

오늘 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에 흥미를 가진다. 오늘 날 종교들은 연합을 엄청나게 강조하며 교파간의 담을 헐어 버린다. 교회와 종교에 대한 엄청난 연구와 사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17

새로운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서 빠르게 자라난다. 모두가 인류를 위한 진리의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진리가 아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18

그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르다.



19

그렇다면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언하는 종교들 가운데서 어떻게 참 진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날 그분의 구분하신 특별한 무리들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20

(본문: 엡 4:4)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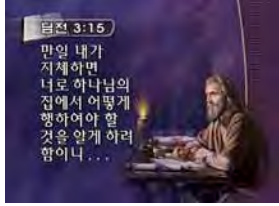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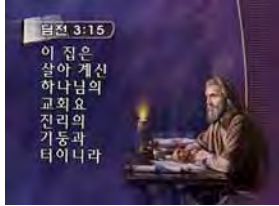
22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엡 4:4-6



23

(본문: 롬후 3:15) 바울은 그의 젊은 친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



24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롬전 3:15. 바울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분명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25

수 많은 교파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을 벌인다. 종교계에 큰 혼란이 있다.



26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코 혼란을 원치 않으셨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교파도 의도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하셨다.



27

(본문: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8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예수님은 세상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연합과 사랑을 주목할 것을 원하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가 결코 분열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29

(본문: 고전 12:25) 사실, 바울은 고전 12:25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 라고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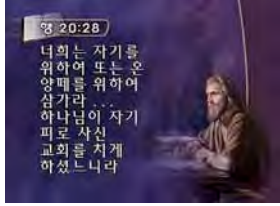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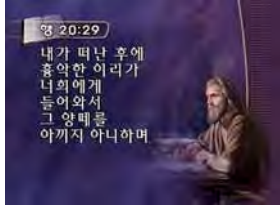
30

그러나 이설이 올 것과 그것으로 인한 교파 분열이 있을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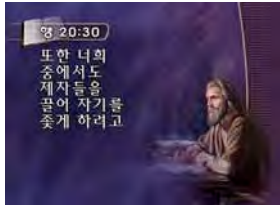
31

(본문: 행 20:28-30)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32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야끼지 아니하며



33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34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행 20:28-30.



35

교회 역사의 장을 넘길 때, 우리는 이 일이 정확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고, 어떤 이들이 그 이설을 받아들여 교회를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을 갖게 되었고, 신자들은 흩어졌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기셨다.



36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 일생을 다해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하겠어. 그런데 여기에 단순한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부의 관리들은 위폐와 진폐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쉬운 것이라 말한다. 그대가 알다시피 그들은 계속해서 진폐의 특징만을 깊이 연구한다.

37



그들은 종이의 질감을 알고, 잉크의 색을 알고, 진폐에 쓰이는 상징과 일련 번호의 순서를 안다. 그들이 지폐를 볼 때, 그들은 금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그것은 위조이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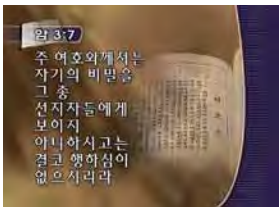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39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모든 종파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특징을 알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추측하게끔 그냥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40



(본문: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41



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특별한 안목을 준다. 이설과 종교 혼란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 사이의 쟁투를 예언한다. 12장은 그리스도의 때로부터 세상의 끝 날까지 교회 역사의 긴 역사의 파노라마를 제공한다.

42



(본문: 계 12:1, 2)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

43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4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45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계 1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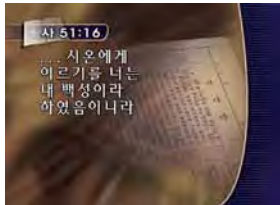
46

여기서 하나님은 흰 옷 입은 여인, 해를 입고, 열 두 면류관을 쓰고, 달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여 주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예언에서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분의 교회를 예표 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한다.



47

(본문: 렘 6:2)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렘 6:2. 시온은 누구인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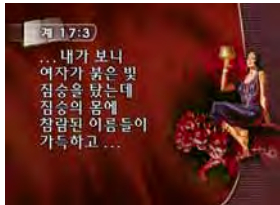
48

(본문: 사 51:16) ...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였음이니라 사 51:16. 이 두 본문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여인은 그분의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같은 단어를 고린도 교회를 묘사하는데 사용한다.



49

(본문: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고후 11:2



50

(본문: 계 17:3-5) 요한은 계 17장에서 또 다른 여자를 소개 하는데 그 묘사는 다음과 같다. ...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

51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52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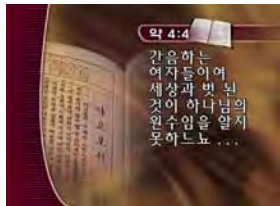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 17:3-5

54



이 상징적인 언어는 음행한 여인 곧, 거짓된 교회를 묘사한다.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않았고 성경 진리를 혼합한 교회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세상과 연합한 이 세력을 비슷한 언어로 묘사한다.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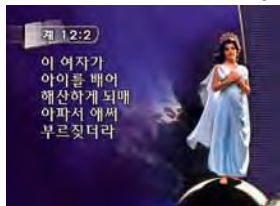
(본문: 약 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 약 4:4

56



타락한 여인은 곧 타락한 교회를 상징한다. 정결한 여인은 정결한 교회를 상징한다. 정결한 여인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정결한 여인=정결한 교회, 타락한 여인=타락한 교회.

57



(본문: 계 12:2, 4)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58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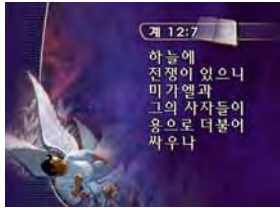
59

...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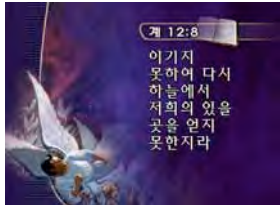
60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 12:2, 4.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곧 삼키려고 서 있는 용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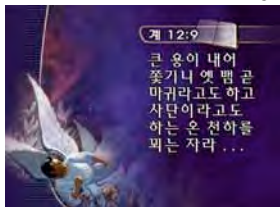
61

(본문: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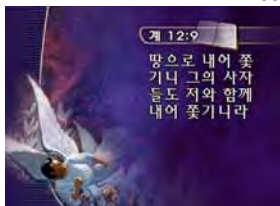
62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63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



64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 12:7-9.



65

(본문: 계 12:5) 계시록은 또한 아이에 대해 묘사한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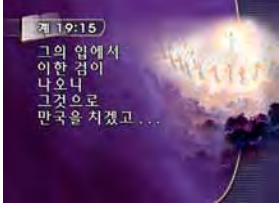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계 12:5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로지 한 아이 즉 예수님 만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들어 보자.

67



(본문: 계 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68



친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계 19:15.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는지 이야기 한다.

69



(본문: 엡 1:20)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 사 엡 1:20

70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땅으로 이어졌다. 이교 로마를 통해 일하던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즉시 그분을 죽이려 했다. 로마의 관리였던 헤롯은 두 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을 명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하라 하였다.

71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사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빈 무덤은 사단의 실패를 말해 주었다.

72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예언은 예언된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데 실패한 사단은 그의 관심을 여인 또는 참된 교회로 돌렸다.

73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74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였다. 만약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은 그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이다.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분은 하늘 법정에 계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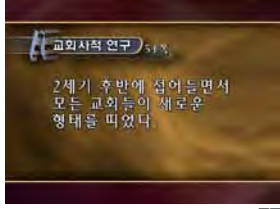
75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벽 밖에서 목 베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참한 형벌을 당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피로 증거를 대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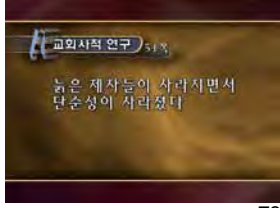
76

제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진리로 굳게 서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없어진 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혼합 시켰고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유입 시켰다.



77

2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형태를 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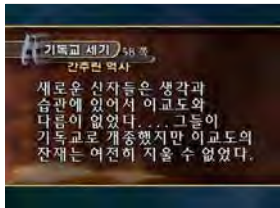
78

높은 제자들이 사라지면서 단순성이 사라졌다 교회사적 연구, 51 쪽.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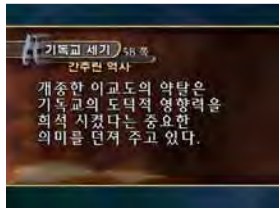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는 이교도와 기독교로 나뉘어진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종교 체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감행한다. 그 결과로 기독교는 대중화 되었다. 이교도들은 침례를 통해 교회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이교 신앙과 관습들을 역시 교회로 가져왔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80

한 역사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새로운 신자들은 생각과 습관에 있어서 이교도와 다름이 없었다. . . .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교도의 잔재는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1

개종한 이교도의 약탈은 기독교의 도덕적 영향력을 희석시켰다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기독교 세기: 간주린 역사, 58 쪽.



82

그러나 이 기간에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교회에 밀려드는 세속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타협을 거절하였고, 그러므로 많은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다. 곧 로마 황제는 교회의 거짓된 관습에 저항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칙령을 제정하였다.



83

(본문: 계 12:13) 요한은 이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용이 ...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계 12:13.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84

(본문: 계 12:6) 그녀는 ...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



85

나님의 예비 신 곳이 있더라 계 12:6. 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박을 당 기간을 예언 셧는데 그 기간은 1260일 이다. 성경에서 예언의 루는 일 년임을 공부 였다.



86

(본문: 겔 4:6) 에스겔은 ... 일 일이 일 년이니라고 한다. 겔 4:6.



87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핍박 기간은 1260년이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8

역사는 정 게 성경의 이 예언을 증 다. 로마 제 유스 니안은 로마 장군 벨리사리우스에게 명 여 로마 교 를 반대 던 두 아리안 세력을 제거 게 다.



89

이 마지막 세력들은 서기 538년에 제거 되었고 유스 니 안 제는 로마 교 의 감독을 교 와 진리의 수장, 이단 을 처벌 는 자로 공 였다. 소위 이단을 처벌 는 역사 가 시작된 것이다.



90

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계속 고수 려는 신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 방법 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도망 는 것이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 다.



91

왈덴스인들을 비롯 많은 신실 신자들이 북 이 리아 와 남 랑스에 위치 알 스로 신 였다. 그들은 골짜 기와 동굴, 높은 산에 거처를 정 였다. 그들은 정부에 의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 되어 죽임을 당 였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 려 지 않았다.



92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타 기 보다는 죽음을 선 다. 어떤 역사가들은 순교 인원을 5천 만 까지도 추정 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이 나님의 뜻을 고 있다고 공언 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 순교를 당 다.



93

나님의 진리는 마침내 승리 였다. 성경이 번역되었고 오늘 날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출 되고 있다. 더 이상 나님의 진리가 숨겨질 수 없었다. 모든 만민에게 공개 되 였다.



94

용기를 얻은 개 자들은 말씀을 증거 였다. 스와 제롬 과 같은 사람들은 대의 불꽃으로 사라졌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루와 위클리프, 데일 같은 사람은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살 당하였다.

95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의 땅 그리고 은신처가 되었다.

96



이 땅에서 새로 생긴 나라는 종교와 인권의 자유를 그 기반으로 삼았다.

97



(비디오: 10 초) 계 12장에 예언된 타과박의 기간은 마침내 1798년에 막을 내렸다. 나레옹이 베르어장군을 보내어 교을 로로 잡음으로써, 538년 시작된 박는 정 1260년 뒤에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98



이 예언의 기간이 마쳐질 때, 나님은 여전 말씀과 가르침에 신신 백성을 가지고 계셨다. 예언은 사단이 이 예언 기간이 에도 남아 있는 백성을 공격 것이라 말한다.

99



(본문: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100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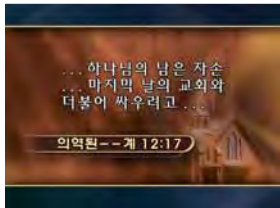
101



남는다는 의미는 큰 부분의 천에서 잘려져 남은 것을 의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의 남은 무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존재는 마지막 때까지 존재는 교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다.

102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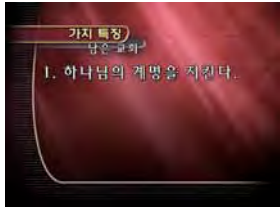
103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면 이렇다. ... 하나님의 남은 자손 ... 마지막 날의 교 와 더불어 싸우려고 ...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 분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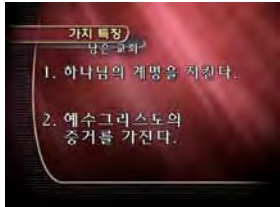
104

요 은 마지막 때의 교 를 구별 두 가지 징을 묘사 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 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손 곧 ...



10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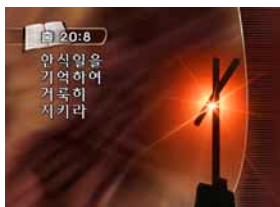
106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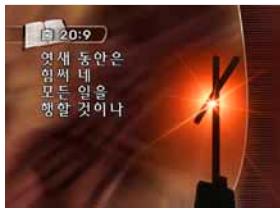
107

그런데 모든 교 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 야 다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 오늘 날 많은 교 들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 을 불순종 도록 조장 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중들은 우상에게 절 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다른 교 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는데 도 관심이 없다.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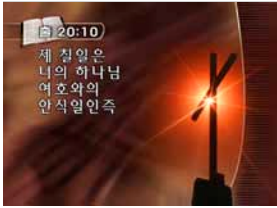
(본문: 출 20:8-10) 세계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넷째 계명에 묘사된 창조의 기념 일을 잊어 버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9

엿새 동안은 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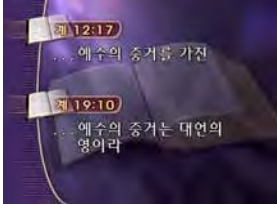
110

제 철일은 너의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즉 출 20:8-10



111

(본문: 계 12:17) 하나님의 남은 자손, 또는 마지막 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언은 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 다. (계 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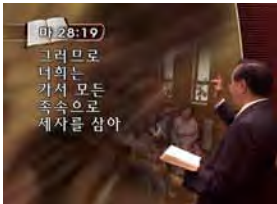
112

(본문: 계 19:10) 계 19:10절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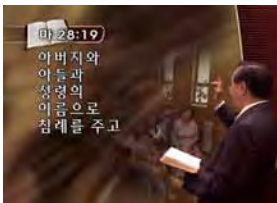
113

하나님의 마지막 교는 예언의 신을 예언의 선물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예이 별 선물에 대 더 자세 공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교를 찾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다른 징들을 주셨다. 그분의 백성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 사명과도 연관이 된다. 예수님이 교 에 그 사명을 위임 셧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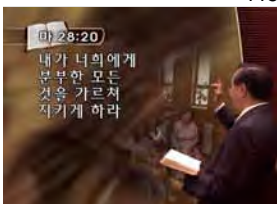
114

(본문: 마 28:19, 20) 그러므로 너 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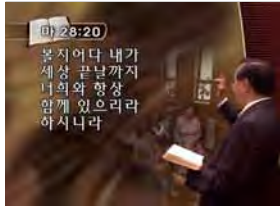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116

내가 너 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라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 28:20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니라 마 28:19, 20

117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니라 마 28:19, 20



118

세상에 외칠 영원 복음을 위 명령은 계 14장에 늘을 날아가는 세 천사의 모습으로 상징되었다. 첫 번째 천사의 처음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외쳐져야 중요 두 진리를 강조 다.



계 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119

(본문: 계 14:6, 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계 14:6  
 땅에 거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 영원 복음을 가졌더라

120

땅에 거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 영원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121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 14:7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122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 14:7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더라

123

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더라 계 14:6, 7.



124

이것은 지구의 마지막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경고의 기별이다. 그리고 제 칠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케 하는 기념의 날이다. 세 천사의 기별의 두 번째 기별은 8절에 있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25

(본문: 계 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 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26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 14:8. 이 기별은 나뉠 참 백성들이 된 거짓 종교에서 나올 것을 요청 다. 그들의 관심이 오늘 날 일어나는 종교의 배교에 모아져야 다. 마지막 소가 이 예언의 세 번째 부분에 주어졌다.



127

(본문: 계 14:9, 10)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말 되



128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29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 14:9, 10



130

세상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그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다.



131

(본문: 요 10:16)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니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10: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내게 있어 내가  
안도하여야  
할 터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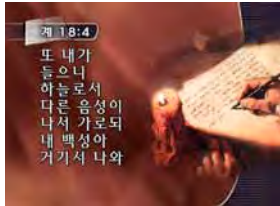
저 도 내 음성을 듣고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  
리라 요 10:16

132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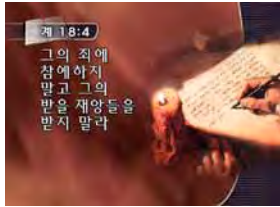
나님은 모든 교 에 그분을 신실 따르는 자들을 가지  
고 계신다. 그런데 그들이 진실 양 무리 은 진실  
교 로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진실된  
양 무리를 나님의 가르침 대로 따르지 않는 곳에서 불러  
내신다고 말씀 신다.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본문: 계 18:4) 요 은 그 때를 이렇게 예언 다. 또 내  
가 들으니 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134



계 18:4  
그의 죄에  
참여 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 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4. 나님의 신실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중  
교적인 오류와 란에서 불러냄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종교적인 란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을 백성들  
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 것인지 궁금 것이다.

135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여의  
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본문: 계 14:12, 14)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  
는 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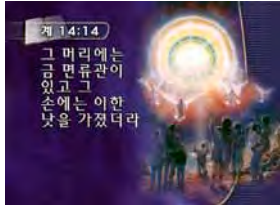
136



계 14:14  
또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또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  
은 이가 앉았는데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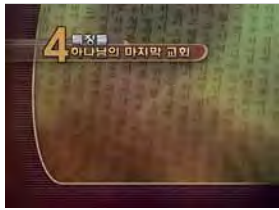


계 14:14  
그 머리  
에는  
금 면류관  
이 있고  
그 손  
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낫을 가졌  
더라 계 14: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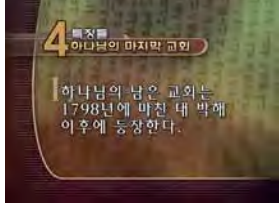
138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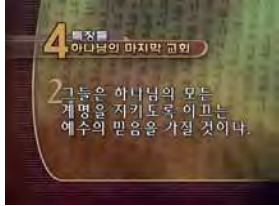
139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의 징 몇 가지를 간단 복습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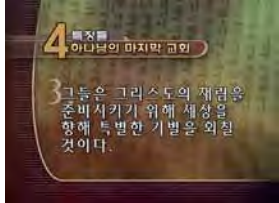
140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1798년에 바친 대박 이후에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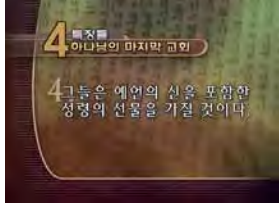
141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이끄는 예수의 믿음을 가질 것이다.



142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상을 향해 특별한 기별을 외칠 것이다.



143

그들은 예언의 신을 포함한 성령의 선물을 가질 것이다.



144

처음에는 모든 교인들이 똑같다고 여길 것이다.



## 20-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45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말씀에 나타난 기별들을 살 볼 때, 많은 교 들이 성경적인 이 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 게 될 것이다. 아마 그대는 이런란 종교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교 를 찾고자 노력 는지도 모른다. 나는 세상에 진리 교 는 단지 교 라고 믿는다. 이것은 성경을 충실 믿고, 그리스도 중심이며, 안식일을 지키고, 세계적인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교 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제칠일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다. 나는 이 교 가 진리 교 의 모든 성을 다 가졌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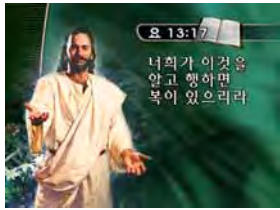
146

이 놀라운 예언을 공부 때, 그대는 하나님은 별 기별을 가지셨고, 이 기별을 세상에 전 별 사명을 가진 백성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는 충분 지 않다.



147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 동 으로 얻을 수 있는 복과 를 얻기 위 ,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대로 살고자 나설 요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신다.



148

(본문: 요 13:17) 너 가 이것을 알고 면 복이 있으리라 요 13:17



149

나눔은 그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 결정을 위 그대를 초청 신다. 이 전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전 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 는가? 그대는 이 전도 동안 성령이 그대에게 말씀 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은 우리가 중요 결정을 기 위 감 를 끼치신다. 이제는 결정 시간이다. 그대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영접 니다. 당신의 진리를 따르길 원 니다. 성령이 께 주시길 원 니다. 이제부 영원 주님을 따르길 원 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선 니다라고 말 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정 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1

하나님은 여전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2

세계 도처에서 과학자들은 강력한 라디오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우주에서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



3

그들의 소망은, 언젠가 다른 세계의 더 지적인 존재에게서 어떤 기별을 듣는 것이다.



4

지금으로부터 수 천년 전에 지구에 온, 그러나 그저 소수의 사람이 들은 기별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이 기별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서 온 사랑의 기별인데, 하나님이 반역한 그분의 백성들을 되찾겠다는 기별이다.



5

하나님과 인류가 이처럼 항상 분리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두 사람을 위한 완전한 세계였다.



6

(비디오: 7 초) 에덴 동산에 그들의 집이 있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대면하여 걷고 말씀하셨다. 시원한 저녁, 함께 산책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7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함께 있는 아름다운 관계였다. 그들을 분리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음이 틀림없다.



8

그러나 슬픈 사실은, 이 사랑하고 함께 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단지 성경 2장을 넘기기 전에 깨어졌다는 것이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창세기 3장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법칙에 반역했다. 죄는 분리시킨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루스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대신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다.



창 3:8  
그들이 날이 서  
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문: 창 3:18)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 3:8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창 3:8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 3:8.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대면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단지 숨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다.



분리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고 분리 시키는 것이다.



사 59:2  
오직 너의  
죄악이 너의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본문: 사 59:2)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직 너 죄악이 너 와 너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17

너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2.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하지만 죄는 그분의 사랑에서부터는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사랑은 항상 함께 만나고 접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8

하나님은 지구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과 교통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분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셨다. 그는 남녀를 택하여, 그들을 통해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계획들을 말씀하셨다.



19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 미리암, 사무엘, 엘리야, 홀다, 드보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20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다.



21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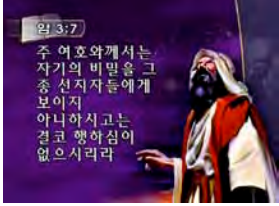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과 많은 성경 인물 사이의 수 많은 대화들을 기록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대화와 사랑의 관계에는 미치지 못한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23

때때로 하나님은 성령, 거룩한 천사들, 그분의 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인류의 처음 2,5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다(혹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시를 말로 전달했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그분의 백성들과 교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빈번히 사용하신 방법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한 것이었다.



24

(본문: 아모스 3:7)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 3:7



25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별을 받았는지 주목해 보자.



26

(본문: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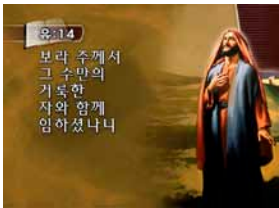
27

오직 성령의 감동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1. 하나님은 물론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선지자를 택하여 가지고 있었다.



28

(본문: 유 14) 예녹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언하였다. 아담의 칠 세손 예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29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 14. 예녹은 예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30

(본문: 행 3:21) 성경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말한다. 행 3:21. 노아와 다른 선지자는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였다.



31

홍수 이후 미리암과 드보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하였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의의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도덕적, 영적 인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다.



32

때로 하나님은 이상과 꿈, 그리고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항상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



33

(본문: 민 12:6) ...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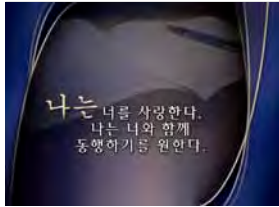
34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 12:6. 종종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때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사실, 성경은 선지자들이 사역한 귀한 작품이다.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



35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고 기록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다.



36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특별 그분은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날을 간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길 바라신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37

모든 신약을 기록한 기자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는 그 계획 속의 한 부분이였다. 그들 모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였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시몬, 야고보, 바나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38

(본문: 행 21:9) 그[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였고 초기 기독교에 용기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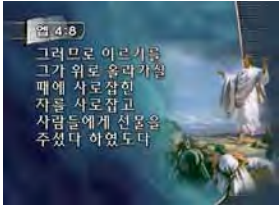
39

예수님이 오신 뒤, 그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보여 주셨다. 이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 땅에 증거한 존재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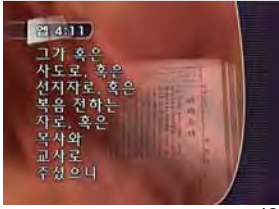
40

갈보리 사건 후 19세기가 지난 뒤, 남녀, 소년, 소녀들은 여전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였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갔을 때, 성경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을 주고 용기를 북돋을 선물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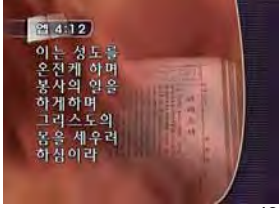
41

(본문: 엡 4: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엡 4:8. 그 선물이란 무엇인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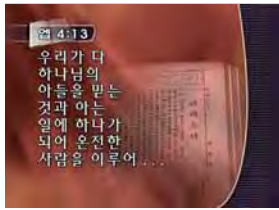
(본문: 엡 4:11-15)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엡 4:1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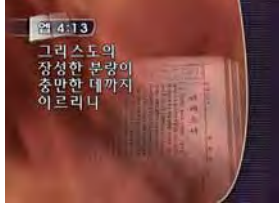
왜 예수님은 교회에 선물을 주시기로 선택했는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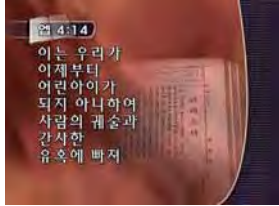
44

교회에 언제까지 이 선물을 남아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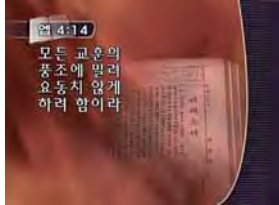
45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 절. 성경은 이 선물들이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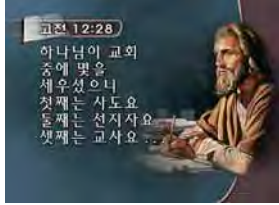
46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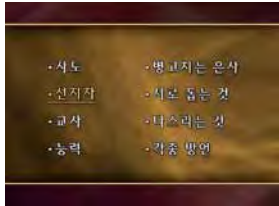
47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4 절. 예언의 선물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선물의 한 목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하라.



48

(본문: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고전 12:28.



49

예언의 선물은 사도를 두 번째 항목에 넣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돕기 위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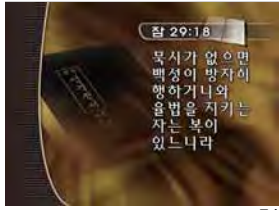


50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사람의 각 지체에 비유하길 좋아했다. 그는 눈, 머리, 입, 그리고 다른 모든 지체가 인간의 몸에 조화를 이루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준다.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다. 예를 들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교회는 장님이 된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51

(본문: 잠 29:18)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29:18.



52

그러나 그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죽었는데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되었지?라고 물을 것이다.



53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부주의하고, 혼합되고, 불순종 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한 동안 배교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다.



54

(본문: 애 2:9) ...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55

초대 교회가 이교 의식과 관습에 혼합되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왜곡시켰을 때, 하나 둘씩 성령의 은사는 보류되었다.



56

교회의 배교 기간 또는 중세 암흑 시대 동안, 성경은 수도원의 강도상에 묶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기록되었었다.



57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단지 성직자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 신실한 몇 신자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해를 무릅쓰고 그들은 선교 사업을 감행하였고 그들이 소유한 성경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위클리프, 루터, 허스와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훨씬 전부터 사실상 종교 개혁의 근원이 되었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58

(비디오: 8 초) 루터와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쓰는 일반 언어로 번역하였다. 박해가 가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



59

그리고 사람들이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였을 때, 수 세기 동안 가려졌던 진리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진리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대 종교적 각성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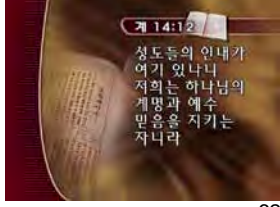
60

이 시기에 새로운 종교 운동이 전개 되었다. 신실한 새 그리스도인 모임, 몇몇 침례교도들,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 등이 모여 성경을 연구하며 빛을 간구하였다.



61

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4째 계명 즉,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강조한 계명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또한 계시록을 읽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62

(본문: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그들이 다른 성경 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포함한 것임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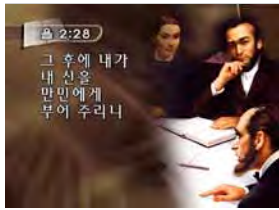
그들은 이 창조의 기념일을 받아들였고 세상에 안식일 진리를 선포하였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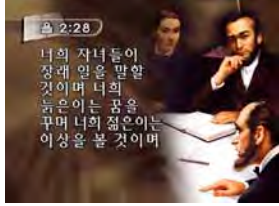
(비디오: 11 초) 예언의 선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예언의 선물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것인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가?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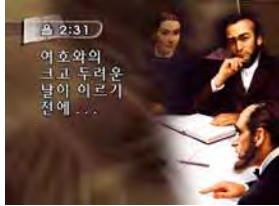
65

(본문: 욥 2:28, 31) 잘 들어 보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66

너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67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 욥 2:28, 31.



68

하나님이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또는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의 선물을 가질 것이다. 고린도 교회와 이야기 하면서 바울은 이 구절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연관시킨다.



69

(본문: 고전 1: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고전 1:7.



70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 계 12:17



71

성도의 인내



72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73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질 것이다.



74

(보문: 계 19:10) 우리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 19:10)는 말을 들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선물을 복으로 받은 교회라 특징지어져 있다.



75

그렇다. 하나님은 여전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시길 원하신다. 그분은 여전 이 세대를 위해 할 말이 있으시다.



76

그러나 그대는 아마 속임수일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77

거짓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역사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었다. 만약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는 쉽게 드러날 것이다.



78

성경은 참 선지자의 특별한 시금석을 제시한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하나님의 참 선지자**  
1.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79

참 선지자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완전 일치한다.

**사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80

(본문: 사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사 8:20

**하나님의 참 선지자**  
1.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2.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81

참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렘 28:9**  
...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82

(본문: 예레미야 28:9) ...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렘 28:9

**하나님의 참 선지자**  
1.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2.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3. 교회를 굳게 세운다.

83

참 선지자는 교회를 굳게 세운다. 하나님이 예언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만약 참된 선물을 발견한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고전 14: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84

(본문: 고전 14:3, 4)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

**고전 14:4**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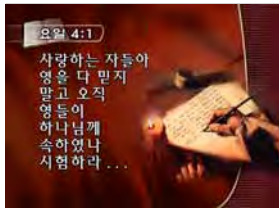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전 14:3, 4.

**하나님의 참 선지자**  
4.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높인다.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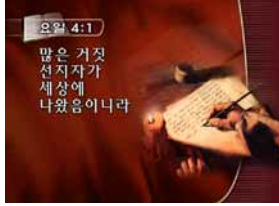
참 선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로 높인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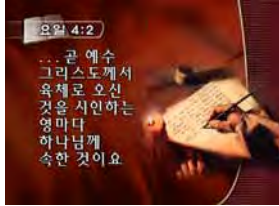
87

(본문: 요일 4:1, 2)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



88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89

...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일 4:1, 2.



90

참 선지자는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안다.



91

(본문: 마 7:16, 18)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



92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따듯나 마 7:16, 18



93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공언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94

참 선지자의 기별, 그의 생활, 행위는 성경의 기별과 거룩한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뒷받침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자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들이 맞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만약 그들이 맞지 않으면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95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기로 선택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오래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19세기 초, 종교 대 각성 기간에 있었다. 성경 연구와 기도하는 일에 매우 열정을 보였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96

신실한 성경 연구가들은 이 예언들을 연구하였고 결국 예수님이 그들 시대에 재림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97

성경 연구를 계속하면서 1844년 10월 22일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 10월 22일이 지나갔지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다.



98

이것은 가장 쓰라린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잘못 되게 표현하였다.



99

(비디오: 8 초) 후에, 많은 기도와 더 깊은 성경 연구로 그 무리들은, 그 날짜는 맞지만 그 사건은 잘못 설정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단 8:14절의 성소를 지상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 불로 정결케 되는 지상 성소 대신, 그것은 하늘 성소의 정결을 의미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부에 대한 최후의 변호와 입증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100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실망은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신실한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재림을 믿는 위기에 처한 이 무리들을 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과 진정으로 돕고자 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예언의 선물을 회복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101

그분은 가엾은 17세 소녀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계시를 허락하셨다. 엘렌 하몬은 대 실망 이후, 1844년 12월 첫 계시를 받았다. 그녀는 재림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늘에서부터 비취오는 빛을 따라 좁은 길을 통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계시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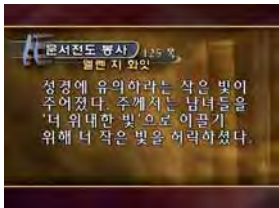
102

작고, 거의 다 어져버린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기별이었겠는가! 그 무리가 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가 되었다.



103

이 젊은 여인은 재림 교 의 초기 개척자 제임스 잇과 결 여 엘렌 잇이 되었다. 남 제임스 잇은 엘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70년 이상, 그녀는 하나님을 위 말 고, 저술 고, 가르치고, 상담 였다. 비록 그녀의 사역 과 저술, 동들이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녀는 상 사람을 인도 는 것은 더 위대 빛 - 성경이라고 말 였다.



104

그녀는 이렇게 말 다. 성경에 유의 라는 작은 빛이 주어 졌다. 주께서는 남녀들을 '더 위대 빛'으로 이끌기 위 더 작은 빛을 락 셧다. 문서전도 봉사, 125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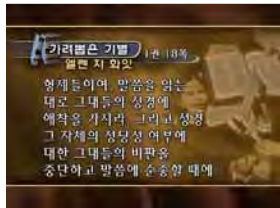


105

그녀는 거룩 성경을 모든 교리적 문제의 최 시금석으 로 삼았다. 성경 말씀을 비 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 게 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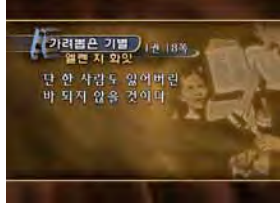


## 21- 별 너머에서 온 기별



106

제들이여, 말씀을 읽는 대로 그대들의 성경에 애착을 가지라.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 그대들의 비 을 중단 고 말씀에 순종 때에



107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8쪽(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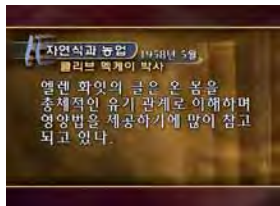
108

어떤 여성 작가도 엘렌 잇처럼 많은 종교 서적들, 잡지, 랫, 개인 서신들을 기록 지 못 다. 그녀가 이 모든 기별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증거는 그 당시 그녀와 께 살았던 사람들이 수 없이 증거 고 있다.



109

승리 신 그리스도의 삶을 여 식생 , 건강, 마약, 결 , 가정, 자녀 교육, 태교 등 이루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대 저술이었다. 그녀의 많은 저술들은 대의 과 적 발견에 비 100년 정도는 앞서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글은 오늘 날 많은 의사들, 교수들, 언론인들, 다양 분야의 권위자들에 의 인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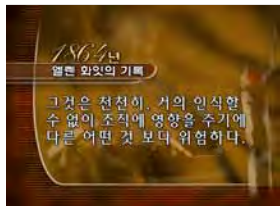
110

미국 코넬 대 의 영양 박사인 클리브 맥케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 다. 엘렌 잇의 글은 온 몸을 총체적인 유기 관계로 이 며 영양법을 제공 기에 많이 참고가 되고 있다. --자연식과 농업, 1958년 5월.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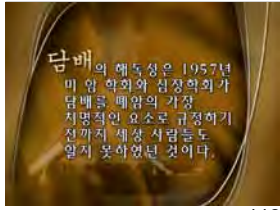
이미 1864년에 잇은 이렇게 말 다. 담배는 가장 로운 독소이다...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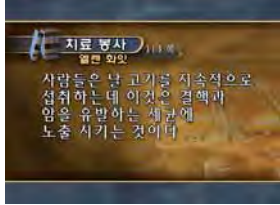
그것은 천천히, 거의 인식 수 없이 조직에 영 을 주기에 다른 어떤 것 보다 위 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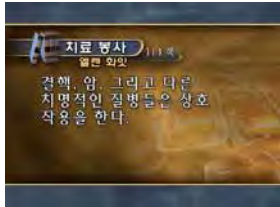
113

지만 담배의 독성은 1957년 미국 암 학회와 심장 학회가 담배를 폐암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규정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잇이 살던 그 당시에 의계는 그녀의 이런 글에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연이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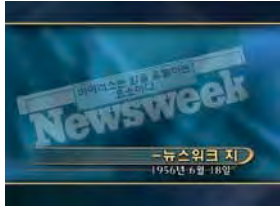
114

1905년 잇 부인이 암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해 기록한다. 사람들은 날 고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데 이것은 결과 암을 유발하는 세균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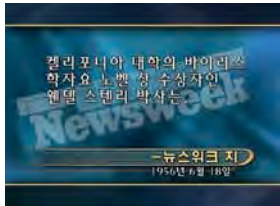
115

결핵, 암, 그리고 다른 치명적인 질병들은 상호 작용을 한다. 치료 봉사,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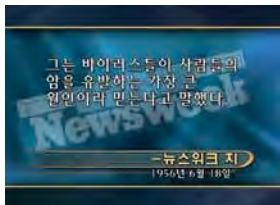
116

물론, 오늘 날 우리는 잇 부인이 사용했던 세균이란 말보다 더 정당한 단어인 바이러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93년, 뉴스위크란 잡지는 바이러스들은 암을 유발하는 요소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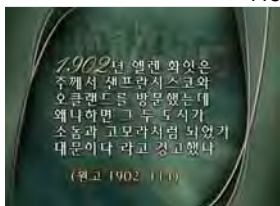
117

켈리 니아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요 노벨 상 수상자인 웬델 스텔리 박사는,



118

그는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의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 위크, 1956년 6월 18일.



119

1902년 엘렌 화잇은 주께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방문하는데 왜냐하면 그 두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원고 1902, 114).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120

1906년 4월 18일, 샌 프란시스코 대 지진이 발생 했다. 그 예언은 사실이 되었다. 예상된 과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잇이 이룬 많은 일들은, 그녀가 일생 동안 겪게 된 수 많은 난관들과 장애들을 생각 때 대단 놀라운 것이다.



121

어떤 사람은 엘렌 잇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 의문을 제기 것이다. 이 질문에 대 대답을 위 1827년 11월 26일로 가 보자.



122

그 날, 이 소녀 엘리자벳, 엘렌 자매는 메인 주 골 이란 작은 마을 근처에서 유니스와 로버 몬의 슬 에 태어났다. 엘렌은 8남매의 막내였다.



123

아 살 때 일어난 사고는 그녀의 일생을 영원 바꾸었다. 교에서 집으로 돌아 오던 중, 친구가 던진 작은 돌에 맞아 심각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124

3주 동안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업을 계속 수 없었고, 그리 오래 살지도 못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초등 교를 다 마치지 못 다.



125

에, 엘렌은 아 살에 있었던 과거를 상 였다. 사실 업을 계속 수 없고, 뛰지도, 언니 오빠들과 께 놀지도 못 였던 그녀는 참으로 든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 상심의 계절이 지나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도 래 였다. 엘렌은 열렬 성경 탐구자가 된 것이다. 그녀는 성경 연구 집 와 구역반, 부 에 열심 참석 였 다.



126

메린주 북스 에서 있었던 감리교 집 에 참석 그녀는 1842년 6월 26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감리교인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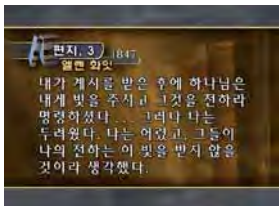
127

에 잇과 그의 가족은 메인 주 랜드에서 열린 집 에 참석 였다. 설교자는 윌리엄 밀러였는데, 그는 전 직 군 장교 였고 성경을 열렬 연구 던 사람이었다. 밀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 음 을 믿고 전 였으므로 재림교도 은 밀러주의자라 불리 였다. 몬 가정은 밀러의 기별을 신 였다.



128

지만 1844년 10월 22일 대 실망이 였은 뒤 그들은 너 무 실망이 컸다. 엘렌 역시 크게 낙심 였다. 그녀는 울면 서 기도 였고, 그 당시 재림 교도라 불렸던 사람들이 그 랐던 것 처럼 나님의 응답을 기대 며 성경연구에 몰두 였다. 그 때, 나님은 그녀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인간 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녀는 선지자로 기대되기 든 소 녀였다. 그녀는 17세 소녀로서 결 과 심장 병에 시달 리고 였었다. 1844년 12월, 나님은 그녀에게 계시를 락 셧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 다.



129

내가 계시를 받은 에 나님은 내게 빛을 주시고 그것을 전 라 명령 셧다.... 그러나 나는 두려웠다. 나는 어렸 고, 그들이 나의 전 는 이 빛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 다. 엘렌 잇 지 3, 1847.



130

나님이 그녀를 부른 이 직분이 인간적인 관점에서선 불가능 보이는 직분이라 지라도, 믿음으로 그녀는 나님의 이 사역을 받아들여 마지막 생명을 다 때까지 충실 감당 였다.



131

엘렌과 그녀의 남 제임스 잇은 나님께서 주신 빛을 나눠 주기 위 께 사역 였다.



132

그들의 신은 많은 그녀가 남긴 많은 저술을 사람들 에게 나눠졌다. 일생을 그녀는 그리스도께 신 였 고, 나님의 종으로서, 신된 어머니로서 지칠줄 모르는 봉사를 다. 그녀는 남 과, 가족과, 세계의 도처 수 천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133

1881년 8월 6일, 엘렌의 남편 제임스 잇은 미시간 주 베 크릭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무덤에 선 가없는 엘렌은, 35년 이상이나 남편과 함께 던출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을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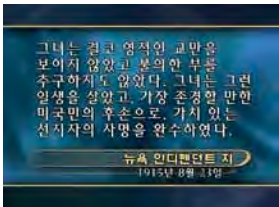
134

그녀의 가장 아름답고 영감적인 저술 가운데 상당수는 이 시대 이전에 나타난다. 그녀는 34년을 더 이 사역에 헌신했다. 그녀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하나님이 그녀를 이끈다고 믿는 신자들을 교양하고, 상담하고, 가르치는, 그녀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135

엘렌 고울드 잇의 생애와 사역은 1915년 7월 16일 막을 내렸다. 그녀는 87세에 세상을 떠났고, 미시간 주, 베 크릭의 오우크 묘지, 남편 옆에 안치되었다. 그녀의 죽음 몇 주에 신문은 이렇게 실었다.



136

그녀는 결코 영적인 교만을 보이지 않았고 불의 부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일생을 살았고, 가장 존경만 미국민의 손으로, 가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했다. ---뉴욕 인턴지, 1915년 8월 23일



137

그녀의 목소리는 없고 그녀의 은 멈추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들려줬던 값으로 살 수 없는 교양, 용기의 말, 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 승리를 얻기까지 여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138

(비디오: 6 초) 세상을 위 그녀의 유산은 사랑의 선물 곧, 우주와 지구에 온 그 기별, 자녀와 함께 여전 동행 기원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의 기별이다. 그 작은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빛에 우리를 서게 기원 이점 가 될 것이다. 모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 여 보기 위 긴요 안내자가 될 것이다.



139

오래 전에, 남아리카의 방대 사막에 수쿠바라는 원주민 부시맨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목민으로서 사에서 고립된 생을 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짐 간단 만든 그의 거처에 들어가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밤이 낮보다 더 밝아졌다. 빛나는 빛이 나와 그에게 책에 나오는 사람을 찾으라 말한다. 그는 반드시 나뉘는 경배는 사람을 만나야 다. 수쿠바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 다. 책은 무슨 책이란 말인가? 그는 번도 글을 배우지 못 다. 지만 이 광채나는 존재는 그에게 말 기를 그 책을 내가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다.

수쿠바는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책을 찾기에 몇 일을 보냈다. 그는 시 그들이 이 책에 대해 알고 있을까 여 반 농부들의 오막살이를 찾았다. 그 종족 사람은 수쿠바의 이야기를 듣더니 즉시 그를 그의 목사님에게 소개 했다. 수쿠바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을 받은 목사님은 그대의 여은 끝났다라고 말한다. 수쿠바는 매우 복 다. 그러나 그날 밤 나타난 광채나는 존재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말 기를 그들은 그가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와 모에 목사를 찾으라고 다. 모에 목사는 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4권의 책은 원래 9권이라 말한다. 그 다음 날 수쿠바는 적을 주시기를 기도 다. 그는 어떤 방이 요 다. 그가 기도 을 때, 늘에서 점의 구름이 어 올랐다. 수쿠바는 그 구름을 따라 7 일 동안 여 을 다. 그런데 마을에 이르자 구름이 사라졌다. 그곳에서 수쿠바는 모에 목사를 찾았다. 그리고 즉시 그의 집으로 안내 되었다.

수쿠바는 그에 대해 이야기를 그의 언어로 말 을 때, 모에 목사님은 그의 낡은 성경을 내려 놓으며 바로 이거야! 라고 외쳤다. 바로 이거야. 그런데 4권의 책이 어디 있지, 분명 9권이었는데? 헬렌 잇은 수 년 전에 교 증언이라 불리는 나뉘는 교 를 권면 는 9권의 책을 썼다. 그리고 에 그 것은 4권으로 본이 되었다. 수쿠바의 연구는 끝이 났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백성을 찾았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예언의 선물로 복을 누리는 백성을 찾았다. 결국 그와 온 가족은 그리스도를 영접 고 침례를

## 21 - 별 너머에서 온 기별

받았다. 나님은 남녀들을 그분의 진리 교로 이끌기 위  
놀라운 방법으로 일신다. 그대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쿠바처럼, 그대도 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나님은 그대를 그분의 진리 교로 인도  
했다. 나님은 미래를 직면 용기를 그대에게 주신다.

아마 그대는 오래 동안 진리를 찾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대의 진리에 대해 여정에 끝이 왔음을 신다. 그대는  
거룩한 인도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 그대는 수쿠바가  
외쳤던 것처럼, 맞아, 바로 이곳이 나님의 교야!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  
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의 일원이 되길 원하지 않는가?  
나님의 마지막 이 백성의 일원이 되지 않으려는가? 심  
사숙고하라. 그대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이 될  
것이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

진리 교회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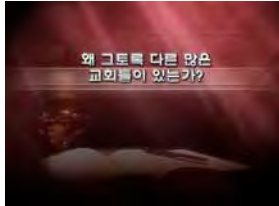
2

왜 세상에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들 교회가 진리를 가진 유일한 교회라고 말한다.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올바르게 믿고 가르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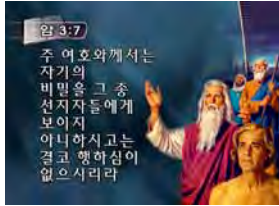
3

친구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준다.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준다.



4

그래서 이 시간 공부의 주제는 왜 그토록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5

(본문: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6

(비디오: 4 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어떤 것이 만약 성경에 없다면 이것은 나에게 정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7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찾아 보자. 계시록 6장은 4 말에 대해 이야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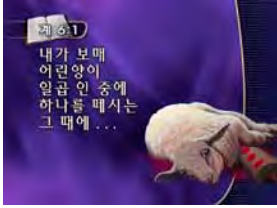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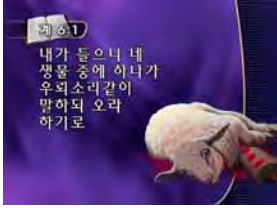
8

여기에 등장하는 4 말은 기독교 교회 역사의 다른 시대를 표상 한다. 이 다른 시대를 통해, 우리는 그 다른 교회들이 오늘날 의 교회가 되기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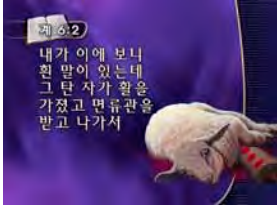
9

(본문: 계 6:1) 내가 보매 어린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



10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 6:1.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여기 6장에 계시되고 있다.



11

(본문: 계 6: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12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 6:2



13

그 첫 번째 교회는 믿음을 정복한 교회였다. 이것은 흰색 말이었다. 흰색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한다.



14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한 세기 동안을 산 사람들은 아주 전율이 넘치는 생활을 하였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5

제자들은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찬 생활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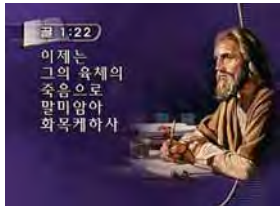
그들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대단한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였다.



17

골 1:21  
전 행나 마 원수  
너희를

(본문: 골 1:21-23) 실제로 구원의 복음은 그 당시 알려진 세상 도처에 전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18

골 1: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19

골 1:22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20

골 1:22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1

골 1: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 22- 많고 많은 선택들



22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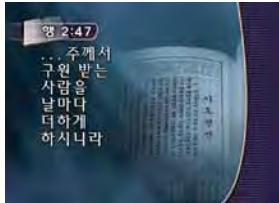
23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골 1:21-23.



24

(본문: 행 5:14)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행 5:14. 사도행전은 하루에 수 천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한다.



25

(본문: 행 2:47) ...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다.



26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침례를 받았다. 초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실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수 차례의 경고를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27

(본문: 행 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29.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 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그대도 잘 아는 바다.



28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믿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쳤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29

오늘 우리는 이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단순하고 순결한 믿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력이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순결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1세기 교회 신자들이 가진 믿음이었다.



30

승리한 믿음을 가진 첫 번째 교회는 흰 말로 상징된다. 이 시기는 서기 100년 경에 막을 내린다.



31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32

(본문: 계 6: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 . .



33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 6:4. 우리는 여기서 붉은 피의 믿음을 본다.



34

서기 100년 후,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노예로, 어떤 이들은 로마 제국 내의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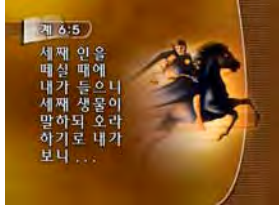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기간이었던가!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자라났다. 한 교회 역사가는 기독교인들이 부린 피는 마치 부려진 씨앗과 같았다고 기록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어 갔을 때, 그것은 부려진 씨와 같이 무럭 무럭 자라났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로마 전 제국과 그 시대의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36

그래서 붉은 말은 순교의 피를 상징하였다. 이 두 번째 인은 서기 100년부터 323년까지의 교회를 나타낸다.



37

(본문: 계 6:5)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인을 떼신다. 그 기간은 기독교 교회의 세 번째 기간이다.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38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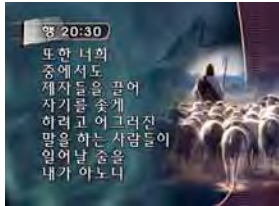
39

이 검은 말은 타협한 믿음을 상징한다.



40

(본문: 행 20:29, 30)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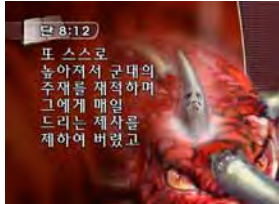
41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행 20:29, 30.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참으로 슬픈 기간이었다.



42

이 기간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타협한 믿음의 시대였다.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했다.



43

(본문: 단 8:12)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재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 22- 많고 많은 선택들



44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단 8:12



45

이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가장 큰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교회의 다른 요구 조건으로 대체 되었다.



46

만약 그대가 전에 공부한 것을 기억한다면, 성경상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것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것을 결코 소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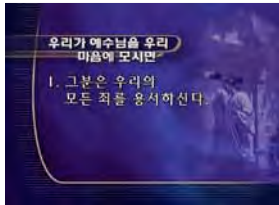
47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은 단순한 복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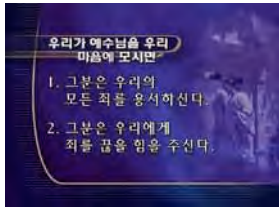
48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그 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한다.



49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50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끊을 힘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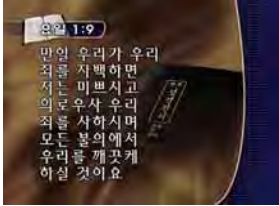
51

그러나 이 단순한 구원의 진리, 이 단순한 복음은 믿음이 혼합된 기간 동안 교회의 요구 조건에 의해 대체 되었다.



52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대신,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 기독교인들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사제를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



53

(본문: 요일 1:9)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54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를 찾아가다. 그들은 인간에게 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더 이상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다. 구원은 매우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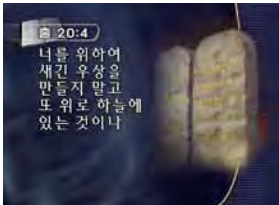
55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실제로 법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인쇄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의 단 한 조각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신자들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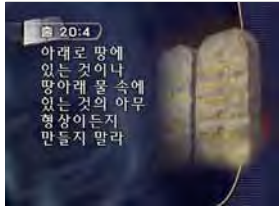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 혼합된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섬기는 것 보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에 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다.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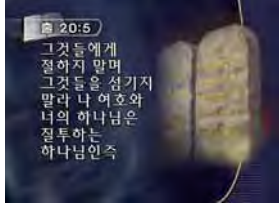
(본문: 출 20:4, 5)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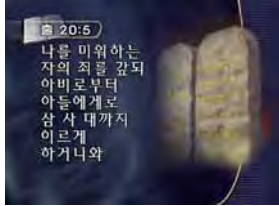
58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60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4, 5.



61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기간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62

이 기간 동안 타협된 세 번째 진리는 계명에 포함된 안식일, 넷째 계명이다.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을 살펴보자.



63

(본문: 단 7: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변민케 한지라 단 7:15



64

그대는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는지 알 것이다. 그는 예배의 날을 제 칠일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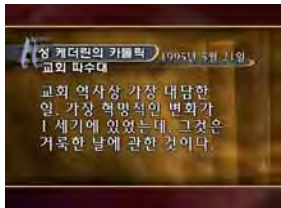
65

(본문: 요 14:15)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요 14:15. 타협된 믿음을 가진 이 기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냉담해 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전통을 따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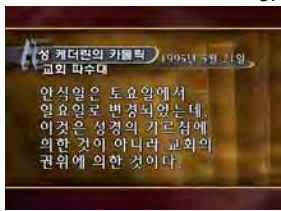
66

교회는 안식일을 타협했다. 그리고 예배일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1995년 5월 21일 발행된 성 케더린의 카톨릭 교회 파수대는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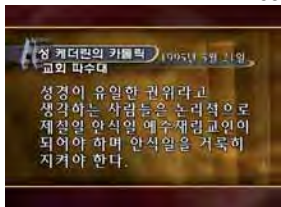
67

교회 역사상 가장 대담한 일,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1 세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거룩한 날에 관한 것이다.



68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의한 것이다.



69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 되어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70

주일 중 첫 날인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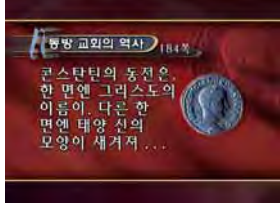
그 변경은 서기 320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교회는 그 변경을 받아들였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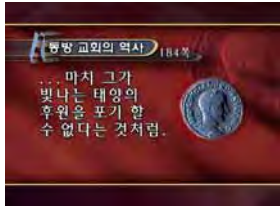
72

친구들이여, 만약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어야 한다. 대 타협의 시대에, 일요일에 예배하던 이방의 습관이 성경의 거룩한 안식일을 대신한 것이다.



73

동방 교회의 역사, 184 쪽은 이렇게 말한다. 콘스탄틴의 동전은, 한 면엔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한 면엔 태양 신의 모양이 새겨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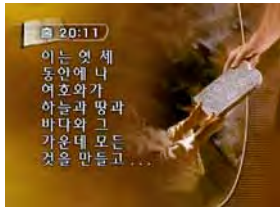
74

. . . 마치 그가 빛나는 태양의 후원을 포기 할 수 없다는 것처럼. 흥미롭지 않은가?



75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분의 계명 속에 두셨다.



76

(본문: 출 20:11) 이는 옛 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 . .



77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11



78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길 바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창세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79

(본문: 창 2: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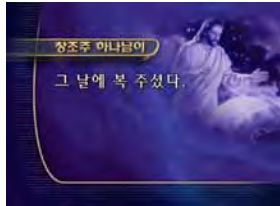
80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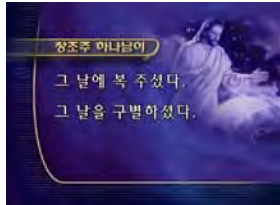
81

창조주 하나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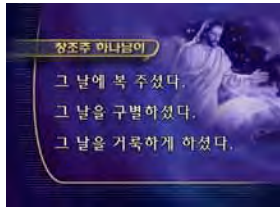
82

그 날에 복 주셨다.



83

만약 그분이 그 날을 구별하셨다면



84

만약 그분이 모든 날 보다 한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면, 인간은 그것을 변경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경배의 문제이며 순종의 문제이다.



85

이것은 믿음의 타협이 있던 시기이며 기간은 서기 323-536년 까지이다.



86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교회의 네 번째 교회인 청황색 말로 넘어간다.



87

(본문: 계 6:7, 8)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 22- 많고 많은 선택들



8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89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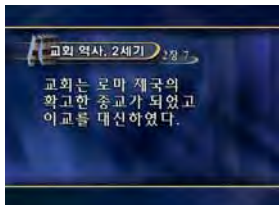
90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계 6: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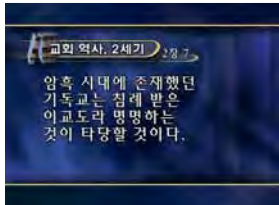
91

죽은 믿음-네 번째 인. 이 기간은 교회와 정치가 혼합된 기간이었다. 거룩한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충분히 성장하였다.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정치와 교회의 연합을 목격한다.



92

이 문구를 간략히 살펴보자. 교회는 로마 제국의 확고한 종교가 되었고 이교를 대신하였다.



93

암흑 시대에 존재했던 기독교는 침례받은 이교도라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회 역사, 2세기, 2장, 7



94

이 기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전언한 것처럼, 이 시대에 인쇄 기술도 발견되기 전 일뿐더러, 실제로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95

사람들은 전통을 따랐다. 그들은 교회로 기어 들어온 이교의 풍습을 따랐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96

(비디오: 7 초)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단 하나의 교회는 로마 교회였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조직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갈급하는 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97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운 타협의 시대였고, 반면에 처참한 박해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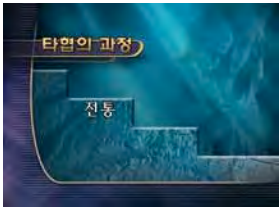
98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암흑 시대라 부른다. 5천 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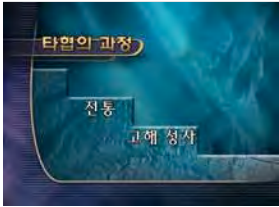
99

타협의 과정을 살펴보자.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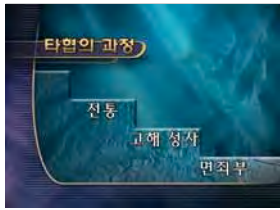
전통



101

고해 성사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02

면죄부가 교회에 들어왔다. 친척 누군가를 연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돈을 지불하면 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 죽음을 위한 연옥에 갈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온 이교의 풍습이었다.



103

하나님의 말씀에는 연옥이란 것이 없다. 우상 숭배는 교회 계급 조직과 교회 교의와 더불어 교회에 유입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원히 유린 될 것인가? 아마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빛은 어둠 속을 뚫고 비취기 때문이다. 교회가 암흑 시대에 진리를 잃어버렸던 하나 하나의 과정을 되 밝아 회복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104

종교 개혁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은 회복되었다.



105

1400년 대에 종교 암흑시대로부터 나온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왈덴스인들이었다.



106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재 발견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다면,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다.



107

북 이탈리아에서 우리는 성경을 진실하게 믿었던 왈덴스인들의 역사를 발견한다. 왈덴스 인들은 손으로 성경을 필사했으며 그 필사된 성경을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 자녀들은 필사된 성경 조각을 옷의 천 속에 숨겨 유럽의 마을로 갔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대학이나 큰 시장에서 성경 필사 조각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08

만약 그들이 붙잡히는 날에는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왈덴스 인들은 이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109

프라하에서 존 허스가 이끄는 성경을 탐구하는 무리들이 왈덴스인들을 뒤이었다. 허스는 그의 친구 제롬과 더불어 교회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10

그들의 순종의 표준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화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주검의 재는 강에 뿌려져 지중해에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뿌려진 그들의 재는 전 세계에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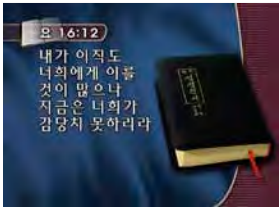
111

스와 제롬이 대에서 사라진 뒤, 독일에서는 마 루라는 사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 를 가능하다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 하였다.



112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갖는다. 왜 루터는 암 시대에 잃어버렸던 진리를 모두 다 복하지 못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한다.



113

(본문: 요 16:12) 내가 이직도 너 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 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 16:12.



114

잃어버린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세 암흑 시대에 진리를 잃어버리기까지 수 백년이 걸렸다. 이것을 다시 찾는 데도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15

루터가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가 주장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루터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루터의 죽음은 종교 개혁의 마침이 된 것이다.



116

독일에서부터 스위스의 제네바를 거치며 존 칼빈이란 성경 학도를 만나게 된다.



117

칼빈은 성경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은와 자비를 옷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18

그래서 칼빈은 소위 성령과 말하는 성장의 교리를 가르쳤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119

존 칼빈이 죽은 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가 평소에 하던 말을 따라 장로 교회를 설립하였다. 사실, 그대도 알다시피, 암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끊임없이 되찾아졌다.



120

칼빈의 시대가 가고, 성경을 연구하고 뿌리는 예식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한 북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룹이 있었다.



121

침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잠기는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재침례파라 불리운다.



122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물 아래 수장시키는, 잠기는 침례식은 중세에 잃어버린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였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침례의 상징이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23

(본문: 롬 6:3, 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12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125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6: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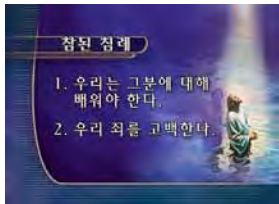
126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침례를 받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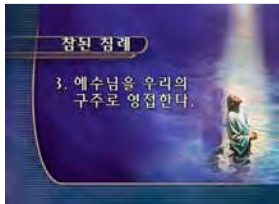
127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한다.



128

우리 죄를 고백한다.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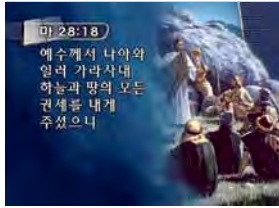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 많은 재침례파 신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하신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기 때문이다.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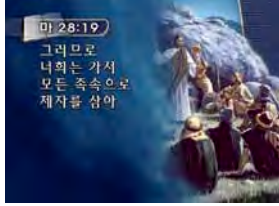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겸손한 시작으로부터, 침례교는 형성되었다.

## 22-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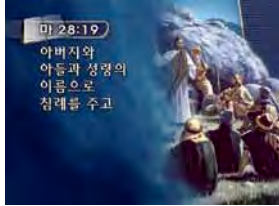
131

(본문: 마 28:18, 19)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32

그러므로 너 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3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 28:18, 19.



134

예수님은 그의 교 에, 나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다. 개혁자 침례교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온전 그 대 사명을 감당하였다.



135

그대가 보다시피, 각각의 종교 개혁자들은 암 시대에 잃어버린 진리들을 재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 진리들을 재 발견할 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연합하게 되었고, 에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와 같은 기독교의 주된 교파가 되었다.



136

영국에선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 했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37

그의 형제 찰스는 아름다운 찬미가의 가사를 작사 했고 그들은 이 노래들을 교회에서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침례를 받고, 은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존 웨슬레는 위대한 개혁자였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웨슬레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138

그런 다음 드디어, 남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등의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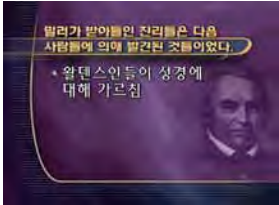
139

북아메리카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 14장을 연구하였다. 그는 또한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공부하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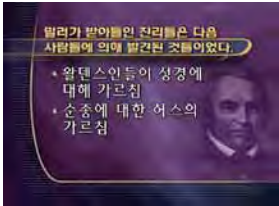
140

그런데 밀러가 받아들인 진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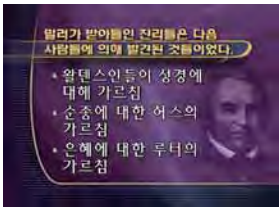
141

왈덴스인들은 성경에 대해 가르쳤다.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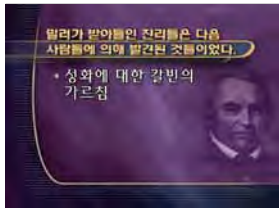
허스는 순종에 대해 가르쳤다.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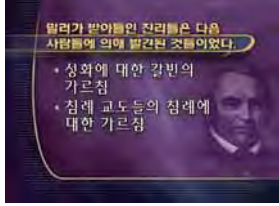
루터는 은혜에 대해 가르쳤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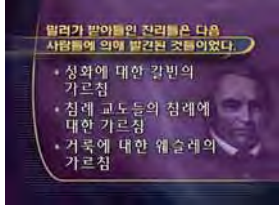
144

칼빈은 성 와 성장에 대해 가르쳤다.



145

재침례교는 침례에 대해 가르쳤다.



146

그리고 거룩에 대한 웨슬레의 가르침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교리에 더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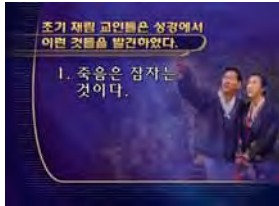
147

밀려 이 , 재림 운동은 계속되었다. 그의 동료들은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부 의 날에 다시 일어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경은 매우 분명 말하는데, 죽은 의인들은 무덤에서 그들의 이름을 명할 부 의 순간까지 자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결합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런 아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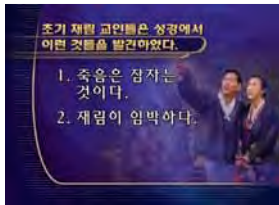
148

초기 재림 교인들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였다.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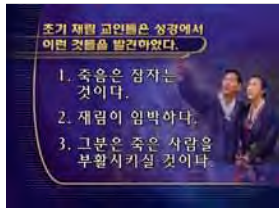
1.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150

2. 재림이 임박하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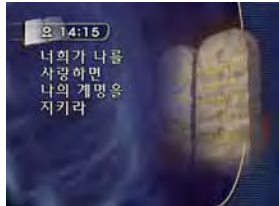
151

3. 그분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152

(본문: 살전 4:16) 주께서 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살전 4:16



153

(본문: 요 14:15) 밀러 이 , 재림을 믿는 신자들은 또한 요 14:15절의 이 말씀을 또한 발견하였다. 너 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 할 것이다. 단지 몇 개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려 할 것이다.



154

(본문: 마 15:9)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사람들은 인간의 강령과 명령을 가르친다.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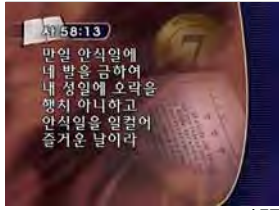
인간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156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구분하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이다. 성경에 있던 이 특별한 진리들이 속속 다시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이 진리들을 공부하다 마침내 하나로 연합되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성립되었다. 사 58:13, 14절은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을 보수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날에 대해 언급한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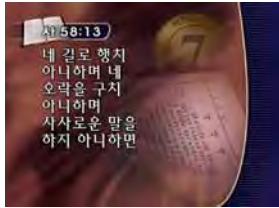
157

(본문: 사 58:13, 14)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이라



158

여 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159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60

내가 여 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161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162

여 와의 입의 말이니라



163

하나님은 분명 이 날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날에 어떤 사업적인 일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날에 우리의 사사로운 오락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64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첫째로 한다면, 그 경험은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매우 기쁜 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특별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들어 올리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첫째로 최고로 모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에게 내리는 복이 어떠하겠는가?



165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조품을 만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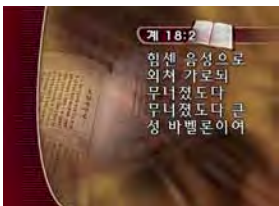
166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 무덤에서 잔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죽는 즉시 천당, 지옥, 연옥에 간다고 모조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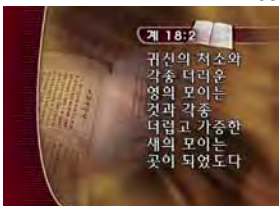
167

하나님은 잠기는 침례를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뿌리는 침례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진리를 주셨다. 하지만 사단은 건강 기별이 소멸되었다고 가르친다. 모든 진리는 거짓 모조품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돈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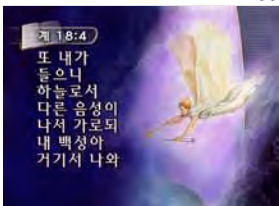
168

(본문: 계 18:2) 계시록은 이렇게 말한다. 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69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 18:2. 바벨론은 예언에 종교적 란을 상징한다.



170

(본문: 계 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 22- 많고 많은 선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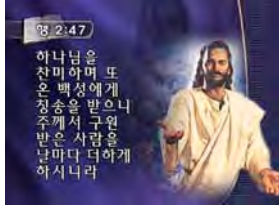
171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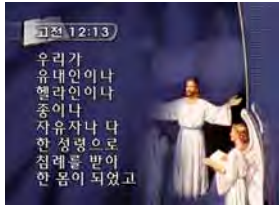
172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관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르신다. 친구여, 예수님은 지금 그대를 부르신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서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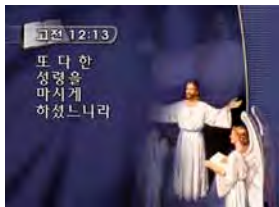
173

(본문: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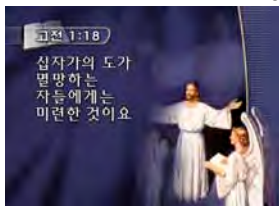
174

(본문: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175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176

(본문: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177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 22- 많고 많은 선택들



178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는다. 그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분은 곧 오셔서 우리를 준비된 하늘 집에 데려 가실 것이다. 그분을 기꺼이 따르지 않겠는가?

오늘 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며 분명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나타난 진리들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교, 박해와 타락,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한 모조품의 끊임없는 전쟁을 다시 인 할 수 있었다. 이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원래의 진리들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이끄신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종교적 란가운데서 진리의 길로 나오도록 부르고 계신다. 그대는 이 시간 천사가 부르는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로 나오라는 음성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1

어떻게 7재앙을 피할 것인가?



2

장소는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나라였다. 기원전 1445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215년 동안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 요셉을 존경하고 인정하던 좋은 바로들이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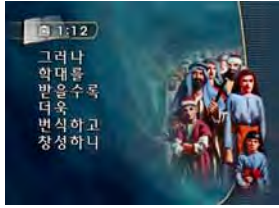
3

새로운 지도자는 그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증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반란의 위협을 느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집트를 대항하여 일어나면 큰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잡혀 있었다. 이집트의 지독한 취급 아래 강제 노예가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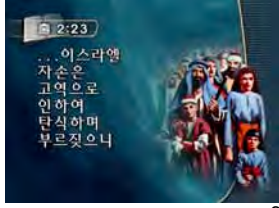
4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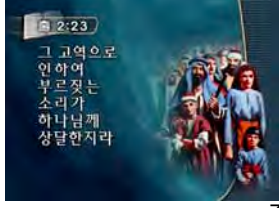
5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출 1: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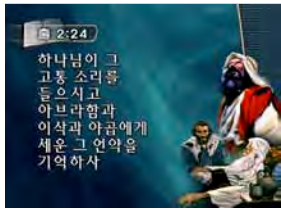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7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 2:23, 2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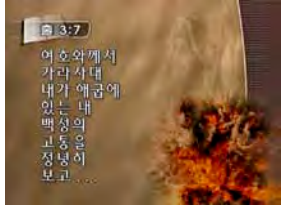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소유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세워진 후 400년 이상 지났다. 이제 그 날이 드디어 왔다. 하나님은 준비를 마치셨고 또한 그분 구원자도 준비를 마치셨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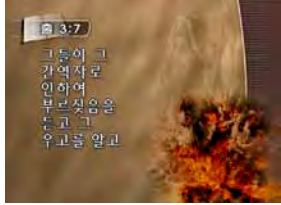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다. 궁전이 아니고 거대한 피라미드의 그늘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 옆에서 만났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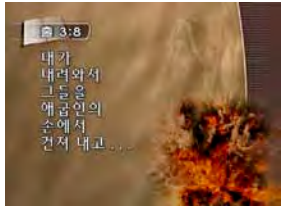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11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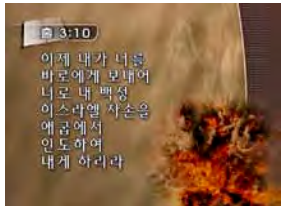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고... 출 3:7, 8.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13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14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15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16

모세가 궁전을 떠난지 어언 40년이 지난 뒤였다. 그가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쓰지 않은 것도 벌써 40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온전히 목자의 생애를 보냈다. 이집트 궁전에서 살던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그가 그토록 즐기던 자아 확신도 사라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17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행 7:22



18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는 겸손 이상의 것들을 배웠다.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인내와 온유를 배웠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백성을 돌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셨다. 겸손히 모세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였고,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사역으로 보였던 일을 감당하기로 하였다.



19

모세의 이 엄청난 사역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선택하셨다. 아론은 모세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을 뿐 아니라 오래 동안 이집트 말을 사용하지 않아 어눌해진 모세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20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교만하고 오만한 왕의 눈에 이상하게 차려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두 형제는 바로 앞에 섰다. 겸손한, 아직 그 손에 목자의 지팡이가 든 미디안 목자와, 또 다른 히브리 종.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선포하였다.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기별 즉, 그분의 백성을 보내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바로는 코웃음을 쳤다.



21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22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 5:2. 바로는 확실히 그 수 많은 노예들을 잃고 싶지 않았음이 틀림 없다. 아론의 요구는 더 혹독한 반항을 일으켰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가중시켰다.



23

그러나 곧 하나님께선 거만한 바로로 하여금 만군의 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는 재앙을 내릴 것임을 경고하였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4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출 7:17



25

곧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확히 열 재앙! 매 재앙이 내리기 전,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재앙을 알리며 그와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멸이 오기 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하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약속에 의해 독특한 재앙들이 이집트를 덮쳤다.



26

첫 번째,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신 중의 하나로 경배하던 나일 강은 아론이 지팡이로 그 물을 쳤을 때 피로 변하였다. 물고기는 죽었고, 이집트의 모든 물은 7일 동안 피로 변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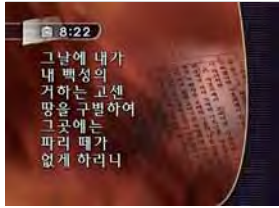
다음은 개구리 재앙. 수 백만의 개구리들이 음식에, 침대에, 어디에나 꿈틀 거렸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하였다.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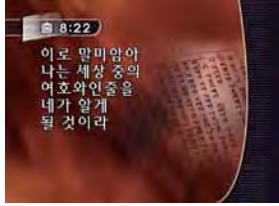
그 다음은 이의 재앙. 그러나 오만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처음 세 가지 재앙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다. 그런데 나머지 일곱 가지 재앙은 오직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렸다.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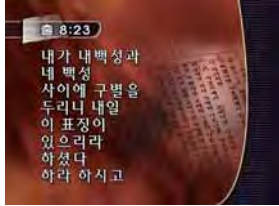
29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30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31

내가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 8: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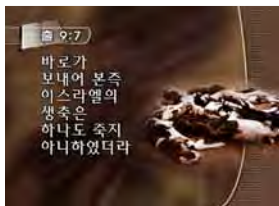
32

다음은 파리 재앙이 바로의 집을 덮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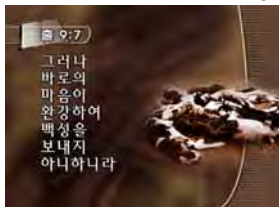
33

파리 다음은 이 온 땅에 최악의 피부 병이 덮쳐 모든 동물들에 번졌다. 이제야 바로는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히브리인들의 짐승들이 같은 재앙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모세의 예언대로 히브리 노예들의 짐승들은 보호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34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35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출 9:7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36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37

다음은 우박 재앙을 예고 했다.



38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동물을 보호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소식은 곧 전역에 퍼졌다. 많은 이집트인들은 그들과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 재앙은 미리 준비하여 보호하지 않은 사람과 짐승을 죽였다.



39

이제 이집트 인들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백성을 보낼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앙이 다시 멈추면 그런 생각은 이내 바뀌었다.



40

모세는 바로가 만약 이번에도 그 명령을 거절한다면 메뚜기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 더 이상의 재앙에 오싹함을 느낀 신하들은 노예들을 보낼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거절하였다. 그리고 예언대로 메뚜기 재앙이 내렸다.



41

그런 다음 3일 동안의 흑암, 그러나 반역적인 바로는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였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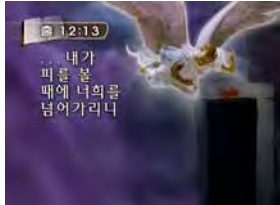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집트에 부여질 지금까지 없었던 끔찍한 재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파괴하는 천사가 이 땅을 통과하며 사람과 동물의 모든 초태생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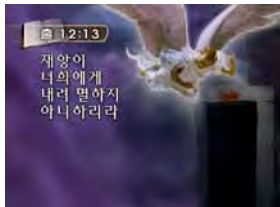
43

다시 히브리인들은 구분이 될 것인데, 그들이 단지 히브리인들이거나 고센 땅에 산다는 것 때문에 안전할 수는 없었다. 그 죽음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매 가정은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려 우슬초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44

...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45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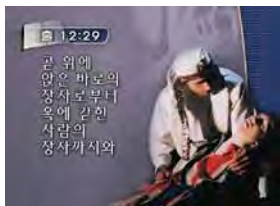
46

그 날에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가? 수 천의 히브리인들과 많은 이집트인은 아버지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받고, 우슬초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한 가지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 날 밤에 가장 예민하게 그 장면을 지켜 본 사람들은 곧 장자들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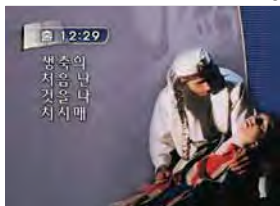
47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48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49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50

아몽든 그 날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 중에 그 재앙을 만나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었다.



51

온 광대한 이집트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는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52

...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출 5:2.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겸손히 두 히브리 형제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이끌고 떠나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53

하나님을 그분의 구주로 선택한 백성들은 한 밤중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떠날 준비를 완료하였다. 역사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시작했다!



54

그대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군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20세기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은 아마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



55

신약에서 우리는 지구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현저한 예언들을 접하게 된다. 이 예언들은 수정처럼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더 광대한 범위의 재앙이 이 땅에 내릴 것에 관한 것이다.



56

성경 예언에 의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데 열 재앙이 아니라 일곱 재앙이다. 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반역한 지구로부터의 구원이다.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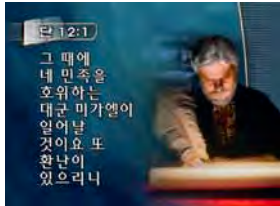
57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영광스럽게 구원되기 전, 그들이 당한 여러 고통들을 인내하며,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에 증인이 된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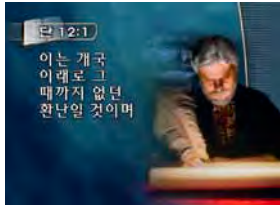
58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림 직전 악인들에게 내려질 일곱 재앙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니엘은 이 재앙의 기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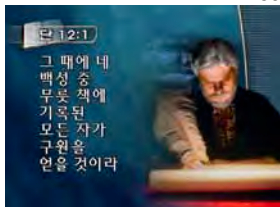
59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60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61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단 12:1



62

그 영원한 복음은 모든 세상에 외쳐질 것이다. 두 번째 천사의 바벨론에서 나오라 또는 거짓 예배 제도에서 나오라는 외침이 주어질 것이다. 또 모든 인간에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것이다.



63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64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4:9, 10.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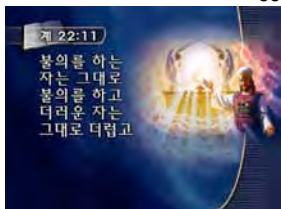
65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경고보다 더 엄청난 운명의 경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인간의 명령을 선택할 것인가?에 처할 것이다. 인간의 명령을 선택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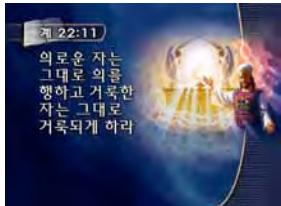
66

그 선택이 마쳐질 때, 시험의 문은 영원히 닫혀지게 될 것이다.



67

그 때에 이런 외침이 있을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68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69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마쳐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닫혔다. 이제 다니엘의 예언대로 지구의 거민들이 환란의 시기를 경험할 것이다.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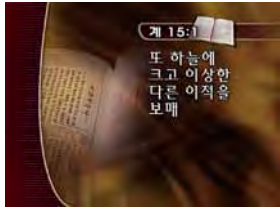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아직 세상에 둘 것이다. 그들은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지구에 있다. 그들은 재앙의 기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호함을 받는다. 하지만 그 재앙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의 시기가 될 것이다.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71

어떤 생생한 묘사도 이 시기 동안 지구에 있을 극심함을 결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컵을 마시게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분의 백성이 구원을 얻기 직전에 지구에 있을 환란을 이렇게 묘사한다.



72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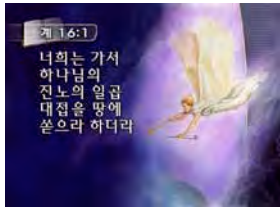
73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계 15:1. 다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다.



74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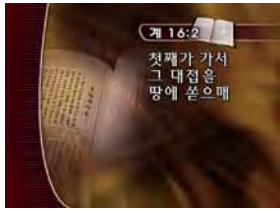
75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계 16:1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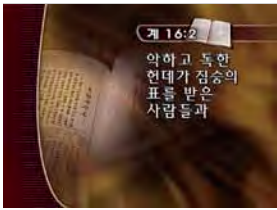
그렇다면 일곱 천사들에 의해 악인에게 부어질 재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재앙들에 대해 읽을 때, 이집트에 내렸던 유사한 재앙들을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천상에 대해 묘사하는 요한의 기록을 보자.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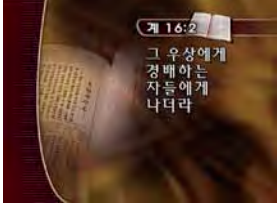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78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79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 16:2



80

아마 이것은 이집트에 내렸던 독종과 비슷할 것이다. 어쩌면 옴이 견뎌야만 했던 현대와 동일한 질병이 될 것이다.



81

그대는 이 재앙의 효과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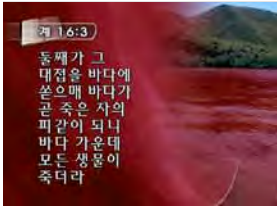
82

공장과 가게도 역시 문을 닫을 것이다.



83

병원들은 응급처치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분빌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 역시 동일한 질병으로 자신의 몸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재난이 엄습한다.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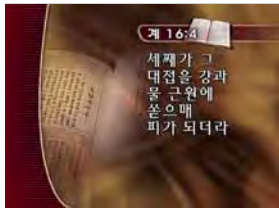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계 16:3



85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가! 바다의 모든 창조물들이 죽어 해변으로 떠오른다. 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해변으로 뛰쳐 나온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뒤를 잇는다.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86

세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계 16:4



87

생각해 보라! 한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 물컵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피로 바뀐다. 상상해 보라. 무엇이 이것 보다 더 끔찍할 수 있겠는가? 일곱 재앙이 내려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다.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한다.



88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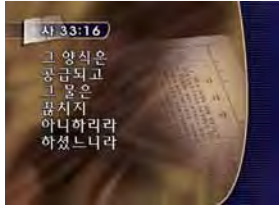
89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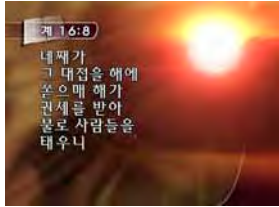
90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 16:5, 6. 갈증에 약인들이 마실 것이라곤 오직 피 밖에 없다. 신실한 길을 걸어 온 사람에게겐 약속이 주어진다.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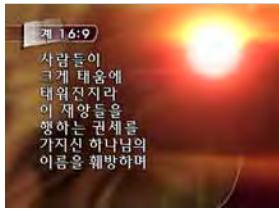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사 33:16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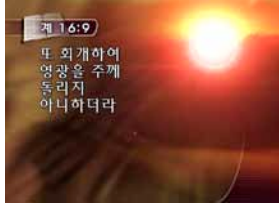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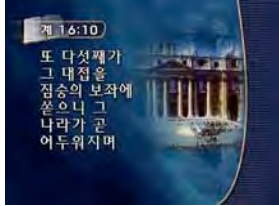
93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휘방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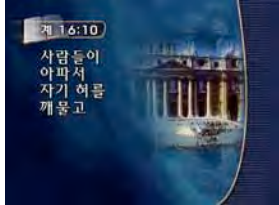
94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계 16:8, 9. 그런 다음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재앙을 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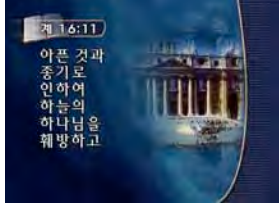
95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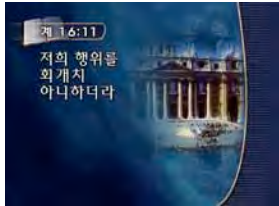
96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97

아픈 것과 중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휘방하고



98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 16:10, 1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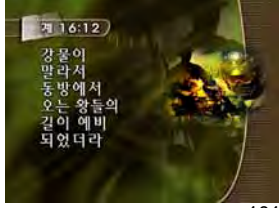
우리는 이런 재앙이 온 우주에 결코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과된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재앙들은 동시에 내린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재앙의 효과도 하나에서 그 다음으로 중과되어 넘어갔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최후의 대 쟁투에 관한 것이다.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100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101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02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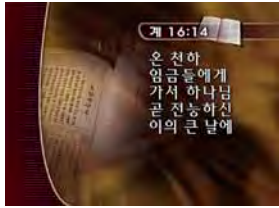
103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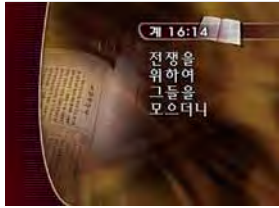
104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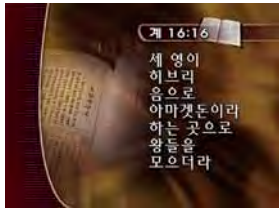
105

온 천 임금들에게 가서 나뭇가운데서 그들의 큰 날에



106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되 계 16:12-14. 그리고 계 16:16절엔 이렇게 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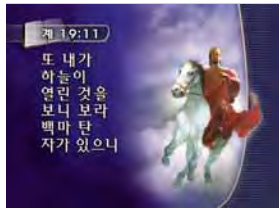


107

세 영이 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되 계 16:16절엔 이렇게 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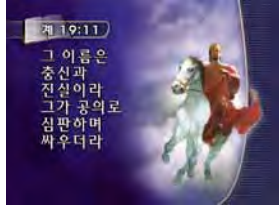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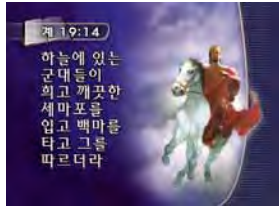
108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109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0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에게 쫓겨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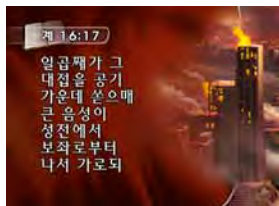
111

그의 입에서 이 검은 것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12

천지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천 나뭇 나무의 뿌리를 뽑겠고 계 19:11, 14, 15.



113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114

되었다 하니



115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 지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116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17

또 중수가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118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 여 나뉘어 곤방 니 그 재앙이 심 큼이러라 계 16:17-18, 20-21.



119

대부분의 자들은 달란트를 57파운드라 말 다. 이 엄청난 무게가 늘에서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상상 수 없다.



120

그러나 성경은 이 반역 지구로부터 나뉘어 친 그분의 백성을 구출 기 위 말을 타고 늘 군대와 께 오 신다고 말씀 신다.



121

그대는 이렇게 말 지도 모른다. 재앙이 내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보 을 실 입을 수 있을까? 방법은 오직 나다.



122

그대가 알다시 ,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를 그들의 집 문설 주에 발라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신뢰를 나타낸 것이다. 파괴 는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갈 때, 그들은 그 파괴로부터 안전 게 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 심을 따랐고 요 준비를 갖추었다.

## 23- 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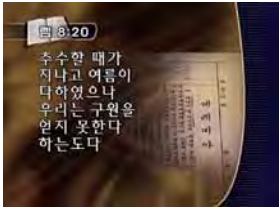
123

그래서 다시 말 건대, 만약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로서, 그리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 분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 수 있었다.



124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는 어느 편이 하나님의 편인지, 어느 편이 반역 천사의 편인지 늘 선택 고 있다. 친구여, 파괴 는 하나님의 천사는 그의 일을 시작 고 있다. 어쩌면 어느 편에 속 것인가를 선택 는 일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선택의 문이 이미 영원 닫 지고 있다.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의 로 보 을 받는 하나님 편에 두지 않겠는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슬 말 이 렘 8:20절에 기록되어 있다.



125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졌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 다 는도다



126

숲 끝에 집을 짓는 주의 별목 는 사람에게 대 이야기가 있다. 그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정이었다. 어느 날, 그가 일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127

그는 돌아와 불타 버린 그의 집 더미를 발견 고 그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타 버렸다. 단지 몇 조각의 나무와 철, 그슬린 기둥 몇 개 외에는 ... 그는 걸어 나가 닭들이 살던 타 버린 닭장을 살펴 보았다.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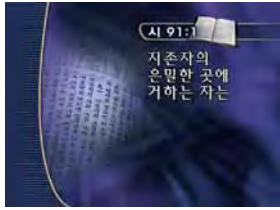
다 타 버린 재 더미 위에 오직 검게 그슬린 철사들만 나뒹굴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살폈다. 그런데 그의 발 앞에 눈에 띄는 무엇이 있었다. 그의 눈은 기슭에 타다 남은 두둑 닭 깃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슬쩍 찼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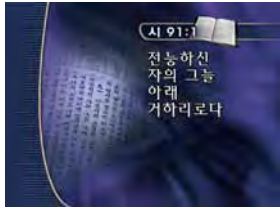
129

네 마리의 작은 별아리들이 기어 나왔다. 놀랍게도 사랑  
는 어미 닭의 날개 아래 보 되어 살았던 것이다. 성경 말  
씀이 이루어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나님은  
이처럼 모든 그분의 백성을 지구에 내리는 재앙으로부터  
보 려 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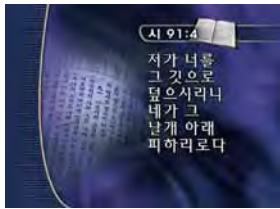
130

지존자의 은밀 곳에 거 는 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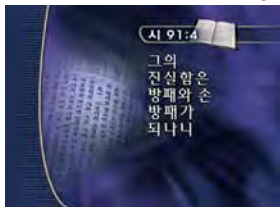
131

전능 신 자의 그늘 아래 거 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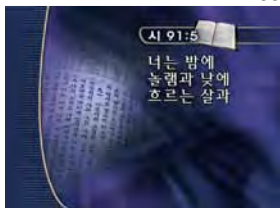
132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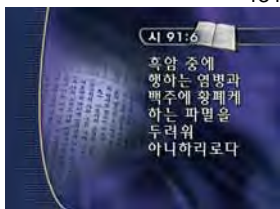
133

그의 진실 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시 91:1, 4.  
나님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 백성들에게 놀라운 신  
을 주신다.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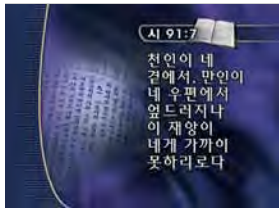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르는 살과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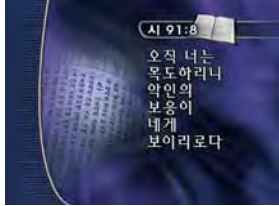
암 중에 는 염병과 백주에 폐케 는 파멸을 두려  
워 아니 리로다

## 23-다가오는 환란에서 살아 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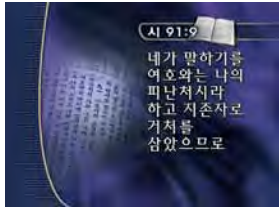
136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옆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 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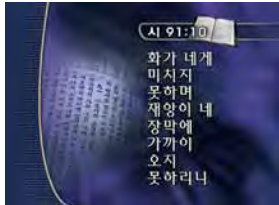
137

오직 너는 목도 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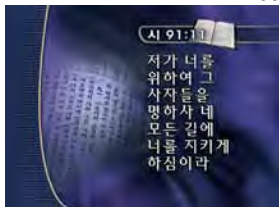
138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39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 리니



140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 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심이라 시 91:5-11.



141

이것보다 더 신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재앙이 시작될 때, 그 전능 신자의 날개아래 난처를 삼지 않겠는가? 어디에 숨을 것인가? 그대의 늘 아버지는 그대를 보 시길 원 신다. 그대의 늘 아버지는 란과 파괴의 시간에 그대를 구원 시길 원 신다.



142

그대가 그대의 생애를 그 분께 돌릴 때, 그분은 어미 닭이 그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대를 보 실 수 있으시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나님은 오늘 이 순간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 곡룡 선택을 여 영원 나님과 께 기를 원 신다. 나님은 그대의 선택을 대신 수 없으시다. 오직 그대 만이 그 선택을 수 있다. 기다리지 말라. 지금 선택 라.

# 24-마귀가 결박 됨



1

마귀가 더 이상 유희할 사람이 없을 때.



2

북극 탐험대가 험한 바위 섬 때문에 곤란한 상 에 처해 있었다. 그들의 식량은 신속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드디어 마지막 식사를 했다. 그들의 연료도 거의 바닥이 났다.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들은 거의 얼게 되었다. 최악의 상 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죽음이 엄습해 옴을 느꼈다. 망이 거의 거두어질 무렵



3

죽어 가는 한 대원이 지평선 너머에 피어 오르는 연기를 발견하였다. 누군가가 그들의 구조 전파를 받은 것이었다. 구원의 손길이 다가 오고 있었다. 지평선에 피어 오르는 연기는 그들에게 망을 안겨 주었다. 곧 그들의 그 악몽이 지났다. 그들은 구조대에 구조 되었고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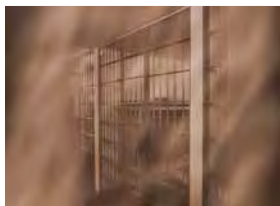
4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곧 우리 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의 긴 악몽이 끝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사단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며 사단은 무저갱에 갇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선고 받을 것이다.



5

(비디오: 13 초) 예나 지금이나 범죄의 악성을 알리기 위해 세상 법정에서는 종신형 또는 도저 채울 수 없을 만큼 긴 형을 선고한다. 이미 나이가 든 사람에게 99년은 그 이상의 형은 도저 채울 수 없는 형량임이 분명하다.



6

그러나 판사들은 사 에 특별한 범죄의 악성을 알리기 위해 그런 형을 언도하는 것이다.

## 24-마귀가 결박 됨



그런데 1000년 형이 언도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닫는가?

7



(본문: 계 20:1-3)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8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9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 하지 못하게 하다가

11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계 20:1-3

1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기만적인 범죄에 대해 취하실 계 을 엿볼 수 있다. 그 범죄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범죄자를 1000년 형에 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이 기간을 천년기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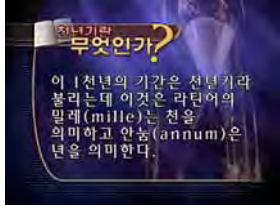
13

# 24-마귀가 결박 됨



14

천년기란 무엇인가?



15

이 1천년의 기간은 천년기라 불리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밀레(mille)는 천을 의미하고 안눔(annum)은 년을 의미한다.



16

예언은 우리에게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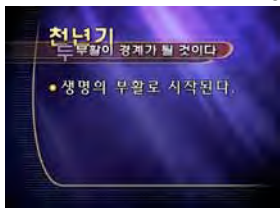
17

천년 동안 사단은 이 지구상에 감금될 것인데 천년이 지나서도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의 중요성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년기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마치게 될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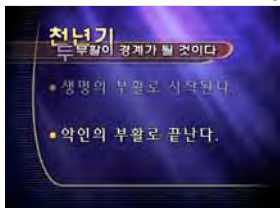
18

이제 이것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구분하려 한다. 이 천년기는 두 부류에 맞물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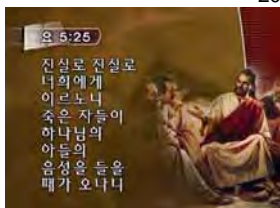
19

1) 생명의 부활은 이 기간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

2) 심판의 부활은 이 기간의 마침이 될 것이다.



21

(본문: 요 5:25)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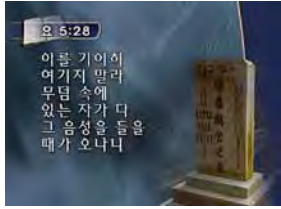


## 24-마귀가 결박 됨



22

진실로 진실로 너 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25. 그렇다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 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들만 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장 28절 2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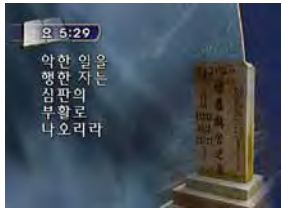
23

(본문: 요 5:28, 29)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4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 호 로



25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 호 로 나오리라 요 5:28, 29. 킹제임스 역



26

(비디오: 4 초) 두 부 호 를 주목하라. 첫째 부 호 은 선한 사람들의 부 호 이요, 두 번 째 부 호 은 심판의 부 호 이다.



27

첫째 부 호 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자.



28

(본문: 계 20:5, 6) ... 이는 첫째 부 호 이라



29

이 첫째 부 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30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로다 계 20:5, 6.



31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말한 것과 일맥 상통하다. 그가 재림을 묘사하는 것을 주목하자.



32

(본문: 살전 4:16, 17) 주께서 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33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34

그 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 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35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 17절.



36

아 얼마나 놀라운 부 에 대한 묘사인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 24-마귀가 결박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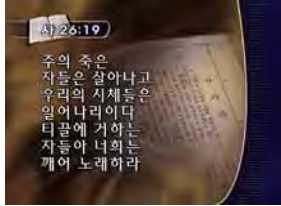
(본문: 요 11:25) ... 나는 부 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37



그렇다.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 그들의 무덤에서 부 할 것이다.

38



(본문: 사 26:19) 이사야는 이 즐거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 는 깨어 노래하라 사 26:19. 얼마나 영광스런 날이 될 것인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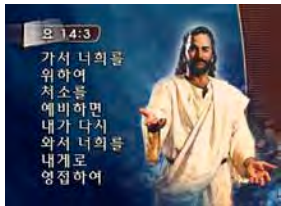
어머니들은 잃었던 아이들을 품에 돌려 받게 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아들과 딸이 아파와 엄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에는 어떻게 되는가?

40



(본문: 요 14:2, 3) ... 내가 너 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하러 가노니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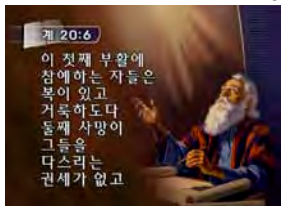
가서 너 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 를 내게로 영접하여

42



나 있는 곳에 너 도 있게 하리라 요 14:2, 3. 이곳이 우리가 천년기 동안 보낼 장소이다!

43



(본문: 계 20:6) 이 첫째 부 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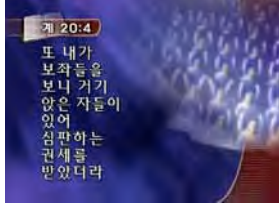
44

# 24-마귀가 결박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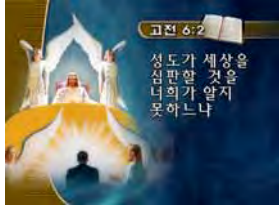
45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계 20:6.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요한은 다른 한 편에 있을 장면을 묘사해 준다.



46

(본문: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 20:4.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포함시키신다.



47

(본문: 고전 6:2, 3)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 가 알지 못하느냐



48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2, 3.



49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공평하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 천년 동안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불의 하시고 사랑이 없다고 말해 왔다. 천년기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타락한 천사들과 죄인들을 심판할 필요가 있는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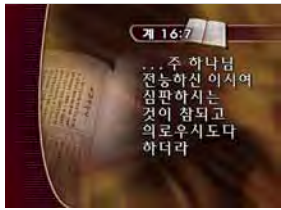
만약 그대 생각에 도져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람이 하늘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아마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51

천년기 동안 잃어버린 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극비로 취급된 비밀들과 마음 속에 품은 죄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드디어 만민에게 공개 될 것이다.

## 24-마귀가 결박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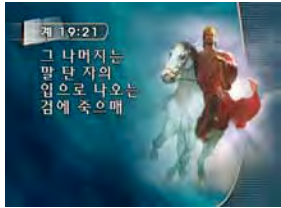
52

(본문: 계 16:7) ...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계 16:7



53

그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믿지 않은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스러울 것이다.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언급한다.



54

(본문: 계 19: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55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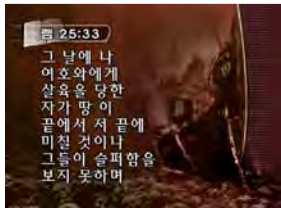
56

천사들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에 견딜 악인들은 아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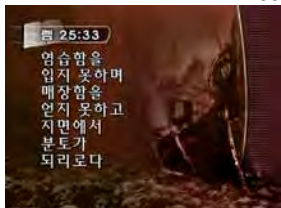
57

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로마의 군대는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쓰러졌었다.



58

(본문: 렘 25:33) 그 날에 나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보지 못하며



59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렘 25:33.

## 24-마귀가 결박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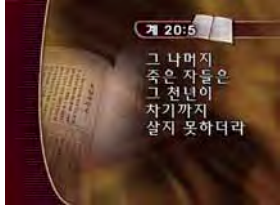
60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들은 부 하며 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61

그리고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광채에 쓰러진다.



62

(본문: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 까지 살지 못하더라



63

이제 퍼즐이 하나 하나 맞추어지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64

재림 시 있을 사건들



65

1.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마 25:31)



66

2.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살전 4:16)



67

3. 살아 있는 의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살전 4:17).

## 24-마귀가 결박 됨



68

4. 구원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본향으로 가며 1000년 동안 왕 노릇 한다(계 20:4, 6)



69

5.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영광으로 죽는다(렘 2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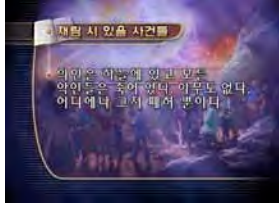
70

6. 악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죽은 상태가 된다(계 20:5)



71

7. 사단은 삼킬 자가 없는 이 지구상에 1000년 동안 감금 된다.



72

의인은 하늘에 있고 모든 악인들은 죽어 있다. 아무도 없다. 어디에나 그저 폐허 뿐이다. 렘 4:23-26.



73

이 지구는 사단의 감옥이 된다. 성경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표현한다. 어떻게 갇히는가? 1000년 동안 아무도 뺄 수 없는 경의 체인에 의해 사단은 감금된다.



74

지구에 사는 동안 사단을 따르던 자들은 재림 때 죽게 되거나 또는 1000년이 차기 까지 여전 무덤에 남아 있어야 한다.



75

구원 받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다.

# 24-마귀가 결박 됨



76

사단이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이제 6천 년 동안이나 그를 따랐던 그래서 그와 같이 악한 천사들 밖에 없다.



77

지구는 그를 위한 감옥이 된다.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통치권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통치자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78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잡고 그 위에  
인봉하여

(본문: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잡고 그 위에 인봉하여



79

계 20:3  
천년이 차도록  
다시 눈을  
미혹하게  
하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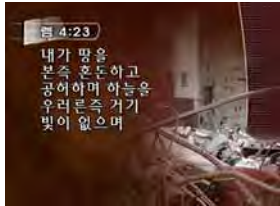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 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80

계 20:3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그 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무저갱에 대한 성경의 원래 단어는 란이란 뜻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81

렘 4:23  
내가 땅을 본즉  
공허하며  
우리가  
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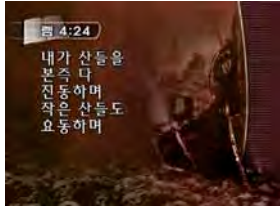
(본문: 렘 4:23)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렘 4:23



82

혼돈  
무저갱

세상은 혼돈 또는 무저갱이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상태의 지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자.



83

렘 4:24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요동하며

(본문: 렘 4:24, 25)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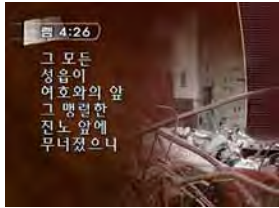
## 24-마귀가 결박 됨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렘 4:24, 25.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에 주목하라.



(본문: 렘 4:26) 내가 본즉 좋은 땅이 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6, 27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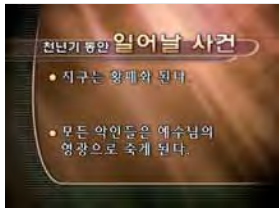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리 저리 배 할 것이다. 어둡고 폐허가 된 외로운 도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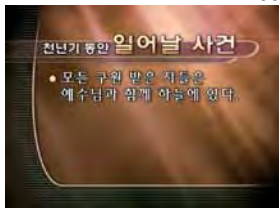
천년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복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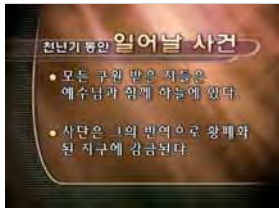
1. 지구는 폐 된다.



2. 모든 악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죽게 된다.



3. 모든 구원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92

4. 사단은 그의 반역으로 폐 된 지구에 감금된다.



93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표에 천년기를 두신 이유는 만약 사단과 그를 따른 천사들과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 동일한 선택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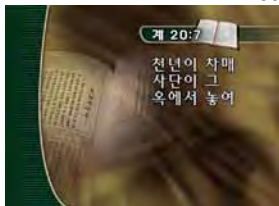
94

그들은 비록 그들이 1000 번의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 구원의 기회를 거절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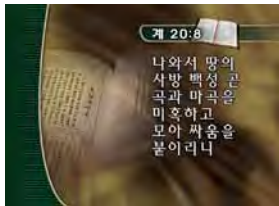
95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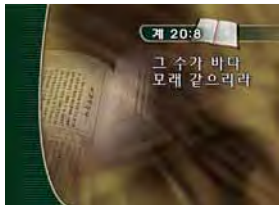
96

(본문: 계 20:7,8)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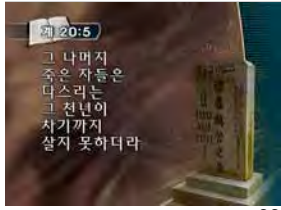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밟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98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계 20:8. 아마 그대는 이 싸움에 참여할 이 수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올 것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 24-마귀가 결박 됨



99

(본문: 계 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재림 전에 죽었던 악인들과 재림 시 구원 받지 못했던 악인들은 천년기가 끝날 때 심판의 부 을 할 것이다. 아담의 날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구원 얻지 못할 수 많은 백성이 부 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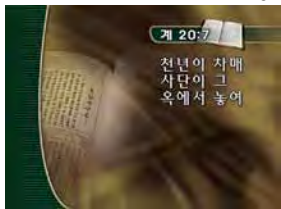


101

(본문: 계 20:8) ...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계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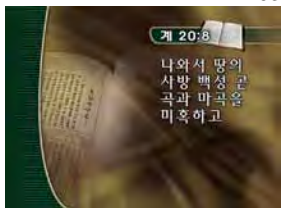


이와 동시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구원 받은 무리들과 함께 천년기 끝에 이 지구로 내려 올 것이다. 이 성은 사단의 분노의 타겟이 된다고 성경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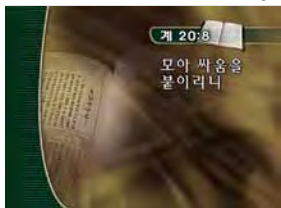
103

(본문: 계 20:7, 8)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104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 하고



105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계 20:7, 8.

## 24-마귀가 결박 됨



106

이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다시 악한 자들을 미 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한 치도 변 되지 않았다. 다시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사단을 선택한다. 그들은 다시 무장한 한 군대가 되어 강제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로 의 기투합한다. 이것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다. 강한 군 대, 반역한 천사의 지 아래 있는 이 군대는 진군한다!



107

성경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기록한다.



108

(본문: 계 20:9) 저 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109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를 소멸하고 계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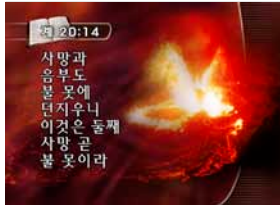
110

전쟁은 이미 끝났다. 성경은 이제 그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한다.



111

(본문: 계 20:10, 14, 15) 또 저 를 미 하는 마귀가 불과 유 못에 던지우니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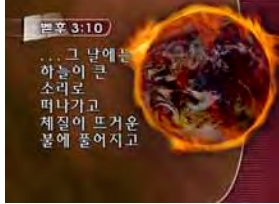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 24-마귀가 결박 됨



113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4, 15. 베드로는 이 불 못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



114

(본문: 벧 3:10) ...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15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 3:10.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죄인들은 영원 사라질 것이다.



116

그 영원 사라질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인해 슬퍼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117

(본문: 계 21:4) 하지만 복된 소식이 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118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4



119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기꺼이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준비한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악인들은 현재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담당해야 할 값은 엄청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길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 날이 속 올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너무 늦는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도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천년기 이 에 그대가 구원 받은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가장 실한 방법은 지금 그대의 마음과 뜻을 다 그 분께 드리는 것이다. 바로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다.



120

만약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온전 예수님께 드린다고 선택한다면 나는 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릴 것이다. 만약 그대의 생애에 문제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라. 만약 그대가 정복해야만 하는 습관이 있는가? 앞으로 나오라.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어떤 유 에 맞서 분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대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나는 1분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나오라. 지금 나오라.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1

하늘은 실제이다.



2

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해가 뒤덮은 도시에 살던 이 소녀는 한 번도 하늘의 별을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방학 때 어머니는 그녀를 시골에 데려 갔다.



3

해가 지고 별들이 밤 하늘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 어린 소녀는 놀라 밤 하늘을 바라 보았다. 그녀는 밤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에 압도 당했다. 그리고 혈떡거리며 말했다. 엄마, 시골 하늘이 이렇게 화려한데 우리가 살게 될 하늘 나라는 얼마나 더 화려할까!



4

(비디오: 5 초) 하늘이란 주제는 온 세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왔다. 하늘은 정말 어떤 곳일까? 도대체 하늘은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모습일까?



5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3개의 하늘, 심지어 7개의 하늘을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대가 죽을 때 하늘에 간다고 말하기도 한다.



6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대가 죽으면 연옥에 갔다 나중에 하늘에 간다고 말한다.



7

또 다른 어떤 이는 하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라 말한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혼란스럽다. 너무 의견이 분분하다.

8



왜 하늘에 대해 그렇게 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 주었는데.

9



사실 성경은 하늘에 관해 자세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알고 그곳에 가기를 결정하도록 하셨다. 하늘은 비밀스런 장소가 아니다. .

10



많은 큰 건물은 각 방마다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

11



그런데 그 건물 주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

12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를 벗기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 만능 열쇠는 곧 성경이다. 하늘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이 성경에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인간의 이론이나 의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늘이 정말 어떤 곳인가에 대해 혼돈할 필요가 없다.

13



사도 베드로는 이 지식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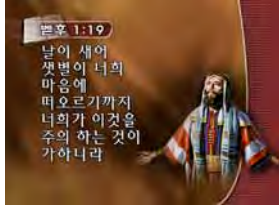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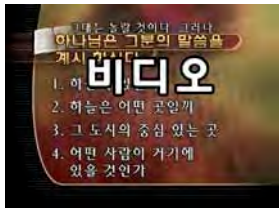
15

(본문; 벧후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16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 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



17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계시하셨다. 하늘은 어디에 있는지, 하늘은 어떤 모습인지. 그곳의 수도는 어디까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구원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수도는 어떤 모습인지.



18

이제 하나님의 만능 열쇠인 성경을 살펴 보고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 미래를 탐구해보자.



19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직접 요한에게 미래의 될 일을 계시하셨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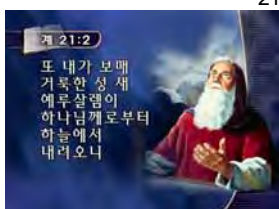
20

(본문: 계 21:1, 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1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23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1, 2



24

그 아름다운 장면은 마치 신부가 그녀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25

이 하늘 집은 요한만 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기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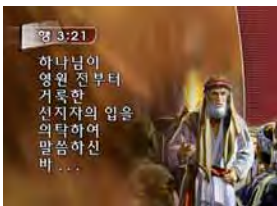
26

(본문: 행 3:20, 21)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7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8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행 3:20, 2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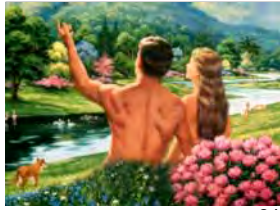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실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 시키실 것이다. 창조될 당시의 지구는 아름다웠고 완전하였고, 더 이상 어떤 묘사도 감당치 못할 정도였다.



30

창조주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장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31

그들은 완전한 건강, 사랑, 행복, 기쁨을 소유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었다. 모든 것은 평화로웠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결코 아픔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32

그분의 가르침은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33

그러나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다. 그들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보다 사단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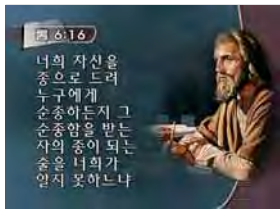
34

결국, 처음으로 그들은 죄책감을 느꼈고, 창피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 날은 지구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 되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에덴 동산, 지구 통치권, 생명 나무 등등. 그들은 결국 죽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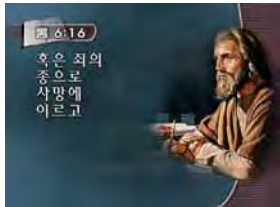
35

그들은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다. 그들의 행복,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 우리의 완벽한 세상은 죄악의 영향으로 변하였다. 지구는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엄습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고 종이 되었다.



36

(본문: 롬 6: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7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롬 6:16.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 하셨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희망 없는 자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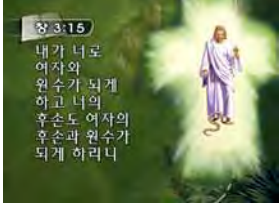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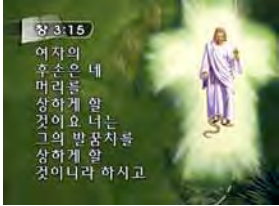
38

에덴의 문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구속주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가 와서 그들을 대속해 죽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약속 하셨다.



39

(본문: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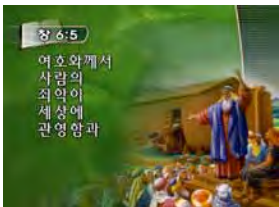
40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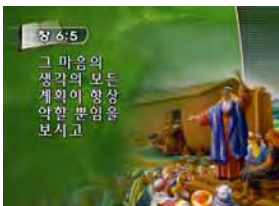
41

세대가 지나면서 인간이 지구에 번성함과 동시에 죄악이 증가 했다. 인류는 거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잊어 갔다.



42

(본문: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43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5



44

그래서 마침내 인간을 지구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대 홍수를 통해 악해진 인류를 멸할 필요가 있으셨다. 단 8명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대 홍수 이후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45

지구에 거룩한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가족을 우상과 죄가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내었다. 그의 가족이 만약 그 땅에서 함께 머문다면 의심할 것 없이 역시 타락할 것이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46

(본문: 창 12:1,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하셨다 ...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 할 땅으로 가라



47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2:1, 2.



48

아브라함은 그의 갈대아의 호화로운 집을 기꺼이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갈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끄실 것이었다.



49

(본문: 히 11:9, 10)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50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51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 11:9, 10.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땅을 주시마고 약속 하셨다.



52

각 시대를 통하여 선지자들은 그것을 믿고 모든 만물의 회복을 바랐다.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나열하신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53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벨, 이삭, 라합, 다윗,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이다.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주목하라.



54

(본문: 히 11:13, 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55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56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옵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 11:13, 16.



57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 중 가장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에 대하여 가장 긴박감 있게 묘사한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58

(본문: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59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7.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60

(본문: 사 60: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61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사 60:18



62

(비디오: 18 초) 만약 거기에 반역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단지 평화와 조화만이 있을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일 것인가? 우리를 보호할 어떤 핵무기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강도와 살인자도 없다. 금으로 장식된 대로, 강도와 살인이 엄습하지 않는 그 곳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다. 들어 보라.



63

(본문: 사 11: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64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사 11:6



65

원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된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성경의 기록에 좀 더 주목해 보자.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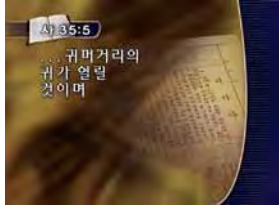
(본문: 사 33:24)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 33:24. 마음의 아픔도, 암도, 알레르기도 없다. 완전한 건강함이 영원할 뿐이다.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67

(본문: 사 35: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 사 35:5. 소경의 첫 번째 소원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눈먼 자들에겐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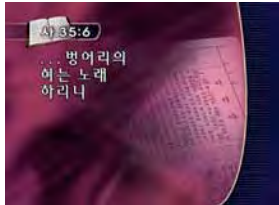
68

(본문: 사 35:5, 6) ...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 35:5



69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 사 35:6. 거기에는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다. 지팡이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건강함을 유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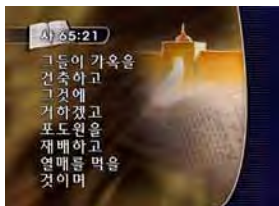
70

(본문: 사 35:6) ...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사 35:6. 그들은 말할 뿐 아니라 노래할 것이다.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될 것인가? 하지만 더 많은 놀라운 소식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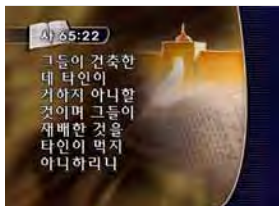
71

(본문: 사 35: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 35:1. 회복된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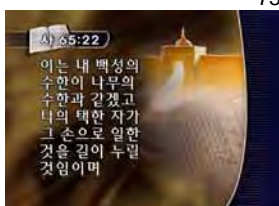
72

(본문: 사 65:21, 22)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73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74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 65:21, 22.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75

이것은 실제 하늘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가질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알 것이다.



76

사 66:2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본문: 사 66:22, 2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77

사 66:22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사 66:22.



78

사 66: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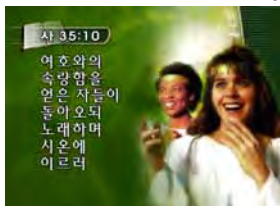


79

사 66:23

내 앞에 경배 하리라

내 앞에 경배 하리라 사 66:23. 새 하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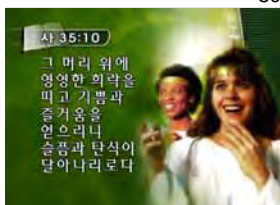


80

사 35:10

여호와 의 속량자들이 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본문: 사 35:10)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 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81

사 35:10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사 35:10.



82

구원 받은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거룩한 도성에 모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놀랍고 즐거운 예식이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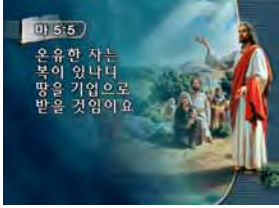
83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맨션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이 거기서 살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가 집을 지을 것이라 말한다. 아마 이것은 시골에 짓는 것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주중에는 시골에서 살고 매 주말은 도시의 맨션에 거할지도 모르겠다.



84

(비디오: 7 초) 성경에 나타난 하늘의 그림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지구, 반역하고 죄로 더럽혀진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놀랄지 모르지만 이 지구는 구원 받은 무리가 거할 미래의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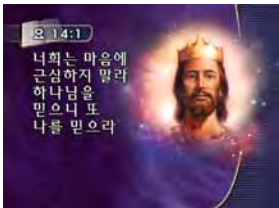
85

(본문: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하나님은 창조 당시의 완전한 모습으로 지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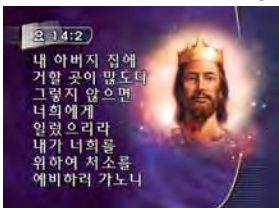
86

아마 그대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직전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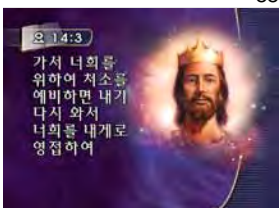
87

(본문: 요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88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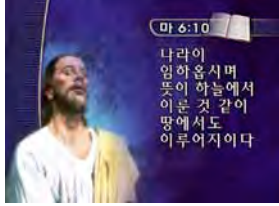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90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91

(본문: 마 6:10)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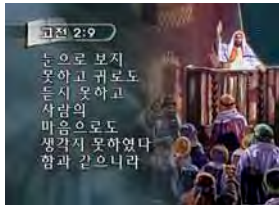
92

이제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계시에서 나타난 도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선지자는 자신이 본 거룩한 도성의 웅장함을 묘사할 말을 찾기에 고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93

(본문: 고전 2:9) ...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94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그러나 잠시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구절은 간과한다.



95

(본문: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96

그대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이것들을 보이셨고 그들은 우리에게 글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아직 절반도 다 말하지 않으셨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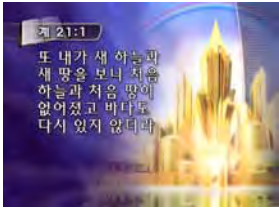
97

친구여, 절반도 다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요한이 거룩한 도성의 자세한 것을 펼칠 때, 그것은 너무 너무 놀라워서 사실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나라를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여기 요한이 본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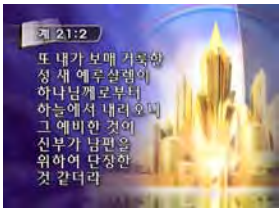
98

(비디오: 11 초) 요한은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새 거룩한 도성이 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도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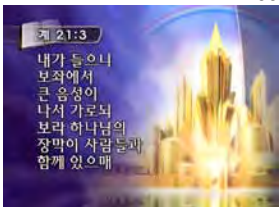
99

(본문: 계 21:1-3, 11, 17, 2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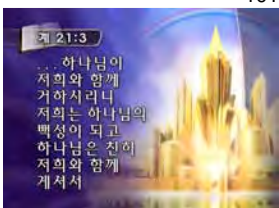
100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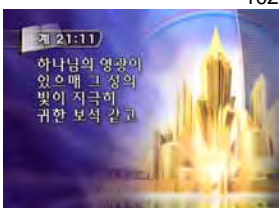
101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102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3.



103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계 21:11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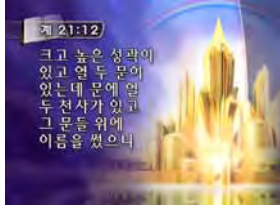
104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 사십 사 규빗이니(66미터) 17절



105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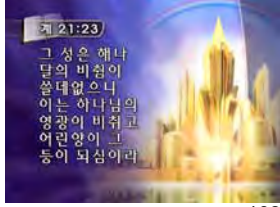
106

(본문: 계 21: 12, 13, 23)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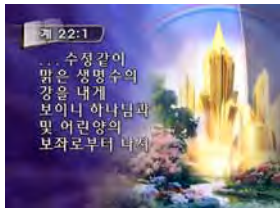
107

...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1 절.



108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23 절.



109

(본문: 계 22:1, 2, 5) ...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110

...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111

다시 밤이 없겠고... 계 22:5.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될 것이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112

(본문: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계 22:3.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계 21:4절에 나타나 있다.



113

(본문: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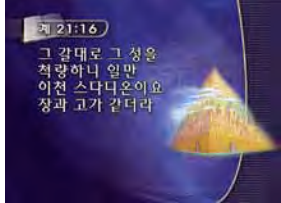
114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라 계 21:4. 아마 그 도성이 얼마나 큰지도 궁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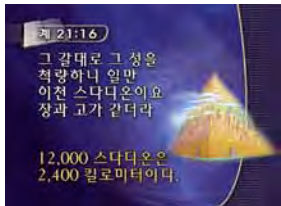
115

(본문: 계 21:16) 요한은 그 도성의 정확한 크기를 보여 준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116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계 21:16



117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더라 고대 도시는 도성의 성곽의 길이로 측량되었다. 그 성은 넓이와 길이가 거의 600km가 되었다. 이 성이 구원 받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118

토쿄는 거의 3천 5백 만이 살고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119

거대한 뉴욕 시에 2천 만이 넘는 인구가 산다.



120

서울과 멕시코 시는 거의 2천 만이 산다.



121

한 수학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20억의 인구가 살수 있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있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122

(비디오: 15 초) 범죄 없고, 아픔 없고, 질병과 배고픔이 없는, 단지 평화와 조화가 영원히 없는 곳! 우리는 거기서 꿈 같은 집을 짓고, 우리의 정원을 짓고 가꾸는 등의 많은 일을 할 것이다.



123

예수님, 창조주는 창조적 신비를 우리에게 펼치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주를 여행할 것이다.



124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사들과 노래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대는 또 물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갈 지 어떻게 확신 할 수 있지? 대답은 간단하다. 성경, 우리의 만능 열쇠는 이렇게 말한다.



125

(본문: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9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126

다른 말로 하면, 만약 그대가 예수님을 그대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동일하게 그대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127

성경의 첫 3 장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세상과 낙원을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기록한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128

성경의 마지막 3 장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가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내일은 곧 사실로 다가올 것이다.



129

수 년 전에, 양을 운반하던 한 선박이 북해에서 항로를 잃어버렸다. 이 배는 3일 동안이나 표류를 계속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양들은 먹는 것을 거절 하였다. 그 양들은 배의 귀퉁이를 배회하며 울어댔다. 그들은 계속해서 울어댔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 일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의문을 가졌다. 곧 안개가 지나갔다. 그 보트는 스코틀랜드 해안에 다가가 있었다. 그 배들은 스코틀랜드의 땅에서 풍겨 오는 신선한 풀 냄새를 맡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래서 마른, 오래된 먹이를 거절한 것이다.



130

(비디오: 7 초) 하늘 냄새를 맡을 때, 우리의 우선 순위는 수정될 것이다. 영원의 냄새를 맡을 때, 모든 것은 제 위치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해변에 다다르길 원한다. 하늘 본향에 대한 향수 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그대는 하늘에 있기를 갈망하는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가?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131

(본문: 계 22:17) 하나님은 그대를 초청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계 22:17.



##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



132

그냥 지나치니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분을 그대의 마음에 모시라. 하늘은 그대의 집이 될 것이다!

25-아직 최상의 것이 더 남아 있다.